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 文學碩士 學位論文

#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과 『左傳』 인식

2022年 2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文學專攻 尹 む 舎

#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과 『左傳』인식

指導教授 柳 浚 弼

>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文學專攻 尹 한 舎

尹한舎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2022年 1月

委員	員長	(印)
副委	員長	(印)
委	員	(印)

# [국문초록]

본 논문은 宋代 呂祖謙이 저술한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과 『左傳』인식을 분석하여 呂祖謙의 『東萊博議』 저술 목적을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呂祖謙은 『東萊博議』의 自序 첫 부분에서 저술 목적을 유생들의 과거시험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自序의 중반부에서 과거시험을 媒婆로, 유생을 郵遞夫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東萊博議』의 저술 목적이 단순히 유생들의 과거시험 준비를 돕는 것에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본고는 『東萊博議』의 독자와 저자를 구분하고 『東萊博議』를 읽은 독자가 얻을 효용과 『東萊博議』를 쓴 저자가 얻을 효용을 구분하였다. 이에 전자와 관련한 저술 목적을 표면적인 것으로, 후자와관련한 저술 목적을 내면적인 것으로 보고, 본고는 呂祖謙이 직접 밝히지않은 내면적인 저술 목적을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에 본고는 우선『東萊博議』의 宋代부터 淸代까지의 판본별 간행 양상 및 체례를 분석하여 표면적인 저술 목적인 과거시험 준비서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용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용 양상과 呂祖謙이 『東萊博議』를 저술한 내면적인 목적 간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과 『左傳』 인식이라는 두 방 향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문장 작법을 분석하기 위해 168편에서 다룬 논의 대상·태도·핵심어를 기준으로 삼아 표로 제시하고,「鄭伯朝桓王」 편에서 呂祖謙이 직접 『東萊博議』의 문체로 밝힌 論事體에 대해 분석하였다. 論事 體란 사실을 서술하는 敍事와 달리 드러나지 않은 이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鄭莊公共叔段」,「宋穆公立殤公」,「羽父弑隱公」 등의 세 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東萊博議』 본문의 서술 방식을 추출하였다. 또 168편과 86편의 내용 차이를 전반부·중반부·후반부로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고, 대표적인 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전반부 및 후반부의 삭제가 전체 주제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東萊博議』 속 『左傳』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宋代의 과거 제도를 파악하였다. 당시에 『左傳』은 독자적으로가 아닌 『春秋』와 결합된 『春秋左氏傳』의 형식으로 존재했고, 『公羊傳』이나 『穀梁傳』보다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제도에서의 위상과 달리 宋代의 학술 흐름 속에서는 傳을 버리고 經을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했고, 『春秋』와 『左傳』의 관계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러내는 경향도 존재했다.

呂祖謙은『東萊博議』168편 중 22편에서『左傳』의 서술자인 左氏에 대해서 이치를 잘 드러낸 경우는 긍정하고 드러내지 못한 경우는 비판하는 방식으로 논평하고 있다. 본고는 해당 22편을 左氏의 敍事‧間接論事‧直接論事로 구분할 수 있음을 밝히고 각 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呂祖謙이 문제로 삼은 부분이 左氏가 이치를 잘 드러냈거나 드러내지 못했다고 여기는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고는 呂祖謙이『東萊博議』에서『左傳』을 소재로 삼아 의론한 것이 宋代의 과거제도와 학술 흐름에서의『左傳』수용 양상의 차이에 있다고 추론하였다. 그가『東萊博議』를 저술한 내면적인 목적은『左傳』의 일부분에『春秋』라는 聖人의 經典에 버금가는 이치가 들어있음을 규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春秋』와『左傳』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이는 뒤에 간행된 陳德秀의『文章正宗』이『左傳』을『春秋』와 구분하여『公羊傳』・『穀梁傳』과 연결한 것과 차이가 있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東萊博議』의 작문 방식과 『左傳』 인식에 대한 기본 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呂祖謙의 『左傳』 인식 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번: 2018-29002

주요어: 呂祖謙, 『東萊博議』, 『春秋左氏傳』, 문장 작법

# 「목 차」

【국문	<u>-</u>  소록]	·· i
1. 서	론	··· 1
1.1	. 문제 제기	1
1.2	. 선행 연구	4
1.3	. 연구 방법	19
2. 『J	東萊博議』판본의 간행 양상 및 체례	· 22
2.1	.『東萊博議』판본의 간행 양상	22
	.『東萊博議』의 판본별 체례	
3. <sup>[]</sup>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 및『左傳』인식 분석	· 35
3.1	.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	35
	3.1.1. 『東萊博議』본문의 제재	·· 41
	3.1.2. 『東萊博議』 본문의 서술 방식	44
	3.1.3. 『東萊博議』본문의 문장관	60
	3.1.4. 『東萊博議』 合本과 選本의 본문 구성 비교	63
3.2	.『東萊博議』의『左傳』인식 분석	73
	3.2.1. 송대 과거제도에서의『左傳』수용 양상	73
	3.2.2. 『東萊博議』의 『左傳』 인식	
	3.2.3. '左氏'의 敍事에 대한 관점	
	3.2.4. '左氏'의 간접 論事에 대한 관점	
	3.2.5. '左氏'의 직접 論事에 대한 관점	

4. 결론 ···································
【참고문헌】 145
[부록 1]『說文通訓定聲』「自敍」譯注148
[부록 2]『文章正宗』의 綱目 번역149
[부록 3]『東萊博議』合本과 選本의 본문 구성 분석 152
【中文摘要】177

# 「표 차례」

「표 1.1」『東萊博議』선행 연구의 본문 인용 편목18
「표 2.1」 중국에서 간행된 시기별『東萊博議』 판본 목록 23
「표 2.2」조선에 수용된『東萊博議』주요 간본 목록24
「표 2.3」대표 기사의 시기별 분표_全本 계열 25
「표 2.4」대표 기사의 시기별 분표_選本 계열26
「표 2.5」『東萊博議』合本·選本·馮泰松本의 편명 비교 ······· 33
「표 3.1」『東萊博議』본문의 구성_合本과 選本 기준41
「표 3.2」『東萊博議』「鄭莊公共叔段」(1) 편의 구성 47
「표 3.3」『東萊博議』「宋穆公立殤公」(4) 편의 구성 52
「표 3.4」『東萊博議』「羽父弑隱公」(18) 편의 구성 58
「표 3.5」『東萊博議』본문의 구성 60
「표 3.6」『東萊博議』「鄭伯朝桓王」(11) 편의 구성 60
「표 3.7」合本을 기준으로 選本에서 삭제된 부분
「표 3.8」「鄭莊公共叔段」(1) 편에 대한 合本과 選本의 차이 69
「표 3.9」「宋穆公立殤公」(4) 편에 대한 合本과 選本의 차이70
「표 3.10」「羽父弑隱公」(18) 편에 대한 合本과 選本의 차이72
「표 3.11」『東萊博議』에서『左傳』의 서술에 대해 논평한 문장 83
「표 3.12」 여조겸이 문제로 삼은 발화의 실질적인 주체를 기준으로 한 구분 89
「표 3.13」 '左氏'의 敍事가 논평의 대상이 된 경우의 인식 90
「표 3.14」'左氏'의 敍事에 대한 비판
「표 3.15」'左氏'의 敍事에 대한 긍정99
「표 3.16」'左氏'의 간접 論事가 논평의 대상이 된 경우 105
「표 3.17」'左氏'의 직접 論事가 논평의 대상이 된 경우 112
「표 3.18」'左氏'의 직접 論事에 대해 긍정한 경우114
「표 3.19」'左氏'의 직접 論事에 대해 비판한 경우 124

# 1. 서론

### 1.1. 문제 제기

『東萊博議』는 呂祖謙이 乾道四年(1168)에 저술한 168편의 문집으로, 『東萊博議』라는 서명은 東萊라는 여조겸의 號와 博議라는 글의 성격을 알려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서명에서는 무엇을 소재로 삼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東萊博議』라는 서명이 원래의 서명이 아닌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宋代 판본의 서명은 『增註東萊先生左氏博議』인데』, 增註라는 단어는 주석을 추가했다는 의미이므로, 원래의 서명은 『東萊

<sup>1)</sup> 慈波(2016) 「吕祖谦『左氏博议』版本源流述考」,『浙江社会科学』 8, p.133. 본고의 2 장에서 상술하겠지만, 『東萊博議』는 판본이 다양하고 판본별 체례 또한 다양하다. 크게 168편의 全本과 86편의 選本, 이 둘을 종합한 合本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제 일 상세한 合本을 저본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태현 · 김병애 (2012:2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合本인 명대의 『新刊詳增補註東萊先生左氏博 議』本은 국내 國立中央圖書館에 일부만 소장되어 있어서 원본을 저본으로 삼을 수 없었다. 이에 국내에서 확인 가능한 일부 원본과 『譯註 東萊博議 1~5』의 원문 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했고, 中國基本古籍庫에서 제공하는 四庫全書의 『左氏博 議』를 대조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이하 정태현·김병애(2012)와 같은 방식으로 표 기하고, 원문과 번역문은 이 책을 저본으로 삼아 필요에 따라 수정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정태현·김병애 釋註(2013) 『譯註 東萊博議 2』, 정태현·김병애 釋註 (2018) 『譯註 東萊博議 3』, 정태현·김병애 釋註(2020) 『譯註 東萊博議 4』, 정태 현·김병애 釋註(2021)『譯註 東萊博議 5』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全本'이라는 명칭은 慈波(2016:133-137)를 따른 것이고, 해당 연구에서는 86편 『精選東萊先生左 氏博議句解』本의 명칭을 따서 '句解本'으로 정했으나, '全本'이라는 명칭과의 통일 성을 위하여 '選本'으로 본고에서는 설정하였다. 국내에서는 '簡略本'이나 '縮約 本'으로 불리는데, 문장의 길이와 篇 數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명칭으로 보인다. 그러나 86편 판본의 주석이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라는 명칭에서 보이듯이 더욱 상세하므로 '簡略本'이나 '縮約本'으로 정하기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하여 '選本'으로 정한 것이다. '合本'은 '全本'과 '選本'을 종합한 것이 라는 특징에 주목하여 정하였다.

先生左氏博議』로 볼 수 있다. 이는 自序의 처음에 "『左氏博議』는 학생들의 과거시험을 위해 지은 것이다.2)"라고 밝히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원래의 서명에서는 『左氏傳』을 소재로 삼은 것을 밝히고 있다.

서명에서 이렇듯 소재를 알려줬다면 自序에서는 『左氏傳』을 소재로 삼은 이유가 서술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自序는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左氏博議』는 학생들의 과거시험을 위해 지은 것이다. 처음 내가 東陽의 武川에서 은거하고 있을 때, 위를 보면 숲이요 아래를 보면 계곡이라서 문을 나와 멀리 바라봄에 눈을 다해도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거주한 지 반년이 지나자 마을에서 조금씩 쑥과 명아주의 풀을 헤치고 나와 교류하였다. 여러 말을 나누는 사이에 (화두가) 과거시험의 문장에 이르렀기에 내가 그들의 筆端을 도울 수 있을 것을 생각하여 『左氏傳』의 治亂得失의 사적을 취하고 그 說을 아래에 풀이하였다. (… 중략 …) (글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니흩어져서 회수할 수가 없었다.

②客이 간혹 내가 그 글에서의 말을 쉽게 했다고 나무라거늘 내가 다음과 같이 천천히 대답하였다. "그대도 이웃 사람이 의원을 찾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깊게 숨은 고질병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거늘, (이웃 사람은) 그것을 大路에 게시하여 오직 행인이 보지 못할까 본 자가전파하지 않을까를 걱정하니, 저 이웃 사람이 어찌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잊은 것이겠는가? (… 중략 …) 나는 무리에서 떨어져서 홀로 산 지 몇 년이되었다. 지나쳐도 아무도 나를 보완해주지 않고, 넘어져도 아무도 나를 잡아주지 않고, 心術의 어긋남과 見聞의 그릇됨이 있어도 아무도 나를 바로잡아주지 않았다. 다행히 이 책을 기대어 마음에 보존하고 지키고 알고 익힌 것중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붓을 따라서 다 드러내어 남겨두거나 쌓아둔 것이 없게 하였다. 또 다행히 과거시험을 빌려 媒婆로 삼고, 유생을 빌려 郵遞夫로 삼아서 여러 公長한 이들의 곁에 두루 전했으니, 혹자는 궁휼히 여겨 깨우쳐줄 것이고, 혹자는 화가 나서 꾸짖을 것이고, 혹자는 업신여겨서

<sup>2)</sup> 정태현·김병애 釋註(2012)『譯註 東萊博議 1』, 傳統文化研究會, p. 31. "左氏博議者, 爲諸生課試之作也."

<u>꾸짖을 것이다. 한 마디 말을 들으면 한 가지 병이 치료되니,</u> (… 중략 …) <u>나에게 어찌 손해가 되겠는가</u>?" 마침내 말을 차례대로 서술하여 이 책을 보 는 자에게 알린다.

③<u>무릇 『春秋』 경문의 뜻은 대략이라도 감히 참람하게 의론하지 않았고</u> (『左氏傳』의) 지엽적이고 혹 같은 말(에 대해서 의론한 것)은 擧子가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데 보탬을 주고자 함이다.3)

①은『東萊博議』의 저술 목적과 저술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여조겸은 유생들의 과거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서 『左氏傳』을 소재로 하여 글을 써서 배포한 것이다. ② 역시 저술 동기에 관한 부분이나 ①에서 밝힌 저술 동기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독자와 저자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은 『東萊博議』를 읽을 독자가 얻을 효용을 기준으로 설정된 목표와 동기에 관한 부분이다.

이러한 차이를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②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는 본인의 생각을 다 드러내어 문제점을 지적받아 개선하기 위해 『東萊博 議』를 작성했고, 이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과거시험과 이를 준비하 는 유생에게 적합한 형식을 취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그가 ① 에서 밝힌 저술 목적과 동기는 표면적인 의도이고, ②에서 밝힌 저술 목적 과 동기가 진정한 의도에 가깝다.

여기에서 가깝다고 표현한 것은 ①과 달리 소재로 삼은 『左氏傳』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③을 보면 그는 『春秋』 경문을 의론하는 것은 참람한 행위이므로 의론의 대상에서 제외했고, 『左氏傳』의 지엽적이고 혹 같은 말을 의론의 대상으로 정했으며 그 목적은 과거시험 준비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②에서 밝힌 저술 목적 및 동기와는 연결이 부자연스러우며 오히려 ①과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에서 ③까지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두 가지 의문이 들게 되는데, 첫 번째는 『東萊博議』의 정체성이 ①과 ③에서 밝혔듯이 과거시험 준비서인지아니면 ②에서 밝혔듯이 본인의 사상이 담긴 의론서인지다. 두 번째는 의론의 소재로 과거시험의 출제 범위 중 『左氏傳』을 소재로 삼은 이유이다. 세번째는 『左氏傳』을 소재로 삼았음을 언급하면서 『春秋』를 제외한 사유를 밝히고 『左氏傳』에 대해서는 지엽적이고 혹 같은 말이라고 평가한 이유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自序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고는 『東萊博議』의 형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밝히고자 한다. 다만이에 앞서 기존의 연구에서 『東萊博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설명하겠다.

### 1.2. 선행 연구

『東萊博議』에 대한 선행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학위 논문은 각각 세 편과 한 편이고, 학술지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경우 학위 논문은 과거시험 준비서로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한 논문과 史鑑 사상이라는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한 논문, 理·史·文의 세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한 논문이 한 편씩 있고4), 기존 학술지 논문은 크게 『春秋左氏傳』이라는 소재5),

<sup>4)</sup> 许庆江(2007)「吕祖谦『左氏博议』研究」,北京师范大学 碩士學位論文; 刘雅静(2014), 「吕祖谦史鉴思想研究:以『东莱博议』为中心的探讨」,曲阜师范大学 碩士學位論文; 马晨唯(2019),「『东莱博议』:以科举教材为中心的研究」,安徽师范大学 碩士學位論

의론한 내용의 독창성6), 과거시험 준비서로서의 작문 기법7), 판본의 간행 양상8) 등의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학위 논문은 『東萊博議』를 한문 교육의 교재로 사용하는 방 안에 대해 논의한 한 편이 있고9, 기존 학술지 논문은 조선에서의 수용10, 인물론11), 춘추학12) 등의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의 논문부터 시간순으로 먼저 살펴보겠다.

陈守富(1988)는 『東萊博議』의 문장기법을 9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법에 대해 대표적인 한 편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다. 『左傳』 원문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포착하여 추론하는 방식인 "無中生有法"에서는 「隱公問羽數」편을 예시로 들고 있고, 핵심이 되는 한 글자로 연결점을 삼는 방식인

文. 许庆江(2007)의 경우 马晨唯(2019:3)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 도서관 학술 DB 및 구글스칼라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음.

<sup>5)</sup> 张卫中(1992)「吕祖谦『左传』研究论析」,『绍兴师专学报』 1, pp.60-67; 张卫中(1992) 「吕祖谦『左传』研究论析(续)」,『绍兴师专学报』 2, 61-67; 朱宏秋(2009A) 「论吕祖谦『左传』学之经传观」,『河南图书馆学刊』 29, pp.125-128; 朱宏秋(2009B) 「浅论吕祖谦『左传』学之理说与心说」,『黄河科技大学学报』 11, pp.56-58.

<sup>6)</sup> 陈守富(1990),「『东莱博议』及其评点本」,『四川大学学报』 4, pp.53-39; 孙巧云(2014) 「吕祖谦『左氏博议』中的君子修身论」,『晋中学院学报』 31, pp.64-68; 程小青(2014) 「从『左氏博议』到『左氏传说』」,『福建工程学院学报』 12, pp.116-120; 彭洋(2020)「吕祖谦的社会控制思想研究:以『东莱左氏博议』为例」,『西部学刊』 5, pp.132-134; 陈璋(2020)「『东莱博议』中的理学思想」,『朱子文化』 1, pp.37-38.

<sup>7)</sup> 陈守富(1988) 「『东莱博议』的文章技法」, 『阜阳师范学院学报』 4, pp.42-49; 罗莹 (2011) 「论吕祖谦『东莱博议』的文学示范意义」, 『唐都学刊』 27, pp.92-95.

<sup>8)</sup> 慈波(2016:133-137); 胡培培(2019) 「吕祖谦『左氏博议』的文本研究: 以明正德安正堂刻本为中心」、『温州大学学报』19, pp.78-83.

<sup>9)</sup> 정미선(2019)「『東萊博議』를 활용한 한문과 교재 개발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sup>10)</sup> 백진우(2014)「조선시대 지식인들의『東萊博議』수용의 의의」,『한국한문학연구』 54집, pp.173-208.

<sup>11)</sup> 이재하(2008)「『東萊博議』와 齊桓公論」, 『중국학』30집, pp.233-258.

<sup>12)</sup> 양승이(2013) 「呂祖謙의 『東萊博議』 「鄭伯克段於焉」을 통해 본 춘추학」, 『인문과학』 52집, pp.179-199.

"擒定一字法"에서는「鄭伯克段於鄢」편을 예시로 들고 있고, 핵심이 되는 한 구절을 근맥으로 삼는 방식인 "一句筋脈法"에서는「宋昭公子武氏族」편을 예시로 들고 있고,『左傳』원문에서 문제 삼은 구절을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千箭穿的法"에서는「鄭伯侵陳」편을 예시로 들고 있고,『左傳』원 문과 관련된 일반론으로 본문을 시작하여 더 깊은 의미를 도출해내는 방식인 "主意盤旋法"에서는「盟會聘享失禮」편을 예시로 들고 있고,『左傳』원문 속 문제로 삼은 인물의 내면을 폭로하는 방식인 "敲髓誅心法"에서는「鄭厲公殺傅瑕原繁」편을 예시로 들고 있고, 변증하여 응용하는 방식인 "辨証騰挪法"에서는「虞叔伐虞公」편을 예시로 들고 있고,『左傳』원문 속 핵심 사건은 피하고 '左氏'의 논평을 문제로 삼는 "避實擊虛法"에서는「宋華耦辭宴」 편을 예시로 들고 있고, 기준을 세워서 비교하여 대상의 잘못을 섬세하게 제시하는 방식인 "立標比量法"에서는「楚文王寵申侯」편을 예시로 들고 있다.

「隱公問羽數」편,「宋昭公子武氏族」편,「鄭伯侵陳」편,「盟會聘享失禮」편 등의 편명으로 판단했을 때 본고의 2장에서 제시할 選本의 편명임을, 또「鄭伯克段於鄢」편의 편명으로 판단했을 때 청대의 選本의 편명임을 확인할 수있다. 즉 해당 논문은 86편의 청대 選本을 저본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陈守富(1990)는 청대의 朱張刊本을 저본으로 삼아 朱書와 張文炳의 서문 내용을 바탕으로 "假文喩法", "法貴反經", "反經之法", "法的反思"라는 네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假文喩法"은 글을 통해 깨우침을 준다는 뜻으로, 『東萊博議』의 작문 기법뿐만이 아니라 담고 있는 내용 또한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法貴反經"은 고문 운동가들이 주창하는 經의 회복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이것이 송대 과거시험의 공허하고 현학적인문장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이며, 명·청대 또한 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으로 읽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反經之法"은 反經의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左傳』의 내용을가탁하여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法

的反思"는 『東萊博議』의 한계에 대한 내용으로, 내용의 봉건성·공허함·진 부함 등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张卫中(1992)은 여조겸의 『左傳』연구에 대해 분석하면서 『東萊博議』, 『左 氏傳說」、『左氏傳續說』 등 세 권의 저서의 내용을 근거로 사용하여 역사, 사상, 소재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 중『東萊博議』를 근 거로 사용한 부분을 살펴보면, 역사와 관련하여 「狼瞫死秦師」편을 예로 들 어서 여조겸이 『左傳』 속 인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처세 원칙을 발견하 고 『左傳』의 내용을 사회 문제와 연결하여 역사와 현실의 통합을 이루어낸 다는 특징을 제시한다. 이어서 「宋蕩意諸」편을 예로 들어서 그 판단의 객관 성과 신중함을 부연한다. 다음으로 사상과 관련하여 「衛侯遜位激民」편과 「宋昭公子武氏族」편을 예로 들어서 君民 관계에 대해, 「齊侯救邢封衛」편을 예로 들어서 王道와 覇道에 대해, 「周公閱聘魯」편을 예로 들어서 專制君主 에 대해, 「鬻拳兵諫」편을 예로 들어서 諫言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長 狄」편과「晉懷公殺狐突」편을 통해 그 목적이 보편적인 시각을 도출하는 것 이며 그것이 합당한 근거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주석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으나 「妖祥」편、「詩賦」편과 같은 다양한 특정 주제 를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예시로 사용한 문장 중에서 「周公 閱聘魯」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86편의 選本의 편명을 따르고 있다.

朱宏秋(2009A)는 여조겸의 여러 저서를 바탕으로 經史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 중『東萊博議』를 근거로 사용한 부분은 두 부분으로, 먼저 그는 여조겸이 經과 史를 하나로 간주했다면서「曹劌諫觀社」편에서 "역사를 보는 것은 먼저『書經』으로부터 시작한다.13)"라고 주장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東萊博議』의 해당 편뿐만 아니라 전체에서도 해당 구절은 찾을 수 없으며, 앞에서『東萊集』에서 "역사를 보는 것은 먼저『書經』으로부터 시작한 뒤에『左傳』과『通鑑』에 이르니, 그 體統源流를 서로 잇고자 해서일 뿐이다.14)"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오류로

<sup>13) &</sup>quot;觀史先自『書』始."

보인다. 다음으로 여조겸의 역사 연구 목적이 역사 속에서 "經世致用"의 방법을 찾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衛懿公好鶴」편15)의 "(위급할 때) 등용하는 자가 (평소에) 배양했던 자가 아니고, (평소에) 배양했던 자가 (위급할 때) 등용할 자가 아니다."16)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당 편에 구절이 있고, 내용도 군주의 올바른 養臣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무리한 견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朱宏秋(2009B)는 또 '理'와 '心'이라는 두 용어를 중심으로 여조겸의 『左傳』학을 정리했다. 이전의 연구들과 다르게 選本에 선록되지 않은 편들도 실려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17) 중간에 『左氏傳說』과 『左氏傳續說』등을 근거로 사용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東萊博議』를 주요 근거로 사용하여 논의를 전개했다.

먼저 여조겸의 '理'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東萊博議』의 「魯饑而不害」 편을 통해 '天'의 개념을 들고 이를 '理'와 연결시킨 후,「潁考叔爭車」편,「潁考叔還武姜」편,「盜殺伋壽」편을 통해 '理'의 특징을 설명하고,「辛伯諫周公黑肩」편을 통해 '理'가 최상의 판단 준칙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주장한다.이어서「王師伐虢」편을 통해 '理'와 '分'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며,「晉穆侯命二子名及晉封曲沃」편,「晉作五軍以御狄」편을 통해 '分'에 대해 설명하고,「鄭文夫人勞楚子入享于鄭」편을 통해 '分'이 '禮'를 통해 구체화된다고여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여조겸의 '心'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魯饑而不害」편을 통해 '人心'과 '天意'를 연결하고,「懿氏卜妻敬仲」편을 통해 천하의 만물이 자신 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마음이 발현된 결과이고,「齊桓公辭鄭太子華」편

<sup>14)</sup> 中國基本古籍庫 民國續金華叢書本(2013)『東萊集』別集 卷七,"觀史先自『書』始然 後,次及『左氏』『通鑑』,欲其體統源流相承接耳."

<sup>15)</sup> 해당 편은 168편의 全本에도 있고 86편의 選本에도 있으나, 해당 논문에서 청대에 출간된 金華叢書本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판본은 168편의 全本 계열이다.

<sup>16)</sup> 정태현 · 김병애(2013:277) "所用非所養, 所養非所用."

<sup>17)</sup> 총 15편을 인용했는데 이 중「潁考叔還武姜」편,「衛州吁」편,「辛伯諫周公黑肩」편,「鄭文夫人勞楚子入享于鄭」편,「晉作五軍以御狄」편 등의 다섯 편이 해당한다.

을 통해 '心'이 곧 '道'이며 '道'로써 '心'을 바로 잡고,「衛州吁」편을 통해 '治心'의 필요성과 방법이 하나의 악념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會于葵丘尋盟」편,「晉穆侯命二子名及晉封曲沃」편,「楚子文使成得臣爲令尹」편을 통해 '人心'에 '人欲'과 '天理'가 있고 전자는 만족함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열어서 안 되고 후자는 만족하면 쇠퇴하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理'와 '心'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潁考叔爭車」편을 통해 여조겸이 '理'와 '氣'의 유일성을 인식하고 있으며,「宋穆公立殤公」편을 근거로 그의 '心'에 대한 관념이 道家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罗莹(2011)은 『東萊博議』 自序의 과시생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는 말과 朱熹가 『東萊博議』에 대해 "傷巧"라고 평가한 말, 『四庫全書總目』에서 주희의 평가를 문장의 예리함을 칭찬한 말이라고 해석한 말을 인용하여 의론문에 대한 작문 규범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東萊博議』를 소개한다.

이어서 '立意', '語言', '布局' 세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먼저 '立意'와 관련하여「鄭伯克段於鄢」편,「隱公辭宋使」편,「虞叔伐虞公」편을 예로 들어서 여조겸의 입론이 범론(常俗)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논의하지 않은 점을 논의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전개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語言'과 관련하여 의론의참신함을 잘 전달하기 위한 작문법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문장의 간결함, 대비·비유 등의 수사방법을 들고, 각각「宋穆公立殤公」편,「鄭伯克段於鄢」·「衛懿公好鶴」편,「管敬仲言宴」 편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布局'와 관련하여『古文關鍵』에서 여조겸이 주장한 '首尾相應', '鋪敍次第', '抑揚開合' 등의세 방법을 소개하고「鄭莊公克段於鄢」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18)

<sup>18)</sup> 그는 4권 86편의 世界書局本(1936)을 저본으로 삼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해당 판본을 대만 世界書局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世界書局本(1984)가 소장되어 있어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4권 86편에 '편명 -『左傳』 - 본문(間註‧圈點) - 註音 - 釋義 - 語譯 - 諸家集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대 馮泰松本을 저본으로 삼은 국내 學民文化社本(1997)의 集評과 비교했을 때 世界書局本(1984)의 集評은 요약된 내용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해당 논문에서 인용한 6편 중「隱公辭宋使」편만 選本에 없는 편으로 世界書局本(1984)

이러한 토대 위에서 『東萊博議』의 문풍이 戰國時代 縱橫家의 정취가 있는데, 이는 당시 과거시험 과목 중 하나인 '策論'의 형식, 『東萊博議』 본문에서 인용한 『莊子』와 『孟子』, 평소 높게 평가했던 蘇氏 父子의 영향이라고 주장한다.

孙巧云(2014)은 『東萊博議』에서 확인할 수 있는 '君子修身'이라는 사상과 관련하여 36편<sup>19)</sup>을 인용하여 '正本心', '存善念', '慎言行', '貴自主', '甘卑賤', '戒貪急' 등의 여섯 개념을 설명한다. 인용한 36편 중「禹湯罪己桀紂罪人」편, 「陳敬仲辭卿飮威公酒」편, 「晉獻公使荀息傅奚齊」편, 「晉重耳奔狄至降服而囚」편, 「晉作五軍以御狄」편, 「晉使魏壽餘僞以魏叛以誘士會」편, 「邾文公

의 목록에도 없는 편인데, 어느 판본에서 인용한 것인지 직접 밝히지는 않았으나 참고문헌에 168편의 上海人民出版社本(1987)과 淸吟閣刊本(淸道光)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편만 별도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鄭伯克段於鄢」와「鄭莊公克段於鄢」으로 편명을 혼용하고 있는데, 전자의 편명은 청대 이후의 판본에서 보이는 편명이며 후자의 편명은 해당하는 판본을 찾지 못하여 단순 표기 오류로 보인다.

<sup>19) 36</sup>편은 다음과 같다. 「鄭莊公共叔段」편, 「鄭敗燕」편, 「鄭伯侵陳大獲」편, 「齊魯鄭入 許」편、「息侯伐鄭」편、「魯爲班後鄭」편、「鄭太子忽辭昏」편、「威公與文姜如齊」편、 「鄧三甥請殺楚文王」편、「禹湯罪己桀紂罪人」편、「鬻拳兵諫」편、「陳敬仲辭卿飮威公 酒」
· 可,「懿氏卜妻敬仲」
· 可,「管敬仲言於齊侯曰宴安酖毒不可懷也」
· 可,「晉獻公使荀 息傅奚齊」亞,「秦取梁新里」亞,「子魚宋公圍曹」亞,「隨叛楚」亞,「子圉逃歸」亞,「楚 子文使成得臣爲令尹」亞,「晉重耳奔狄至降服而囚」亞,「晉文公秦穆公賦詩」亞,「鄭 伯使盜殺子臧」亞,「楚滅夔」亞,「臧文仲如晉分曹田」亞,「晉作五軍以御狄」亞,「先軫 死狄師」可,「晉襄公朝王先且居胥臣伐衛」可,「宋襄夫人殺昭公之黨」可,「楚文無畏 戮宋公僕」 , 「叔孫得臣獲長狄僑如」 , 「晉使魏壽餘僞以魏叛以誘士會」 , 「邾文 公遷於繹」刊、「宋華耦辭宴」刊、「楚大饑庸人帥群蠻叛楚」刊、「晉趙盾侵鄭」刊、한刊、 해당 연구에서는 편명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해당 편이 수록된 권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부 인용에 있어서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먼저 권의 단순 오기로 「息侯伐鄭」편은 3권인데 4권으로,「晉襄公朝王先且居胥臣伐衞」편은 16권인데 17 권으로 잘못 표기하였다. 다음으로 選本의 권과의 혼동으로 「齊魯鄭入許」편은 3 권인데 1권으로,「懿氏卜妻敬仲」편은 8권인데 2권으로,「秦取梁新里」편은 11권인 데 3권으로、「臧文仲如晉分曹田」편은 15권인데 3권으로 잘못 표기하였다. 특히 「子圍逃歸」편은 두 번 인용됐는데 한 번은 12권으로 올바르게 표기되었으나 다른 한 번은 3권으로 잘못 표기되었다.

遷於繹」편、「楚大饑庸人帥群蠻叛楚」편 등의 8편은 選本에 없는 편이다.20)

程小青(2014)은 시기적으로 『東萊博議』가 먼저 완성되고, 『左氏傳說』이 뒤에 완성된다는 점에 착안하여「鄭莊公共叔段」편, 「衛州吁」편, 「衛文公大布之衣」편<sup>21</sup>), 「齊威公辭鄭太子華」편, 「宋叛楚即晉」편, 「公孫敖二子」편, 「楚子問鼎」편 등의 7편<sup>22</sup>)을 예로 들어서 『東萊博議』의 주관적이고 편협한 시각및 표면적인 접근을 비판하고, 『左氏傳說』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 및 심층적인 접근을 긍정하고 있다.

刘雅静(2014)<sup>23</sup>)은 『東萊博議』에서 54편<sup>24</sup>)을 인용하여 南宋의 시대 상황과 여조겸 개인의 인생을 분석해서 '史鑑思想'의 형성 배경을 파악하고, '史鑑思想'을 이루고 있는 "君臣觀", "民本思想", "抗金理念", "人才觀", "民族觀"을 남송의 정치적 폐단과 연결하여 그것이 "經世致用"으로 표출되었음을 설명하고, 후대에 미친 영향을 서술한다. 인용한 54편 중 18편<sup>25)</sup>이 選本에 없는 편이다.

慈波(2016)는 『東萊博議』의 판본을 168편의 '全本'계열과 86편의 '句解

<sup>20)</sup> 참고문헌에서 『呂祖謙全集』浙江古籍出版社本(2008)을 저본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으나 해당 판본이 저본으로 삼은 판본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選本에 없는 편도 인용한 것으로 볼 때 168편 판본으로 짐작된다.

<sup>21)</sup> 해당 논문도 孙巧云(2014)와 같이 『呂祖謙全集』浙江古籍出版社本(2008)을 저본으로 삼고 있는데,「衛文公大布之衣」편은 合本 및 四庫全書本을 기준으로 9권이나 10권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sup>22) 7</sup>편 중「衛州吁」편,「衛文公大布之衣」편,「宋叛楚即晉」편,「公孫敖二子」편 등의 4 편은 選本에 없는 편이다.

<sup>23) 『</sup>呂祖謙全集』浙江古籍出版社本(2008)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sup>24) 1-3, 1-6, 1-7, 2-2, 2-3, 3-5, 3-7, 4-1, 4-2, 4-3, 4-5, 5-3, 5-4, 5-7, 6-4, 7-3, 7-4, 7-5, 7-6, 7-7, 8-1, 8-2, 8-3, 8-5, 9-2, 9-3, 10-5, 10-6, 11-1, 11-6, 12-3, 12-4, 12-7, 13-1, 13-6, 15-5, 18-1, 20-2, 20-6, 22-3, 22-4, 23-2, 23-3, 23-7, 24-1, 24-2, 24-4, 24-5, 24-8, 25-2, 25-6, 25-7, 25-8(</sup>편수가 많아서 卷篇으로 대체하였다. 본고의 부록2에서 편명을 확인할 수 있다.)

<sup>25) 2-2, 4-1, 5-3, 7-5, 7-6, 7-7, 10-6, 18-1, 20-2, 22-3, 22-4, 23-2, 23-3, 24-1, 24-2, 24-5, 25-6, 25-7, 25-8(</sup>편수가 많아서 卷篇으로 대체하였다. 본고의 부록3에서 편명을 확인할 수 있다.)

本'으로 분류하고 판본별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고 일본에 소장된 '和刻本'을 소개한다. 본고의 2장『東萊博議』판본의 간행 양상 및 체례에서 상세히다루겠다.

马晨唯(2019)는 『東萊博議』의 '科擧 敎材'로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49편26 을 인용하여 송대에 과거 응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策論"의 형식에 맞는 과거시험 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여조겸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상을 사회에 전파하고자 『東萊博議』를 완성했다고 창작 배경을 설정하고, 여조겸의 사상이 내면적인 '君子之學'과 외부적인 '世用之學'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작문 방법으로 '破題 - 原題 - 講題 - 結尾'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비유와 역사 비교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는 것임을 설명하고, 후대에 끼친 영향력을 부연한다. 인용한 49편 중 19편27)이 選本에 없는 편이다.

胡培培(2019)는 慈波(2016)의 판본 분류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명대의 『新刊詳增補註東萊先生左氏博議』本을 송대의 '全本'계열인 『增注東萊先生左氏博議』本과 원대의 '選本'계열인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本을 결합한형태의 판본임을 규명하고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역시 본고의 2장 『東萊博議』 판본의 간행 양상 및 체례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彭洋(2020)은 『東萊博議』에서 확인할 수 있는 '社會控制'라는 사상과 관련하여 13편28)을 인용하여 여조겸은 '理'라는 우주적 본체가 '心'에 들어있으

<sup>26) 1-1, 1-4, 1-6, 2-4, 2-5, 3-2, 3-4, 3-5, 3-7, 4-3, 4-6, 4-7, 5-4, 5-5, 5-7, 7-3, 7-4, 7-6, 8-2, 8-5, 8-6, 9-1, 9-5, 9-6, 10-2, 10-4, 10-6, 10-7, 11-5, 12-1, 12-2, 12-3, 13-4, 13-5, 14-1, 14-2, 16-1, 16-2, 17-6, 18-1, 18-6, 19-5, 21-4, 21-5, 22-3, 24-6, 25-1, 25-7, 25-8 (</sup>편수가 많아서 卷篇으로 대체하였다. 본고의 부록3에서 편명을 확인할 수 있다.)

<sup>27) 2-4, 5-5, 9-1, 9-5, 9-6, 10-6, 10-7, 12-2, 13-5, 14-1, 16-2, 17-6, 18-1, 18-6, 22-3, 24-6, 25-1, 25-7, 25-8(</sup>편수가 많아서 卷篇으로 대체하였다. 본고의 부록3에서 편명을 확인할 수 있다.)

<sup>28) 『</sup>呂祖謙全集』浙江古籍出版社本(2008)을 저본으로 삼고 있으며「潁考叔還武姜」 편, 「潁考叔爭車」 편,「晉穆侯命二子名及晉封曲沃」 편,「威公與文姜如齊」 편,「楚武王心 蕩」 편,「齊威公辭鄭太子華」 편,「邢人狄人伐衛」 편,「秦取梁新里」 편,「宋公使邾文公 用鄧子」 편,「晉文夢與楚子搏」 편,「出姜貴聘而賤逆」 편,「宋華耦辭宴」 편,「鄭公子曼

므로 내부를 성찰하여 '天理'를 깨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마음으로 氣를 다스리기 · 예로 욕망을 막기 · 간격이 없음을 알기29) 등을 실천하고, 외부적으로 분수 지키기 · 개체를 헤아려 공평하게 베풀기30)를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용한 13편 중「潁考叔還武姜」편,「晉文夢與楚子搏」편,「出姜貴聘而賤逆」편,「鄭公子曼滿欲爲卿」편 등의 4편은 選本에 없는 편이다.

陈璋(2020)<sup>31)</sup>은 『東萊博議』에서 확인할 수 있는 "理學" 사상과 관련하여「潁考叔爭車」편,「晉桓莊之族偪」편,「曹劌諫觀社」편 등의 3편을 인용하여여조겸이 '理'를 판단 준칙으로 삼아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史官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의 선행 연구는 판본에 관한 두 연구를 제외하고 종합하면 여조겸이 『東萊博議』를 저술한 동기가 단순히 과거시험 교재의 제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經世致用'에 있고,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左傳』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논의를 끌어낸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실 문제는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발생하므로 표면적으로 개인 내부로 향하는 '君子論'과 개인 외부인 사회로향하는 '世用論'으로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 '萬物'을 덮은 '天'속에서 간격이 없이(無間) 연결되어 있다고 여조겸의 사상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東萊博議』는 168편과 86편의 판본이 있으므로, 사상적 논의에 앞서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慈波(2016)가 처음으로 168편

滿欲爲卿」편을 인용하였다.

<sup>29)</sup> 以心御氣·以禮防欲·知無間, 해당 논문에서는 "无间则仁"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형식을 맞추기 위해 수정하였다.

<sup>30)</sup> 守分·稱物平施.

<sup>31)</sup> 罗莹(2011)과 같이 世界書局本(1936)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다만 본문에서 66편을 선정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86편의 표기 오류로 보인다.

을 "全本"으로 86편을 "句解本"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전의 선행 연구에서는 판본의 구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胡培培(2019)가 慈波(2016)의 논의를 바탕으로 "全本"과 "句解本"이 결합된 판본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東萊博議』 판본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2편의 학위 논문과 13편의 학술지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東萊博議』의 편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13편의 학위 연구는 각 연구당 인용 편수가 적으므로, 표 구성의 편의를 위해 학위 논문은 별도로, 학술 연구는 통합하여 표를 구성하였다.

	卷篇	合本 편명	選本	刘雅静	马晨唯	學術誌
1	1-1	鄭莊公共叔段	0		О	О
2	1-2	潁考叔還武姜				О
3	1-3	周鄭交惡	0	0		
4	1-4	宋穆公立殤公	О		О	О
5	1-5	衛州吁				0
6	1-6	臧僖伯諫觀魚	О	О	О	
7	1-7	鄭敗燕	0	0		0
8	2-1	隱公問羽數於衆仲	О			О
9	2-2	隱公辭宋使		О		О
10	2-3	鄭伯侵陳大獲	0	О		О
11	2-4	鄭伯朝威王			О	
12	2-5	陳五父如鄭涖盟歃如忘	0		О	О
13	2-6	隱公問族於衆仲				
14	3-1	滕薛爭長				
15	3-2	潁考叔爭車	О		О	О
16	3-3	齊魯鄭入許	О			О
17	3-4	息侯伐鄭	О		О	О
18	3-5	羽父弑隱公	О	О	О	
19	3-6	臧哀伯諫納郜鼎	О			
20	3-7	晉穆侯命二子名及晉封曲沃	О	0	О	О
21	4-1	<b>楚侵隨</b>		0		
22	4-2	魯爲班後鄭	О	0		О
23	4-3	鄭太子忽辭昏	О	0	0	О
24	4-4	威公問名于申繻				
25	4-5	王師伐虢	О	0		О
26	4-6	虞叔伐虞公	0		О	О
27	4-7	楚屈瑕敗蒲騷	О		0	
28	5-1	祭仲立厲公	О			

	卷篇	合本 편명	選本	刘雅静	马晨唯	學術誌
29	5-2	盗殺伋壽	0	777 114	277.1	0
30	5-3	魯及齊師戰于奚		0		
31	5-4	威公與文姜如齊	0	0	О	0
32	5-5	辛伯諫周公黑肩			0	О
33	5-6	楚武王心蕩	0			0
34	5-7	鄧三甥請殺楚文王	0	0	О	О
35	5-8	魯莊公圍郕	0			
36	6-1	齊侯見豕	0			
37	6-2	齊公孫無知弑襄公				
38	6-3	齊桓公入齊				
39	6-4	齊魯戰長勺	0	0		
40	6-5	禹湯罪己桀紂罪人				0
41	7-1	宋萬弑閔公	0			
42	7-2	息嬀過蔡				
43	7-3	鄭厲公殺傅瑕原繁	0	0	0	0
44	7-4	王賜虢公晉侯玉馬	0	0	0	
45	7-5	原莊公逆王后于陳		0		
46	7-6	鬻拳兵諫	0	0	0	0
47	7-7	陳敬仲辭卿飮威公酒		0		0
48	8-1	懿氏卜妻敬仲	0	0		0
49	8-2	曹劇諫觀社	0	0	0	0
50	8-3	晉桓莊之族偪	0	0		
51	8-4	莊公丹桓宮楹刻其桷…				
52	8-5	管敬仲言於齊侯…	0	0	О	О
53	8-6	齊仲孫湫觀政	0		О	
54	9-1	舟之僑奔晉			0	
55	9-2	衛懿公好鶴	0	0		О
56	9-3	里克諫晉侯…	0	0		
57	9-4	戍曹遷邢封衛	0			О
58	9-5	衛文公大布之衣			О	О
59	9-6	晉荀息請假道於虞以伐虢			О	
60	9-7	齊寺人貂漏師	О			
61	10-1	會陽穀謀伐楚	0			
62	10-2	楚伐鄭	О		О	
63	10-3	楚滅弦	О			
64	10-4	楚文王寵申侯	О		О	0
65	10-5	齊威公辭鄭太子華	О	0		О
66	10-6	晉里克帥師敗狄		О	О	
67	10-7	宋太子兹父請立子魚			0	
68	11-1	會于葵丘尋盟	О	О		О
69	11-2	晉獻公使荀息傅奚齊				О
70	11-3	沙麓崩				
71	11-4	楚子賜鄭伯金				
72	11-5	邢人狄人伐衛	О		О	О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과『左傳』인식

	卷篇	合本 편명	選本	刘雅静	马晨唯	學術誌
73	11-6	秦取梁新里	0	0		0
74	12-1	宋公使邾文公用鄧子	0		0	0
75	12-2	衛旱伐邢			О	
76	12-3	子魚宋公圍曹	0	О	О	О
77	12-4	隨叛楚	0	0		О
78	12-5	宋襄公及楚人戰于泓	0			
79	12-6	魯饑而不害	0			0
80	12-7	成風請封須句	0	0		
81	12-8	秦晉遷陸渾之戎	0			
82	12-9	子圉逃歸	0			О
83	13-1	邾敗魯於升陘	0	0		
84	13-2	鄭文夫人勞楚子入享于鄭				0
85	13-3	楚子文使成得臣爲令尹	0			О
86	13-4	晉懷公殺狐突	0		О	О
87	13-5	晉重耳奔狄至降服而囚			0	О
88	13-6	晉文公秦穆公賦詩	0	О		О
89	14-1	介之推不言祿			О	
90	14-2	鄭伯使盜殺子臧	0		О	О
91	14-3	衛禮至殺邢國子	0			
92	14-4	晉文請隧 啓南陽 …	0			
93	14-5	展喜犒齊師				
94	14-6	楚滅夔	0			О
95	15-1	宋叛楚即晉				О
96	15-2	晉文夢與楚子搏				О
97	15-3	晉侯作三行				
98	15-4	周公閱聘魯				О
99	15-5	臧文仲如晉分曹田	0	О		О
100	15-6	晉作五軍以御狄				О
101	16-1	先軫死狄師	0		О	О
102	16-2	臼季擧郤缺			О	
103	16-3	晉陽處父侵蔡…				
104	16-4	周叔服公孫敖二子	О			
105	16-5	閏三月非禮				
106	16-6	楚太子商臣弑成王				
107	16-7	晉襄公朝王先且居胥臣伐衛	0			О
108	17-1	禘太廟僖公				
109	17-2	出姜貴聘而賤逆				О
110	17-3	楚滅六蓼				
111	17-4	秦穆公以子車氏之三子爲殉				
112	17-5	季文子如晉求曹喪之禮行				
113	17-6	趙孟立公子雍			О	
114	18-1	陽處父改蒐賈季殺陽處父		О	О	
115	18-2	宋昭公將去群公子				
116	18-3	士會不見先蒐				

	卷篇	合本 편명	選本	刘雅静	马晨唯	學術誌
117	18-4	穆伯取己氏	0			
118	18-5	酆舒問趙衰趙盾於賈季				
119	18-6	晉郤缺言於趙宣子歸衛地			0	
120	19-1	宋襄夫人殺昭公之黨	0			0
121	19-2	箕鄭父殺先克				
122	19-3	范山說楚子圖北方	О			
123	19-4	楚范巫矞似謂成王…皆强死				
124	19-5	楚文無畏戮宋公僕	О		О	О
125	19-6	叔孫得臣獲長狄僑如	0			0
126	20-1	秦伯使西乞衔來聘				
127	20-2	隨會料晉帥		0		
128	20-3	晉使魏壽餘僞以魏叛…				О
129	20-4	魏壽餘履士會之足於朝				
130	20-5	趙盾納捷菑于邾				
131	20-6	周公王孫蘓訟于晉	О	О		
132	21-1	晉侯秦伯圍鄭				
133	21-2	秦穆出師襲鄭				
134	21-3	齊國莊子聘魯…				
135	21-4	狼瞫死秦師	О		О	О
136	21-5	楚人滅江秦伯降服	0		О	
137	21-6	隨會能賤而有恥				
138	22-1	寗嬴從陽處父	0			
139	22-2	邾文公遷於繹				О
140	22-3	齊公子商人馳施於國		0	О	
141	22-4	楚鬪克公子燮作亂		0		
142	22-5	單伯請子叔姬				
143	22-6	宋華耦辭宴	0			О
144	22-7	公孫敖二子				О
145	23-1	齊人侵西鄙				
146	23-2	楚大饑庸人帥群蠻叛楚		0		О
147	23-3	鄭子家爲書告趙宣子		0		
148	23-4	<b>邴</b>				
149	23-5	襄仲殺惡及視…				
150	23-6	季文子出莒僕	О			
151	23-7	宋公殺母弟須及昭公子	О	0		О
152	24-1	晉不競於楚		О		
153	24-2	鄭人獲狂狡		0		
154	24-3	鄭伐宋囚華元	О			
155	24-4	晉趙盾侵鄭	О	0		О
156	24-5	晉靈公不君		0		
157	24-6	晉趙穿弑靈公			О	
158	24-7	晉成公爲公族				
159	24-8	楚子問鼎	О	0		О
160	25-1	鄭公子宋公子歸生弑靈公			0	

	卷篇	合本 편명	選本	刘雅静	马晨唯	學術誌
161	25-2	楚箴尹克黃不棄君命	О	О		
162	25-3	赤狄伐晉圍懷	О			О
163	25-4	鄭公子曼滿欲爲卿				О
164	25-5	鄭伯敗楚				
165	25-6	晉會狄於攅函		О		
166	25-7	楚子從申叔時諫復封陳		О	О	
167	25-8	楚子伐蕭		О	О	
168	25-9	公孫歸父言魯樂	О			
		총 합계(選本 합계)		54(36)	49(30)	72(52)

「표 1.1」 『東萊博議』 선행 연구의 본문 인용 편목

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選本에 선록된 편이다수이며, 인용 편목이 시기적으로 고르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168편 전반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東萊博議』의 사상 규명을 목표로 하면서도 86편의 選本만을 대상으로 선택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점차 選本에 선록되지 않은 편들도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간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선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68편에서 86편을 선택한 기준과 내용적 차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부족하므로 이러한 점을 보충한다면 『東萊博議』의 사상 규명이라는 목표에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의 논문부터 시간순으로 먼저 살펴보겠다.32)

이재하(2008)는 『東萊博議』를 인물론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東萊博議』에서 齊 桓公과 연결된 문장은 9편이지만 직접적으로 논평한문장은 3편이라고 주장하며 3편 중에서 「齊侯戍曹遷邢封衛」편의 내용을 분석하고 『左氏傳說』,『左氏傳續說』 및 다른 역사서와의 비교를 통하여 『東萊博議』 속 여조겸 시각의 편협함을 지적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 『東萊博議』에 대한 연구가 없음에도 『東萊博議』에 국한하지 않고 여조겸의 다른저작 및 다른 역사서와 비교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양승이(2013)는 『東萊博議』「鄭伯克段於鄢」편에 드러난 여조겸의 의견을

<sup>32)</sup> 정미선(2019)은 『東萊博議』의 한문 교육 교재로서의 타당성 및 활용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므로 본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제외하였다.

분석하여 진단의 타당함을 긍정하고 다른 역사 인물의 대처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대안 제시의 부재를 지적한다. 이 역시『東萊博議』 자체의 분석에 국한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동일하다.

백진우(2014)는 『東萊博議』는 크게 '성리학 기반의 역사 평론서', '실용적 목적의 과거 수험서', '문장력 강화를 위한 지침서'라는 세 가지 목적으로 읽혔으며, 이는 조선에 수용된 『東萊博議』의 역대 간본과 『東萊博議』에 대 한 조선 유학자들의 평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에서도 慈波(2016)가 『東萊博議』의 판본에 대해 본격적으로는 처음 논 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먼저 국내에서 『東萊博議』 수용에 대 한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국내의 연구는 아직 국부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東萊博議』가 아직 구체적인 연구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기존 연구 영역과의 연결을 통해 새롭게 구체화하려고 했다는 점이 우수하다. 2021년에 국내에 『東萊博議』가 완역되었으므로 앞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 1.3. 연구 방법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東萊博議』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는 국부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논외로 하고, 중국의 선행 연구는 『東萊博議』에 담긴 여조겸의 사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고 해서 기존의 연구자들이 『東萊博議』의 정체성을 과거시험 준비서가 아닌 의론서로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할수는 없다.

다만 马晨唯(2019)는 과거시험을 중심으로 『東萊博議』를 분석하면서 "과 거 교육을 빌려 정치사상을 침투시켰다.33)"라고 직접 언급하여 그가 『東萊 博議』의 정체성을 과거시험 준비서가 아닌 의론서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논문에서도 『東萊博議』를 과거시험 준비를 돕기위해 저술했다는 自序의 첫 부분만 인용하고, 『東萊博議』의 정체성을 의론서로 보는 근거를 『東萊博議』가 아닌 여조겸의 다른 저서나 문장에서 찾는데 그쳤다.34) 물론 여조겸의 다른 저서나 문장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개인의 생각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는 점을고려하면 해당 저서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東萊博議』 판본의 변천 과정 분석을 통해『東萊博議』의 수용 양상을 파악하고,『東萊博議』 168편의 내용 분석을 통해『東萊博議』의문장 작법과『左傳』인식을 파악하여『東萊博議』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1.1.에서 제기한 의문인『東萊博議』의 정체성, 여러 과거시험 출제 범위중『左傳』을 소재로 삼은 이유,『春秋』를 經으로『左傳』을 傳으로 구분하여『左傳』에 대해서만 소재로 삼은 이유를 논증할 것이다.

2장에서는 慈波(2016)와 胡培培(2019)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에서 확인 가능한 판본을 분석하여『東萊博議』판본의 간행 양상과 판본별체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全本 계열의 판본과 選本계열의 판본 체례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해당 판본이 간행된 시기에『東萊博議』가 어떤 정체성으로 수용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3장에서는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과 『左傳』 인식을 분석하여 여조겸이 구상한 『東萊博議』의 정체성과 『左傳』을 선택한 이유, 『春秋』와 『左傳』의 관계에 대해 규명할 것이다.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東萊博議』 본문 168편의 개괄적인 내용을 표로 제시하되 분량을 고려하여 직접 다루는 59편을 3장에 남기고 168편의 전체 표는 부록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東萊博議』 본문의 제재를 살펴보고, 이어서 『東萊博議』 본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鄭莊公共叔段」, 「宋穆公立殤公」, 「羽父弑隱公」등의 세 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東萊博議』 본문의 서술 방식을

<sup>33)</sup> 马晨唯(2019:13) "借科举教育渗透政治思想."

<sup>34)</sup> 자세한 내용은 马晨唯(2019:6-16)를 참고.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東萊博議』 168편 중 유일하게 여조겸이 직접 『東萊博議』에서 추구한 문장관을 제시하고 있는 「鄭伯朝桓王」 편35)의 구성을 분석하여 論事體라는 문체가 어떻게 문장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끝으로 2장에서 확인한 168편의 合本과 86편의 選本이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3장에서 다룬「鄭莊公共叔段」,「宋穆公立殤公」,「羽父弑隱公」등의 세 편을 대상으로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東萊博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조겸의 『左傳』 인식36)과 관련하여 먼저 송대 과거제도에서의 『左傳』 수용 양상을 파악하여 『東萊博議』가 당시 과거시험 과목 중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春秋』와 『左傳』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東萊博議』의 自序를 분석하여 그가 『左傳』을 소재로 삼은 이유를 추론하고, 실제로 168 편 중 『左傳』의 서술자인 左氏에 대해 의론하고 있는 22편 전체를 분석하여 『東萊博議』에 구현된 그의 『左傳』에 대한 인식을 제시할 것이다.

<sup>35)</sup>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행 연구 중「鄭伯朝桓王」편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马晨唯(2019)가 유일하다. 그러나 그도 해당 편을 『東萊博議』가 송대의 과거시험 과목 중 論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그쳤다. 論을 대상으로 했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본고의 3장에서 논증할 것이며, 본고는 해당 편을 『東萊博議』의 문장관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결이 다름을 일러둔다.

<sup>36)</sup> 여조겸의 대표적인 『左傳』 저서로는 『東萊博議』, 『左氏傳說』, 『左氏傳續說』 등이 있는데, 『東萊博議』와 『左氏傳說』을 보더라도 목적,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 다만 『東萊博議』가 시기적으로 앞에 위치하므로 『東萊博議』의 『左傳』인식을 기반으로 『左氏傳說』, 『左氏傳續說』 등의 『左傳』인식과 비교하여 여조겸의 『左傳』인식을 구성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中國基本古籍庫 民國續金華叢書本(2013) 『東萊集』 別集 卷七의 「張敬夫에게 보내다(與張荊州)」에서 "역사서를 보는 것은 우선 『書經』에서 시작하여, 그러한 뒤에 『左傳』과 『通鑑』에 미친다. (觀史, 先自書始, 然後次及左氏通鑑.)"라는 언급, 別集 卷十三「甲午左傳手記」에서 "곡량자의 논의는 진실되지만 좌씨와 비교하면 말을 낭비한 것에서 면하지 못한다.(穀梁子之論, 允矣, 等之左氏, 未免於辭費也.)"라는 언급, 別集 卷三十九에서 "左氏는 이치를 종합함이 은미하고 엄밀하여, 후세의 역사가 중 이 경지에 이른 이가 적다.(左氏宗理微密, 後之爲史者, 鮮能及之.)"라는 언급이 참고할 만하다.

# 2. 『東萊博議』 판본의 간행 양상 및 체례

### 2.1. 『東萊博議』 판본의 간행 양상

乾道四年(1169)에 여조겸이『東萊博議』를 편찬한 이후 宋代부터 淸代까지 『東萊博議』는 다양한 판본의 형태로 재생산되어왔다.『東萊博議』 판본의 종 류는 篇數를 기준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① 25卷 168篇 全本 系列
- ② 16卷 / 12卷 86篇 選本 系列

篇數를 기준으로는 크게 全本과 選本이라는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選本은 卷數를 기준으로 다시 크게 16권 계열과 12권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選本을 분권 상황을 기준으로 세부 분류하면, 16권 계열에서 12권과 8 권 계열로 나뉘고 12권 계열에서 다시 6권과 4권 계열로 나뉜다.37)

『東萊博議』가 全本과 選本으로 나뉘게 된 것은 『東萊博議』의 과거시험 준비서로서의 성격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選本의 대표적인 특징은 篇數가 적고, 章法에 관련된 주석이 많은 것<sup>38)</sup>으로, 보다 과거시험에 특화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慈波(2016)에 따르면 중국에서 간행된 시기별『東萊博議』의 판본 목록은 다음과 같다.39)

<sup>37)</sup> 慈波(2016:133-136)

<sup>38)</sup> 慈波(2016:134)

<sup>39)</sup> 慈波(2016:133-136)의 내용을 시기별로 재구성하였다.

간행시기	書名	판종	卷冊數	篇數
宋	增注東萊先生左氏博議	宋刻遞修本	25권1책	168편
元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16권	86편
元	詳注東萊先生左氏博議	元刊巾箱本	25권10책	168편
明	詳註東萊先生左氏博議	明初刊巾箱本	25권13책	168편
明	詳注東萊先生左氏博議	明刊本	25권12책	168편
明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明刊本	16권8책	86편
明 弘治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覆刻本	16권4책	86편
明 弘治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蔡紳刊本)	16권6책	86편
明 正德	新刊詳增補注東萊先生左氏博議	安正堂刻本	25권8책	168편
明 正德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集義書堂重刊本	8권	86편
明 嘉靖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瞿景淳刻本	16권	86편
明 嘉靖	東萊呂先生左氏博議句解	瞿景淳刻本	6권6책	85편
明 萬曆	批選東萊呂先生左氏博議句解	書林源泰堂刻本	12권4책	86편
明 萬曆	呂東萊先生左氏博議	黄之寀刊本	12권2책	86편
明 萬曆	新鍥評釋東萊呂先生左氏博議	李廷機刻本	4권	85편
明 崇禎	呂東萊先生左氏博議	陶珽刊本	6권6책	86편
淸 康熙	評點東萊博議	朱張刊本40)	4권	84편
淸 乾隆	詳注東萊先生左氏博議	四庫全書本	25권	166편41)
淸 道光	東萊左氏博議	清吟閣刊本	25권	168편
淸 同治	東萊左氏博議	清吟閣刊重刻本	25권6책	168편
淸 光緒	東萊博議	馮泰松刊本	4권4책	86편
淸 光緒	增批輯注東萊博議注釋	劉鐘英刊本	4권4책	86편

「표 2.1」 중국에서 간행된 시기별 『東萊博議』 판본 목록

위의 표를 보면 서명을 기준으로 全本 계열은 크게 增註, 詳註, 新刊詳增補註, 東萊左氏博議라는 4종으로, 選本 계열은 精選句解, 東萊呂先生句解, 新刻翰林批選句解, 呂東萊先生, 新鍥評釋, 評點, 東萊博議, 增批輯註라는 8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42) 12종의 판본 중에서 選本이 全本에 비해 비율이 상당히 높고, 시기별로도 처음에는 全本의 비율이 높다가 뒤로 갈수록 選本의비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단순 수치 비교를 통해 『東萊博議』의 독서 목적이

<sup>40)</sup> 정태현·김병애(2012:12).

<sup>41)</sup> 慈波의 논문에는 168편으로 소개되어 있고, 사고전서본의 提要에도 168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태현·김병애(2012:16)는 166편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中國基本 古籍庫의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을 확인해본 결과 166편이 맞아 이를 근거로 수정하였다.

<sup>42)</sup>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판본은 백진우(2014:213)의 부록을 참조. 부록의 표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었으며, 바뀐 목적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이면서 증가 추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168편의 全本과 86편의 選本이 모두 본래의 편수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다만 四庫全書本의 경우 실제로「晉里 克帥師敗狄」편과「秦晉遷陸渾」편이 없는 166편을 수록하고 있으나<sup>43</sup>) 제 요에서 168편으로 소개하고 있므로 168편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하였다.<sup>44</sup>)

選本의 경우 권 수와 책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만 篇數는 거의 처음과 같은 수치를 유지한다. 명나라 중엽 嘉靖 연간의 『東萊呂先生左氏博議句解』本에서 『用人社神』 편이 탈락하여 85편이 된 후 萬曆 연간의 『新 鍥評釋東萊呂先生左氏博議』 本에서도 이어지고, 청나라 康熙 연간의 『評點東

간행시기	서명	판종	권책수	篇數
1417	精選東萊先生博議句解	목판본	16권2책	86편
16C 전	新刊詳增補註東萊先生左氏博議	乙亥字	25권10책	168편
16C 중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목판본	6권3책	86편
1578	精選東萊先生博議句解	목판본	8권4책	86편
17C 후	東萊呂先生左氏博議	戊申字	2권2책	86편
18C 후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목판본	8권4책	86편
18C 후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목판본	8권3책	86편
18C 후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목판본	8권2책	86편

「표 2.2」 조선에 수용된 『東萊博議』 주요 간본 목록

16C 전반의『新刊詳增補註東萊先生左氏博議』本을 제외하면 전부 選本 계열이며, 본고의 2.2.『東萊博議』의 판본별 체례에서 다룰 주요 판본은 1417년에 간행된『精選東萊先生博議句解』本, 16C 전반의『新刊詳增補註東萊先生左氏博議』本, 18C 후반의『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本으로, 앞의 두 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뒤의한 종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 43) 정태현·김병애(2012:16)
- 44) 이와 관련하여 慈波(2016:135-136)에서는 168편으로 소개하고 있다. 정태현·김병 애(2012:16)에서 사고전서 편찬 과정에서 청나라 조정의 개입으로 인한 누락의 여 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관계성을 확인할 수 없다. 選本 중 청 강 희 연간 朱張刊本에서도 2편의 문장이 탈락했으나 서문에서 이유를 밝히지도 않 았고 탈락한 문장이 四庫全書本과「秦晉遷陸渾」한 편만 일치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청나라 조정의 개입을 이유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萊博議』本에서 「楚滅弦黃」편과 「秦晉遷陸渾」편이 탈락하여 84편이 되었지만 이후 光緒 연간의 『東萊博議』本에서 馮泰松이 瞿世瑛本과 朱書本을 교 감하여 다시 본래의 86편으로 되돌렸다.45)

송나라와 원나라 때 한번 정해진 후로 168편의 全本은 全本대로, 86편의 選本은 選本대로 篇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같은 168편의 全本 계열 판본이 나 86편의 選本 계열 판본이라고 하더라도 각 판본은 차이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 2.2. 『東萊博議』의 판본별 체례

『東萊博議』는 판본의 종류에 따라 체례도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인다. 판본 종류의 분류에 대해서는 앞에서 篇數를 기준으로 한 全本과 選本 계열의 구분을 제시한 바 있다.46)

168편 全本 계열의 경우 대표47)『左傳』기사를 시기별로 분류하면 다음 과 같다.

	隱公	桓公	莊公	閔公	僖公	文公	宣公	계
篇數	18	14	19	7	48	45	17	168
비율	10.7	8.3	11.3	4.2	28.6	26.8	10.1	100

「표 2.3」 대표 기사의 시기별 분표\_全本 계열

86편 選本 계열의 경우 대표 『左傳』 기사를 시기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sup>45)</sup> 慈波(2016:135-136)

<sup>46)</sup> 慈波(2016:135-136)

<sup>47) 『</sup>東萊博議』는 각 편에 한 편의 『左傳』기사만 인용한 경우도 있으나, 여러 편의 『左傳』기사를 인용한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첫 편의 기사와 연결되는 기사거나, 유사한 기사이므로 편의상 첫 기사를 대표 기사, 나머지 기사를 부속 기사로 명칭하겠다.

같다.

	隱公	桓公	莊公	閔公	僖公	文公	宣公	계
篇數	12	10	12	5	27	14	6	86
비율	14.0	11.6	14.0	5.8	31.4	16.3	6.9	100

「표 2.4」대표 기사의 시기별 분표\_選本 계열

篇數를 기준으로 했을 때 全本과 選本으로 부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판본의 서명에서 기인한다. 168편이 모두 수록된 현존하는 최초의 판본은 송대의 『增注東萊先生左氏博議』本이고, 86편이 모두 수록된 현존하는 최초의 판본은 원대의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本으로, 서명에서 보이듯이 전자에서는 "增注"라는 표현이 후자에서는 "精選"과 "句解"라는 명칭이 돋보인다. 즉 選本의 의미는 『東萊博議』 168편 중에서 86편을 정밀하게 선택하여(精選) 문장의 구절에 해석을 추가한 판본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全本과選本의 큰 차이가 篇數와 주석 내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全本과 選本의 篇數가 시기별 분포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로 줄어든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선별 기준이 있었음을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각 판본의 체례를 살펴보면 『東萊博議』의 여러 판본을 全本과 選本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胡培培(2019)에 따르면 全本 계열로 분류되는 명대에 출간된 『新刊詳增補註東萊先生左氏博議』本은 송대의 『增注東萊先生左氏博議』本과 원대의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本을 합친 것으로 全本과 選本이 아닌 새로운제3의 형태이다48). 이는 전체적인 구성 및 각 편의 구성에서 드러나는데,이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 全本인 송대의 『增注東萊先生左氏博議』本과 選本인 원대의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本의 選

먼저 송대의 『增注東萊先生左氏博議』本은 25권 168편으로, 전체 구성은 '여조겸의 서문 - 목록 - 본문(168편)'으로, 각 편의 구성은 '편명 - 『春秋左

<sup>48)</sup> 胡培培(2019:78)

氏傳』원문 - 본문 및 間註'로 이루어져 있다.49) 주목할 점은 전체 구성 중 목록에 단순히 정문의 편명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편명 아래에 해당 편의 '主旨語'와 '主旨'를 병기하였다는 것이다. 본문 속의 주석은 관련된 전고의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50)

다음으로 원대의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本은 16권 86편으로, 전체구성은 '여조겸의 서문 - 목록 - 본문(86편)'으로, 각 편의 구성은 '편명 - 출처:『春秋左氏傳』원문 - 主意 - 본문 및 間註'으로 이루어져 있다.51) 주목할 점은 송대 판본과 다르게 목록에는 편명만 기록하고, 각 편의 구성에서 『春秋左氏傳』의 원문 아래에 송대 판본의 '主旨'와 유사한 '主意'를 추가했다는 것, 본문의 내용에 송대 판본과 비교했을 때 삭제된 부분이 있다52)는 것, 주석이 章法과 문장 구조 관련 내용53)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특이한 점으로는 송대의 피휘자인 '桓'을 동일하게 '威'로 표기하여 송대 판본의 원형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54)

<sup>49)</sup> 이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데, 慈波(2016:133)는 각 편의 구성에 '主意(주제)' 부분이 있는 판본이라고 주장하고, 胡培培(2019:80)는 각 편의 구성에는 '主意(주제)' 부분이 없고, 전체 구성의 목록 부분에 '主旨詞'와 '主旨'가 각 편명 아래에 병기된 판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慈波(2016:134)는 四庫全書本의 저본이『詳注東萊先生左氏博議』本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增注東萊先生左氏博議』本과 구성이 같다는 점, 정태현·김병애(2012:15)가 四庫全書本의 특징으로 '主意'가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는 점, 中國基本古籍庫에서 제공하는 上海人民出版社의 四庫全書本에도 '主意'가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胡培培(2019:80)의 의견을 따랐다.

<sup>50)</sup> 胡培培(2019:80), 송대의 增註本을 확인하고 싶었으나 백진우(2014:186-187)에 따르면 조선에 최초로 간행된 판본은 원대의 選本을 1417년에 목간본으로 간행한 것이고, 백진우(2014:213)에 따르면 최초이자 유일하게 간행된 25권 판본은 『新刊詳增補註東萊先生左氏博議』本으로, 이는 아래에서 서술한 合本이라서 송대의 增註本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청대의 四庫全書本이 송대의 增註本을 저본으로 삼고 있고, 中國基本古籍庫에서 上海人民出版社刊本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간본에는 목록 부분이 없어서 송대의 增註本의 목록에 병기된 '主旨'와 '主旨語'는 확인할 수 없었다.

<sup>51)</sup> 胡培培(2019:80)

<sup>52)</sup> 胡培培(2019:80)

<sup>53)</sup> 慈波(2016:134)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대 판본을 저본으로 삼은 판본 중 하나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本으로, 8권 3책(天地人)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3권, 3권, 2권이 실려있다. 각권은 10行 19字에 小字雙行의 양식으로, 각 편은 '편명 - 출처 - 主意 - 본문 및 間註'로 구성되어 있으며 天에 전체 목록을 나열했으며 송대『增注東萊先生左氏博議』本에 있다는 '主旨語'와 '主旨'는 없다.55)

송대 판본과 원대 판본은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 위치는 다르지만 주지혹은 주의를 별도로 표시한 점은 같으므로 결국 이 둘의 본질적인 차이는 168편과 86편이라는 篇數와 典故 위주와 章法 위주의 주석 내용에 있음을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두 판본에 있어서 全本과 選本이라는 구분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 살펴볼『新刊詳增補註東萊先生左氏博議』本은 明 正德六年(1511년)에 劉氏安正堂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安正堂本"으로도 불린다.56) 총 25권 168편으로, '여조겸의 서문 - 목록 - 碑記 - 정문(168편) - 張偉의 跋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각 편의 구성은 '편명 - 『春秋左氏傳』원문 - 主意 - 본문 및 간주'로 구성되어 있다.57) 주목할 점은 86편의 원대 판본을 168편의송대 판본에 덮어씌우면서 선택적 수용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sup>54)</sup> 慈波(2016:134-135)

<sup>55)</sup> 백진우(2014:186-187)가 제시한 조선의『東萊博議』주요 간본 목록을 참고했을 때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18C 후반의 간본으로 보이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인 『精選東萊先生博議句解』本은 1417년에 간행된 조선 최초의 목판본으로 보이며 16권 2책 12行22字의 형식을 취했다. Harvard Library의 Curiosity Collections 중 Chinese Rare Books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대의『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本은 16권 2책 10行 20字 본으로 16권 2책이라는 점과 주석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을고려하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Harvard Library 소장본은 동일한 저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소장본과 이 두 판본은 내용은 동일하지만 시기적으로 이른 두 판본의 주석이 서울대학교 소장본에 비해 상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석이 점점 소략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sup>56)</sup> 胡培培(2019:78)

<sup>57)</sup> 정태현・김병애(2012:15), 胡培培(2019:78-79)

胡培培(2019)에 따르면 이는 크게 편장 목록과 편문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는 송대 판본의 목록에서 "主旨語"와 "主旨"를 삭제하고 권수와 편명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후자는 다시 구성요소의 추가와 본문 내용의 차이, 주석의 선택적 수용으로 세분할 수 있고, "主意"가 추가되고, 본문 내용은 송대 판본을 따르며, 송대 판본과 원대 판본의 주석을 수용하되,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둘 중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석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58) 원대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本에는 86편 전체에 "主意"가 달려있으나 이 과정에서「鄭莊公公叔段」,「鄭敗燕」,「陳五父如鄭涖盟歃如忘」,「晉穆侯命二子名及晉封曲沃」,「齊侯見豕」,「齊魯戰長勺」,「季文子出莒僕」등 7편의 "主意"가 누락된 것으로보인다. 이에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本을확인하여 해당 편에 대한 "主意"를 보충하여 부록에다 실었다.

安正堂本을 보면 서명에는 "句解"라는 단어가 없고, 또 168편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틀은 全本에 가깝다. 그러나 세부적인 측면에서 목록과 주석 내용을 보면 選本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 즉 앞에서처럼 全本과 選本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판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판본을 合本이라고 명명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판본의 변화가 종합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合本 이후에는 오히려 반대의 방향인 간략화나 새로운 방향인 특화라는 두 방향으로 변화했다. 全本 계열의 경우 청대에 들어서 두 종류의 판본이 나오는데, 『詳注東萊先生左氏博議』로 제목이 달린 四庫全書本과 『東萊左氏博議』로 제목이 달린 瞿世瑛이 간행한 淸吟閣刊本이다. 전자는 乾隆연간에, 후자는 道光연간에 간행되었다.

四庫全書本의 경우 『詳注東萊先生左氏博議』으로 삼고 있으므로 合本과 다른 순수한 全本 계열이지만, 이것은 合本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단순히 合本을 당시에 구할 수 없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59) 하지만 淸吟

<sup>58)</sup> 胡培培(2019:80-81)

閣刊本의 경우 각 편의 구성에 있어서 『春秋左氏傳』원문, 主意, 주석이 삭제되어60) 이전 全本 계열 판본에 비해 간략화된 방향으로 편집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選本 계열의 경우 원대 판본의 형식 및 내용을 유지하다가 명 萬曆 연간에 간행된 『新刻翰林批選東萊呂先生左氏博議句解』本에서는 기존 판본의 主意가 '評注'라는 표현으로 교체되고, 주석 내용이 본문 뒤로 배치되면서 典故 및 字音으로 교체된다.61) 서명에는 '九垓'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나주석 내용으로 보면 기존의 選本에서 보이던 종류의 주석이 아니라 全本에서 보이던 종류의 주석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選本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흐름은 청대에 들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데,『評點東萊博議』로 제목이 달린 朱張刊本과『東萊博議』로 제목이 달린 馮泰松刊本이다. 전자는 康熙연간에, 후자는 光緖연간에 간행되었다.62)

馮泰松刊本은 朱張刊本을 저본으로 삼아서 朱張刊本의 특성을 계승하고 있으므로63) 朱張刊本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서명에서부터 보이듯이 더 이상 '句解'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評點'이라는 용어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구성에서는 목록에 있어서 기존 86편에서 2편이 빠진 84편이 수록되어 있고64), 부록으로 권말에 '虚字註釋'65) 부분이 추가되었으며, 각 편의구성에서는 명대의 『新刻翰林批選東萊呂先生左氏博議句解』本에서 본문의뒤에 배치되었던 주석이 아예 삭제되고, 본문의 내용에 대한 19명의 批評이

<sup>59)</sup> 慈波(2016:134)

<sup>60)</sup> 慈波(2016:134)

<sup>61)</sup> 慈波(2016:135)

<sup>62)</sup> 慈波(2016:135-136)

<sup>63)</sup> 慈波(2016:136)

<sup>64) 84</sup>라는 숫자는 168편의 절반으로 나름의 의미가 있는 숫자이다. 그러나 실제로 절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2편을 삭제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sup>65)</sup> 慈波(2016:135), 分起語, 接語, 轉語, 補語, 束語, 歇語 6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달린다.66)

馮泰松刊本의 경우 朱張刊本을 저본으로 全本 계열의 청 道光 연간의 淸吟閣刊本과의 교감을 통해 부족했던 2편을 채워 86편으로 목록을 구성하고, 부록이었던 '虛字註釋'을 목록의 뒤에 배치했으며, 2명을 추가하여 총 21명의 비평을 실었다.67) 실제로 국내에 學民文化社에서 판매하고 있는 86편의 『東萊博議』를 확인해본 결과 이것이 馮泰松刊本임을 서문 및 체례를 통해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朱書의 아들인 朱曉曙가 쓴 '引言'을 馮泰松 본인의 서문 뒤에 수록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논의한 것이 모두 비루하여 보기에 부족하니, 이 편(『東萊博議』)을 취하여 批點을 추가하여 문하에 와서 배우는 士에게 보인다."68)라고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86편에 대해 본문에서 批點을 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69)

이는 기존의 選本에 달렸던 문장 기법에 대한 주석이 명 萬曆 연간에 간행된 『新刻翰林批選東萊呂先生左氏博議句解』本에서 삭제된 이후에 생긴 변화라는 점,周中孚의 『鄭堂讀書記』에 따르면 새로운 방향 역시 여전히 '과시준비용'으로 편집되었음70)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選本의 처음 목표도 결국 과시준비용이었다는 점에서 비록 주석의 형태가 選本은 아닐지라도 편집의 방향성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주석은 全本의 경우 청대 四庫全書本까지는 송대 增注本의 형식이 유지되었으나 淸吟閣刊本에 이르러 간략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選本의 경우 원대 句解本의 형식이 명대『新刻翰林批選東萊呂先生左氏博議句解』本에 이르러 간략화되었다가 청대에 들어서 虚字註釋과 集評이라는 당시 과거시험에 더 적합한 형식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 것을

<sup>66)</sup> 慈波(2016:135)

<sup>67)</sup> 慈波(2016:136)

<sup>68)『</sup>東萊博議』,呂祖謙 撰,商務印書館藏板,學民文化社,1997, p.8. "諸論皆猥鄙,不足觀,稍加批點以示及門受學之士."

<sup>69) 『</sup>東萊博議』商務印書館藏板(1997) pp.23-169.

<sup>70)</sup> 周中孚, 『鄭堂讀書記』卷十 經部六之上, 中國基本古籍庫 齋叢書本, 慈波(2016:135) 에서 재인용.

#### 알 수 있다.

송대의 增註本은 구할 수가 없었으나 四庫全書本이 이를 저본으로 삼고 있고, 四庫全書本과 명대의 合本의 편명이 일치하므로 명대의 合本, 원대의 選本, 청대의 馮泰松刊本 등 세 판본의 목록의 편명을 비교해본 결과 다음 과 같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권편	合本	選本	馮泰松刊本	분류
1-1	鄭莊公共叔段	鄭莊公共叔段	鄭伯克段于鄢	대상
1-7	鄭敗燕 등	用兵	用兵	통합
2-1	隱公問羽數於衆仲	隱公問羽數	隱公問羽數	축약
2-3	鄭伯侵陳大獲	鄭伯侵陳	鄭伯侵陳	축약
2-5	陳五父如鄭涖盟歃如忘	盟會聘享失禮	盟會聘享失禮	통합
3-6	臧哀伯諫納郜鼎	臧哀伯諫郜鼎	臧哀伯諫郜鼎	축약
3-7	晉穆侯命二子名及晉 …	晉封曲沃	晉封曲沃曲沃幷晉	축약
4-2	魯爲班後鄭	齊衛鄭戰于郎	齊鄭衛戰于郎	대상
4-3	鄭太子忽辭昏	鄭太子忽辭昏	鄭忽辭昏	축약
4-5	王師伐虢	詹父以王師伐虢	詹父以王師伐虢	대상
4-7	楚屈瑕敗蒲騷	楚莫敖屈瑕	楚莫敖屈瑕	축약
5-1	祭仲立厲公	祭仲殺雍糾楚殺子南	祭仲殺雍糾楚殺子南	대상
5-7	鄧三甥請殺楚文王	鄧三甥請殺楚子	鄧三甥請殺楚子	축약
6-1	齊侯見豕 등	妖祥	妖祥	통합
8-1	懿氏ト妻敬仲 등	卜筮	卜筮	통합
8-3	晉桓莊之族偪	晉殺其世子申生	晉殺其世子申生	대상
8-5	管敬仲言於齊侯 …	管敬仲言宴	管仲言宴	축약
9-3	里克諫晉侯使太子 …	晉里克	晉里克	축약
9-4	齊侯戍曹遷邢封衛	齊侯救邢封衛	齊侯救邢封衛	축약
10-1	會陽穀謀伐楚	齊伐楚	齊伐楚	축약
10-2	楚伐鄭	鄭孔孫申侯	鄭孔孫申侯	대상
10-3	楚滅弦	楚滅弦黃	楚滅弦黃	대상
10-5	齊威公辭鄭太子華	齊威公辭太子華	齊桓公辭太子華	축약
11-1	會于葵丘尋盟	葵丘之會	葵丘之會	축약
11-5	邢人狄人伐衛	衛侯遜位激民	衛侯遜位激民	대상
11-6	秦取梁新里 등	梁亡	梁亡	통합
12-1	宋公使邾文公用鄧子 등	用人祀神	用人祀神	통합
12-3	子魚宋公圍曹	宋人圍曹	宋人圍曹	축약
12-5	宋襄公及楚人戰于泓	宋公楚人戰于泓	宋公楚人戰于泓	축약
12-8	秦晉遷陸渾之戎	秦晉遷陸渾之戎	秦晉遷陸渾	축약
13-1	邾敗魯於升陘	魯卑邾不設備	魯卑邾不設備	대상
13-3	楚子文使成得臣爲令尹	成得臣郤獻子	成得臣郤獻子	대상
13-6	晉文公秦穆公賦詩 등	賦詩	賦詩	통합

권편	合本	選本	馮泰松刊本	분류
14-2	鄭伯使盜殺子臧	鄭子臧好聚鷸冠	鄭子臧好聚鷸冠	대상
14-3	衛禮至殺邢國子	衛禮至爲銘	衛禮至爲銘	대상
14-4	晉文請隧 啓南陽 등	周與晉田	周與晉陽樊溫原攢茅之田	축약
15-5	臧文仲如晉分曹田	臧文仲分曹田	臧文仲分曹田	축약
16-1	先軫死狄師	先軫狄師	先軫死狄師	축약
16-4	周叔服公孫敖二子 등	相術	相術	통합
16-7	晉襄公朝王先且居胥臣伐衛	晉侯朝王伐衛	晉侯朝王伐衛	축약
18-4	穆伯取己氏	穆伯襄仲	穆伯襄仲	대상
19-1	宋襄夫人殺昭公之黨	宋蕩意諸	宋蕩意諸	대상
19-3	范山說楚子圖北方	楚范山請圖北方	楚范山請圖北方	축약
19-5	楚文無畏戮宋公僕	文之無畏	楚文無畏戮宋公僕	축약
19-6	叔孫得臣獲長狄僑如	長狄	長狄	대상
21-4	狼瞫死秦師	狼瞫秦師	狼瞫死秦師	축약
21-5	楚人滅江秦伯降服	楚人滅江	楚人滅江	축약
22-1	寗嬴從陽處父	陽處父	陽處父	대상
23-7	宋公殺母弟須及昭公子	宋昭公子武氏族	宋昭公子武氏族	대상
24-3	鄭伐宋囚華元	宋華元羊斟	宋華元羊斟	대상
24-4	晉趙盾侵鄭	楚鬪椒	楚鬪椒	대상
25-2	楚箴尹克黃不棄君命	楚箴尹克黃	楚箴尹克黃	축약
25-3	赤狄伐晉圍懷	荀林父伯宗	荀林父伯宗	대상

「丑 2.5」『東萊博議』合本・選本・馮泰松本의 편명 비교

세 판본에서 편명이 다른 것은 총 53편으로, 그 방향은 축약, 통합, 대상의 변경 등의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 25개, 8개, 20개가 해당한다. 대상은 논의의 대상이 잘 드러나도록 편명을 수정한 것으로, 合本의「王師伐虢」이라는 편명이 選本과 馮泰松本에서는「詹父以王師伐虢」으로 변경된경우가 대표적이다. 통합은 『左傳』의 여러 기사를 하나의 대표적인 주제로통합하여 편명을 수정한 것으로, 合本의「齊侯見豕」라는 편명이 選本과 馮泰松本에서는「妖祥」으로 변경된경우가 대표적이다. 축약은 기존의 편명을축약한 것으로, 合本의「鄭伯侵陳大獲」라는 편명이 選本과 馮泰松本에서는「鄭伯侵陳」으로 변경된경우가 대표적이다.

세 판본은 이렇듯 편명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選本과 馮泰松本은 合本71)의 본문에서 크게 전반부, 중반부,

<sup>71)</sup>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合本은 송대의 增註本과 원대의 句解本을 합친 것이므로 合本과 全本은 내용 면에서 삭제된 부분은 없다.

후반부 세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삭제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 주제에서 삭제해도 영향이 없는 부분인 경우도 있으나, 여조겸은 『東萊博議』에서 『左傳』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의 담론을 도출해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정 부분의 삭제가 전체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東萊博議』의 본문 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合本, 選本, 馮泰松本 사이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2.1. 간행 양상에서 제시했듯이 『東萊博議』 판본은 全本은 줄어들고 選本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全本은 주석이 간략화되고, 選本은 원대 句解本의 주석이 간략화되다가 청대에 당시 과거시험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했으며, 全本·合本과 選本·馮泰松本은 내용면에서도 후자가 간략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東萊博議』는 독자에게 과거시험 준비서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수용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독자의 수용 양상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여조겸이 의도한 『東萊博議』의 정체성이 과거시험 준비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장에서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과『左傳』 인식에 대해 분석하여 여조겸이 의도한 『東萊博議』의 정체성을 제시하겠다.

# 3.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 및 『左傳』 인식 분석

# 3.1.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

『東萊博議』168편에 대한 개요는 아래의 표 3.1.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표를 본문에 수록하기에는 분량이 많으므로, 직접 논의하는 59편을 남 기고 전체는 부록에 수록했다. 선택한 『左傳』속 논평의 대상과 이에 대한 태도를 명시하였으며, 태도는 긍정, 비판, 중립으로 구분되며, 중립의 경우 긍정 혹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가 치 중립적 서술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또한,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긍정 후 비판을 하거나 비판 후 긍정을 하는 유형도 발견되어 따로 표시하였다.

본문 내용의 경우 각 부분에 해당하는 핵심어를 추출하여 기재했다. 다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문 구성에서 세부적으로 다루는 몇 편에 대해서는 각 편이 몇 부분으로 구분되며 부분별 내용이 무엇인지를 표시하였고, 인용된 『左傳』부분에 대해서는 굵은 글씨로 구분하였다. 또한, 해당 편에 본문 앞에 인용된 『左傳』기사 이외의 내용이 인용될 경우도 별도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左傳』이 아닌 다른 역사서 혹은 경전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논평도 포함되므로 주요 논평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대상 및 태도에 포함하였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東萊博議』 본문은 『左傳』기사를 둘러싼 衆人으로 대표되는 世俗의 의견과 君子로 대표되는 理學의 담론의 대립으로 구성되며, 이를 여러 역사적 근거와 함께 논증하고 있다. 다만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비유의 사용 여부와 衆人과 君子의 중간 단계인世儒의 의견의 포함 여부가 선택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東萊博議』 본문의 유형은 이러한 여섯 요소의 선택 및 재배치인데, 『左傳』 내용이 서론에서 먼저 등장한 경우는 없으므로 서론의 내용을 기준으로 '世俗', '理', '世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과『左傳』인식

儒', '史', '譬'라는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표에 명시했다.

	合本 편명	句解	서론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共叔段	批	<u>負</u> , <u>青</u> , <b><u><b>匿機</b></u>, <u><b>養惡</b>, 心</u>, <b>險</b>, 興百念, 殺百弟, 罪,</b>	
1	鄭莊公共叔段	О	<b>壁</b> 言	鄭莊公	批	大,至險,欺,朝國天下後         世,先欺心,身得志,心傷         無餘,至拙	詩經,左傳
3	周鄭交惡	О	理	周,鄭 左氏	批批	分, 並稱, 處身, 知, 君子	
4	宋穆公立殤公	О	世儒	宋宣公	批	人,愛,奇高,君子,情同, 愛惡異,反常,怪,過中, 偏, <u>曷嘗厭畏,果,先出</u> , <u>國,傳子,道,未足,必,</u> 傳賢,視,見,未至,竊效, <u>敗</u>	左傳, 公羊 傳,莊子 등
5	衛州吁		理	石碏 州吁	批批批	見,動,情,知,理,萌,溺,愛,心,形,藏,君子,治	莊子
6	臧 僖伯 諫 觀 魚	0	理	臧僖伯	批	禍, 理, 心, 畏, 信, 樂, 知	通鑑, 左傳, 孟子, 周易, 莊子
10	鄭伯侵陳大 獲	О	世俗	陳侯 左氏	批肯	常情,知,治,懼,忽,福,禍,君子,本,末	論語, 史記, 晉書 등
11	鄭伯朝威王		理	周桓王 <u>周桓公</u> 左氏	批 批 批	君子,論事,明,理,見,迹,知,敍事,實	左傳
12	陳五父如鄭 涖盟歃如忘	О	世俗	<u>陳五父</u> 左氏	批肯	觀人,隱,顯,畏,忽,君子,意,理,欺,露,知,影	
15	潁考叔爭車	0	理	潁考叔 左氏	批批	理, 氣, 名, 物, 偏, 人, 全, 推, 孝, 私, 公, 忠	左傳, 孟子, 禮記

# 3.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 및 『左傳』 인식 분석

	合本 편명	句解	서론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羽父	批	敗,爲義,重禍, <b>輕國,推</b> , <b>不亮,弑</b> ,戒,諱,道義, 不幸,恃,索然,遜,不亟,	
18	羽父弑隱公	О	世儒	隱公	批	形外,因,勉,不盡,勇退, 敢至,不警,將,起疑,繼, 極,避禍,自足,怠,實, 自恕,假歲,見責	左傳
19	臧 哀伯 諫 納 郜鼎	О	理	臧哀伯 魯隱公 魯桓公	批 중립 批	篡, 忠, 治, 賊, 智, 所告, 觀, 所處, 所發, 始, 成	禮記,漢書, 左傳,史記
36	齊侯見豕	О	理	子路 左氏	肯 批	怪, 罕, 習, 理, 本, 心, 知, 道, 常, 接, 眞, 所以 然, 同, 受	論語, 孟子, 史記,周易
43	鄭厲公殺傅 瑕原繁	0	理	傅瑕 原繫	批批	國, 亡, 內寇, 惡, 成, 無 助, 應, 中立, 罪, 知, 疑, 姦, 天, 警, 擇, 心	史記, 北史, 國語, 晉書, 五代史, 左 傳
45	原莊公逆王 后于陳		理	周惠王       富辰       子帶       齊桓公       晉文公	批 肯 <b>중</b> 립 肯 批	定名, 心, 身(親歷), 蔽, 怠, 鑑, 縱欲, 通, 見, 理, 待, 薄, 賂, 曲, 恃, 直, 情, 親, 孝	詩經,孟子, 唐書,國語
48	懿氏卜妻敬 仲	О	理	<u>舜, 禹</u> 左氏 <u>懿氏</u> 穆姜	肯 批 批 肯	先, 幾, 氣, 無間, 備, 知, 心, 發, 煩, 占筮, 理, 疏, 求, 事, 信, 安, 自取	孟子, 禮記,周禮,書經
56	里克諫晉侯 使太子伐東 山皐落氏	О	理	里克	肯後 批	資,害,處,兩全,勝,柔, 剛,中立,恕	大學
58	衛文公大布 之衣		理	衛文公       左氏       楚平王	肯 肯 批	治,法,盡,意,體,守,廢	
60	齊寺人貂漏 師	О	世儒	管仲	批	伯, 約, 分, 樂, 權, 犯, 兆, 急, 功利, 巧, 王	管子, 孟子, 論語, 莊子
63	楚滅弦	О	磨言	弦, 黄 左氏 齊	批 批 批	過, 恃, 戒, 辱, 保, 責, 機, 絶, 君子, 名	禮記

	合本 편명	句解	서론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65	齊 威 公 辭 鄭太子華	0	理	管仲	批	道, 待, 彼此, 判, 氣, 專, 心, 己, 本, 格, 制	論語, 孟子
67	宋太子兹父 請立子魚		理	宋襄公	批	駭, 名, 遜, 統, 心, 表,         善, 强, 遇, 明, 理, 不息,         高, 量	論語, 書經
72	   邢人狄人伐   衛	О	理	唐代宗 衛靈公	批	置,見,動,御,能,機,發,天,心,僞,素,純	莊子, 詩經, 通鑑, 新唐 書
74	宋公使邾文 公用鄧子	0	理	<u>宋襄公</u>	批	間, 仁, 暴, 私, 幽明, 合, 原, 滌, 理, 通	孟子,爾雅
77	隨叛楚	О	理	随侯 左氏	批批	憂, 我, 弱, 敵, 强, 論, 由, 畏, 名, 實, 理	莊子
79	魯饑而不害	О	理	魯僖公 臧文仲 左氏	批 批 批	天, 人, 外, 預, 離, 覆, 理, 發, 觀, 精, 形	書經
83	邾敗魯於升 陘	О	世俗	魯僖公 臧文仲	批 肯後 批	常,勝,兵,極,力,理,恃,形,變,操,源,己	莊子,左傳
87	晉重耳奔狄 至降服而囚		世儒	<ul><li>狐偃</li><li>披, 頭</li><li>湏</li><li>晉文公</li><li>孔子</li></ul>	肯 肯 後 批 肯	天, 化, 功, 安, 奪, 驕, 警, 覇, 資, 蔽, 止, 通, 息	孟子,禮記,論語
88	晉文公秦穆 公賦詩	О	理	晉文公	肯	理, 心, 遇, 力, 求, 眩, 眞, 鑿, 盡, 經, 形, 全, 天 機, 詩, 平	論語,孟子, 莊子,詩經
91	衛禮至殺邢 國子	О	世俗	<ul><li>禮至</li><li>左氏</li><li>史官</li></ul>	批 肯 批	壽,金石,託,朽,恃,君子之論,銘,載,恥,誇	大學, 周禮, 莊子
92	晉文請隧 啓 南陽 圍陽樊 圍原 問守原	О	史	數敬 周襄王 晉文公 衛人 孔子	批 批 批 批 情	强, 歸, 形勢, 損, 本, 德, 輔, 勢, 身, 氣, 盡, 王章, 全, 裔, 奪, 內臣, 外臣	左傳
93	展喜犒齊師		世俗	柳下惠	肯 批	緩, 急, 信, 詐, 情, 誠, 兩 全, 用, 所見	史記, 淮南 子

# 3.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 및 『左傳』 인식 분석

	合本 편명	句解	서론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95	宋叛楚卽晉		譬	孔子 晉文公 巫,醫	肯 批 批	言, 會, 理, 折, 盡, 譎, 德, 兼, 偏, 覇. 名, 實, 激, 心, 形, 受	論語
96	晉文夢與楚 子搏		世俗	<u>韓厥</u> <u>公孫强</u> 子服惠 伯 左氏	중립 중립 批 批	形,神,接,夢,想,因, 理,備,心,限	孟子,晉書,論語
97	晉侯作三行		世俗	周 晉文公	批批	當, 責, 可, 避, 名, 僭, 實, 地, 人, 軍, 限, 必, 容, 兼, 禮, 踰	周禮
99	臧 文 仲 如 晉 分曹田	О	理	晉文公       重館人       臧文仲       姜太公	批 批 批 情	利, 處, 貪, 私, 遲, 忸, 共, 動, 親, 義, 盡, 本心, 失, 速, 明善	漢書, 左傳, 國語, 史記, 中庸
100	晉作五軍以 御狄		理	晉文公	批	善, 盡, 改, 漸, 未, 力, 不, 誠, 僞, 巧, 譎, 良, 分	禮記
102	臼季擧郤缺		世俗	臼季	肯	觀,所遇,變,公卿,位, 求,賢,務,思,心,職, 誠,不遇	
105	閏三月非禮		理	魯曆官       孔子       左氏	批背背	贅, 閏, 曆, 實, 本, 理, 損, 至, 不, 聖人之教, 樞	周易, 後漢 書, 公羊傳
111	秦穆公以子 車氏之三子 爲殉		世儒	<u>奄息</u>	批	殉, 忘身, 勇, 輕, 厚, 嫌, 愛身, 理, 私, 實, 爲	
119	晉郤缺言於 趙宣子歸衛 地		理	郤缺	肯後 批	急, 聽, 緩, 言, 强, 自, 同 遊, 利害, 內外, 心, 悟, 理, 無古今, 止	書經
121	箕鄭父殺先 克		世俗	先克       左氏       陽處父       晉襄公	肯 批 批 批	遇禍, 蔽, 不幸, 時, 由, 知, 義, 守, 職, 避, 命, 出, 未, 擅, 救, 不誅	書經, 荀子, 左傳
132	晉侯秦伯圍 鄭		理	晉文公 秦穆公	批批	情,常,安,受,施,報,享,矯,責,傷,忘,全, 繼,過,反,釁	

	合本 편명	句解	서론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狼瞫	批	變,譽,毁,抑,怒,私,	
135	狼瞫死秦師	О	理	賈季	批	發,公,義,責,名,忠,	
				左氏	批	   實, 愧, 嚴, 當, 止, 職	
				孔子	肯	易,喜,厭,盡發,外,中,	
138	寗嬴從陽處 2	О	礕	陽處父	批	無餘,速,不能留,剛,知	家語, 史記
	父			寗嬴	肯	幾	
	邾文公遷於			太史	批	理,事,不對,亟,捨,就,	北史,後漢
139	<b>海又</b> 五色於		理	邾文公	肯	危, 驗, 幸, 知命	書,唐書
				左氏 單伯	肯肯	/E, 啊欢,一, /H FF	日,/白日
	單伯請子叔			<sub></sub> 公羊傳,	Ħ	  未判,疑,後儒,責,淫,	左傳, 公羊
142	<b>单</b> 旧明 J 放		譬	穀梁傳	批	一	傳, 穀梁傳
	<i>,</i> –			左氏	肯	[[] [[] [] [] [] [] [] [] [] [] [] [] []	时, 秋木日
				華耦	批	立言、未輕視、無故、揚惡、	
143	宋華耦辭宴	О	理	孔子	肯	一 觀, 所存, 心, 變, 理, 接	
				左氏	批	( ) ( ) ( ) ( ) ( ) ( ) ( ) ( ) ( ) ( )	
144	公孫敖二子		理		批批	移,權,天屬,尊卑,常分,	
177	144 乙尔从— J	1		左氏	批	愛, 敬, 見, 人爵, 忘	
				季文子	批	言,此,觀,彼,無心,眞,	周禮, 書經,
145	齊人侵西鄙		理	由上户	+1.1.	· 察,旁,取守,開,閉,分,	唐書,莊子
				唐太宗	批	   心, 未安, 改過	<b></b>
					批後	理,厚,養,薄,求,畏,	
147	鄭子家爲書		譬	晉	肯	力,不及,直,過任,抗,	
	告趙宣子			楚	批	恐,告語,迹,心	
						道,衰,權,移,見,禍,	
150	季文子出莒	О	世儒	季文子	   批	   竊,由,借,名,閟,術,	三國志,唐
-200	僕	_		,,,,,	,	當,試,言,意	書
						是非善惡,辨,子孫,定, 是非善惡,辨,子孫,定,	
151	宋公殺母弟	0	世俗	宋昭公	   批	君,天,本心,物,迫,怨,	書經,國語,
131	須及昭公子		EH	NH A	11/1		左傳
				晉靈公	批	思, 乘, 悔, 改 推, 惡, 君, 不君, <u>賂</u> , <u>無</u>	
152	晉不競於楚		世俗	- 日 - 五 - 五 - 五 - 五 - 五 - 五 - 五 - 五 - 五	批	言罪臣,己,實,歸,名,	
152			E-1H	左氏	批		
				宋襄公	批	<u>知, 義, 忍, 分謗</u> 邪說, 辨, 不得已, 在, 時,	
153	<b>酋₹ 人 Ӽ在ӼエӼ</b> 六		理	狂狡	批		左傳
133	鄭人獲狂狡		生	孟子	肯	大豆、大豆、大豆、大豆、大豆、大豆、大豆、大豆、大豆、大豆、大豆、大豆、大豆、大	工仔
				TITE 1	1.4	<u>不見,本,正,心</u>	

	合本 편명	句解	서론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 中口 #			羊斟	批	情,厚薄,疏親,間,享,	
154	鄭伐宋囚華 元	О	理	恭二	肯後	<u>意, 食, 忿, 負國, 恕, 撫,</u>	左傳
	)L			華元	批	   <u>明, 誠, 不足</u>	
				趙盾	중립	物, 順, 逆, 觀, 不見, 凶,	
155	155 晉趙盾侵鄭	О	理	闘椒	   批	<u>明, 汰, 退, 益疾, 理, 不</u>	
					าน	當,所以然,養,納,意善	
				晉靈公	批	亂, 常, 基, 微, 成, 著, 知	
						幾, 暴, 己久, 未著, 靜,	44./m
156	晉靈公不君		理	趙遁	批	   待,形,示弱,誘,聲,晚,	詩經,晉書
				,	,		
	晉趙穿弑靈 公			趙遁	批	心,偏,委,是非,聖人,	
			聲	左氏	批	公平, 弑君, 爲法受惡, 實	
157				董狐	肯	—— —— —— —— —— —— —— —— —— —— —— —— ——	
						當,託誤,潛有所待	
				周武王	肯	興廢,治亂,法,良弊,除,	書經, 左傳,
158	晉成公爲公		理	漢高祖	批	未盡,無公族,復,離,不	漢書, 新唐
130	族		生	晉成公	중립		書
				晉文公	批		<b>目</b>
						日,辯口,幸,開,先文後	詩經. 左傳.
159	楚子問鼎	О	理	王孫滿	批		
						<u>德</u> , <u>欺</u> , <u>矜</u> , 不能屈, <u>虚辭</u> ,	莊子
						<u>不可恃,怠</u> 言端,輕重,事君,無間,	
	楚子從申叔 時諫復封陳			. I. I. mI	,,,	勢心,隨,改移,縣陳,不	
166			理	申叔時	肯	<u>亟諫,求聽</u> , <u>口啓,喻,復</u>	
						封, 渴, 知時, 有餘, 所養	
						<u>堅</u>	

「표 3.1」 『東萊博議』 본문의 구성\_合本과 選本 기준

### 3.1.1. 『東萊博議』 본문의 제재

앞에서 제시한 표의 대상을 살펴보면 크게 '左氏'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左傳』이 역사서라는 특성상 『左傳』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은 서술자인 '左氏'의 시각을 벗어날 수 없

다. 더군다나 『左傳』은 '君子'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左氏'가 직접적으로 인물과 사건에 대해 논평하는 경우도 있다. 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左氏'에 의해 편집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左氏'의 논평 기준을 일반화할 수 있으면, 『左傳』 전반에 걸친 인물 및 사건의 서술 방향도 드러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東萊博議』 역시 '左氏'가 구성해 놓은 『左傳』 속 세계를 여조겸 본인의 눈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즉 여조겸이 '左氏'에 대해서 긍정하고 비판하는 기준을 일반화하면 각 인물 및 사건에 대한 논평 기준을 일반화하는 작업의 열쇠를 마련할 수 있다.

여조겸은 168편에서 수많은 등장인물과 사건72)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으므로 특징을 일반화시키기 쉽지 않다. 단일 등장인물로 제일 빈번하게 논평의 대상이 된 것이 晉 文公으로 총 10회 선정되었으며, 士會가 8회, 臧文仲이 7회 선정되었다. 晉 文公을 논평의 대상으로 삼은 편은「原莊公逆王后于陳」(45),「晉重耳奔狄至降服而囚」(87),「晉文公秦穆公賦詩」(88),「晉文請隧 啓南陽」(92),「宋叛楚即晉」(95),「晉侯作三行」(97),「臧文仲如晉分曹田」(99),「晉作五軍以御狄」(100),「晉侯秦伯圍鄭」(132),「晉成公爲公族」(158) 등의 10편이다.

「原莊公逆王后于陳」(45) 편73)은 齊 桓公이 霸者로 있을 당시에 周 惠王이 狄나라의 침공을 피해 鄭나라로 도망갔는데 晉 文公이 왕을 周나라로 들여보낸 사건을 다루고 있다. 여조겸은 전반부에서 마음에 가리어진 바가 있으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周 惠王,襄王,鄭伯을 예로 들어비판하고,周 襄王의 잘못된 판단을 막으려고 간언했던 富辰을 긍정한다. 후반부에서는 천자와 제후의 관계가 부자 관계와 같으므로 제후는 천자를 구원하는 데 그치고 공을 다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을 다투지 않은 齊 桓公을 긍정하고 공을 다툰 晉 文公을 비판한다. 후반부에서 晉 文公이 논의되고 있으나 주된 논의 대상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sup>72)</sup> 인물과 사건은 동일한 항목이 아닌 별개의 항목으로, 대다수가 인물 논평이지만 用兵(7), 공식행사(12), 姓氏(13), 名子(24), 怪異(36), 卜筮(48), 통치방법(58), 자연현 상(70), 賦詩(88), 夢(96), 閏月(105) 등 11편의 사건 논평이 있다.

<sup>73)</sup> 정태현 · 김병애(2013:116-129)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는 晉 文公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설정한 편은 「晉作五軍以御狄」(100) 편74)으로 여조겸은 전반부에서 허물을 고치는 것을 극진히 하지 못하는 자는 힘이 부족한 것이라서 구제할 방법이 있으나, 허물을 고치는 것을 극진히 하지 않는 자는 성실한 마음(誠心)이 부족한 것이라서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후반부에서는 晉 文公이 三行과 三軍을 兼併하여 천자의 제도를 참람하게 사용하다가 이를 5軍으로 줄인 사건이 허물을 고치는 것을 극진히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晉 文公에 대해 "譎"하다고 판단한 孔子의 논평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리하면,「原莊公逆王后于陳」(45) 편 등은 晉 文公을 素材의 하나로 사용한 경우고,「晉作五軍以御狄」(100) 편은 晉 文公을 題材로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인물 이외에도 다수 선정된 인물이 더 있으나「原莊公逆王后于陳」(45) 편처럼 소재로 사용된 경우에서 관련된 부분을 모으고,「晉作五軍以御狄」(100) 편처럼 제재로 사용된 경우를 중심으로 삼아서 이를 단일인물에 대한 여조겸의 인물론으로 구성할 수는 있을지라도 『左傳』 전반에대한 관점을 일반화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등장인물과 달리 서술자 '左氏'에 대해서 논평한 문장은 22편으로 단순 수치로만 따지더라도 晉 文公의두 배를 넘는다. 3.2.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여조겸은 해당 22편에서서술자로서의 '左氏'에 대해 긍정하고 비판하여 본인이 생각하기에 올바른역사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조겸이 『左傳』 전반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관점을 추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일 대상에 대해서 논평한 경우와 복수 대상에 대해서 논평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복수 대상의 경우 『左傳』속 인물이 아니라 다른 시대의 인물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는 『東萊博議』 본문 구성의 유형을 설명하면서 상술하겠지만 논평 대상에 대한 태도 및 논평 방식과 관련된다. 여조겸은 『左傳』속 인물 및 사건에 대해서 논평하면서 역사적 사례를 근거

<sup>74)</sup> 정태현 · 김병애(2018:446-450)

로 사용하는데, 『左傳』의 다른 사례를 인용한 경우도 있으나 『사기』나 『한 서』와 같은 다른 역사서를 인용한 경우도 있고, 『시경』이나 『논어』와 같은 경전을 인용한 경우도 있으며, 『장자』나 『순자』와 같은 제자서를 인용한 경 우도 있다. 『左傳』 속 주요 논평 대상과 유사하지만 다른 대상이나 대비되 는 이상적인 대상을 역사적 사례에서 가져오는 것이다.

논평 대상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단일 대상에 대해서 단일한 기준으로 논평하는 경우와 복수의 기준으로 논평하는 경우로 구분되고, 복수 대상에 대해서 단일한 기준으로 논평하는 경우와 복수의 기준으로 논평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 3.1.2. 『東萊博議』 본문의 서술 방식

『東萊博議』의 첫 편인「鄭莊公共叔段」(1)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부가 물고기를 속였지 물고기가 어찌 어부를 속였으며, 사냥꾼이 짐승을 속였지 짐승이 어찌 사냥꾼을 속였으며, 莊公이 叔段을 속였지 叔段이어찌 莊公을 속였겠는가? 또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물고기를 꾀어낸 자는 어부요, 함정을 파서 짐승을 꾀어낸 자는 사냥꾼인데, 어부를 책망하지 않고 물고기가 미끼를 삼킨 것을 책망하고, 사냥꾼을 책망하지 않고 짐승이함정에 뛰어들었다고 책망하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莊公은 의심이 많고 음험하며 사나워서 同氣인 동생을 원수처럼 보아서 반드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자 했다. 그래서 機心을 숨기고 그가 친압하게 하고, 동생의 욕심을 풀어주어 그가 방만하게 하고, 동생의 악을 길러서 그가 악행을 이루게 하니, 甲兵의 강성함과 卒乘의 풍부함은 莊公이 꿴미끼이고, 百雉의 京城과 두 邊境의 토지는 莊公이 판 함정이다. 저 叔段의우매하고 완고하여 깨닫지 못함이 물고기와 같고 짐승과 같을 뿐이니, 어찌낚싯바늘에 꿴 미끼를 보고서 삼키지 않고, 땅에 판 함정을 보고서 뛰어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반역으로 그를 유도하고 도리어 반역했다고 주벌하고, 반역으로 가르치고 도리어 반역했다고 토벌하였으니, 莊公의 마음씀씀이가 역시 음험하다.

莊公의 마음은 叔段을 빨리 懲處하면 그의 악행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아 서 사람들이 반드시 복종하지 않을 것이고. 叔段을 느리게 懲處하면 그의 악행이 이미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반드시 말이 없을 것이라고 여긴 것이 다. 莊公이 처음에 문책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장차 叔段의 죄가 많아지길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고자 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叔段의 죄가 날로 자랄수 록 莊公의 악도 함께 자라고, 叔段의 죄가 날로 깊어질수록 莊公의 죄도 함 께 깊어진다는 것을 전혀 모른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莊公이 한 명의 叔段 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볼 뿐이지만, 나는 홀로 '京城에 봉해준 뒤부터 鄢에서 토벌하기 전까지 그가 마음을 두고 생각을 쌓음이 어찌 일찍이 잠깐이라도 叔段을 잊은 적이 있었겠는가? 만약 (죽이려는) 생각을 한 번 일으켰다면 이 는 동생을 한 번 죽인 것이고, 만약 생각을 백 번 일으켰다면 이는 동생을 백 번 죽인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叔段을 죽일 생각이 천만 번으로도 다 셀 수 없으니, 이는 역시 동생을 천만 번 죽이고도 셀 수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의 몸으로 同氣인 동생을 죽인 것이 천만 번에 이르고도 다 셀 수 없다 면 하늘이 덮을 수 없고 땅이 실을 수 없다. 사방의 바닷물의 파도를 뒤집 어쓰더라도 또한 그 악을 씻어내기에 부족하니, 莊公의 죄가 도리어 叔段보 다 크지 않겠는가?

내가 일찍이 반복해서 살핀 뒤에야 莊公의 마음이 천하의 지극히 음험한 것임을 알았다. 祭仲(처럼 간언했던)의 무리는 莊公의 機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叔段의 都城이 제도에서 정한 수치를 넘은 것을 간언했으니, 莊公이 叔段의 都城이 제도에서 정한 수치를 넘기를 정확히 원했음을 알지 못한 것이고, 叔段의 세력이 두터워지면 무리를 얻게 됨을 간언했으니, 莊公이 叔段이 무리를 얻기를 정확히 원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는 온 조정의 卿大夫가 모두 莊公의 계략 속에 빠진 것이다. 鄭나라의 시인도 莊公의 機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가 어머니(의 욕심)를 이기지 못하여 동생을 해쳤다고 풍자했으니, 莊公이 어머니를 이기지 못했다는 명성을 얻기를 정확히 원했음을 알지 못한 것이고, 莊公이 작은 것을 차마 하지 못해 큰 난리를 불렀다고 풍자했으니, 莊公이 작은 것을 차마 하지 못했다는 명성을 얻기를 정확히 원했음을 알지 못한 것이고, 莊公이 작은 것을 차마 하지 못했다는 명성을 얻기를 정확히 원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는 온 나라 사람이 모두 莊公의 계략에 빠진 것이다. 온 조정이 그의 계략에 빠지고 온 나라 사람이 그의 계략에 빠진으되, 莊公의 機心은 오히려 아직 그치지 않아서 魯 隱公 11년에

莊公이 許叔을 봉해줄 때 "과인에게 동생이 있으나 화목하게 지내지 못해서 그가 입을 사방에 풀칠하게 하였는데, 하물며 許나라를 점유하는 것을 오래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莊公이 천하를 속이고자 한 것이다. 魯 莊公 16년에 鄭나라 公父定叔이 衛나라로 도망갔는데, 3년이 지나고 그를 돌아오게 하며 "叔段으로 하여금 鄭나라에 후손이 없게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叔段이 鄭나라에 후손이 있은 지가 오래이니, 叔段의 후사가 있게 한 것은 莊公이 후세를 속이고자 한 것이다. 이미 조정을속이고, 또 나라를 속이며, 또 천하를 속이고 또 후세를 속였으니, 아아 음험하도다 장공의 마음이여.

그러나 장차 남을 속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속여야 하니, 莊公은 그저 다른 사람 중에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가 많은 것을 기뻐하느라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속이는 것 또한 많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속임을 당함의 피해는 몸의 피해이고, 남을 속임의 피해는 마음의 피해이니, 슬픈 일로선 어느 것도 마음이 죽는 것보다 큰 것은 없고, 몸이 죽는 것은 그 다음이다. 속임을 당하는 자는 몸이 비록 해침을 당하나 마음은 여전하고, 남을 속인 자는 몸은 비록 뜻을 얻었으나 마음은 이미 깎여 사라져남은 것이 없으니, 속임을 당한 자가 잃은 바는 매우 가볍고, 속인 자가 잃은 바는 매우 무겁다. 본래 남을 빠뜨리려다가 끝내 스스로 빠진 셈이니, 이는 낚시꾼이 스스로 낚싯바늘의 미끼를 삼킨 것이고, 사냥꾼이 스스로 함정으로 뛰어든 것이다. 천하의 지극히 졸렬한 자가 아니라면 어찌 이 지경에이르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처음에는 莊公을 천하의 지극히 음험한 자로 여겼다가 끝에 가선 莊公을 천하의 지극히 졸렬한 자라고 여기노라.

釣者**負**魚,魚何**負**於釣,獵者負獸,獸何**負**於獵,莊公**負**叔段,叔段何**負**於莊 公.且爲鉤餌,以誘魚者,釣也,爲陷阱,以誘獸者,獵也,**不責**釣者而**責**魚之貪 餌,**不責**獵者而**責**獸之投穽,天下寧有是邪.

莊公,雄猜陰狠,視同氣如寇讐,而欲必致之死. 故**匿其機**而使之狎,縱其欲而使之放,**養其惡**而使之成,甲兵之强,卒乘之富,莊公之鉤餌也,百雉之城,兩鄙之地,莊公之陷穽也. 彼叔段之冥頑不靈,魚耳,獸耳,豈有見鉤餌而不吞,過陷穽而不投者哉. 導之以逆而反誅其逆,敎之以叛而反討其叛,莊公之用心,亦**險**矣.

莊公之心,以謂亟治之,則其惡未顯,人必不服,緩治之,則其惡已暴,人必 無辭. 其始不問者, 蓋將多叔段之罪而斃之也, 殊不知叔段之惡日長而莊公之惡 與之俱長,叔段之罪日深而莊公之罪與之俱深.人徒見莊公欲殺一叔段而已,吾獨以爲 封京之後,伐鄢之前,其處心積慮,曷嘗須臾而忘叔段哉.苟興一念,是殺一弟也.苟**興百念**,是**殺百弟**也.由初暨末,其殺段之念,殆不可千萬計,是亦殺千萬弟而不可計也.一人之身,殺其同氣至於千萬而不可計,天所不覆,地所不載.飜四海之波,亦不足以湔其惡矣,莊公之**罪**,顧不**大**於叔段耶.

吾嘗反覆考之然後,知莊公之心,天下之<u>至險</u>也.祭仲之徒,不識其機,反諫 其都城過制,不知莊公正欲其過制,諫其厚將得衆,不知莊公正欲其得衆.是擧朝 之卿大夫,皆墮其計中矣.鄭之詩人,不識其機,反刺其不勝其母,以害其弟,不 知莊公正欲得不勝其母之名,刺其小不忍以致大亂,不知莊公正欲得小不忍之名. 是擧國之人,皆墮其計中矣.擧朝墮其計,擧國墮其計,莊公之機心,猶未已也, 魯隱之十一年,莊公封許叔而曰 寡人有弟,不能和協,而使糊其口於四方,況能 久有許乎.其爲此言,是莊公欲以欺天下也.魯莊之十六年,鄭公父定叔出奔衛, 三年而復之曰 不可使共叔無後於鄭.則共叔有後於鄭,舊矣,段之有後,是莊公 欲以欺後世也. 旣<u>欺其朝,又欺其國,又欺天下,又欺後世</u>,噫嘻岌岌乎險哉. 莊 公之心歟.

然將欲欺人,必先欺心, 莊公徒喜人之受吾欺者多, 而不知吾自欺其心者亦多. 受欺之害, 身害也, 欺人之害, 心害也, 哀莫大於心死, 而身死亦次之. 受欺者, 身雖害, 而心固自若, 彼欺人者, **身雖得志**, 其心固已斲喪無餘矣, 在彼者所喪甚輕, 在此者所喪甚重. 本欲陷人而卒自陷, 是釣者之自呑鉤餌. 獵者之自投陷 穿也, 非天下之至拙者, 詎至此乎. 故吾始以莊公爲天下之至險, 終以莊公爲天下之**至拙**.75)

	구분	내용	특징	핵심어
1	서언	속임의 주체는 鄭莊公, 대상은 共叔段이다	비유	負, 責
2	본론1	경성태숙에 임명, 영역 확장 방치	『左傳』인용	匿機, 養惡
2	소결1	鄭 莊公의 用心이 음험하다	世儒의 의견	心,險
3	본론2	생각은 실제로 시행한 것과 같다.	理學의 담론	興百念, 殺百弟
3	소결2	鄭 莊公의 죄가 共叔段 보다 크다.	世儒의 의견	罪, 大
4	본론3	조정, 국가, 천하, 후세를 속였다.	역사적 근거	欺,朝國天下後世
4	소결3	鄭 莊公의 用心이 지극히 음험하다.	世儒의 의견	至險
5	본론4	남을 속이려면 자신부터 속여야 한다	理學의 담론	先欺心,身得志,心傷
3	결론	鄭 莊公의 用心이 지극히 졸렬하다	君子의 의견	至拙

「표 3.2」 『東萊博議』 「鄭莊公共叔段」(1) 편의 구성

<sup>75)</sup> 정태현 · 김병애(2012:36-46)

여조겸은 해당 편에서 물고기·짐승·共叔段을 하나의 축으로, 어부·사 냥꾼·鄭 莊公을 다른 하나의 축으로 설정하여 속임의 대상과 주체를 구분 하는 비유를 사용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 물고기와 짐승은 어부와 사냥꾼의 의도에 의해 미끼를 물고 함정에 빠진 것인데 사람들은 물고기와 짐 승에게 책임을 묻고, 어부와 사냥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左傳』속에서 共叔段은 반란을 일으킨 주체이고 鄭 莊公은 대상이었으나, 이 비유를 통해 共叔段이 일으킨 반란이 鄭 莊公의 설계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힘으로써 주체와 대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전환을 바탕으로 鄭 莊公이 共叔段을 위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였던 행동들이 실제로는 共叔段을 죽이고 싶은 마음(機心)을 숨기고 그의 악행을 기르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밝혀서 鄭 莊公의 마음이 음험하다는 소결을 이끌어낸다.

그는 이어서 비록 생각에 그치고 행동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실현된 것과 같다는 명제를 들면서 共叔段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까지 그의 악행을 기르는 동안 鄭 莊公은 수없이 많이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 는 동생을 수없이 많이 죽인 것과 같으므로 鄭 莊公의 죄가 共叔段보다 크 다는 소결을 이끌어낸다. 한 번의 행위가 실현되기까지 마음에서 일어난 작 용의 과정을 구체화하여 죄의 크기를 규명한 것이다.

또한 속임의 대상이 共叔段에 한정되지 않고 동시대를 넘어 후세에 이른다는 것을 역사적 근거를 통해 밝히며 鄭 莊公의 마음이 '지극히 음험함(至險)'을 밝힌다. 『左傳』의 전문에 기록된 祭仲과 公子 몸의 간언을 바탕으로鄭 莊公이 조정을 속였고, 『詩經』「鄭風·將仲子」의「毛序」에 기록된 鄭 莊公에 대한 풍자를 바탕으로 나라를 속였고, 魯 隱公 11년에 鄭 莊公이 許叔을 許나라에 다시 봉하며 共叔段에 대해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천하를 속였고, 魯 莊公 16년에 鄭 厲公이 共叔段의 후손이 鄭나라에 없게 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후세를 속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鄭 莊公이 속인 대상에 대한 깊이와 범위에 대해서 규명한 후,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속여야 한다는 명제를 내세워서 鄭 莊公이

수없이 남들을 속이는 동안 수없이 자신의 마음도 속였음을 주장한다. 鄭莊公이 共叔段을 속이고 죽여서 共叔段은 몸을 잃었으나 마음은 잃지 않았고, 鄭莊公은 뜻한 바를 얻었으나 마음을 잃었다는 것이다. 남을 해치려고속이다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 셈이므로, 속임의 정도에 있어서 지극히음험하였다는 판단이 속임의 결과에 있어서 지극히 졸박했다는 판단으로전환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유를 통해 세속의 의견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고, 속임의 주체와 대상을 구조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左傳』의 기사를 세속의 의견과 다르게 해석하였다. 이어서 '실현되지 않은 생각이라도 실현된 행동과 같다.'라는 이학적 담론을 통해 鄭 莊公의 죄가 共叔段보다 크다는 것을 논증하고,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속임의 대상이 共叔段 하나가 아닌 조정, 국가, 천하, 후세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드러내어 鄭 莊公의 마음씀씀이가 지극히 음험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앎을 지극히한 것은 아니므로 世儒의 의견에 그친다. 그는 '남을 속이려면 자신을 먼저속여야 하고, 그 결과로 마음을 손상시키게 된다.'라는 이학적 담론을 들어서 鄭 莊公은 지극히 졸렬하다는 평가의 전환을 이끌어낸다.

또 『東萊博議』의 네 번째 편인 「宋穆公立殤公」(4) 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모두 奇異함을 아끼지만 군자는 奇異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은 모두 高尚함을 아끼지만 구자는 高尚함을 아끼지 않는다. 군자의 情이 사람들과 일찍이 다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아끼거나 싫어하는 것이 사람들과 다른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사물이 常을 위반하면 怪가 되고, 행동이 中을 지나치면 偏이 된다. 예로부터지금까지 하나의 常만이 있고, 남쪽부터 북쪽까지 하나의 中만 있으니, 이는 常의 밖에서 다시 奇異함을 찾는다면 怪가 되고, 中의 밖에서 다시 高尚함을 찾는다면 偏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奇는 곧 군자

가 말하는 怪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高는 곧 군자가 말하는 偏이다. 지극히 귀중한 것으로 금만 한 게 없고 지극히 많은 것으로 곡식만 한 게 없다. 그러나 곡식을 먹으면 살고 금을 먹으면 죽으니, 常을 위반하는 해로움이 대개 이와 같다. 百里가 떨어진 도읍으로 가는데 반드시 천릿길을 간다면 그의 행보가 빠를수록 목표한 도읍은 멀어지게 되니, 나는 또 中이 과연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겠다.

군자가 행동에 구차하게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언사에 구차하게 살피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백성을 다스림에 전할만한 정치 업적이 없고 병무를 다스림에 기뻐할 만한 공적이 없는 것이 어찌 일찍이 奇異함을 싫어하고 高尚함을 두려워해서이겠는가? (사람들이 말하는) 奇異함이 참된 奇異함이라면 군자는 이미 奇異함으로 먼저 나갔을 것이요, (사람들이 말하는) 高尚함이 참된 高尚함이라면 군자는 이미 高尚함으로 먼저 나갔을 것이다. 군자가 뒷걸음질 치고 머뭇거려서 끝내 (奇高함으로) 나아감을 기꺼워하지 않는 것은 (참된) 奇異함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怪異함을 아끼지 않아서이며, (참된) 高尚함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偏僻됨을 아끼지 않아서이다. 실로 그렇지 않다면 혁혁한 명성을 피하고 녹록한 폄하를 받는 것이 과연 사람의 情이겠는가?

나라를 소유한 자가 그것을 아들에게 전하는 것이 常道요 中道인데, 宋 宣公은 아들에게 전하는 것이 奇異함이 되기에는 부족하고 반드시 아우에게 전해야 奇異함이 된다고 여겼고, 高尚함이 되기에는 부족하고 반드시 아우 에게 전해야 高尚함이 된다고 여긴 것이다. 宋 穆公에게 한번 전하여 그가 아들을 축출하게 했고, 다시 殤公에게 전하여 그가 죽게 만들었다. 公羊氏가 군자는 正道에 居處하는 것을 크게 여기니 宋나라의 화는 宣公이 만든 것이 라고 여겼으니, 그 말이 이미 더할 것이 없다.

내가 일찍이 宣公의 의도를 추론해보건대 반드시 '聖人이 나라를 세우고 서 父子가 서로 잇게 만든 것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 안배한 것이다. 堯임 금이 어떤 사람이길래 왕위를 아들에게 전하지 않고 舜임금에게 전했으며 舜임금은 어떤 사람이길래 왕위를 아들에게 전하지 않고 禹임금에게 전했는 가? 내 어찌 (보통) 사람으로 자처하여 堯舜의 지극히 奇異하고 高尚한 행동을 뒤따르지 않겠는가?'라고 여겼을 것이니, (堯舜이 행한) 道에는 常하지 않음도 없고 中하지 않음도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賢人에게 (왕위를) 전해주는 일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奇異하고 高尚하다고 여기게 되지만 堯舜의 눈으로 보면 그 일의 常을 보지 증異함을 보지 못하며, 그일의 中을 보지 高尚함을 보지 못한다. 만 釣의 솥을 들어 올리는 것을 鳥獲은 常으로 여기나 다른 사람들은 勇猛하다고 여기고, 천 仞의 연못을 헤 엄치는 것을 律人은 常으로 여기나 다른 사람은 神奇하다고 여긴다. 堯舜(의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사사로이 본받고자 하면 겁많은 필부가 烏獲이 들었던 솥을 드는 셈이고, 어린아이가 律人이 헤엄친 연못으로 들어가는 셈이니어디로 가들 실패하지 않겠는가?

<u>人</u>皆**愛奇**, 而<u>君子不愛奇</u>, <u>人</u>皆**愛高**, 而<u>君子不愛高</u>. 君子之<u>情</u>, 未嘗不與人同也.

而**愛惡**與人**異**者,何也? 蓋物**反常**爲**怪**,地<u>過中</u>爲**偏**. 自古自今,惟一常也,自南自北,惟一中也,是常之外而復求奇焉,斯怪矣,是中之外而復求高焉,斯偏矣. 是故衆人之<u>所謂</u>奇,<u>即</u>君子之所謂怪也,衆人之<u>所謂</u>高,<u>即</u>君子之所謂偏也. 至貴莫如金,至多莫如粟,然食粟則生,食金則死,反常之害,蓋如此. 適百里之都,而必行千里之路,其行愈速,其都愈失,吾又知中之果不可過也.

君子所以行不貴苟難,說不貴苟察,治民,無<可傳>76)之政,治兵,無可喜之功者,**曷嘗厭奇**而**畏高**哉?奇若**果**奇,則君子已<u>先出</u>於奇矣,高若**果**高,則君子已<u>先出</u>於高矣.其逡巡退縮,終莫肯就者 非不愛奇也,不愛怪也,非不愛高也,不愛偏也.苟惟不然,則避赫赫之名,受碌碌之毁,果人情也哉?

有**國**者**傳**之**子**, **常道**也, **中道**也, 宋宣公以爲是**未足**以爲奇, **必**傳於弟以爲奇 焉, 是**未足**以爲高 **必**傳於弟以爲高焉. 一傳穆公, 而使之逐其子, 再傳殤公, 而 使之殺其身. 公羊氏以爲君子大居正 宋之禍宣公爲之也, 其說旣無以加矣. 吾嘗

<sup>76)</sup> 合本에는 可傳이 없으나 文淵閣四庫全書本(p.15)에는 있고, 문장의 대칭 구조상 可喜와 호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태현·김병애(2012:65-66)의 주석을 반영하였다.

推宣公之意,必以爲聖人建國,使父子之相繼者,爲衆人設也.堯何人哉,不傳之子,而傳之舜,舜何人哉,不傳之子,而傳之禹?吾何爲以衆人自處,而不慕堯舜至奇至高之行乎?殊不知道無不常,亦無不中.

**傳賢**之事,自衆人**視**之,則以爲奇以爲高,自堯舜**視**之,則**見**其常而**不見**其 奇也,**見**其中而**不見**其高也.扛萬鈞之鼎,烏獲以爲常,而他人以爲勇,游千仞之 淵,津人以爲常,而他人以爲神.**未至**堯舜而**竊效**焉,是懦夫而擧烏獲之鼎,稚子 而入津人之淵也,何往而不**敗**哉?<sup>77)</sup>

	구분	내용	특징	핵심어
1	서언	사람은 奇高를 愛하고 군자는 不愛함	世儒의 의견	人, 愛, 奇高, 君子
1	소결1	사람과 군자의 情은 같으나 愛惡가 다름.	世間의 의견	情同, 愛惡異
	본론1	常을 反하면 怪, 中을 過하면 偏이 됨.	理學의 담론	反常,怪,過中,偏
2	소결2	사람의 奇高는 군자의 怪偏이다.	性字句 百七	所謂, 卽
	22/22	金과 粟, 百里와 千里를 대비	비유	
3	본론2	군자는 奇高를 厭畏하지 않는다.	理學의 담론	曷嘗厭畏
3	소결2	果奇와 果高는 군자가 先出함.	连字月 日七	果, 先出
4	본론3	아들에게 양위함이 常道와 中道이다.	世儒의 의견	國, 傳子, 道
4	소결3	송 宣公은 傳弟를 奇高하다 여김.	『左傳』인용	未足, 必
5	본론4	堯舜은 傳賢을 常中으로 여김	역사적 근거	傳賢, 視, 見
3	결론	요순의 경지가 아니면 본받을 수 없다.	君子의 의견	未至, 竊效, 敗

「표 3.3」 『東萊博議』 「宋穆公立殤公」(4) 편의 구성

여조겸은 서론에서 사람들은 기이하고 고상한 것을 좋아하지만 군자는 기이하고 고상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사람과 군자의 情은 같으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가 다르다는 世儒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해당 편을 시작하고 있다. 이어서 常을 위반하면 怪가 되고, 中을 지나치면 偏이 된다는 이학의 담론을 들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奇高함이 군자가 말하는 怪偏함이므로 군자가 싫어하는 것은 怪偏함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군자가 奇高함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임을 밝힌다. 만약 참된 기이함(果奇)과 참된 고상함(果高)이 있다면 군자가 먼저 나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果奇와 果高는 각각 常과 中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군자는 常과 中을 좋아하지만, 사람들에게

<sup>77)</sup> 정태현 · 김병애(2012:65-67)

는 奇와 高를 싫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常道이며 中道라는 世儒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인용한『左傳』기사 속 宋나라의 禍가 宋 宣公이 아들이 아닌 동생인 宋 穆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기이하고 고상하다고 여겼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宋 宣公은 堯임금이 舜임금에게 선양하고 舜임금이 禹임금에게 선양한 현인에게 물려주기(傳賢) 행위를 奇高하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여조겸이 보기에 실제로는 堯임금과 舜임금은 奇高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선양한 것이 아니라 常中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선양한 것이었다. 즉 宋 宣公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요순이 선양한 것과 같은 것으로, '傳子'나 '傳賢'이 '常中'과 '奇高'의 기준이 아니라 '常中'을 기준으로 한 행위가 상황에 따라 '傳子'나 '傳賢'이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奇高'를 좋아하고 군자는 '奇高'를 싫어한다는 의견과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常道이며 中道라는 의견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둘 다 군자와 성인은 常中을 기준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긴 오해이다. 그러므로 여조겸은 요순의 업적을 본받고자 한다면 요순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며 글을 맺은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두 편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여조겸이『東萊博議』각 편의 본문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최종적인 주장은 결론에 이르러서야 등장하고, 이는 서두에서 제시한 주장을 점진적으로 심화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그에게 있어서「鄭莊公共叔段」(1) 편에서 "반란을 일으킨 共叔段이 잘못했다."라는 판단은 틀렸고, "共叔段의 반란은 鄭 莊公이 만든 것이다."라는 판단은 미진(未盡)하며, '鄭 莊公의 마음이 지극히 음험하다.'라는 판단 역시미진했다. "鄭 莊公은 지극히 졸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끝까지 알게(盡知)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宋穆公立 殤公」(4) 편에서 성인의 경지에 올라야 성인의 행동을 알아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鄭 莊公이 공숙단을 속여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이 본인의 마음을 죽이는 졸박한 짓임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宋宣公이 堯舜의 선양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常中한 행위였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본문의 구성이 앞에서 『東萊博議』 본문의 분류에서 말했던 것처럼, 世俗과世儒의 의견에 대해 유사하거나 대립되는 역사적 인물을 제시하고, 비유 등의 수사법을 사용하여 논박해서 여조겸 본인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담론에까지 나아가는 형식으로 구현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이 잘 드러난 편이 바로 「羽父弑隱公」(18) 편이다.

아아 천하의 의로운 일을 하려는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魯 隱公이 시해당한 일이다. 利라는 것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고, 義라는 것은 사람이 꺼리는 것이니, 만약 의로운 일을 해서 화가 없더라도 사람들은 그래도 (의로운일을) 하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는데, 하물며 화가 가중됨에 있어서라!

隱公이 千乘의 나라를 가볍게 여겨서 桓公에게 주려고 했는데 桓公은 도리어 隱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를 시해했다. 심히 고상한 절개를 지녔으나 심히 잔혹한 화를 입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장차 隱公을 가리켜 경계로 삼아 義를 말하기를 꺼릴 것이다. 隱公이 시해당한 일은 은공(만)의불행이 아니라 道義의 불행이다. 군자가 믿고서 소인을 이기는 까닭은 오직선한 자는 복을 받고 음란한 자는 화를 입는다는 경계가 있어서 겨우 어리석은 세속을 감동하게 할 수 있어서인데, 이미 隱公의 변고가 있으니, (군자가) 평소에 믿고서 소인을 이길 수 있게 해준 도구가 사라진 셈이다. 이것이뜻있는 士가 天道의 無知함에 분노하여 (聖賢이 남긴) 古書를 어루만지며크게 탄식하는 이유이다.

내가 들은 바는 이것과 다르니, 사람들은 모두 隱公이 시해당한 일이 천하의 의로운 일을 하려는 마음을 무너뜨렸다고 여기지만 나는 홀로 隱公이 시해당한 일이 천하의 의로운 일을 하려는 마음을 권면하였다고 여기니, 어째서인가? 隱公의 화는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극진하게 못했기 때문일 뿐이다. 隱公이 나라를 禪讓한 절개는 그 마음이 심히 선명하고 행적이 심히 현저하다. 桓公이 幼弱한 시기에 隱公이

실로 다른 뜻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런 意向을 보였더라면 즉시 (桓公을 죽여서) 가루로 만들었을 것이다. 桓公이 隱公의 손아귀에 있었던 11년 동안에 纖芥와 같은 작은 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길러주고 도와주었다. 위로는 하늘이 있고 아래로는 땅이 있으니, 隱公의 마음과 행적을 무고해서는 안 된다. 한스러워할 만한 것은 그저 의로운 일을 하면서 극진하지 못하여 몇 년의 권력을 욕심내느라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서두르지 못한 것뿐이다. 오직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서두르지 못했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애석해하는 형상이 밖으로 드러나서 羽父가 인하여 桓公을 죽이자는 계책을 들일수 있었다.

만약 隱公이 용감하게 물러나서 高踏한 氣風이 늠름하게 사람들에게 보여 졌다면, 不仁한 자가 감히 隱公의 담장에 이르지 못하고 不義한 자가 隱公의 집에 이르지 못했을 것인데, 하물며 감히 죽이자는 모의와 개돼지 같은 행동으로 隱公을 더럽힘에 있어서라! 지금 羽父가 감히 隱公을 대면하여(桓公을) 죽이자는 말을 밝게 펴고도 꺼리지 않았으니, 이는 隱公의 탐욕을 부리고 애석해하는 형상이 초래한 것이다. 隱公은 오히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서 또 羽父에게 "그가 어리기 때문이다. 나는 장차 물려줄 것이다. 菟裘에 집을 짓게 하고 있으니, 나는 장차 (그곳에서) 늙어갈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將이라는 한 글자가 隱公의 탐욕스럽고 애석해하는 마음이 말에서 형상화된 것이다. 마땅히 주려 한다면 바로 주는 것이니, 어찌 장차 줄 것이라 말했으며, 마땅히 집을 지으려 한다면 바로 짓는 것이니, 어찌 장차 지을 것이라고 말했는가! 기회를 타는 것은 간격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는데 어찌 소위 將이라는 것이 있음을 용납하겠는가? 이것이 (隱公이) 羽父의 모멸을 초래하고 桓公의 의심을 일으켜서 마침내 자기 몸을 죽임에 이른 것이다.

아 隱公이 나라를 禪讓한 의로움은 마음이 이처럼 선명하고 행적이 이처럼 현저하지만, 秋毫의 극진하지 못함하여 갑자기 큰 화를 입은 것이니, 하물며 마음과 행적이 隱公의 드러날 만한 점에 못 미치는 자가 어찌 스스로 권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로써 큰 은혜는 큰 원망과 이웃이 되고, 큰 명성은 큰 치욕과 벗이 된다는 것을 알겠다. 隱公이 桓公에 있어 은혜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극진하지 못함이 있음에 마침내 (큰 은혜가) 변하여 큰 원망이 되었고, 隱公이 魯나라를 禪讓한 것이 명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 극진하지 못함에 마침내 (큰 명성이) 변하여 큰 치욕이 되었으니, 그렇다면 군자가 의로운 일을 함에 밤으로 낮을 이어서 감히 극진함을 쓰지 않음이 없는 것은 그저 義를 성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화를 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난날 隱公이 시해당한 화가 그에게 닥쳐오지 않았더라면 의로운 일을 하려는 자는 한 가지 선행을 세우고 한 번 행동을 닦고 선 점점 스스로 만족하여 태만해져서 다시는 앞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일찍이 반복해서 살펴보건대 隱公의 화는 실로 자신을 용서한 것에서 생겨났다. 隱公의 마음은 '내가 나라를 禪讓하려는 뜻은 左右에서 알고 卿士도 알고 國人도 알고 諸侯도 아니, 내가 끝내 魯나라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결정되었다. 다행히 桓公이 어리니, 아직 偷安하게 왕위에 머물며 세월을 조금 빌릴 수 있다. 그런 뒤에 헌 신을 벗듯이 떠나더라도 사람들에게 반드시책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저 桓公은 무단히 한 나라를 얻으니 어찌 차마세월이 지체되는 것을 못 참겠는가?'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隱公이 비록자신을 용서하였으나 桓公은 隱公을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자신을 용서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찌 隱公의 前轍을 거울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隱公의 화는 이미 자신을 태만하게 하는 의지를 격려할 수 있고, 또 자신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부술 수 있다. 무릇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지 못하는 까닭은 자신을 태만하게 하고 자신을 용서해서일 뿐이다. 한 번 이러한 변고를 겪음에 두 가지 병이 다 치료되어 드넓고 평평하게 펼쳐진 道義의 길을 길고 넓게 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의 의로운 일을하려는 마음을 권면한 것은 隱公이 시해당한 일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嗚呼, **敗**天下<u>爲義之心</u>者,隱公之弑也. 利者,人之所趍,<u>義</u>者,人之所<u>惟</u>, 使爲義而無禍,人猶且不肯爲, 況**重之以禍**乎?

隱公輕千乘之國,而推之威公,威公反不亮其心而弑之. 有甚高之節,而罹甚酷之禍,世將指隱公爲戒而諱言義矣. 是隱公之弑,非隱公之不幸,乃道義之不幸也. 君子所恃以勝小人者,惟有福善禍淫之戒,僅可以動愚俗,旣有隱公之變,則平日所恃以勝小人之具,索然矣. 此有志之士,所以憤天道之無知,撫遺編而浩歎也.

吾之所聞則異於是焉,人皆以爲隱公之弑,敗天下爲義之心,吾獨以爲隱公之弑,可以**勉**天下爲義之心,是何耶?隱公之禍,非坐爲義也,乃坐<u>爲義不盡</u>耳.隱公**逐**國之節,心甚明,迹甚顯.當威公幼弱之時,隱公苟有他志,微見風采,立

可虀粉. 威公在隱公之掌握十有一年,不惟無纖芥之隙,又且長育而輔翼之. 上有天下有地,其心迹不可誣也. 所可恨者,特爲義不盡,貪數年之權而<u>去位不亟</u>耳. 惟其去位不亟. 故貪慕顧惜之**形**見於**外**. 羽父**因**得入殺威公之謀焉.

使隱公<u>勇退</u>,高蹈之風,凜然在人,則不仁者不<u>敢至</u>其墻,不義者不<u>敢至</u>其廬,況敢以戕殺之謀,狗彘之行,浼我乎?今羽父敢對隱公,明發戕賊之言而不忌,是隱公貪慕顧惜之形,有以召之也.隱公尚<u>不自警</u>,方且告羽父曰,爲其少故也.吾<u>將</u>授之矣.使營菟裘,吾<u>將</u>老焉.<u>將</u>之一字,是隱公貪慕顧惜之心,形於言者也.當授即授,何謂<u>將</u>授,當營即營,何謂<u>將</u>營?投機之會,間不容髮,豈容有所謂<u>將</u>者耶?此所以招羽父之侮,起威公之疑,而迄至于殺其身也.

噫隱公遜國之義,心如此之明,迹如此之顯,秋毫不盡,遽(授)[受]78)大禍,況心迹未如隱公之可所見者,其敢不自勉乎?以是知大恩與大怨爲隣,大名與大辱爲朋.隱公之于威公,恩可謂大矣,少有不盡,遂變而爲大怨,隱公之遜魯國,名可謂大矣,少有不盡,遂變而爲大辱.然則君子之爲義,夜以繼日,不敢不用其極者,非特就義,亦所以避禍也.向無隱公之禍迫之,則爲義者,立一善,修一行,沾沾自足,愈而不復前矣.

抑又嘗反覆觀之,隱公之禍,**實**生於**自恕**焉.隱公之心,以謂吾遜國之志,左 右知之,卿士亦知之,國人知之,諸侯亦知之,吾終不有魯國決矣.幸威公之少, 尚可偸安居位,少**假歲**月. 然後脫屣而去之,人**未必見責**也,彼威公無故而得一 國,寧不能忍歲月之淹乎? 然隱公雖自恕,而不知桓公之不我恕也. 人之欲自恕 者,其可不鑑隱公之覆轍乎? 隱公之禍,旣可以激自怠之志,又可以破自恕之私. 凡人之所以不能爲義者,自怠耳,自恕耳. 一經此變,二病俱瘳,蕩蕩平平之義路, 可以長驅而横鶩矣. 故曰,勉天下爲義之心者,隱公之弒也.79)

<sup>78)</sup> 정태현·김병애(2012:204)에는 合本에 授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受로 교정했다고 되어 있고, 全本인 文淵閣四庫全書本(p.60), 選本인 學民文化社 馮泰松本 (1997:39)에도 受로 되어 있으며, 의미도 受가 맞다고 판단하여 따랐다.

<sup>79)</sup> 정태현·김병애(2012:197-206)

	구분	내용	특징	핵심어	
1	서언	爲義의 心을 무너뜨린 것은 魯 隱公이	世儒의 의견	敗,爲義之心,義,	
1	~ 1년	시해당한 일이다.	世間의 의견	憚, 重禍	
	본론1	隱公은 桓公에게 선양하려 하였으나	  『左傳』인용	輕國,推,不亮,弑	
2		桓公에게 시해당했다.	\T.43 G.0		
2	소결1	이는 道義의 불행이니, 믿던 바가 사	世儒의 의견	戒,諱,道義,不幸,	
	그 근1	라졌다.		恃, 索然	
	본론2	隱公은 선양을 빠르게 하지 못해서 탐	理學의 담론	遜, 去位不亟, 形	
3	<del></del>	욕이 밖으로 드러나 시해당했다.	在子勺 日亡	外, 因	
	소결2	의를 극진히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勉, 爲義不盡	
		주는 사례이니, 오히려 권면한 것이다.		/CS, //N/42( 1 IIII.	
	부연	용감히 물러났다면 羽父가 이르지 않		勇退, 敢至	
4	1 12	았을 것이다		<i>开心</i> ,4X王	
-	소결3	스스로 경계하지 못하고 '장차'라는	世儒의 의견	不自警,將,起疑	
	11.53	여지를 두어 의심을 일으켰다.		7.日言,N,尼龙	
	본론3	義는 계속 끝까지 해야만 화를 피할		繼,極,就義,避禍	
5	L L J	수 있다.		wes,1925,4967支,2011円	
	소결4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의 선행에 만족하		一善、自足、怠	
	77.57	여 태만해진다.		口,口尺,心	
	본론4	극진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 용서해서		實, 自恕, 假歲, 未	
6	<u>⊏</u> <del>= 1</del>	다.	君子의 의견	必見責	
0	결론	隱公이 선양하려다가 시해당한 일은	41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2七	의를 극진히 해야함을 권면한 사례다.			

「표 3.4」 『東萊博議』 「羽父弑隱公」(18) 편의 구성

해당 편에서 여조겸은 "의를 행하려는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魯 隱公이 시해당한 일이다."라는 世儒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사람들은 이익을 좋아하고 도의를 꺼리는데, 魯 隱公이 의를 행하려 다가 오히려 시해라는 화를 입었으므로,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을 누르고 의 를 행하려는 사람도 막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들이 魯 隱公이 시해당한 일에 대해 "隱公은 나라를 가볍게 여겨서 桓公에게 물려주려고 했으나, 桓公은 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羽父를 시켜서 시해했다."라는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나왔다. 선행을 하 면 복이 온다는 것이 小人을 설득하던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隱公이 선행을 하려다가 화를 입었으므로 선행을 꺼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서두의 주장을 『左傳』의 내용에 적용한 것이므로, 서두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조겸은 『左傳』에 기록된 魯 隱公의 행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제시하여 世儒의 주장에 반박한다. 魯 隱公이 선양하려 한 것이 의로운 행동인 것은 맞지만, 隱公이 시해당한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행동을 극진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일어난 일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므로 내면의 탐욕이 외부로 드러났고, 이를 제父가 보고 桓公을 죽이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隱公이 거절하자 羽父가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桓公에게 隱公을 시해하자는 제안을 했다고해석한 것이다. 隱公은 羽父에게 桓公을 죽이자는 제안을 듣고서도 즉시 물려주지 않고, "장차 주겠다(將授)"라는 말로 대답했고, 이로 인해 桓公에게도 隱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서 羽父의 제안을 수락했다.

의로운 일을 극진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이에 대해 여조겸은 끝까지 계속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이렇게 해야만 의로운 일을 해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화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속하지 않고한 번의 선행에 만족한다면 점점 나태해지는데, 隱公이 시해당한 덕분에 경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의를 행하려는 마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닌 권면한 것이라는 판단이 설득력 있게 된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논의를 그치지 않고 隱公이 의로운 일을 극진하게 수행하지 못한 이유까지 추론한다. 隱公은 주변 모두가 자신의 선양 계획을 알고 있으므로 그 계획의 수행을 조금 늦춘다고 해서 책망할 사람이 없다고 여겼기에 "장차 주겠다."라는 말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스스로 용서하는 행위(自恕)로,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 隱公은 선양이라는 의로운 행위를 극진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조겸은 외부로 표출되는 의로운 행위의 정도와 내부에서 생성되는 의로운 행위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는 두 측면을 고찰하여 隱公의 시해 사건을 분석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東萊博議』 분문의 구성을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서언	『左傳』의 내용과 관련된 일반론 제시
본론1	『左傳』의 내용에 적용
본론2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 심화
본론3	理學 담론을 적용하여 『左傳』 재해석
결론	이치에 부합하는 君子의 의견 제시

〈표 3.5〉『東萊博議』본문의 구성

### 3.1.3. 『東萊博議』 본문의 문장관

여조겸은 『東萊博議』에서 論事體를 문체로 설정하고 있다. 문체는 문장의 양식이므로 형식 요건을 연상하기 쉽지만, 그는 필수요건으로 내용 요건을 제시한다. 과거시험의 교재로 저술된 만큼 귀납적으로 168편에서 형식 요건을 추출할 수 있으나, 그 결과물은 여조겸 본인이 직접 제시한 형식 요건은 아니다. 그는 「鄭伯朝威王」(11) 편에서 論事에 대한 내용 요건을 敍事와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구분	내용	방법
1	서언	論事는 밝혀지지 않은 이치를 펴는 것이다	用事와 爲事所用
	본론	周나라에 대한 鄭나라의 叛服의 원인	
	예시1	周 桓王이 鄭伯을 예우하지 않음(隱6)	
2	예시2	周나라와 鄭나라가 서로 미워함(隱2)	'左氏'의 敍事와
2	예시3	周 桓王이 鄭伯에게 蘇忿生의 땅 하사(隱11)	君子의 論事 비교
	예시4	周 桓王이 鄭伯의 정권을 빼앗음(桓5)	
	예시5	鄭伯이 周나라 군대에 대한 추격을 멈춤(桓5)	
3	결론	論事는 敍事와 달리 이치를 추론해야 한다	

「표 3.6」 『東萊博議』 「鄭伯朝桓王」(11) 편의 구성

위의 구성을 살펴보면 수미쌍관 구조에 병렬식으로 다섯 가지의 예시를 배치해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조겸은 서두에서 "君子는 일을 논평함에(論事) 반드시 일로 하여금 나의 쓰임이 되게 하고, 내가 일에게 쓰이는 바가 되지 않게 한다. (… 중략 …) 논의를 세움에 있어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치를 펴고자 함이지

그저 이미 드러난 자취를 의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 중략 ···) 사람들은 한갓 이 일을 알 뿐이지만 군자는 홀로 일 밖의 이치를 안다."80)라고 論事 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東萊博議』가 『左傳』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미 드러난 자취'는 『左傳』에 서술된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自序에서 "『左傳』에서 治亂得失의 史蹟을 취하여 그설을 아래에 풀이했다."81)라고 말한 부분과 연결된다. 이는 "남이 아닌 자신을 믿고 눈이 아닌 마음을 믿어야 한다."82)라는 언급을 함께 고려하면 '左氏'가 『左傳』에 서술한 내용을 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 직접 궁구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시1에 해당하는 『左傳』기사는 魯 隱公 6월 겨울에 있었던 것으로 본론의 『춘추』 경문은 없는데 『左傳』 전문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①鄭伯이 周나라로 가니 비로소 환왕에게 조회한 것이다. ②왕이 예우하지 않 <u>자</u> 주 桓公이 환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周나라가 동쪽으로 천도할 때에 진나라와 鄭나라가 (우리가) 의지한 나라였으니, ③鄭나라를 잘 대우하여 오는 것을 권하여도 오히려 이르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하는데, 하물며 예우하 지 않음에 있어서겠습니까? 鄭나라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83)

기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鄭伯이 周나라에 가서 周

<sup>80)</sup> 정태현·김병애(2012:129), "君子之論事,必使事爲吾用,而不使吾爲事所用. (… 중 략 …) 所貴乎立論者,蓋欲發未明之理,非徒議已見之迹也. (… 중 략 …) 衆人徒知 是事,而君子獨知事外之理焉."

<sup>81)</sup> 정태현 · 김병애(2012:31), "乃取左氏書理亂得失之蹟, 疏其說於下."

<sup>82)</sup> 정태현 · 김병애(2012:129), "惟君子之立論, 信己而不信人, 信心而不信目."

<sup>83)</sup> 정태현·김병애(2012:128), "鄭伯如周, 始朝桓王也. 王不禮焉, 周桓公言於王曰 我周之東遷, 晉鄭焉依, 善鄭以勸來者, 猶懼不蔇, 況不禮焉. 鄭不來矣." 이에 관해서 合本 및 中國基本古籍庫 四庫全書本에서는 '註見隱公六年'으로만 기록되어 있으나, 정태현·김병애(2012:128)의 역주를 따랐다.

桓王에게 조회하는 장면, 周 桓王이 鄭伯을 맞이할 때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 장면, 鄭伯이 돌아간 후 주 桓公이 周 桓王에게 간언하는 장면의 연결이다. 그러나 이 세 장면은 다시 상황과 판단이라는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다. 鄭伯이 조회했는데 周 桓王이 예우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주 桓公의 판단이라는 구조이며 상황은 직접 서술을 통해, 판단은 대화를 통해 전달된다. 이 판단은 화자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周 桓王의 행동의 결과로 鄭伯이 앞으로 조회하러 오지 않을 거라고 예견하고 있다. 이전까지 鄭나라가 周나라에 조회하러 오지 않다가 비로소 왔는데, 정작 周 桓王이 그를 예우하지 않았다. 이를 鄭伯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주 桓公의 말처럼 앞으로 다시 周나라에 조회하러 오지 않으리라 판단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

여조겸은 이 짧은 기사에서 이 상황에 대한 周 桓公의 판단의 是非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제후가 왕실에 대한 조회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가 조회 때 제후를 대하는 왕의 태도에 달린 것인가?'가 여조겸이 의문으로 삼은 지점인 것이다. 제후가 왕에게 조회하러 가는 것은 왕실에 복종한다는 증표 중 하나로, 이를 周 桓公의 말에 적용하면 周 桓王이 鄭伯을 예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鄭伯은 周 왕실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해당 기사는 鄭伯의 周 왕실에 대한 복종 문제를 다룬 것이고, 그는 해당 기사를 '제후의 복종을 위해 왕실이 갖추어야 할 태도'라는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기사로 읽은 것이다.

서두에서 "마음을 믿고 눈을 믿지 말라"<sup>84)</sup>고 언급했고, 본론에서는 "『左傳』의 등장인물, '左氏', 衆人"과 "여조겸 본인, 君子"를 대비했으며, 결론에서는 "敍事는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고, 論事는 그 이치를 추론하는 것이다."<sup>85)</sup>라고 언급했다. 이를 정리하면 '目 - 『左傳』의 등장 인물 - '左氏' - 衆人 - 敍事 - 事實'과 '心 - 여조겸 - 君子 - 論事 - 理致'의 두 축이 된

<sup>84)</sup> 정태현 · 김병애(2012:129), "信心而不信目."

<sup>85)</sup> 정태현·김병애(2012:135), "大抵論事之體, 與敍事之體不同. 敍事者, 載其實, 論事者, 推其理."

다. 결국, 여조겸이 제시한 論事體의 내용 요건은 『左傳』에 드러나지 않은 이치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 요건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여조겸은 사실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 아닌 논술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핵심인 '理'를 규명해야 한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문장이라는 것이 사건에 대한 단순 기술이 아닌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論事體에 대한 여조 겸의 내용 요건은 『東萊博議』에서의 문장관에 해당한다고 봐도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여조겸이 『左傳』 전체에 대해 이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左傳』관 분석에서 상술하겠지만 여조겸은 크게 '左氏'가 『左傳』에서 이치를 잘 드러냈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와 『左傳』에서 이치를 잘 드러내지 못했으나 잘 드러낸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있다.

#### 3.1.4. 『東萊博議』 合本과 選本의 본문 구성 비교

『東萊博議』는 168편 중 86편이 선정되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주석으로 달린 판본이 별도로 존재할 정도로 본문의 구성이 다양하다. 따라서 『東萊 博議』의 본문 구성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選本의 주석을 기준으로 86편을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상당한 분량과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본고에서는 選本에 선택된 편과 선택되지 않은 편에 대해 合本과 비교하여 그 토대를 우선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86편의 선별 기준에 대해 규명한 연구가 없으므로, 가설을 세우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론해야 한다. 선별 기준을 생각해보면, 『左傳』기사의 시기 및 대상, 해당 기사에 대한 여조겸의 의견, 문장 기법 및 분량 등을 항목으로 세울 수 있다. 먼저 『左傳』기사의 시기의 경우 앞의 『東萊博議』의 판본별 체례 부분에서 동일한 비율이 유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魯 隱公부터 僖公까지의 선택 비율은 증가했으나 文公과 宣公의 선택 비율은 감소했다는 점, 合本에서 魯 僖公 시기는 48편, 文

公 시기는 45편으로 비슷했으나 選本에서 각 27편과 14편으로 다르게 감소 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다음으로 『左傳』 기사의 대상의 경우 제일 빈번하게 선정된 晉 文公을 **살펴보면**, 「原莊公逆王后于陳」(45), 「晉重耳奔狄至降服而囚」(87), 「晉文公秦 穆公賦詩」(88), 「晉文請隧 啓南陽」(92), 「宋叛楚即晉」(95), 「晉侯作三行」(97), 「臧文仲如晉分曹田」(99)、「晉作五軍以御狄」(100)、「晉侯秦伯圍鄭」(132)、「晉成 公爲公族」(158) 등의 10편 중에서「晉文請隧 啓南陽」(92)과「臧文仲如晉分曹 田」(99) 두 편이 選本에 선택되었다. 「晉文請隧 啓南陽」(92) 편의 경우 周 襄王이 晉 文公의 王章인 隨葬 요구에 王章을 허여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대신 周나라 영토 일부를 하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여조겸은 영토 또한 王章의 일부인데, 이를 가볍게 하사한 周 襄王을 비판하고, 周 나라의 후예 이면서 이를 수령한 晉 文公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에서 魯 成公 2 년에 衛나라가 위기를 구원한 仲叔于奚가 諸章을 요구하자 衛人이 허여하 고 이에 孔子가 邑을 주는 것이 낫다고 논평한 사건을 언급하며 晉 文公은 外臣이고. 仲叔于奚은 內臣이므로 周 襄王이 잘못한 것이 맞다고 끝을 내고 있어서 주된 논평 대상이 晉 文公이 아닌 周 襄王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選本의 제목이 「周與晉陽樊溫原攢茅之田」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더욱 분명 하다.

「臧文仲如晉分曹田」(99) 편의 경우 晉 文公이 曹나라의 땅을 빼앗아 제후들에게 분배하자, 臧文仲이 魯 僖公의 명으로 땅을 받으러 가는데, 가는 길에 머물렀던 重官의 주인이 서둘러 가지 않으면 공순하지 못하다 여겨져서 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충고하자, 서둘러 가서 나누어 받은 사건이다. 여조겸은 晉 文公이 사사로운 원한으로 曹나라를 토벌하여 땅을 분배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나, 주된 논평의 대상은 같은 姬姓國인 曹나라를 돕지 않고 오히려 晉나라가 분배한다고 하자 서둘러 간 臧文仲을 향하고 있다. 결론에서 姜太公이 封土로 천천히 가다가 逆旅人의 말을 듣고 서둘러 간 경우와 대비하고 있고, 選本의 제목이「臧文仲分曹田」으로 표기되어 있으므

로 더욱 분명하다.

晉 文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평하고 있는 문장은「晉作五軍以御狄」(100) 편으로 孔子가 晉 文公에 대해 '譎'하다고 평가한 것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결국 晉 文公이라는 인물은 選本에 선택되지 않았다. 晉 文公이『東萊博議』에서 제일 빈번하게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春秋五霸중 한 명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인물임에도 選本에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논평 대상이 선택 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해당 기사에 대한 여조겸의 의견의 경우, '中立'이라는 용어를 핵심어로 사용한 「鄭厲公殺傅瑕原繁」(43)과 「里克諫晉侯使太子伐東山皋落氏」(56) 편은 둘 다 選本에 선택되었고, '遜(禪讓)'이라는 용어를 핵심어로 사용한 「宋穆公立殤公」(4), 「宋太子茲父請立子魚」(67)와 「邢人狄人伐衛」(72) 편은 67번을 제외한 4번과 72번이 선택되었다. 43번과 56번은 각각 내란을 일으킨 傅瑕보다 중립을 지킨 原繁과 申生을 폐위시키려한 驪姫보다 중립을 지킨 里克의 죄를 크게 책망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다르나 내용은 유사하다. 4번과 67번은 각각 奇高를 좋아하여 아들이 아닌 아우에게 선양하여 弑奪의 화를 만든 宋 宣公과 이유 없이 세상이 놀랄 행동을 하여 명예를 추구하고자 子魚에게 선양한 宋 襄公의 죄를 책망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다르나 내용은 유사하다. 다만 72번의 경우 衛 文公과 靈公은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욕으로 國難에 왕위를 양보하려고 하여 백성의 애국심을 건드려 극복한 점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내용도 다르다. 이는특정 내용에 대한 선호나 중복 여부가 選本의 선택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분량의 경우 選本에서 제일 긴 문장이「齊寺人貂漏師」(60) 편으로 956字이고 合本은 1,371字이고 사고전서본은 1,365字이며, 제일 짧은 문장이「宋穆公立殤公」(4) 편으로 255字이고 合本은 561字이고 사고전서본은 562字로86), 選本으로 편집되는 과정에서 분량이 긴 문장도 선택되었으며 편집자

<sup>86)</sup> 罗莹(2011:92)에서는 4권의 86편 판본이라고만 언급하고 정확히 어떤 판본을 참고

주관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삭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삭제된 부분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選本 86편에 대해 合本을 기준으로 삭제된 부분을 파악했다. 서두을 전반부라는 의미에서 '前'으로, 본론을 중반부라는 의미에서 '中'으로, 결론을 후반부라는 의미에서 '後'로 표기했다. 해당 부분에서 일부만 삭제되어 해당 부분의 의미에 영향을 안 준다고 판단한 것은 '少'로, 삭제된 부분의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비유, 가정, 역사적 사례, 부연, 반박 등으로 표시했다. 중반부가 삭제된 경우 의미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으나 심화하는 부분 중 한 부분이 모두 삭제되는 게 두 경우가 있어서 별로도 표시했다.87)

	번호	合本 편명	삭제된 부분			비고
	건오	日本 むで	前	中	後	17 H
1	1	鄭莊公共叔段		О		
2	3	周鄭交惡		О		
3	4	宋穆公立殤公	О	О		多量
4	6	臧僖伯諫觀魚	О			多量
5	7	鄭敗燕	О	О		多量
6	8	隱公問羽數於衆仲	0	0		
7	10	鄭伯侵陳大獲	О	О	O(少)	
8	12	陳五父如鄭涖盟歃如忘	0	0		
9	15	潁考叔爭車		О	O(少)	
10	16	齊魯鄭入許		0	0	多量
11	17	息侯伐鄭		О		
12	18	羽父弑隱公		0	0	多量
13	19	臧哀伯諫納郜鼎		О		
14	20	晉穆侯命二子名及晉封曲沃	О	О		
15	22	魯爲班後鄭	0			
16	23	鄭太子忽辭昏			O(少)	
17	25	王師伐虢		0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罗莹(2011:94)에서는 현재 유행하는 86편 판본에서는 해당 편의 글자 수에 대해 256字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판본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sup>87)</sup> 다만『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실물은 일정 시간에만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스캔 파일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접근의 편의성을 위해 學民文化社의 馮泰松本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馮泰松本의 쪽 수를 사용하였다.

### 3.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 및 『左傳』 인식 분석

	, 11 <del></del>	V + -3-3	삭제된 부분		w) =	
	번호	合本 편명	前	中	後	비고
18	26	虞叔伐虞公	O(少)	0	O(少)	
19	27	楚屈瑕敗蒲騷	O(少)			
20	28	祭仲立厲公	О			
21	29	盗殺伋壽				
22	31	威公與文姜如齊	O(少)			
23	33	楚武王心蕩		0		
24	34	鄧三甥請殺楚文王		0	0(少)	
25	35	魯莊公圍郕	O(少)	0		
26	36	齊侯見豕		О	О	多量
27	39	齊魯戰長勺	О		0(少)	
28	41	宋萬弑閔公				
29	43	鄭厲公殺傅瑕原繁	О	О		
30	44	王賜虢公晉侯玉馬	О	0		
31	46	鬻拳兵諫	О			
32	48	懿氏卜妻敬仲		0		
33	49	曹劌諫觀社	О	0		수정 빈번
34	50	晉桓莊之族偪		0		
35	52	管敬仲言於齊侯…	О	0	0	
36	53	齊仲孫湫觀政	O(少)	О		
37	55	衛懿公好鶴				
38	56	里克諫晉侯…	О	00		多量
39	57	戍曹遷邢封衛	O(少)			
40	60	齊寺人貂漏師		О		
41	61	會陽穀謀伐楚		0		
42	62	<b>楚伐鄭</b>	О			
43	63	楚滅弦				
44	64	楚文王寵申侯		0		
45	65	齊威公辭鄭太子華	O(譬)	0	O(少)	
46	68	會于葵丘尋盟				
47	72	邢人狄人伐衛	0(少)		O(少)	
48	73	秦取梁新里	О	0		
49	74	宋公使邾文公用鄧子				
50	76	子魚宋公圍曹				
51	77	隨叛楚	0(少)			
52	78	宋襄公及楚人戰于泓	O(少, 譬)			
53	79	魯饑而不害	O(少)			
54	80	成風請封須句		0		
55	81	秦晉遷陸渾之戎				
56	82	子圉逃歸	0(少)			
57	83	邾敗魯於升陘	O(反, 譬)			
58	85	楚子文使成得臣爲令尹	0(少)	0		
59	86	晉懷公殺狐突	0(少)			
60	88	晉文公秦穆公賦詩		0		
61	90	鄭伯使盜殺子臧	O(譬)	0		

	비소	스士 저머		삭제된 부분		ul =
	번호	合本 편명	前	中	後	비고
62	91	衛禮至殺邢國子			0	
63	92	晉文請隧 啓南陽 …		0	O(少)	
64	94	楚滅夔			О	多量
65	99	臧文仲如晉分曹田	O(少)			
66	101	先軫死狄師		О	O(少)	
67	104	周叔服公孫敖二子		0		
68	107	晉襄公朝王先且居胥臣伐衛	O(史)	О	O(少)	
69	117	穆伯取己氏	O(少)	0		
70	120	宋襄夫人殺昭公之黨	O(少)			
71	122	范山說楚子圖北方	О	О	O(譬)	
72	124	楚文無畏戮宋公僕	O(敷)	0		
73	125	叔孫得臣獲長狄僑如		0	O(假)	
74	131	周公王孫蘓訟于晉	O(譬)			
75	135	狼瞫死秦師	0	0		多量
76	136	楚人滅江秦伯降服	O(譬)	00		多量
77	138	寗嬴從陽處父	О	О	О	多量
78	143	宋華耦辭宴	O(詩經)	0	0	多量
79	150	季文子出莒僕	O(少)	О		
80	151	宋公殺母弟須及昭公子	O(敷, 譬)	О		
81	154	鄭伐宋囚華元				
82	155	晉趙盾侵鄭				
83	159	楚子問鼎			O(譬)	
84	161	楚箴尹克黃不棄君命	O(史)	0	O(少)	
85	162	赤狄伐晉圍懷				
86	168	公孫歸父言魯樂		0		
		합 계	48	53	23	

「표 3.7」 合本을 기준으로 選本에서 삭제된 부분

삭제된 횟수로 봤을 때 중반부, 전반부, 후반부 순으로 많았으며, 전반부와 중반부보다 후반부가 상당히 적게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게삭제된 경우, 비유가 삭제된 경우, 가정이 삭제된 경우를 제외하면 후반부는 8편으로, 전반부가 21편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는 앞의 『東萊博議』본문의 구성에서도 확인했듯이 여조겸은 미괄식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본문을 삭제할 때도 후반부를 삭제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삭제가『東萊博議』본문의 각 부분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편을 살펴보겠다. 다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東萊博 議』본문의 구성에서 살펴본 세 편을 대상으로 선정하겠다. 이들은 각각 전 반부, 중반부, 후반부가 삭제된 경우이므로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먼저,「鄭莊公共叔段」(1) 편은 중반부가 삭제된 편으로 合本은 843字, 사고전서본은 843字, 選本은 762字로 판본 간의 글자 수 차이가 81字로 적게 난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88)

	구분	選本에 삭제된 부분	選本에 수정/추가된 부분
1	서언	-	-
2	본론1	-	-
2	소결1	-	-
		由初暨末,其殺段之念,殆不可千萬計,是	
	본론2	亦殺千萬弟而不可計也. 一人之身, 殺其同	   <b>莊</b> 公之心 → <b>蓋</b> 公之心
3	112	氣至於千萬而不可計, 天所不覆, 地所不	
		載, 飜四海之波, 亦不足以湔其惡矣.(63字)	
	소결2	-	-
		然後知莊公之心 → 然後莊公(1字)	魯隱公十日年 → 魯隱之十日年
	본론3	然仅和社公之心,然仅社公(1于)	使糊其口 → 使餬其口
4	L L J	擧朝墮其計,擧國墮其計.(10字)	況能 → <b>其</b> 況能(1字)
		争初望共间,争凶望共间。(10丁)	魯莊十六 → 魯莊 <b>之</b> 十六(1字)
	소결3	-	-
		然將欲欺人 → 將欲欺人(1字)	
5	본론4	而心 <b>固</b> 自若 → 而心自若(1字)	必先欺心 → 必先欺 <b>其</b> 心(1字)
3		本欲陷人而卒自陷.(8字)	
	결론	-	-

「표 3.8」「鄭莊公共叔段」(1) 편에 대한 合本과 選本의 차이

본론2에서 수정된 '蓋', 본론3에서 삭제된 '知', 추가된 '之', 수정된 '餬', '之', 본론4에서 삭제된 '然', '固', 추가된 '其'는 모두 해당 문장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론2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생각이라도 실현된 행동과 같다.' 라는 이학적 담론을 통해 鄭 莊公의 죄가 공숙단보다 크다는 것을 논증하 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삭제된 부분은 鄭 莊公의 죄의 크기를 백 번 에서 천만 번으로 확장하고 그렇게 거대한 죄는 씻을 수 없음을 주장하는

<sup>88)</sup> 정태현 · 김병애(2012:36-46), 學民文化社 馮泰松本(1997:23-24)

부분으로 삭제하더라도 본론2의 내용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 본론 3에서 생략된 문장은 본문의 '是擧朝之卿大夫, 皆墮其計中矣'와 '是擧國之人, 皆墮其計中矣'를 축약하여 서술한 것이므로 역시 삭제하더라도 본론3의 내용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 위에서 본론4에서 생략된 문장은 본문의 '莊公徒喜人之受吾欺者多, 而不知吾自欺其心者亦多'를 요약하는 부분으로 삭제하더라도 본론3의 내용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

다음으로 「宋穆公立殤公」(4) 편은 전반부가 삭제된 경우로, 合本이 561字이고 選本이 255字로 306字가 차이난다.89)

	구분	選本에 삭제된 부분	選本에 수정/
			추가된 부분
1	서언	人皆愛奇,而君子不愛奇,人皆愛高,而君子不愛高.(20字)	-
	소결1	君子之情,未嘗不與人同也,而愛惡與人異者,何也?(20字)	-
		蓋物反常爲怪,地過中爲偏. 自古自今 惟一常也,自南自北,惟一	
	본론1	中也,是常之外而復求奇焉,斯怪矣,是中之外而復求高焉,斯偏矣.	-
		(51字)	
		是故衆人之所謂奇, 即君子之所謂怪也. 衆人之所謂高, 即君子之所	
2		謂偏也.(30字)	
	소결2	至貴莫如金 至多莫如粟,然食粟則生,食金則死,反常之害,蓋如	_
		此. 適百里之都, 而必行千里之路, 其行愈速, 其都愈失, 吾又知中	
		之果不可過也. (56字)	
	본론2	君子所以行不貴苟難,說不貴苟察,治民,無之政,治兵,無可喜之	
	~~2	功者, 曷嘗厭奇而畏高哉!(35字)	-
		奇若果奇, 則君子已先出於奇矣, 高若果高, 則君子已先出於高	
3	소결2	矣.(26字)	-
	소설2	其逡巡退縮,終莫肯就者,非不愛奇也,不愛怪也,非不愛高也,不	
		愛偏也. 苟惟不然, 則避赫赫之名, 受碌碌之毁, 果人情也哉.(48字)	-
	본론3		-
4	۸ <del>کا</del> ۲	宋宣公 <b>以爲是未足以爲奇</b> ,必傳於弟以爲奇 <b>焉,是未足以爲高,必傳</b>	
	소결3	於弟以爲高焉.(20字)	-
	본론4	-	-
5	결론	-	-

「표 3.9」「宋穆公立殤公」(4) 편에 대한 合本과 選本의 차이

<sup>89)</sup> 정태현 · 김병애(2012:65-67)

소결3에서 삭제된 부분은 문장의 기교를 위해 쓰인 대구를 줄인 것으로 전체 내용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서두에서부터 소결2에 이르는 286字의 삭제는 전체 내용에 유의미한 변화를 준다. 물론 앞에서 「宋穆公立殤公(4)」 편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송 宣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본론3과 소결3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나, 여조겸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常과 中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 전반부, 특히 본론1과 소결2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점에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해당 편에 대한 選本의 "主意"는 "송 宣公이 기이하고 고상한 행동을 좋아하여 아들에게 왕위를 전해주지 않고 아우에게 전하여 弑奪의 禍를 연 것을 나무란 것이다."90)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羽父弑隱公」(18) 편은 후반부가 삭제된 경우로, 合本이 889字이고 選本이 554字로 335字가 차이난다.<sup>91)</sup>

	구분	選本에 생략된 부분	選本에 수정/ 추가된 부분
1	서언	-	所 <b>趁</b> → 所 <b>趨</b>
	본론1	-	-
		是隱公之弒, 非隱公之不幸, 乃道義之不幸也. 君子所恃以勝小	
2	\ =1.	人者, 惟有福善禍淫之戒. 僅可以動愚俗, 既有隱公之變, 則平日	
	소결1	所恃以勝小人之具, 索然矣. 此有志之士, 所以憤天道之無知, 撫	-
		遺編而浩歎也.(81字)	
3	본론2		<b>風</b> 采 → <b>丰</b> 采
5	소결2	隱公之弑(4字)	隱公之禍 → 弑
4	부연	-	是 → 是必(1字)
4	소결3	者(1字)	<b>迄</b> 至于 → <b>卒</b> 至於
		以是知大恩與大怨爲隣,大名與大辱爲朋. 隱公之于威公,恩可	
5	본론3	謂大矣,少有不盡,遂變而爲大怨.隱公之遜魯國,名可謂大矣,	-
		少有不盡, 遂變而爲大辱.(59字)	
	소결4		-
6	본론4	抑又當反覆觀之,隱公之禍,實生於自恕焉. 隱公之心,以謂吾遜	-

<sup>90)</sup> 정태현 · 김병애(2012:64), "責宣公好奇好高, 不傳於子而傳於弟, 所以啓弑奪之禍."

<sup>91)</sup> 정태현 · 김병애(2012:197-206), 學民文化社 馮泰松本(1997:38-39)

	國之志,左右知之,卿士亦知之,國人知之,諸侯亦知之,吾終不	
	有魯國決矣. 幸威公之少, 尚可偸安居位, 少假歲月, 然後脫屣而	
	去之,人未必見責也. 彼威公無故而得一國,寧不能忍歲月之淹	
	乎? 然隱公雖自恕,而不知桓公之不我恕也. 人之欲自恕者,其	
	可不鑑隱公之覆轍乎. 隱公之禍, 旣可以激自怠之志, 又可以破	
	自恕之私,凡人之所以不能爲義者,自怠耳,自恕耳,一經此變,	
	二病俱瘳,蕩蕩平平之義路,可以長驅而横騖矣.(191字)	
결론		

「표 3.10」 「羽父弑隱公」(18) 편에 대한 合本과 選本의 차이

소결1에서 삭제된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魯 隱公(의 일)을 지적하여 경계로 삼고 의를 말하는 것을 피할 것이다.'92)라는 주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므로, 소결1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본론3에서 삭제된 부분도 隱公이의로운 행위를 극진하게 수행하지 않아서 시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부연설명이므로 본론3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본론4에서 삭제된 부분은 隱公이 극진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 전체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이 삭제되면 앞에서 분석했던 해 당 편에서의 여조겸의 최종 의견이 삭제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의 의미를 넘어서 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鄭莊公共叔段」(1) 편과 같이 合本에서 삭제된 부분이 해당 편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宋穆公立殤公」(4) 편과「羽父弑隱公」(18) 편처럼 해당 편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두 편이라면 차이가 적겠지만, 위에서 제시한 표 3.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하더라도 30편이다. 이를 고려하면 選本에 실린 86편을 읽더라도 판본이 合本과 選本인 경우에따라 다른 인식을 지니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東萊博議』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86편의 選本이 아닌 168편의 合本을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3.1.1.의 『東萊博議』 본문의 제

<sup>92)</sup> 정태현 · 김병애(2012:198), "世將指隱公爲戒而諱言義矣."

재에서도 서술했듯이, 여조겸은 168편에서 수많은 등장인물과 사건<sup>93)</sup>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으므로 특징을 일반화시키기 쉽지 않다.

『左傳』이 '左氏'에 의해 편집된 결과물이므로 '左氏'의 논평 기준을 일반화할 수 있으면, 『左傳』 전반에 걸친 인물 및 사건의 서술 방향도 드러나게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東萊博議』 역시 '左氏'가 구성해 놓은 『左傳』 속세계를 여조겸 본인의 눈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즉 그가 '左氏'에 대해서 긍정하고 비판하는 기준을 일반화하면 각 인물 및 사건에 대한 논평 기준을일반화하는 작업의 열쇠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여조겸은 自序에서 여러 經傳 중에서 『左傳』을 소재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의 『左傳』에 대한 인식을 일반화하는 작업에 앞서 그 이유를 추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송대에 『左傳』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을 통해 실마리를 마련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용 전반을 서술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의 명확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존재하므로, 본고에서는 과거시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3.2. 『東萊博議』의 『左傳』 인식 분석

## 3.2.1. 송대 과거제도에서의 『左傳』 수용 양상

송나라는 당나라 말엽부터 五代十國 시기에 이르는 혼란을 수습하고 건립된 국가이다. 이러한 건국 배경으로 인해 송나라는 文治를 표방하며 과거제도를 시행하여 봉건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했다.94) 송대의 과거제

<sup>93)</sup> 인물과 사건은 동일한 항목이 아닌 별개의 항목으로, 대다수가 인물 논평이지만 用兵(7), 공식행사(12), 姓氏(13), 名子(24), 怪異(36), 卜筮(48), 통치방법(58), 자연현 상(70), 賦詩(88), 夢(96), 閏月(105) 등 11편의 사건 논평이 있다.

<sup>94)</sup> 金诤 著(2002) 『중국과거문화사』, 김효민 譯, 동아시아, pp.151-152.

도는 수·당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통해 수립하였으므로, 수·당대의 과거제도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수나라는 經義나 政事에 대해 의론하는 글을 쓰는 策論95)을 과목으로 규정했고96), 당나라는 帖經·墨義를 세부 과목으로 하는 明經科와 詩賦를 세부 과목으로 하는 進士科를 추가했다.97) 이 중 明經科는 『周禮』・『儀禮』・『禮記』의 3禮, 『左傳』・『公羊傳』・『穀梁傳』의 3傳, 『詩經』・『書經』・『易經』의 3經 등 아홉 경전을 대상으로 규정했다.98) 그러나 帖經과 墨義는 경전에 대한 암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응시자의 해석이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99)

송나라의 과거제도는 시기와 내용을 기준으로 크게 북송 초기, 북송 중기, 남송 초기, 남송 중기 등의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100) 송 太祖는 당나라 과거제도의 병폐가 추천제를 이용한 귀족 계층의 독점에 있다고 보고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고, 이러한 정신은 太宗이 과거 응시생의 개인정보를 차단한 彌封과 필적 조회 방지를 위해 등사하게 하는 謄錄의시행으로 계승되었다.101) 그러나 이는 과거제도의 내용에 대한 개선이 아닌 형식에 대한 개선이었다.

<sup>95)</sup> 王凱符 著(2015) 『팔고문이란 무엇인가』, 김효민 역, 글항아리, p.345.

<sup>96)</sup> 王凱符(2015:48)

<sup>97)</sup> 金诤(2002:89-98). 帖經은 경전의 한 단락 중 부분적으로 가린 후 외우는 것이고, 墨義는 경문의 注疏나 전후 부분을 서면으로 답하는 것이다.

<sup>98)</sup> 王凱符(2015:48)

<sup>99)</sup> 金诤(2002:91-92); 王凱符(2015:48-49)

<sup>100)</sup> 金诤(2002:89-98); 王凱符(2015:48-49); 朱效梅·郑国民(2000)「宋代科举考试与独尊儒术封建文化的关系」,『社会科学辑刊』4, pp.95-98; 俞樟华·林怡,(2005)「宋代『左传』学概述」,『古籍整理研究学刊』1, pp.28-33; 王宇(2004)「南宋科场与永嘉学派的崛起」,『浙江社会科学』2, pp.151-156; 李昇(2015)「南宋理学家编选『左传』风尚的形成及其文化成因」,『铜仁学院学报』5, pp.30-38을 중합하여 판단하였다. 다만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여조겸의『東萊博議』는 南宋의 孝宗 제위기에 저술되었으므로 남송 초기까지를 논의할 것이다.

<sup>101)</sup> 金诤(2002:152-156)

초기부터 귀족 계층의 독점을 제한하려 한 것은 봉건 사회의 결속력 강화와 관련되어 있다. 俞樟华·林怡(2005)에 따르면 송 왕실은 계급 구분 및사회 통제의 정당성을 儒家의 理學에서 찾으려고 했으며 이러한 욕망이 中唐 시기부터 이어져 온 "傳을 버리고 經을 궁구하기(棄傳求經)"의 학술 흐름과 조우하여 『春秋』와 "大義"를 중점적으로 해석한 『公羊傳』・『穀梁傳』에 대한 중시 및 "事를 전달하지, 義를 전달하지 않는다(傳事不傳義)"로 간주되던 『左傳』에 대한 경시로 이어졌다.102)

그러나 당나라 때 明經科가 3禮·3傳·3經 등의 9經을 대상으로 규정한 뒤로 북송 중기에 王安石이 明經科를 폐지하기 전에는 『左傳』이 제외되지 않았고, 9經 내부에서도 북송 초기에 『禮記』·『春秋左氏傳』을 大經으로, 『詩經』·『周禮』·『儀禮』를 中經으로, 『易經』·『書經』·『公羊傳』·『穀梁傳』을 小經으로 구분했다는 점103)을 고려하면 오히려 『公羊傳』·『穀梁傳』에 비해 『左傳』의 위상이 높았다. 다만, 眞倧 景德 2년에 『易經』·『書經』·『詩經』·『禮記』·『左傳』을 대상으로 선정한 唐代의 『五經正義』에 『周禮』·『儀禮』·『公羊傳』·『穀梁傳』·『孝經』·『論語』·『爾雅』가 추가되고 이후 『孟子』가 추가되어 『十三經注疏』가 형성되었다는 점104)을 고려하면 3전의 위상이 대등해졌다고는 볼 수 있으나, 북송 초기에 『左傳』에 대한 경시 풍조가 있었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과거제도의 내용에 대한 개선은 仁宗 때 范仲淹, 歐陽脩 등이 주축이 되어 시행한 "慶曆新政"에서 시작된다. 이 개혁은 각 주현의 학교에서 3백 일이상의 의무 학습, 詩賦에 대한 策論의 상대적 중시, 帖經·墨義의 폐지, 彌封·謄錄의 폐지를 골자로 한다.105) 비록 현실성 부족으로 인해 폐지되었으

<sup>102)</sup> 俞樟华·林怡(2005:28-29)

<sup>103)</sup> 李昇(2015:35)

<sup>104)</sup> 고지마 쓰요시 著(2004) 『송학의 형성과 전개』, 신현승 역, 논형, p.102; 朱效梅‧郑国民(2000:96). 다만 朱效梅‧郑国民(2000:96)의 경우『論語正義』를 나중에 추가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孟子正義』의 표기 오류로 보인다.

<sup>105)</sup> 金诤(2002:169-171)

나 神宗 때 王安石이 주축이 되어 시행한 變法으로 계승된다. 이 개혁은 進士科로의 통합, 詩賦·帖經·墨義의 폐지, 經義·策論으로의 변경을 골자로한다. 經義의 대상은 『周易』・『詩經』・『書經』・『周禮』・『禮記』 등의 本經106) 과 『論語』・『孟子』 등의 兼經이고107), 進士科는 本經·兼經·論·策 등의 네종류의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108)

王安石은 이 중 經義에 대해『詩經』·『書經』·『周禮』를 대상으로 한『三經新義』를 찬술하여 사상과 학술의 통일을 추구했다.109) 이는 지배 계급에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된 것110)이며, 북송 초기부터 이어져 온 봉건 사회의 결속력 강화 의지에 대한 계승으로 보인다.

<sup>106)</sup> 고지마 쓰요시(2004:101)에 따르면 이는 『春秋』에 대한 배제이다.

<sup>107)</sup> 金诤(2002:173-174)

<sup>108)</sup> 朱效梅·郑国民(2000:97)

<sup>109)</sup> 金诤(2002:174-178); 朱效梅·郑国民(2000:97-98)

<sup>110)</sup> 王凱符(2015:49)

<sup>111)</sup> 金诤(2002:180-181)

<sup>112)</sup> 脫奪 等撰(1980)『宋史 二』, 鼎文書局, p.992. "四年, ··· 중 ··· 凡詩賦進士, 於 易、詩、書、周禮、禮記、春秩左傳, 內聽習一經, ··· 중 ··· 凡專經進士, 須習兩經, 以詩、禮記、周禮、左氏春秋爲大經, 書、易、公羊、穀梁、儀禮爲中經, 左氏春秋得兼公羊、穀梁、書, 周禮得兼儀禮或易, 禮記、詩並兼書."

며 『公羊傳』・『穀梁傳』에 비해 높았던 위상을 회복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徽宗이 즉위하여 崇寧 3년에 元祐 4년의 개혁을 폐지하고 新黨 인사를 등용하여 王安石의 『三經新義』를 재차 중용함에 따라 『左傳』은 과 거시험의 과목에서 제외되었다가<sup>113</sup>), 高宗 建炎 2년에 『三經新義』를 폐지하고 元祐 4년의 개혁을 부활시키면서 『左傳』이 다시 과거시험의 과목에 포함된다.<sup>114</sup>)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元祐 4년의 개혁에서 쓰인 『左傳』에 대한 표현과 위상이다. 『公羊傳』·『穀梁傳』에 대해서는 『公羊』·『穀梁』으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에, 『左傳』에 대해서는 詩賦 부분에서 『春秋左傳』으로, 經義 부분에서 『左氏春秋』로 표기하고 있으며115), 『左傳』은 "大經"으로, 『公羊傳』·『穀梁傳』은 "中經"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위상에도 차이가 있다. 앞의 북송 초기의 9經 체제에 대한 언급에서도 『公羊傳』·『穀梁傳』은 명칭은 고대로, 위상은 "小經"으로 기록된 반면에 『左傳』은 명칭은 『春秋左氏傳』으로, 위상은 그대로 "大經"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칭과 위상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王宇(2004)는 『南宋館閣續錄』을 통해 송 孝宗 隆興 원년에서 寧宗 2년까지 40년간 進士科의 經義 응시자의 경전별 선택 빈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기준이 되는 여섯 경전은 『易經』・『詩經』・『書經』・『周禮』・『禮記』・『春秋』로116), 元祐 4년 개혁에서 詩賦의 대상으로 선정한 여섯 경전과

<sup>113)</sup> 李昇(2015:36); 金诤(2002:181)

<sup>114)</sup> 李昇(2015:36); 金诤(2002:181)

<sup>115) 『</sup>公羊傳』・『穀梁傳』에 대해서는 『公羊』・『穀梁』으로 표기하고, 『左傳』에 대해서는 詩賦 부분에서 『春秋左傳』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전자를 『春秋』와 분리하고, 후자를 『春秋』와 연결하려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公羊傳』・『穀梁傳』이 아닌 『公羊』・『穀梁』으로, 詩賦와 經義에서 각각 『春秋左傳』와 『左氏春秋』로 표기한 표기한 기준에 대해서는 찾지 못했다.

<sup>116)</sup> 王宇(2004:152), 해당 논문에는 『南宋館閣錄續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南宋館閣錄』과 『南宋館閣續錄』이 있으므로 『南宋館閣續錄』의 표기 오류로 보인 다. 국내에서는 中國基本古籍庫에서 清文淵閣四庫全書本(2013)을 확인할 수 있다.

『春秋』만 다르다. 『南宋館閣續錄』의 中國基本古籍庫 清文淵閣四庫全書本 (2013)에는 『左傳』을 선택(治)<sup>117)</sup>한 경우는 없고 『春秋』를 선택한 경우는 7 권에서 18번, 8권에서 17번 발견되었다.

앞에서 王安石이 과거제도를 개혁하면서 『春秋』를 제외하고 『周禮』를 추가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高宗 建炎 2년에 『三經新義』를 폐지하고 元祐 4년의 개혁을 부활시킨 이후로 출제 범위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進士科의 과목에서 단순히 『左傳』만 채택된 것이 아니라, 『春秋』와 『左傳』이 결합된 형태로 채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여조겸이 『東萊博議』 서문의 마지막에서 "무릇 『春秋』 경문의 뜻은 감히 참람하게 의론하지 않았고, (『左傳』의) 지엽적인 말과 혹 같은 말은 과시에 과시 공부에보택이 되고자 함이다."118)라고 언급한 까닭을 알 수 있다.

#### 3.2.2. 『東萊博議』의 『左傳』인식

『東萊博議』는 自序에서 "『左氏博議』119)는 학생의 과거시험을 돕기 위해서지었다. (… 중략 …) 나는 그들의 筆端을 도울 수 있기를 생각해서, 『左氏傳』의 治亂得失의 史蹟을 선택하여 그 설을 아래에 풀이하였다. (… 중략 …) 무릇 『春秋』 경문의 뜻은 감히 참람하게 의론하지 않았고, (『左傳』에 대한) 지엽적인 말과 혹 같은 말은 과시 공부에 보탬이 되고자 함이다.120)"라

<sup>117) 『</sup>南宋館閣續錄』에는 급제자의 응시 과목이 나와 있는데, 治春秋, 治詩經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sup>118)</sup> 정태현・김병애(2012:33), "凡春秋經旨, 橜不敢僭論, 而枝辭贅喩, 則擧子所以資課 試者也."

<sup>119) 『</sup>東萊博議』라는 書名은 처음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東萊博議』의 書名은 『增註東萊先生左氏博議』,『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評點東萊博議』,『東萊左氏博議』 등으로 판본에 따라 변화하다가 청대의 馮泰松刊本에서 『東萊博議』라는 書名이 붙었다. 『東萊博議』의 自序에서는 『左氏博議』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만 이 書名을 사용했다.

<sup>120)</sup> 정태현・김병애(2012:31-33), "左氏博議者, 爲諸生課試之作也. (… 중략 …) 予思有以佐其筆端, 乃取左氏書理亂得失之蹟, 疏其說於下. (… 중략 …) 凡春秋經旨, 槩不

고 언급하고 있다. 표면적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東萊博議』는 과거시험 교재이다. 이와 관련하여 송대 과거시험의 과목 중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앞에서 马晨唯(2019)는 『東萊博議』의 '科擧敎材'로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송대에 과거 응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策論" 형식의 과거 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여조겸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상을 사회에 전파하고자 『東萊博議』를 완성했다<sup>121)</sup>고 저술 배경을 설정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策論"을 대상으로 한 과거시험 교재라는 주장의 근거로 "論"이라는 명칭과<sup>122)</sup>, 명·청대 八股文의 송대 "策論" 기원설을 제시한다.<sup>123)</sup> 여조겸은 「鄭伯朝威王(11)」편에서 "論事"와 "敍事"를 구분하고 "論事"의 중요성을 설파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马晨唯는 이것이 『東萊博議』가 "策論"을 염두에 두고 저술한 증거라고 본다.<sup>124)</sup>

앞에서 송대의 과거제도를 설명하면서 언급했듯이 "策論"은 進士科의 과목으로, 進士科는 本經·兼經·論·策 등의 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經義"는 경서에서 선택된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의론문의 형식으로 작성하게 한 시험이고, "論"은 형식과 내용이 "經義"와 유사하지만, 범위가 경전에 국한되지 않는 시험이다.125) 즉 단순히 의론문이라는 형식을 기준으로 "經義"인지 "論"인지 정할 수 없다. "經義"는 王安石의 개혁을 거치면서 『三經新義』라는 모범 형식이 규정됨에 따라 논리 전개의 순서 및 비유·대구 등의 수사법이 중시되었고126), "論"은 당대의 고문운동을 계승하여고체 산문으로 작성되었다.127) 이러한 차이는 명·청대의 八股文이 송대의

敢僭論, 而枝辭贅喻, 則舉子所以資課試者也."

<sup>121)</sup> 马晨唯(2019: I)

<sup>122)</sup> 马晨唯(2019:23)

<sup>123)</sup> 马晨唯(2019:52-53)

<sup>124)</sup> 马晨唯(2019:23)

<sup>125)</sup> 金诤(2002:174)

<sup>126)</sup> 金诤(2002:173-178), 王凱符(2015:49-61)

<sup>127)</sup> 金诤(2002:191-193)

"論"이 아닌 "經義"에서 출발한 것임을 보여준다.128)

물론, 『東萊博議』가 "策論"을 대상으로 한 교재가 아니라고 해서 자동으로 "經義"를 대상으로 한 교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經義"의 출제 범위와 『東萊博議』의 형식 등 두 측면에서의 부연 설명이필요하다. 출제 범위의 경우, 앞에서 王安石 개혁의 시행기와 부활기를 제외하고는 『左傳』은 줄곧 출제 범위에 포함되었고, 『左傳』은 『춘추』와 결합된 형태로 수용되었으며 그 흔적이 『東萊博議』의 自序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형식의 경우, 3.1에서 대비와 비유 같은 수사적인 기법이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2.1에서 장법 설명 위주의 주석이 중심이 되는판본도 출현했음을 언급한 바 있으므로 고체 산문 형식의 "策論"보다 규범화된 형식의 "經義"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東萊博議』가 進士科의 經義用 수험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經義"에서는 『春秋』와 『左傳』이 결합된 『春秋左氏傳』을 출제 범위로 하는데, 여조겸은 自序에서 『春秋』 경문은 제외하고, 『左傳』 부분으로 제한한 의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春秋』 경문의 뜻을 의론하는 것은 참람한 행위이므로 하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애초에 "經義"는 경문의 뜻에 대해 의론하는 시험이고, 출제 범위도 『春秋左氏傳』 뿐만 아니라 『詩經』・『書經』・『周禮』 등의 경전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조겸의 말대로라면 "經義" 자체가 참람한 행위라는 말이 된다. 또한 『春秋』와 『左傳』을 구분하고 『左傳』에 대해 "지엽적인 말과혹 같은 말(枝辭贅喩)"이라고 표현한 것은 『左傳』이 『春秋左氏傳』의 "大經"으로서의 위상을 누리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이러한 의문 해소의 실마리는 「閏三月非禮」(105) 편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해당 편에서 여조겸은 "天下의 일은 혹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덜어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군자는 마땅히 고찰해야 한다."<sup>129)</sup>라는 말로 논의를 시작

<sup>128)</sup> 金诤(2002:176-178), 王凱符(2015:49-61)

<sup>129)</sup> 정태현・김병애(2020:52), "天下之事, 有若贅而實不可損者, 君子之所當察也."

하고 그 예로 윤달(閏)을 혹(贅)으로 보는 관점<sup>130)</sup>을 소개한 후 윤달이 역법의 근본임<sup>131</sup>)을 밝혀서 해당 관점을 반박한다. 또, 여기에서 추론하여 "내가평소에 혹과 같아서 쓸모없다고 비웃었던 것에 반드시 至理가 존재하지 않음이 없었다. (… 중략 …) 성인의 교화도 세상은 번잡하여 혹처럼 쓸모없다고 지적하지만, 모두 안 보이게 天下를 배양해내는 쓸모가 있는 것이다."<sup>132)</sup>라는 주장을 도출한다.

그렇다면『東萊博議』의『左傳』인식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自序에서의 여조겸의 표현이 본인이『春秋』와『左傳』을 구분하고『左傳』은 "大經"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관점으로 사용된 것인지, 타인의 그러한 관점을 비판하기위해서 사용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또, 만약 후자라면, 사람들은 『左傳』을 『春秋』에 붙은 혹(贅)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左傳』이 핵심이라고 본것인지, 사람들은 『左傳』을 『春秋』에 붙은 혹(贅)처럼 보지만 『左傳』에도 至理가 들어있다고 본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우선, 후자의 경우가 여조겸의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春秋』와 『左傳』 중에서 『左傳』의 우위에 있다고 여기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는 「周鄭交惡」 (3) 편에서 왕과 제후의 구분을 두지 않은 '左氏'의 서술 방식을 비판하면서 이런 부분을 공자가 우려하여 周 平王 시기부터 『春秋』를 지은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133)

사실, 이러한 의문의 답은 본고의 3.1.3.에서 어느 정도 제시되었다. 여조 겸은「鄭伯朝威王」(11) 편에서 "敍事"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고, "論事"는

<sup>130)</sup> 정태현 · 김병애(2020:52), "閏之附於四時, 若附贅."

<sup>131)</sup> 정태현 · 김병애(2020:52), "孰知吾向日視爲贅物者, 乃歷數之大本乎?"

<sup>132)</sup> 정태현・김병애(2020:54), "吾平居嗤笑以爲贅而無用者, 未必非至理之所在也. (… 중략 …) 聖人之教, 凡世指爲苛細繁委, 贅而無用者, 皆可以陰養天下之有用也."

<sup>133)</sup> 정태현·김병애(2012:61-62), "雖然, 左氏所載君子之言, 固出於左氏之筆. 然亦推本當時君子之論也. 其論周鄭, 概謂之二國, 而無所輕重, 是當時之所謂君子者, 擧不知有王室矣. 戎狄不知有王, 未足憂也, 盜賊不知有王, 未足憂也, 諸侯不知有王, 亦未足憂也. 至于名爲君子者, 亦不知有王, 則普天之下, 知有王室者, 其誰乎? 此孔子所以憂也. 此春秋所以作也, 此春秋所以始於平王也."

이치를 추론하는 것이라며 둘을 구분하고, "敍事"가 아닌 "論事"를 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134) 이미 책에 서술되어 있는데 어찌 혹 같은 말(贅辭)로 다 시 서술하기를 기다리겠냐며 반문한다.13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自序에서의 『左傳』에 대한 표현은 여조겸은 본인이 실제로 『春秋』와 『左傳』을 구분하여 『左傳』은 "大經"의 자격이 없다고 간주해서 그렇게 서술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左傳』의 모든 부분이 혹(贅)처럼 보이지만 至理가 담겼다고 본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조겸이 『左傳』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본고의 3.1.에서『東萊博議』 각 편의 논의 대상을 설명하면서 '左氏'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여조겸이『東萊博議』본문에서 서술자로서의 '左氏'에 대해 논평한 것은 총 22편<sup>136)</sup>이다. 이 중 選本에 수록된 것은 12편이고, 수록되지 않은 것이 10편이다. 22편은 '左氏'가 敍事하기만 하고 판단하지는 않은 경우, '左氏'가 등장인물의 언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한 경우, '左氏'가 '書曰', '君子曰'로 직접 판단한 경우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sup>134)</sup> 정태현·김병애(2012:135), "大抵論事之體, 與敍事之體不同. 敍事者, 載其實, 論事者, 推其理."

<sup>135)</sup> 정태현 · 김병애(2012:135), "況方冊既已序之, 何待吾復爲贅辭以序之?"

<sup>136)</sup> 본문에 '左氏'가 포함된 것은 총 26편이지만 「先軫死狄師(101)」편,「隨會料晉帥 (127)」편,「季文子出莒僕(150)」편의 경우 서술자인 '左氏'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결과물로서의 『左傳』을 지칭하고, 내용도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한 '左氏'의 판단과 관련이 없으므로 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또 「宋叛楚即晉(95)」편의 경우 정태현·김병애(2018:398) "雖明智如左氏者, 猶信其我退楚還我將何求之語, 載之於書, 信矣, 文公之善譎也."라는 문장 하나만 등장하고, 내용 또한 '左氏'의 서술이 아니라 진 文公의 속임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이 역시 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번호	合本 편명	選本	구분
1	3	周鄭交惡	О	'左氏'의 論事에 대한 논평
2	10	鄭伯侵陳大獲	О	'左氏'의 論事에 대한 논평
3	11	鄭伯朝威王	X	등장인물의 언행 논평
4	12	陳五父如鄭涖盟歃如忘	О	'左氏'의 敍事에 대한 논평
5	15	穎考叔爭車	О	등장인물의 언행 논평
6	36	齊侯見豕	О	'左氏'의 敍事에 대한 논평
7	48	懿氏卜妻敬仲	О	'左氏'의 敍事에 대한 논평
8	58	衛文公大布之衣	X	'左氏'의 敍事에 대한 논평
9	63	楚滅弦	О	'左氏'의 論事에 대한 논평
10	77	隨叛楚	О	'左氏'의 論事에 대한 논평
11	79	魯饑而不害	О	등장인물의 언행 논평
12	91	衛禮至殺邢國子	О	'左氏'의 論事에 대한 논평
13	96	晉文夢與楚子搏	X	'左氏'의 敍事에 대한 논평
14	105	閏三月非禮	X	'左氏'의 論事에 대한 논평
15	121	箕鄭父殺先克	X	등장인물의 언행 논평
16	135	狼瞫死秦師	О	'左氏'의 論事에 대한 논평
17	139	邾文公遷於繹	X	'左氏'의 論事에 대한 논평
18	142	單伯請子叔姬	X	'左氏'의 敍事에 대한 논평
19	143	宋華耦辭宴	О	'左氏'의 論事에 대한 논평
20	144	公孫敖二子	X	등장인물의 언행 논평
21	152	晉不競於楚	X	'左氏'의 論事에 대한 논평
22	157	晉趙穿弑靈公	X	'左氏'의 論事에 대한 논평

「표 3.11」 『東萊博議』에서 『左傳』의 서술에 대해 논평한 문장

첫 번째 경우는 『左傳』에 해당 사건을 수록한 서술자로서의 '左氏'에 대한 논평이므로 다른 경우와의 구분이 용이하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해당 기사에 등장인물의 발언과 '君子'의 발언이 동시에 출현하면 둘의 구분이 어렵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문제가 되는 발언에 대한 표면적인 발화자와 실질적인 발화자의 구분이다.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隨叛楚」(77) 편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겠다. 이 편은 魯 僖公 20년에 隨나라가 楚나라를 배반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左傳』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나라가 한수 동쪽의 제후를 거느리고서 초나라를 배반하니 겨울에 초나라의 투노오도가 군대를 이끌고 수나라를 공격하여 화평을 맺고 돌아갔다. 이에 대해 군자는 "수나라가 공격당한 것은 힘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힘을 헤아리고서 움직였다면 과실이 적다. 성공과 실패는 본인에게 말미암지 남에게 말미암겠는가? 『시경』에 '어찌 밤낮으로 가고자 하지 않겠냐만은 길에 이슬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논평하였다.137)

전체 구성은 앞에서 다뤘던「鄭伯朝桓王」(11) 편의 『左傳』 기사와 유사하다. 단지 상황에 대한 평가가 등장인물이 아닌 군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조겸은 군자의 논평 속에 있는 '不量力'이라는 서술에 주목하여 해당 부분을 인용하고 '군자'의 말을 '左氏'의 말로 보고서 다음과 같이 그 뜻을 풀고 있다.

'左氏'의 논의는 "초나라가 비록 강성하고 포악하나, 끝내 감히 이유 없이 수나라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니, 만약 수나라가 스스로 힘이 초나라 만 못하다는 것을 알아서 기꺼이 접먹고 물러남에 처신했다면 화가 어느 곳을 말미암아 이르렀겠는가? 수나라를 토벌한 자는 초나라이고, 초나라를 불러들인 자는 수나라이니, 수나라의 패배는 본인을 말미암은 패배이지 남을 말미암은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다.[138]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조겸은 『左傳』기사 속 특정 상황에 대한 판단에 주목하여 판단의 시비에 대해서 의견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東萊博議』「鄭伯侵陳大獲」(10) 편의 방식과 유사하다. 이 편은 魯 隱公 6년에 鄭

<sup>137)</sup> 정태현・김병애(2013:146),"隨以漢東諸侯叛楚. 冬,楚鬪穀於菟帥師伐隨,取成而還. 君子曰 隨之見伐,不量力也. 量力而動,其過鮮矣. 善敗由己,而由人乎哉. 詩曰 豈不 夙夜、謂行多露。"

<sup>138)</sup> 정태현・김병애(2013:149), "左氏之論,以謂楚雖強暴,終不敢無故加兵於隨. 使隨自知力不如楚,甘處於退怯,則禍何由至哉. 伐隨者楚也,召楚者隨也. 是隨之敗由己之敗,而不由人也."

나라가 晉나라를 침공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左傳』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鄭伯이 진나라를 침략해서 크게 이득을 보았다. 지난해에 정백이 진나라에 화친을 요구했는데 晉侯가 수락하지 않으니 五父가 "인자한 이를 가까이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은 국가의 보배이니, 임금께서는 정나라와의 화친을 수락하십시오."라고 간언했다. 진후는 "송나라와 위나라는 실로 화난이되겠지만 정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마침내 수락하지 않았다. 군자는 "선을 잃어서도 안 되고, 악을 키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니, 진 桓公을 두고 이른 말이로다. (… 중략 …)『서경』에 '악이 뻗어나감은 불이 평원에서 활활 타는 것과 같아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오히려 박멸할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있다."라고 논평했다.139)

여조겸은 정백의 화친 요청에 대한 진후의 대답 속에 있는 '何能爲'라는 서술에 주목하여 해당 판단의 위험성에 대해 논의한다.

천하의 일은 두려워하는 데서 성공하고 소홀히 여기는 데서 실패하니 두려워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고 소홀히 여기는 것은 화의 대문이다. 진후는 송나라와 위나라의 강대함으로 두려워하고 정나라의 미약함으로 소홀히 여겨서 마침내 '정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여겨서 화친을 수락하지 않다가 전쟁과 화난이 연달아 생기는 데 이르렀다. (… 중략 …) 비록 정나라의 군대가 침범한 바가 집을 허물고 노약자를 구타하고 소와 말을 약탈한 것에 지나지 않으나 '정나라가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라는 한 마디를 추궁하면 실로 국가를 패망시키는 근본이다.140)

<sup>139)</sup> 정태현・김병애(2012:119-120), "鄭伯侵陳, 大獲. 往歲, 鄭伯請成于陳, 陳侯不許. 五父諫曰 親仁善隣, 國之寶也. 君其許鄭. 陳侯曰 宋衛實難, 鄭何能爲. 遂不許. 君子曰善不可失, 惡不可長, 其陳桓公之謂乎? (… 중략 …) 商書曰 惡之易也. 如火之燎于原, 不可嚮週, 其猶可撲滅."

<sup>140)</sup> 정태현·김병애(2012:122), "天下之事, 成於懼而敗於忽. 懼者, 福之原也. 忽者, 禍之門也. 陳侯以宋衛之强而懼之 以鄭之弱而忽之,遂以爲鄭何能爲, 而不許其成, 及兵連禍結. (··· 중략 ···) 雖鄭師之所侵, 不過毀廬舍歐老弱略牛馬, 然則推鄭何能爲之一語, 實亡國敗家之本."

이렇듯 해당 두 편에서 여조겸이 『左傳』에서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은 부분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左傳』의 서술자로서의 '左氏'에 대해 내린 평가는 상반되는데, 이는 『左傳』 속문제가 되는 판단의 실질적인 주체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隨叛楚」(77) 편의 경우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조겸이 『左傳』의 '君子曰'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 본문에서 '左氏之論'으로 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실질적인 판단 주체는 '左氏'가 된다.

이에 여조겸은 '左氏'의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아! 진실로 이러한 주장과 같다면 곧 이른바 "남에게 달렸고 자기에게 달리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힘을 헤아린 결과로) 초나라를 두려워하여 감히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실제로 수나라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수나라를 통제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초나라가 아니겠는가? 이는 움직이지 않은 것이 명분상으로는 우리에게서 말미암으나 실질적으로는 남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다. … 중략 … 漢水 북쪽에 위치한 주나라와 동성인 희성의 제후국을 초나라가 실제로 멸망시켰으나, 멸망당한 나라가 어찌 모두 먼저 초나라를 공격한 경우겠는가? … 중략 … 그렇다면 수나라가 비록 스스로 지켰더라도 초나라의 병탄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니 존망의 결정권은 진실로 초나라에서 말미암지 수나라에서 말미암지 않는다. '左氏'는 승패가 자기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말을 읊을 수 있었을 뿐이니, 어찌 승패가 자기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말의 이치를 알았겠는가?(141)

즉 여조겸이 보기에 '左氏'는 '善敗由己'라고 논평했으나, 만약 隨나라가 스스로의 힘을 헤아려서 선공하지 않았더라도 끝내 楚나라에게 멸망당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善敗由人'이라고 논평한 셈이다. 그는 이어

<sup>141)</sup> 정태현·김병애(2013:151), "嗚呼. 信如是說, 乃所謂由人而不由己也. 畏楚而不敢先動者, 固出於隨矣. 所以制隨而使之不動者, 非楚耶. 是其不動者, 名由於我, 而實由於人也. … 중략 … 漢陽諸姬 楚實盡之, 彼豈皆先犯楚者哉. … 중략 … 然則隨雖自守, 不能禁楚之吞噬, 存亡之權, 固由楚而不由隨也. 左氏能誦善敗由己之言而止耳, 孰知夫善敗由己之理乎?"

서 '善敗由己'의 진정한 의미가 '量力'을 통해 자신의 약함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있음<sup>142</sup>)을 설명하며 글을 끝맺는다.

다음으로 「鄭伯侵陳大獲」(10) 편의 경우 앞에서 살펴봤듯이 해당 사건의 등장인물인 '陳侯'의 판단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해 '君子曰'을 통해 비판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언의 실질적인 판단 주체는 서술자인 '左氏'가 아니라 등장인물인 '陳侯'가 된다.

이에 대해 여조겸은 우선 춘추시대에 제후 간 전쟁과 화친이 빈번하여 정나라의 화친 제의에 대한 진후의 거절이 특이한 것이 아니었는데 '左氏' 가 심하게 질책했으므로 '작은 죄에 성대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상정에 비추어 지나친 게 아닌가<sup>143</sup>) 하는 의문을 제시한다. 이는 '陳侯'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左氏'의 과도한 비판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 뒤에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조겸은 '陳侯'의 '何能爲'라는 판단에 대해 '국가를 패망시키는 근본'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 결론에서 '左氏'의 질책이 전혀 과도하지 않다며 다음과 같이 '左氏'의 논평에대해 긍정하고 있다.

군자의 의론은 항상 그 근본을 얻고 중인의 의론은 항상 그 말단을 얻는 다. 무릇 신하로서 임금을 깊이 경계시키는 자는 반드시 포학함과 사치와 간언에 대한 거절과 지나친 전쟁을 말하니, 모두 임금이 크게 금기하는 것이다. 걸왕 · 주왕 · 유왕 · 여왕의 죄악을 논함에 이르러서도 또한 반드시 앞의 몇 가지를 죄목으로 돌리니, 이 몇 가지의 죄목이 모두 말단임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근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임금은 반드시 '백

<sup>142)</sup> 정태현·김병애(2013:155), "古之所謂量力者,蓋有說矣,養而未充也,爲而未成也,修而未備也.於是,量力而未敢輕動焉,吾之所以未動者,非憂彼之強,憂我之弱也,非憂彼之智,憂我之愚也.所憂固在於己,而不在於人也."

<sup>143)</sup> 정태현·김병애(2012:121), "盛怒不發於微罪, 峻責不加於小疵, 此人情之常也. 陳侯不許鄭伯之請成, 遂至於見伐 其失講信修睦之義, 固可責矣. 然春秋諸侯, 一戰一和, 一通一絶, 習以爲常. 如陳侯之罪, 晉楚齊秦以降, 莫不有之也. 左氏乃深排而力詆之, 至以謂如火之燎于原不可嚮邇 雖大無道之君, 責之不過如是, 何其遠於人情耶.

성의 원망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여겨서 감히 (백성에게) 포악하게 행동하고, (… 중략 …)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모든 죄악이 따라 생기는 근원이다. 만약 그 근본을 탐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비록 화란을 일으킬 조짐은 있으나 화란을 일으킬 형체는 없고, 비록 두려워할 만한 실질은 있으나 두려워할 만한 자취가 없으니 기미를 아는 군자가 아니라면 누가 하늘에 닿을 파도를 실개천의 시작점에서 막겠는가? 심원하구나 '左氏'의 의론이여!144)

즉 여조겸이 보기에 『左傳』의 독자에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陳侯'의 '何能爲'라는 발언에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이치의 단초가 들어 있었고, 이를 문제 삼은 '左氏'의 말은 근본을 짚은 것이므로 뛰어난 論事였다.

정리해보면 앞의 기사에서 문제가 된 판단은 『左傳』의 서술자인 '左氏'가한 것이므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뒤의 기사에서 문제가 된 판단을 『左傳』의 서술자인 '左氏'가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긍정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鄭伯侵陳大獲」(10) 편에서처럼 문제가 되는 판단이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판단의 실질적인 주체가 등장인물 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鄭伯侵陳大獲」(10) 편의 『左傳』 기사는 진나라에 대한 정백의 화친 요청, 진후의 거절, 군자의 논평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백의 화 친 요청이라는 상황에 대한 진후의 판단이 문제가 되었고, '左氏'가 군자의 입을 통해 논평했으므로 등장인물과 서술자인 '左氏'의 구분이 가능했던 것 이다.

앞에서「鄭伯朝桓王」(11) 편의 경우 해당 『左傳』 기사가 정백이 주나라에

<sup>144)</sup> 정태현·김병애(2012:126-127), "嗚呼. 君子之論, 常得其本, 衆人之論, 常得其末. 凡人臣之深戒人君者, 必曰暴虐也淫侈也拒諫也黷武也, 皆人君之大禁也. 至於論桀紂幽厲之惡, 亦必以前數者歸之, 殊不知是數者, 皆末也. 其本果安在哉. 人君必謂民怨何能爲, 故敢暴虐. (… 중락 …) 是則何能爲者, 萬惡之所從生也. 苟不探其本, 則何能爲之言, 雖有致亂之端, 而未有致亂之形, 雖有可畏之實, 而未有可畏之迹. 非知幾之君子, 孰能遏滔天之浪於涓涓之始乎? 深矣哉, 左氏之論也!"

조회하러 온 장면, 주 환왕이 정백을 예우하지 않은 장면, 주 桓公이 주 환왕의 태도를 지적하는 장면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이에 대해 앞의 두 부분을 상황으로, 뒷부분을 판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鄭伯侵陳大獲」(10) 편의 『左傳』 기사의 구성을 고려할 경우「鄭伯朝桓王」 (11) 편의 『左傳』 기사의 구성에는 周 桓公의 판단에 대한 군자의 판단이 결여되었으므로 여조겸은 이를 '左氏'의 암묵적 동의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즉 그가 보기에 周 桓公의 판단의 실질적인 주체는 등장인물인 周 桓公 본인이 아닌 서술자인 '左氏'였던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편명	표면상의 주체	실질적인 주체	左氏에 대한 의견
鄭伯朝桓王	周 桓公	左氏	비판
隨叛楚	君子	左氏	비판
鄭伯侵陳大獲	陳侯	陳侯	긍정

「표 3.12」 여조겸이 문제로 삼은 발화의 실질적인 주체를 기준으로 한 구분

따라서「鄭伯朝桓王」(11) 편은 '左氏'가 주 桓公이라는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한 경우가 되고,「隨叛楚」(77) 편은 수나라가 초나라를 배반한 상황에 대해 '左氏'가 직접적으로 판단한 경우가 되며,「鄭伯侵陳大獲」(10) 편은 진후라는 등장인물의 판단에 대해 '左氏'가 직접적으로 판단한 경우가 된다.「隨叛楚」(77) 편과「鄭伯侵陳大獲」(10) 편은 모두 '左氏'가 직접 판단한 경우라는 점에서 같지만 전자는 여조겸이 문제로 삼은 발언의 주체가 이 '君子'였고 후자는 '陳侯'였다는 점에서 평가가 갈리게 된 것이다.

'左氏'가 敍事하기만 하고 판단하지는 않은 경우는 여조겸이 해당 사건이 『左傳』에 기록된 것 자체를 논평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전개하고 있다. 즉 『左傳』의 서술자로서의 '左氏'가 논의의 대상이 되므로 해당 기사 속에서 문제로 삼는 발언이나 행동의 표면적인 주체와 실질적인 주체의 판별이 중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과 『左傳』 인식

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左傳』에 대한 여조겸의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左氏'의 敍事, 간접 論事, 직접 論事 등의 세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 3.2.3. '左氏'의 敍事에 대한 관점

'左氏'의 敍事가 논평의 대상이 된 경우는 총 6편으로 긍정과 비판이라는 두 항목으로 단순하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편명	左氏에 대한 인식	
1	12	陳五父如鄭涖盟歃如忘	긍정	
		공식석상 敍事	0 8	
2	36	齊侯見豕	비파	
4		괴이 敍事	미란	
3	48	懿氏卜妻敬仲	비판	
3)		복서 敍事	미런	
4	58	衛文公大布之衣	긍정	
4)		통치 敍事	<u>8</u> 8	
5	96	晉文夢與楚子搏	비파	
(3)		B	미런	
6	142	單伯請子叔姬	긍정	
0	·	『左傳』의 서법	0 8	

「표 3.13」 '左氏'의 敍事가 논평의 대상이 된 경우의 인식

이 중 먼저 여조겸이 '左氏'의 敍事에 대해 비판한 경우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左傳』에 실리기에 부적합한 내용임을 주장하며 이런 사건을 기재한 '左氏'를 비판하고 있다. 각 기사에 대한 비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같다.

	번호	편명	구분
	36	齊侯見豕	괴이 敍事
	서 그친다. (… 중략 石鱗羽'의 이상한 일 여겨서 함께 그것을 물게 접해서일 뿐이다 만한 것이 없다. 吉事 가 있으며, 이승에는 (… 중략 …) 공자께, 현혹하는 것이 두려워	는 것에서 생기고, 익숙하게 보는 것에 …) '焄蒿悽愴'의 요사스러운 일과 '木을, 세상 사람들이 다투어 괴이하다고 전하는 것은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드라. 천하의 이치는 본래 괴이하게 여길 에는 상서로움이 있고, 凶事에는 요기 禮樂이 있고, 저승에는 鬼神이 있다. 서 괴이함을 말하지 않은 것은 대중을 입서가 아니라 괴이함을 말할 만한 게	이치에 입각한 설명
2	변하게 나온다. 范寗 데, 논설가들은 그것 한 자도 잘못됐고, 비 한 자는 반드시 괴이	사하여 당시의 神怪한 일이 책에서 빈은 허황된 말이라고 여겨서 배척했는을 옳다고 여겼다. 나는 그 일을 기재 착한 자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기재 하다고 여겨서 그런 일이 있음에 놀란 반드시 괴이하다고 여겨서 그런 일이 나.146)	이치에 어긋난 지점
	유는 애초에 들을 수 현저할수록 그 쓰임이 않는 것에 깊이 의심하게 여기지 않는 것 재한다. (… 중략 …)	일 뿐이고, 소리가 소리일 수 있는 이 는 없다. (… 중략 …) 그 자취가 더욱이 더욱 감춰지니, 사람들이 의심하지할 만한 것이 존재하고, <u>사람들이 괴이에 깊이 괴이하게 여길 만한 것이 존</u> 만약 물리도록 듣고 본 것 중에서 體도 보이지도 않는 것도 석연하여 의혹	이치에 부합한 지점

<sup>145)</sup> 정태현·김병애(2013:22), "怪生於罕, 而止於習. (… 중략 …) 焄蒿悽愴之妖 木石鱗 羽之異, 世爭怪而共傳之者, 以其罕接於人耳. 天下之理, 本無可怪, 吉有祥, 凶有祲, 明有禮樂, 幽有鬼神. (… 중략 …) 夫子之不語怪者, 非懼其惑衆也, 無怪之可語也."

<sup>146)</sup> 정태현・김병애(2013:24), "左氏嗜怪, 時神怪之事, 多出其書. 范寗闢之以誣, 說者是之. 吾謂載之者非, 闢之者亦非也. 載之者, 必以爲怪, 而駭其有, 闢之者, 必以爲怪, 而意其無."

<sup>147)</sup> 정태현 · 김병애(2013:26), "耳之所聞者聲爾, 而聲聲者初未嘗聞. (… 중략 …) 其迹

	번호	편명	구분
	48	懿氏卜妻敬仲	복서 敍事
	마음으로 묻고 마음으	로 답하며, 마음으로 두드리고 마음으	
	로 응하니, 명칭은 軀	1) 나 실상은 心ト이고, 명칭은 蓍筮나	
	<u>실상은 心筮이다</u> . (…	중략 …) 卜筮의 이치는 일찍이 大舜	이치에 입각한 설명
	의 가르침에서 보이	는데, "卜不習吉"이라고만 하였으니,	
	'吉' 한 글자 이외에	다른 말은 없었다.148)	
	후세에 이르러 비로소	- 마음의 밖에서 吉凶을 찾게 되니, 마	
	음으로 의심할수록 점	대가 더욱 천착하고, 점괘가 천착할수	
	록 징험은 더욱 소원		
	외부에서 찾으니 마음		
3	뿐이다. 左氏가 기재	한 바가 이것이다. (… 중략 …) 이 수	이치에 어긋난 지점
	십 가지 일은 左氏의	책에 모으면 많지만, 242년간에 흩으	
	면 희소하고 공허하다	다. (… 중략 …) 어찌 성기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149	)	
	左氏가 기재한 것 중	에 이것보다 나은 것이 있다. 穆姜‧荀	
	<u> 쏲·子服惠伯 등과 곱</u>	<u> 같은 일은 이치에 가깝다</u> . 비록 성인의	
	卜筮에 조금이라도 :	미견하여 논의하기에 부족하지만, 마음	시크제 그리콘 리키
	이 편안함을 믿고, 瞽	史의 말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으니	이치에 근접한 지점
	가깝다고 하겠다. (…	중략 …) 마음의 밖에 어찌 다시 蓍	
	龜란 것이 있겠는가?!	50)	

<sup>148)</sup> 정태현・김병애(2013:191-195), "心問心答,心扣心酎,名爲龜卜,實爲心卜,名爲蓍筮,實爲心筮. (… 중략 …) 卜筮之理, 嘗見於大舜之訓矣,曰 卜不習吉而已. 一吉之外,無他語也.

<sup>149)</sup> 정태현·김병애(2013:195-198), "至於後世,始求吉凶於心外,心愈疑而說愈鑿,說愈鑿而驗愈疎. (… 중략 …) 失之於心,而求之於事,殆見心勞而日拙矣. 左氏之所載是也. (… 중략 …) 是數十事者,聚於左氏之書則多,散於二百四十二年則希闊寂寥. (… 중략 …) 安得不謂之疎耶?"

<sup>150)</sup> 정태현·김병애(2013:199), "就左氏之所載, 彼善於此者. 如穆姜荀罃子服惠伯之屬, 猶庶幾焉. 是雖未足少議聖人之卜筮, 然類能信其心之所安, 而不奪於瞽史之說, 近之矣. (… 중략 …) 是心之外, 豈復有所謂蓍龜者耶?"

<sup>151)</sup> 정태현・김병애(2018:420), "形神相接而夢者, 世歸之想, 形神不接而夢者, 世歸之

	번호	편명	구분		
(5)	96	晉文夢與楚子搏	꿈 敍事		
	형체와 정신이 서로 접촉하여 꿈꾸는 것을 세상에서 '相'이				
	라고 하고, 형체와 정신이 접촉하지 않았는데 꿈꾸는 것을		일반적인 생각		
	세상에서 '因'이라고				
	온갖 이치가 모두 마음에 구비되어 있으니, 어찌 '相'이 맺		이치에 입각한 설명		
	혀서 있고, '相'이 및				
	어찌 '相'을 기다린 뒤에 '因'이 있고, '因'을 기다린 뒤에				
	꿈이 있겠는가. <u>만약</u>				
	고 한다면, '相'이 맺	히기 전에는 이런 사물이 없고, '相'을			
	<u>'因'한 뒤에야 이런 /</u>	사물이 있는 것이 <u>다</u> .152)			
	左氏가 기재한 꿈을 '	이치에 어긋난 지점			
	기까지 무려 수십 가				
	이라고 명칭해도 된다				
	치를 다하고자 하고,				
	음을 헤아리려고 하니				
	<u>가 말한 꿈은 '因'과</u>	'相'의 밖에서 나온 것은 거의 없고, 나			
	머지는 구구한 상념 /	사이에 국한되지 않은 것이 없다.153)			
	소가 이르기 전에 叔	孫穆子가 어린 소의 모습을 꿈에서 봤			
	고, 公孫 強가 태어나기 전에 公孫 強의 이름을 꿈에서 말했으니, 이것이 과연 '相'에서 나온 것인가, '因'에서 나온		이치에 근접한 지점		
				<u>것인가</u> ? (… 중략 …)	
	인 꿈을 얘기함에는				
	실패한다.154)				
		魯 襄公이 周公을 꿈		에서 본 것은 실로 子服惠伯이 변론할	
	수 있는 것이지만, <u>귀</u>	子께서 周公을 꿈에서 뵌 것을 의론하	이치에 부합한 지점		
	게 한다면 나는 그가	무슨 말로 대답할지 모르겠다.155)			

「표 3.14」 '左氏'의 敍事에 대한 비판

因."

<sup>152)</sup> 정태현·김병애(2018:421-422), "萬理皆備於心, 豈以想而有, 豈以不想而無哉? (… 중략 …) 豈待想而後有因, 待因而後有夢耶. 苟必謂因想而後有夢, 則是未想之前, 胷中本無是物, 因想而後有是物也."

<sup>153)</sup> 정태현・김병애(2018:422-423), "歷擧左氏所載之夢, 自晉文公至於宋得, 無慮於數十, 名之以想可也, 名之以因亦可也. (… 중략 …) 以有窮之說, 而欲盡無窮之理. 以有外

②의 경우,『東萊博議』에서는 『左傳』에서 괴이한 일로 여겨지는 17개의 사건을 인용하고 본문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논술하고 있다. 표에서 인용한 부분을 보면, 여조겸은 천하의 이치에는 본래 괴이한 것이 없다면서 단지 '사람들에게 드물게 보이기에 괴이한 것으로 착각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의 사건들을 괴이하게 여기고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여겨서 『左傳』에 기재한 '左氏'를 비판하고, 또 괴이하게 여겨서 『左傳』에 기재된 괴이한 사건이 실제로는 없는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한 '范寗'도 비 판하고 있다. 애초에 괴이하게 여길 일이 아닌데 괴이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둘 다 이치에 어긋난 판단을 한 것으로 여조겸은 본 것이다.

또 이러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괴이하게 여겨야 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이치가 바로 진정으로 괴이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즉 여조겸은 『左傳』에 기재된 '괴이한 일'에 대해 괴이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기재한 '左氏'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진정으로 괴이하게 여겨서 파악하려고 해야 할 대상과 그 필요성의 규명에 두고 있었다. 이는 『左傳』에 기재된 사건을 이용하여(用事) 드러나지 않은이 이치를 규명하려는 '論事體'의 구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③의 경우,『東萊博議』에서는『左傳』속 '복서'와 연관된 23개의 사건을 인용하고 본문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논술하고 있다. 표에서 인용한 부분을 보면, 여조겸은 '복서라는 것은 원래 마음에서 묻고 마음에서 답하는 것이라서 거북점과 시초점으로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점'이라면서 이러한 이치를 알았기에 '순 임금의 거북점에는 吉이라는 글자 이외에 다른 글자는

之見,而欲測無外之心,難矣哉. (… 중략 …) 故左氏之所謂夢,出於所因所思之外蓋無幾,其餘未有不局於區區念慮之間者也."

<sup>154)</sup> 정태현・김병애(2018:422-423), "至於叔孫穆子夢童牛之貌於牛未至之前, 曹人夢公孫強之名於強未生之前,是果出於想乎,果出於因乎? (… 중략 …) 論不至於極,談常夢則合,談非常之夢則敗."

<sup>155)</sup> 정태현・김병애(2018:423), "魯襄公之夢周公, 固子服惠伯之所能辨也. 如使論孔子之夢周公, 吾不知其何辭以對."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세에 이르러 卜筮는 비로소 외부에서 길흉을 찾아서 더의심할수록 점괘가 더욱 천착했고, 이에 점괘의 징험도 더욱 소원해졌다. '左氏'가 '242년간 시행된 수많은 복서 중 징험된 수십 가지만을 『左傳』에수록하여 잘못된 복서의 신뢰성을 높은 것처럼 속였다고 여조겸은 본 것이다.

또 이러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左傳』에 기재된 복서 중 복서의 이치에 가까운 사례를 소개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예시로 든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襄公 9년, 穆姜이 東宮에서 薨하였다. 목강이 처음 동궁으로 갔을 때 蓍草 占을 치니 (… 중략 …) 太史가 말하기를 "이것은 艮卦가 隨卦蓋로 변한 것입니다. 隨는 나가는 뜻이니, 小君께서는 반드시 빨리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니, 목강이 말하기를 "나갈 수 없을 것이다. 『周易』에 '隨는 元·亨·利·貞하니 禍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중략 …) 지금 나는 婦人으로 亂에 참여하였으며, 본래 下位의 身分으로 不仁을 저질렀으니 (… 중략 …) 이 네 德이 있는 사람은 隨卦를 만나도 災禍가 없지만 나에게는 네 德이 전혀 없으니, 어찌 隨卦의 卦辭에 부합할 수 있겠는가? 내가 惡行을 취하였으니 어찌 災禍가 없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여기서 죽을 것이고 나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156)

점괘를 풀이해주는 태사가 내용을 좋게 풀어주자 목강은 자신이 이미 덕을 저버렸으므로 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며 태사의 풀이를 믿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에서 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초점을 쳤으므로 복서의 이치에서 어긋난 행위였으나 점괘의 풀이를 듣고서 자신의 악행을 근거로 그 풀이를 믿지 않았기에 여조겸은 복서

<sup>156)</sup> 정태현·김병애(2013:161), "襄九年,穆姜薨,始往而筮之. (… 중략 …) 史曰 是謂艮之隨蓋,隨,其出也. 君必速出 姜曰 亡,是於周易曰 隨,元亨利貞,无咎. (… 중략 …) 今我婦人,而與於亂,固在下位 而有不仁. (… 중략 …) 有四德者,隨而無咎,我皆無之,豈隨也哉? 我則取惡,能無咎乎? 必死於此,弗得出矣."

의 이치에 가까운 사례라고 본 것이다.

살펴본 바로는 여조겸이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복서 敍事를 기재한 '左氏'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치에 어긋난 복서의 사례와 이치에 근접한 복서의 사례를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左傳』의 서술자로서의 '左氏'를 대상화하여 그의 기재 기준을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구분의 기준은 마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치(理)였다.

⑤의 경우,『東萊博議』에서는『左傳』속 '꿈'과 연관된 20개의 사건을 인용하고 본문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논술하고 있다. 표에서 인용한 부분을 보면, 여조겸은 먼저 '꿈을 형태를 직접 보고 그것이 꿈에 나타난 것을 '想'으로, 형태를 직접 보지 않았으나 그것과 연관된 형태를 이전에 본 것에서 연상되어서 꿈에 나타난 것을 '因'으로 사람들은 구분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모든 이치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想'과 '因'의 구분 없이 꿈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모든 꿈을 '想'과 '因'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실제로 접해보지도 않았고 비슷한 경험도 없는 경우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애초에 그 기준이 부적절하며 이는 유한한 말로 무한한 이치를 다 설명하려고 한 것에서 나온 오류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左氏'가 『左傳』에 기록한 꿈에 관한 여러 사례는 사람들이 말하는 '想'과 '因'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많고 叔孫穆子와 조나라 사람의 사례와 같이 분류할 수 없는 것이 적다면서 꿈 敍事에 대한 '左氏'의 선정 기준이 부족하다고 여조겸이 여긴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子服惠伯이 魯 襄公이 주공이 祖道祭를 지내는 꿈을 꾼 것을 풀이한 사례와 공자가 주공을 꿈에서 본 사례를 대비하고 있다. 이는 『左傳』에 기록된 일부의 꿈이 '想'과 '因'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左傳』에 기록된 다수의 꿈보다 낫지만 평범한 꿈(常夢)에 해당한다고 공자의 꿈과 같은 특이한 꿈(非常夢)에는 미치지 못함을 지적한 것으로, 子服惠伯이 꿈을 풀이한 것은 유한한 말로 무한한 이치를 다 설명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유한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꿈이어서였음 을 암시하고 있다.

살펴본 바로는 여조겸이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복서 敍事를 기재한 '左氏'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으나 꿈에 대한 사람들의 분류 기준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후 『左傳』에 실린 꿈 敍事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며 일부의 사례도 상대적으로 나은 것일 뿐 부족하다고 서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역시 분류의 기준이 이치에의 부합 여부이며 『左傳』의 서술자로서의 '左氏'를 대상화하여 그의 기재 기준을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조겸이 '左氏'의 敍事에 대해 긍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左傳』에 실리기에 적합한 내용임을 주장하며 이런 사건을 기재한 '左 氏'를 긍정하고 있다. 각 기사에 대한 긍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편명	구분
1	12	陳五父如鄭涖盟歃如忘	공개석상 敍事
	춘추시대는 盟會聘享의 행사에서 사람들은 모두 升降語點의		
	예절을 보고 吉凶禍福을 점쳤으니, 허무맹랑하여 이치에 맞지		
	않음은 세상 사람들이 함께 아는 것인데, 나는 도리어 의심하		
	는 바가 있다. 사람을 관찰하는 기술은 은폐된 곳에 있지 드		일반적인 생각
	러난 곳에 있지 않으며, 어두운 곳에 있지 밝은 곳에 있지 않		
	다. 드러난 곳과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은 시		
	지금 左氏가 기재한 것을 살펴보건대, 周旋하고 揖遜하는 행		
	위와 언사 용모가 ㅂ	미웃고 손가락질할 만한 것이 책에서 잇달	이치가 잠재된 부분
	아 보이니, 이것은 ㅇ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둡고 밝음은 본래	두 가지 이치가 없으니, 은폐된 곳에 숨	이치를 드러낸 부분
	긴 것이 드러난 곳을		
	이 밝은 곳을 기대어	나타난다.	

<sup>157)</sup> 정태현・김병애(2012:152), "春秋之際, 盟會聘享, 人皆視升降語黙之節, 爲吉凶禍福之占, 其矯誕不經, 世所共知也, 吾猶有所疑焉. 觀人之術, 在隱, 不在顯, 在晦, 不在

	번호	편명	구분	
	58	衛文公大布之衣	통치 敍事	
	내가 『左傳』을 읽다	내가『左傳』을 읽다가 衛 文公・趙宣子・晉 悼公・魏絳・蔿掩		
	이 나라를 다스린 일	실에 이르렀는데, 규모와 계획이 크고 작은		
	부분이 모두 구비되	어, 확실하고 절실하여 거행할 만하였다.		
	(… 중략 …) 지금 및	<sup>复</sup>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을 겉	이치가 잠재된 부분	
	과 속까지 남김없이	左氏가 책에 그 비밀을 다 펼쳤으니, 학		
	자가 책을 한번 열면	면 그것을 다 얻을 수 있는데, 도리어 귀중		
	함을 알지 못하니, ㅇ			
	혹자가 "楚 平王이	처음 나라를 얻었을 때 죄인을 용서하고		
4	관직을 세우며, 군다			
	법이 앞의 몇 사람회	일반적인 생각		
	내 진려하지 못했으니, 이는 방법이 다스리기에 부족한 것이			
	다."라고 하였다.159)			
	만약 平王이 늘 이	방법을 고수하고도 초나라가 끝내 진려하		
	지 못했다면, 방법이	다스리기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가능		
	하다. 그는 나중에 🏾	宮室을 지음에 헤아림이 없어서 백성은 날	시키크 드기에 버버	
	마다 놀랐으니, 이미	이 방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렇다면 초나	지 이치를 드러낸 부분   조나   기계를 드러낸 부분	
	라가 진려하지 못한	것은, 방법의 잘못이 아니라 방법을 폐기		
	한 잘못이다.160)			

明. 顯與明, 人之所畏也, 隱與晦, 人之所忽也."

- 161) 정태현・김병애(2020:338-339), "單伯爲魯請子叔姬於齊, 左氏無異辭, 公羊穀梁兩家 以爲單伯淫於叔姬, 是以見執. (… 중략 …) 單伯實周臣, 而公穀乃以爲魯之大夫. 周魯之辨且復倒置, 尚未辨其爲何國人, 則所言之罪, 豈足信乎?"
- 162) 정태현・김병애(2020:339), "從左氏耶, 則單伯無毫髪之愆. (… 중략 …) 吾之所以指單伯而爲周臣者, 葢以經知之, 非以左氏知之. (… 중략 …) 自周之外, 經未有書諸侯

<sup>158)</sup> 정태현·김병애(2013:313-314), "吾讀左氏,至衛文公趙宣子晉悼公魏絳蔿掩之治國, 規摹條畫,巨細畢備,確實切近,可擧而行.(… 중략 …)今數公治國之良法,表裏纖 悉,左氏盡發其秘於書,學者一開卷而盡得之,反不知貴重,豈不怪耶?"

<sup>159)</sup> 정태현・김병애(2013:315), "或曰 楚平王之始得國, 宥罪擧職, 簡兵撫民, 其法與數公無異者. 然楚終不振, 是法不足以爲治也."

<sup>160)</sup> 정태현·김병애(2013:315), "使平王常守是法, 而楚終不振, 謂法不足爲治, 可也. 其後宮室無量, 民人日駭, 則旣不能守是法矣. 然則楚之不振者, 非法之罪也, 廢法之罪也."

	번호	편명	구분
	142	單伯請子叔姬	『左傳』의 筆法
	單伯은 魯나라를 위는 다른 말이 없었고 叔姬에게 음란한 행 <u>경다</u> . (… 중략 …) 와 穀梁氏는 魯나라	해서 子叔姬를 제나라에 요청했는데, 左氏 그, 公羊氏와 穀梁氏 두 사람은 單伯이 子 위를 했고, 이 때문에 잡히게 되었다고 여 單伯은 실제로 周나라의 신하인데, 公羊氏 의 大夫로 여겼다. 周나라와 魯나라의 구 넘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게 하	『공양전』과 『곡량전』의 筆法
		죄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161)	
6	<ul> <li>…) 내가 單伯을 가던 경문으로 아는 것이</li> <li>…) 周나라 이외에</li> <li>이 없다. (… 중략 ·</li> <li>人이 경문에 이름을</li> <li>큰 공적과 큰 선행이</li> </ul>	由은 毫髮의 허물도 없는 것이다. (… 중략 내켜 周나라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春秋』 지 『左傳』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 중략 경문에 제후의 신하를 '伯'으로 기록한 적 ·) 만약 單伯이 과연 魯나라 大夫인데, 聖 적지 않고 '伯'으로 기록했다면, 반드시 있어서니, (… 중략 …) 아주 큰 죄를 졌 는 기림을 받게 한다면, 어찌 孔子가 되고, 는가?162)	이치가 잠재된 부분
	곡식 한 알일 뿐이다	: …) 單伯의 일은 소의 털 하나와 창고의 가. 드넓은 곳에 먼지처럼 퍼진 일을, 그대 게 변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163)	일반적인 생각
	보이고, 나에게는 이 해 보인다는 것을 5	게 보이지만, 저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주 느긋해 보이지만, 저들에게는 아주 급 '르는 것이니, 어찌 잠깐의 수고로움을 아 의 원한을 줘도 되겠는가?164)	이치를 드러낸 부분

「표 3.15」 '左氏'의 敍事에 대한 긍정

①의 경우、『東萊博議』에서는 『左傳』에서 공개석상에서의 행실과 관련된

之臣爲伯者. (… 중략 …) 若單伯果魯大夫, 聖經不名而書伯, 必有大功大善, (… 중 략 …) 則何以爲孔子, 何以爲春秋?"

<sup>163)</sup> 정태현·김병애(2020:342), "或者又曰 (··· 중략 ···) 單伯之事, 特牛一毛, 倉一粟耳. 浩浩塵編, 子能盡發而細辨之乎?"

<sup>164)</sup> 정태현・김병애(2020:342), "抑不知我視之甚微 彼視之甚重. 我視之甚緩, 彼視之甚急, 亦何愛頃刻之勞, 而使彼賫没身之恨乎?"

21개의 사건을 인용하고 본문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논술하고 있다. 표에서 인용한 부분을 보면, 여조겸은 사람을 관찰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한 후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左傳』속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시 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이미지에 신경을 더 쓰고,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신경을 덜 쓰므로, 그 사람의 본모습을 관찰하려면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자리에서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더군다나 춘추시대는 공개석상에서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치기까지 했으니 방식의 타당성은 제쳐두고서라도 당시의 사람들이 공개석상의 행실에 더욱 신경 썼을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左傳』에는 공개석상에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실려있으므로 이러한 상식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여조겸은 병의 비유를 들어서 이러한 의문을 해결한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몸 속의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 보이는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개인적인 자리에서의 잘못된 행실이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본인의 악행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여조겸은 직접적으로 '左氏'에 대해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에서 이해되지 않는 『左傳』의 기록에서 이러한 이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후 이러한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 역사가를 긍정하고 있다는 점<sup>165</sup>)을 고려하면 『左傳』의 서술자로서의 '左氏'를 대상화하여 그의 기재 기준을 긍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의 경우,『東萊博議』에서는 『左傳』에서 통치 방법과 관련된 9개의 사건을 인용하고 본문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논술하고 있다. 표에서 인용한 부분을 보면, 여조겸은 위 文公, 조선자, 진 탁공의 통치법을 지금 사용해도

<sup>165)</sup> 정태현・김병애(2012:158), "雖然春秋之時, 旁觀竊議者, 特爲瞽史之學者耳. 而愆失 繆戾, 已不能逃其目, 使有知道者立於其側, 又將若之何?"

효용이 클 것이라고 긍정하면서 사람들이 이를 책에 적힌 말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左傳』에 기록된 이 방법이 효용이 커서 현재도 적용할 수 있다면 『左傳』의 시대 배경인 춘추시대에도 효용이 커야 했는데, 초 평왕이 이 방법을 사용했으나 결국 초나라는 패자가 되지 못했으니 방법의 효용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반박에 초 평왕이 처음에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나중에는 폐기했으므로 패자가 되지 못한 것이라고 재반박한다. 이 방법을 시행하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더불어 본문에서 여조겸은 이러한 효용이 있는 통치법을 세세하게 '左氏'가 『左傳』에 밝혀놓았으니 학자들이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左傳』에 이치에 부합하는 사건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左傳』의 서술자로서의 '左氏'를 대상화하여 그의 기재 기준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⑥의 경우,『東萊博議』에서는『춘추』三傳 중 하나로서의『左傳』의 필법과 연관된 3개의 사건을 인용하고 본문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논술하고 있다. 표에서 인용한 부분을 보면, 여조겸은『춘추』의 해당 경문에 대한『공양전』,『곡량전』,『左傳』의 서술을 비교하며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춘추』의 해당 경문은 魯 文公 14년 겨울'單伯如齊,齊人執單伯,齊人執 子叔姬'로 單伯이 제나라에 子叔姬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러 갔다가 잡힌 사건을 다루고 있다. 『東萊博議』에서 인용하고 있는 『左傳』의 나머지 2개의 사건 역시 이 사건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결국 『東萊博議』의 해당 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單伯이 제나라에서 자숙희를 돌려받는 사건 하나 로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左傳』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공양전』, 『곡량전』에서는 單伯이 子叔姬와 간음을 해서 제나라에 잡힌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에 여조겸은 현실의 송사는 관리가 담당하고, 책에 기록된 미결된

사건은 유학자가 담당한다고 하면서 單伯의 간음 의혹에 대한 진위를 밝힐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바로 『춘추』 경문의 '單伯'이라는 호칭이었다. 單伯에 대해 『공양전』과 『곡량전』은 魯나라 대부로, 『左傳』은 주나라대부로 보고 있는데, 여조겸은 『춘추』의 필법에서 '伯'으로 부르는 경우는상대가 주나라의 신하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魯 閔公 원년의 '季子來歸'라는하나의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魯나라 신하인 계우가 魯나라에서 이룬업적의 성대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單伯의 경우도 魯나라 신하인데 '伯'으로표기되는 예외가 되려면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魯나라 대부이면서 간음을 저질렀다는 서술은 모순이 되는 것이다. 『춘추』에서 확인할 수 있는 單伯의 업적은 계우에 비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單伯은 『춘추』의 필법에 따라 주나라 신하가 된다.

이렇듯 살펴본 바에서 여조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양전』과 『곡량 전』에 비해 『左傳』이 『춘추』를 잘 서술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그 가 『左傳』의 서술자로서의 '左氏'를 대상화하여 그의 서술 방식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판단에 대해 지리한 것이라며 책에 기록된 그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다 분별해낼 수 있겠냐는 비판을 소 개하고 이에 대해 單伯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마음을 미루어 정사에 임한다 면 백성들의 원한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에게는 單伯 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것에서 정사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이치의 단초 가 보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총 6편에 대해 '左氏'의 敍事가 논평이 된 경우의 평가를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여조겸이 긍정과 비판의 기준은 기재한 내용과서술한 방식의 이치에 대한 부합 여부였다. 3.1.2에서 論事體와 敍事體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이치를 밝히는 것에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함께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여조겸이 『左傳』의 서술자인

'左氏'를 단순한 서술자로 보는 것이 아닌 論事者로, 『左傳』을 論事書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左氏'의 간접 論事가 논평의 대상이 된 경우의 평가에도 합당한지 살펴보겠다.

## 3.2.4. '左氏'의 간접 論事에 대한 관점

'左氏'의 간접 論事가 논평의 대상이 된 경우는 5편이다. 간접 論事로 분류한 기준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표면적으로는 등장인물의 언행이지만 여조 겸이 '左氏'가 동조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左氏'의 언행으로 간주한 경우이다. 각각의 편에서 여조겸이 문제로 삼고 있는 『左傳』기사의 대목은 다음과 같다.

	번호	편명	구분
	11	鄭伯朝威王	
	晉나라와 鄭나라를 면해도 오지 않을까	에게 "우리 周나라가 동쪽으로 천도할 때 의지했습니다.鄭나라에 잘해서 오라고 권 나 걱정해야 하는데, 하물며 예우하지 않음 鄭나라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166)	문제가 되는 언행
1	니, 傲慢하게 거동하 모멸을 받는다. 夷王 가 비록 謙卑하였으 이로써 桓王이 실착	분한다면 "왕실의 기강이 이미 실추되었으 배도 실로 화를 부르고, 謙卑하게 행동해도 돈이 堂에 내려가서 제후를 접견하여 예의 나 周나라는 더욱 쇠락했다. (… 중략 …) 이 오로지 鄭伯을 예우하지 않은 것에 있 강을 진작할 수 없었음에 있음을 알겠다."	비판의 근거가 되는 이치

<sup>166)</sup> 정태현・김병애(2012:128), "周桓公言於王曰 我周之東遷, 晉鄭焉依. 善鄭以勸來者, 猶懼不蔇, 況不禮焉? 鄭不來矣."

<sup>167)</sup> 정태현・김병애(2012:130), "君子論之, 則以爲王綱旣墜, 傲固招禍, 卑亦納侮. 如夷王下堂見諸侯, 禮雖卑而周益衰. (… 중략 …) 是知威王之失, 不專在於不禮鄭伯, 而在於不能振王綱."

	번호	편명	구분
	15	穎考叔爭車	
	公孫 閼이 潁考叔고	누 수레를 다투다가 領考叔이 수레의 끌채	
	를 끼고 달아났다.	子都(公孫 閼)가 창을 뽑아서 그를 쫓았다.	
	큰 길까지 갔으나	따라잡지 못하자 子都는 분노했다. (… 중	문제가 되는 언행
	략 …) 潁考叔이 鄭	伯의 旗인 蟄弧을 들고 먼저 올라가자, 子	
(2)	都가 아래에서 화살	을 쏘니, 떨어졌다.168)	
4	氣는 두 종류의 氣	가 없고, 理는 두 종류의 理가 없다. 사물	
	이 氣의 편중됨을 역	벋어서 理도 편중되고, <u>사람은 氣의 온전함</u>	
	을 얻어서 理도 온	전하다. (… 중략 …) 사람은 온전하게 天	비판의 근거가 되는
	地의 氣를 받아서	온전하게 天地의 理를 온전하게 얻었는데,	이치
	지금 도리어 한 가>	이 선행만 고수하고 미루어 행하지 못하니,	
	어찌 사람의 죄가 여	·나기겠는가?169)	
	79	魯饑而不害	
	臧文仲이 "가뭄에	대한 대비가 아닙니다. 城郭을 수리하고,	
	양식과 비용을 절익	하고, 나눔을 권면하는 것, 이것이 급선무	
	입니다. 巫尫이 무슨	은 짓을 해서 하늘이 그를 죽이고 싶어 한	문제가 되는 언행
	다면 태어나지 못하	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 가뭄을 일으킬 수	문제가 되는 인행
3	있는데 화형시킨다	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魯	
	桓公이 따랐다. 이	해에 기근이 들었으나 피해가 없었다.170)	
	天은 사람이 벗어닐	한 수 없는 것이다. 믿는 자는 실로 믿고,	
	믿지 않는 자도 믿	는다. (… 중략 …) 만약 믿지 않는 자가	비판의 근거가 되는
	과연 믿지 않을 수	있다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벗어날	이치
	수 있다면 하늘이 여	가니다. <sup>171)</sup>	

<sup>168)</sup> 정태현・김병애(2012:171), "公孫閼與潁考叔爭車, 潁考叔挾輈以走. 子都拔棘以逐之. 及大逵弗及, 子都怒. (… 중략 …) 潁考叔取鄭伯之旗蝥弧以先登, 子都自下射之, 顚."

<sup>169)</sup> 정태현・김병애(2012:173), "氣無二氣, 理無二理. 物得氣之偏, 故其理亦偏, 人得氣之全, 故其理亦全. (… 중략 …) 至於人則全受天地之氣. 全得天地之理, 今反守一善而不能相推, 豈非人之罪哉?"

<sup>170)</sup> 정태현・김병애(2013:175), "臧文仲曰 非旱備也. 修城郭, 貶食省用, 務穡勸分, 此其務也. 巫尫何爲, 天欲殺之, 則如勿生. 若能爲旱, 焚之滋甚. 公從之. 是歲也, 饑而不害."

	번호	편명	구분
	121	箕鄭父殺先克	
	晉侯가 장차 箕鄭父	의 先都의 品階를 올려주고, 士縠과 梁益	
	耳에게 中軍을 담당	하게 하려고 했다. 先克이 "狐偃과 趙衰의	
	功勳은 폐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晉侯가 따랐다. 先	문제가 되는 언행
	克이 堇陰에 위치힌	· 蒯得의 땅을 빼앗았다. 그래서 箕鄭父·	전세가 되는 현행
<b>4</b> )	先都・士穀・梁益耳	·蒯得이 난을 일으켰다. 魯 文公 9년 봄	
4		자객을 시켜서 先克을 죽였다.172)	
	禍를 얻음이 不幸이	아니었던 것은 오직 이 시기만 그러했을	
	뿐이다. 당시 군주기	ㅏ 虞舜이 아니고, 재상이 공자였던 魯나라	비리이 그리키 티노
	가 아닌데, 유배가는	는 자가 잇달았다면 어찌 모두 玄族이라고	비판의 근거가 되는
	기대하겠으며, 刀鋸여	이 잇달았다면 어지 모두 少正卯라고 기대	
	하겠는가?173)		
	144	公孫敖二子	
	두 아들이 "孟獻子》	세선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는	
	데, 우리는 장차 夫	子를 죽일 것으로 소문이 났으니, 또한 예	문제가 되는 언행
	에서 멀지 않은가?	예와 멀면 죽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하고,	전세가 되는 현생
	모두 죽었다.174)		
5	本宗의 친속에서 長	幼와 高下는 비록 목동과 노비 같은 어리	
	석은 자라고 할지리	노, 오히려 그것을 계산할 수 있다. 지금	
	權位에 한 번 이동	하자 항렬이 낮은 자는 스스로 높은 것처	비판의 근거가 되는
	럼 여기고, 항렬이	높은 자는 스스로 낮은 것처럼 여겼다. 어	이치
	지럽게 뒤섞여서 디	시 기억할 수 없으니 다른 일 중에 유실	
	된 것을 다 셀 수 🤉	있겠는가? <sup>175)</sup>	

「표 3.16」 '左氏'의 간접 論事가 논평의 대상이 된 경우

<sup>172)</sup> 정태현・김병애(2020:169), "晉侯將登箕鄭父先都, 而使士穀梁益耳将中軍. 先克曰狐趙之勲, 不可廢也. 從之. 先克奪蒯得田于堇陰. 故箕鄭父先都士穀梁益耳蒯得作亂. 九年春王正月己酉, 使賊殺先克."

<sup>173)</sup> 정태현・김병애(2020:170), "得禍而非不幸,惟此時爲然爾. 時非虞也,君非舜也,國非魯也,相非丘也,流竄相望,安可槪以玄族待之乎? 刀鋸相尋,安可槩以少正卯待之乎?"

<sup>174)</sup> 정태현・김병애(2021:352), "二子曰 夫子以爱我聞, 我以將殺子聞, 不亦逺於禮乎? 遠禮不如死, 皆死."

<sup>175)</sup> 정태현・김병애(2021:354), "本宗之親, 長幼高下, 雖牧圉阜隷甚戇而昏者, 猶能數之. 今一移於權位, 卑者自視若尊, 尊者自視若卑. 繆亂舛錯, 不復能記, 則他事遺落者可

①의 경우, 3.2.1에서 표면적인 발화자는 주 桓公이지만 실질적인 발화자는 '左氏'임을 이미 확인했었다. 또 이에 대한 여조겸의 입장에 대해서는 3.1.2에서 주 桓公의 말에 이치가 없다는 것으로 비판한 것을 확인했었다.

②의 경우, 인용한 부분을 보면 5월에 영고숙이 공손알과 병거를 쟁취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7월에 허나라를 토벌할 때 영고숙이 성을 먼저 올랐 으나 공손알의 화살을 맞고 성에서 떨어져 죽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 이에 대해 '左氏'는 별도의 평가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다.

여조겸이 보기에 이치는 한 가지라서 효심을 밀어서(推) 다른 선행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영고숙은 앞에서는 효성스러웠으나 뒤에서는 충성스럽지 못했으므로 비판받아야 마땅했다. 그러나 '左氏'가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左氏'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로 간주하고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영고숙을 비판하면서 '左氏'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예전에 左氏가 일찍이 '효심이 끝이 없어서 영원히 너의 동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시를 들어서 영고숙을 찬미했는데, 지금으로부터 그것을 보면고기는 버릴 수 있었으나 수레는 버릴 수 없었으니 효심이 때로는 다함이 있었고, 莊公을 감화시킬 수 있었으나 자도는 감화시킬 수 없었으니 동류에게 때로는 감화시키지 못함이 있었던 것이다. 영고숙이 이 시를 세 번 반복한다면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左氏는 이 시로써 영고숙의 효심을 찬미하였으나 나는 바라건대 이 시를 옮겨서 영고숙의 잘못을 책망하고자한다.176)

여조겸은 '左氏'가 隱公 원년에 영고숙이 鄭 莊公과 무강을 화해시킨 일

勝計乎?"

<sup>176)</sup> 정태현·김병애(2012:181), "昔,左氏嘗擧孝子不匱永錫爾類之詩,以美考叔. 自今觀之,能捨肉而不能捨車,則其孝有時而匱矣. 能化莊公而不能化子都,則其類有時而不能錫矣. 考叔三復是詩,能無愧乎? 左氏以此詩而美考叔之孝,吾請移此詩,以責考叔之非."

을 서술하면서 뒤에 영고숙의 효심을 긍정한 시를 군자의 입을 통해 논평한 것을 언급하며 이 시를 효심을 다하지 못한 영고숙을 책망하는 데 써야한다고 논평하고 있다. 즉 해당 사건에서의 영고숙의 행위는 비판받아야 하는 행동이었으나 '左氏'는 비판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左氏'였다면 앞에서 '左氏'가 인용한 시로 영고숙의 행위를 비판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을확인할 수 있다.

③의 경우, 인용한 부분을 보면 노 僖公 21년 여름에 魯나라가 큰 가뭄이들어서 노 僖公이 무당인 앞곱사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자 臧文仲은 그것은 가뭄에 대한 해결책이 아님을 밝히고 성곽을 수리하고 먹는 것을 줄이고 절약하며 농사에 힘쓰고 나눔을 권장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반대한다. 이에 노 僖公은 臧文仲의 간언을 받아들여 시행했고 실제로 기근이 들었으나 피해는 없었다는 것으로 '左氏'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서술을 마무리 짓는다. 이러한 '左氏'의 서술은 여조겸이 보기에 臧文仲의 발언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로 보인 듯하다.

臧文仲은 앞곱사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근거로 사람(앞곱사)에게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하늘)를 심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들었는데, 이는 곧 하늘과 사람의 구분으로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여조겸은 이러한 臧文仲의 견해에 대해 자연재해는 하늘에 달린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하늘은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인데, 臧文仲은 분리된 것으로 보았고, '左氏' 또한 이에 동조했기에 둘 다 비판받아야 했다.

左氏가 실은 바를 상세히 살펴보면, (左氏는) 아마도 세상의 비루한 견해를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左氏의 생각은 '가뭄은 하늘에 달렸고 대비는 사람에 달렸으니 (… 중략 …) 기근이 드는 것은 하늘이 하는 바이고 해를 입지 않는 것은 사람이 하는 바이다.'라고 여겼다. 과연 이 말과 같다면 본 바의 것이 사물을 덮고 있는 하늘에 불과한데, 하늘은 거대하여 바깥이 없어서 사람이 순응하거나 위배하거나 지향하거나 (… 중략 …) 하여 분분하게

행동하더라도 실제로는 일찍이 하늘의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었다.177)

위의 인용한 부분을 보면 여조겸은 해당 발언을 한 臧文仲이 아닌 서술 자인 '左氏'를 향해 하늘과 사람을 분리해서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했 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다음 인용 부분을 보면 '左氏'를 향한 비판이 臧文仲 의 잘못된 의견에 대한 동의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左氏는 '가뭄 대비는 하늘과 관련이 없다'라고 여겼으니 臧文仲의 간언이어디에서 나왔으며 노 僖公의 후회가 어디에서 생겼고 가뭄의 대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른 것이다. 사람의 말이 나오는 것이 천리가 나오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후회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 후회하는 것이고, 사람의일이 닦여지는 것이 하늘의 도가 닦이는 것이다.178)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조겸은 '左氏'에 대해 단순한 역사 기록자로서 사건을 서술(敍事)하기만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 사건에 숨겨진 이치를 드러내기(論事)'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 속 臧文仲의 발언에 대해 '左氏'는 臧文仲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발언이 천리에서 비롯된 것이고, 노 僖公의 후회도 천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규명하여 '하늘은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이치를 드러냈어야 했는데 도리어 臧文仲의 의견에 동의하는 데 그친 것이다. 그렇기에 본문에서 臧文仲이 아닌 '左氏'에 대해 비판한 것이며 臧文仲의 발언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를 '左氏'로 보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sup>177)</sup> 정태현·김병애(2013:179), "詳考左氏之所載, 殆未免世俗之見也. 左氏之意, 以謂旱在天. 備在人. (… 증략 …) 饑者, 天之所爲也. 而不害者, 人之所爲也. 果如是說, 則所見者, 不過覆物之天而已矣. 抑不知天大無外, 人或順或違, 或向或背, 或取或捨, 徒爲紛紛, 實未嘗有出天之外者也."

<sup>178)</sup> 정태현・김병애(2013:182), "左氏意以修旱備爲無預於天, 抑不知臧文仲之諫自何而發, 魯僖公之悔自何而生, 旱備之修自何而出? 人言之發, 即天理之發也. 人心之悔, 即天意之悔也. 人事之修, 即天道之修也."

④의 경우, 인용한 부분을 보면 魯 文公 8년 겨울에 晉侯가 진나라 대부의 품계를 올려주고 중군장에 임명하려고 하자 선극이 반대한 사건과 진나라 대부의 땅을 선극이 빼앗은 사건을 이유로 진나라 대부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과 魯 文公 9년 봄에 선극이 살해당한 것이 연이어 서술되어 있다. '左氏'가 직접적으로 선극이 죽을 만하여 죽었다고 서술하지는 않았으나 선극이 진나라 대부의 원한을 불러일으킨 사건들을 먼저 기술하여 간접적으로 선극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에 여조겸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화를 당하는 상황은 요순이 임금으로 있거나 공자가 재상으로 있었던 시대에만 가능하다는 이치를 언급하고서 쇠미하고 혼란한 시대인 춘추시대를 서술하면서 공경대부가 화를 입은 것에 일일이 그 원인을 규명한 '左氏'를 비판한다.

아마도 멀리 사방으로 유배가는 자 중에는 반드시 稷, 契, 垂, 益과 같은 자들이 없지 않았을 것이고, 양관의 아래에서 주살 당한 자 중에는 반드시 증자, 민자건, 자로, 자공과 같은 자들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 중략…) 지금 쇠미하고 혼란한 시대인 춘추시대를 기재하면서 화를 당한 사람을 보면 흠을 찾고 허물을 모아서 그의 죄를 증명하여, 군자가 불행히 화를 당한 것은 가여워하지 않고 소인이 명분 없이 사람을 죽인 것을 애석해하니, 이것이 내가 左氏 때문에 깊이 애석해하는 바이다.179)

춘추시대에 유배 가고 주살을 당한 이들 중에 稷, 子貢과 같은 현인이 없지 않았을 것인데, 일일이 화를 당한 사람의 흠을 찾고 허물을 모아서 화를 당할 만한 죄가 있다고 서술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선극이 이치에 부합한 행동을 한 근거를 제시한다.

<sup>179)</sup> 정태현·김병애(2020:170-172), "吾恐四裔之遠, 未必無如稷無如契如垂如益者也. 吾恐兩觀之下, 未必無如參無如騫如由如賜者也. (… 중략 …) 今記載春秋衰亂之世, 見人之遇禍者, 則吹毛求疵, 捃摭其過, 以證成其罪, 不憫君子受禍之不幸而惜小人殺人之無名, 此吾所以深爲左氏惜也."

장수를 선발하는 것은 국가의 대사이니, 국가의 홍망과 백성의 생사가 말미암는 바이다. 선극은 근신의 몸으로 진후가 장수를 선발한 것이 마땅하지 않음을 몸소 보았으니 어찌 앉아서 바라만 보는 것을 기꺼워했겠는가? (… 중략 …) İ 陳의 전쟁 때 군대의 일로 괴득의 땅을 빼앗았으니 이 또한 진나라 군대의 일이고 선극의 집안일이 아니다. (… 중략 …) 선극은 훗날 화를 당할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감히 피하지 않은 것이다. 좌씨 정도나되는 자가 어찌 선극의 충성을 깊히 긍정하고 기정보 무리의 죄를 꾸짖어, 관직을 맡아 수행하는 자들로 권면하는 바가 있게 하고, 반복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징계하는 바가 있게 하지 않았는가? [180]

이처럼 여조겸은 본문에서 춘추시대와 같은 난세에는 부당하게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치를 바탕으로 충성스러운 일을 했으나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선극의 상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으로 '左氏'를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은 선극의 행위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직접적인 논평의 부재, 즉 침묵을 통한 기정보 무리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⑤의 경우, 인용한 부분에서 공손오의 두 아들이 '맹헌자는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는데, 도리어 자신들은 맹헌자를 죽이려 한다는 것으로 소문이 났음을 슬퍼하며 이는 예법에 어긋난 것이니 죽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대사를 하고 공손오의두 아들은 성문을 지키다가 죽는 것<sup>181</sup>)으로『左傳』에 서술되어 있다.

여조겸이 문제로 삼고 있는 해당 대사를 보면 맹헌자를 '夫子'로 표현하여 맹헌자를 윗사람으로 자신들을 아랫사람으로 발언자가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혈연관계를 따져보면 공손오가 魯나라에서 낳은

<sup>180)</sup> 정태현·김병애(2020:173), "謀帥大事也. 國之興衰, 民之死生, 所由繫者也. 先克身爲近臣, 親見晉侯謀帥之未當 詎肯坐視耶. (… 중략 …) 葷陰之役, 以軍事奪蒯得之田. 此又晉之軍政, 而非先克之家政也. (… 중략 …) 先克所以明知他日之禍而不敢避也. 爲左氏者, 盍亦深嘉先克之忠 毁斥箕鄭父輩之罪, 俾當官而行者, 有所勸, 覆出爲惡者, 有所懲."

<sup>181)</sup> 정태현 · 김병애(2020:353), "一人門于句鼆, 一人門于戾丘, 皆死."

아들이 穀과 難이고 穀의 아들이 맹헌자이며, 거나라에서 낳은 아들이 해당 대사를 한 두 아들이다. 즉 두 아들이 맹헌자에게 숙부와 계부가 되는 셈이 다.<sup>182)</sup> 이러한 근거 위에서 여조겸은 공손오의 두 아들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두 사람의 말을 음미하건대 도리어 맹헌자를 아버지의 항렬로 보고 자신들은 아들의 항렬로 둔 듯한데, 左氏가 따라서 그것을 기재하였으니 그 또한 두 사람이 맹헌자의 숙부가 된다는 점을 잊은 것이다. (… 중략 …) 두 사람이 人爵의 존귀함을 보고 天屬의 중요함을 잊었거늘 후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자도 따라서 그것을 잊었으니 권위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두려워할 만하다.[83)

그는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의 원인을 권위의 영향에서 찾고 있다. 권위에 압도되어 하늘이 부여한 항렬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조겸이보다 주목한 것은 후대의 사람으로 해당 사건을 봤음에도 그러한 잘못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기록한 '左氏'이다. 직접적으로 공손오의 두 아들의 발언에 동의하는 평가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말을 싣고서 비판의 평가를하지 않아 간접적으로 동의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여기에서도 이치를제대로 드러내어 서술하지 못한 '左氏'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다섯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여조겸은 문제로 삼고 있는 『左傳』 속 등장인물의 언행에 '左氏'가 별도로 비판의 논평을 달지 않은 경우 해당 언행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여겨서 간접 논평의 주체로 보고 '左氏'를 대상으로 비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판의 근거는 이학적 이치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이는 여조겸이 '左氏'에 대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敍事者가 아

<sup>182)</sup> 정태현・김병애(2020:354), "始公孫敖生穀與難而出奔,復生二子于莒,孟獻子實穀之子,其視公孫敖則祖廟也. 其視在莒之二子,則叔父季父也."

<sup>183)</sup> 정태현·김병애(2020:354), "味二子之言,反視孟獻子若大父行,自處於孺子之列. 左 氏從而載之,亦忘二子之爲叔父也. (… 중략 …) 二子見人爵之尊而忘天屬之重,後人 之載筆者,亦從而忘之,權位之移人可畏哉.

니라 論事者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에서 살펴볼 '左氏'의 직접 論事에 논평의 대상이 된 경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 3.2.5. '左氏'의 직접 論事에 대한 관점

'左氏'의 직접 論事가 여조겸의 논평의 대상이 된 경우는 11편으로 다음과 같다.

	번호	편명	左氏에 대한 평가
1	3	周鄭交惡	左氏에 대한 비판
2	10	鄭伯侵陳大獲	左氏에 대한 긍정
3	63	楚滅弦	左氏에 대한 비판
4	77	隨叛楚	左氏에 대한 비판
(5)	91	衛禮至殺邢國子	左氏에 대한 긍정
6	105	閏三月非禮	左氏에 대한 긍정
7	135	狼瞫死秦師	左氏에 대한 비판
8	139	邾文公遷於繹	左氏에 대한 긍정
9	143	宋華耦辭宴	左氏에 대한 비판
10	152	晉不競於楚	左氏에 대한 비판
11)	157	晉趙穿弑靈公	左氏에 대한 비판

「표 3.17」 '左氏'의 직접 論事가 논평의 대상이 된 경우

열 한 편의 경우 중 여조겸이 '左氏'의 직접 論事에 대해 긍정한 것은 4 개로, 등장인물의 비판받아야 할 언행에 비판한 경우, 긍정해야 할 언행에 긍정한 경우로 구분된다. 또 비판한 것은 7개로, 비판받아야 할 언행에 긍정 혹은 동조한 경우, 비판받아야 할 언행에 내용적으로 잘못 비판한 경우, 비판받아야 할 언행의 주체를 오인하여 비판한 경우로 구분된다.184)

<sup>184) &#</sup>x27;左氏'의 직접 論事에 긍정한 경우를 '左氏'의 올바른 긍정과 올바른 비판으로 나 눴다면, '左氏'의 직접 論事에 비판한 경우도 '左氏'의 잘못된 긍정과 잘못된 비판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겠지만, 비판한 7편 중

먼저 궁정한 네 경우에 대해 여조겸이 문제로 삼은 『左傳』속 언행의 표 면적·실질적 주체 및 근거로 사용한 이치는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번호	편명	표면적 주체	실질적 주체
	10	鄭伯侵陳大獲	左氏의 올	바른 비판
	陳侯가"	宋나라와 衛나라는 실로 화난을 끼칠 수		
	있으나, 舅	鄭나라는 무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	陳侯	陳侯
	다.185)			
	君子 "(…	중략 …) 악이 쉽게 뻗어감이 불이 평원		
2	을 불태의	우는 것과 같아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君子	左氏
	오히려 빈	·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186)		
	天下의 일	일은 두려워하는 것에서 이루어지고 소홀		
	히 하는 것에서 패망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福의		긍정의 근거가 되는 이치	
	근원이고,	소홀히 하는 것은 禍의 문이다.187)		
	91	衛禮至殺邢國子	左氏의 올	바른 비판
	禮至 형々	∥가 國子를 따라서 성을 순찰하다가, (國	禮至	禮至
	/ -	고서 밖으로 나와서 그를 죽였다.188)	127-1-7	132.1.
	(『春秋』 >	경문에) "正月 丙午에 衛侯 燬가 邢나라를		
	멸망시켰	다."라고 기록하였으니, 同姓의 국가였기		
	에 이름을 적은 것이다. 禮至가 銘文에 "내가 國		左氏	左氏
5	子를 끼고	1 나와 죽였으니, 누구도 감히 나를 멈추		
	지 못했다	h."라고 적었다. <sup>189)</sup>		
	君子의 의	니론은 믿을 만하니, 어찌 쇠와 돌에 비견		
	하겠는가:	? 선생은 군자의 의론을 의탁해서 실로	그것이 그리	가 되는 이치
	썩지 않고	고, 악행도 군자의 의론을 의탁해서 썩지	6성의 단계	/「러는 의시
	않는다.19	0)		

긍정할 만한 언행에 대해 비판한 경우는 없었으므로 제외하고, 내용과 대상 두 측 면에서의 잘못된 비판으로 세분화하였다.

<sup>185)</sup> 정태현 · 김병애(2013:119), "陳侯曰 宋衛實難, 鄭何能爲."

<sup>186)</sup> 정태현·김병애(2013:119-120), "君子曰 (··· 중략 ···) 惡之易也, 如火之燎于原, 不可 嚮邇, 其猶可撲滅."

<sup>187)</sup> 정태현·김병애(2013:122), "天下之事, 成於懼而敗於忽. 懼者, 福之原也, 忽者, 禍之 門也."

<sup>188)</sup> 정태현 · 김병애(2018:334), "二禮從國子巡城, 掖以赴外, 殺之."

	번호	편명	표면적 주체	실질적 주체	
	105	閏三月非禮	左氏의 올	바른 비판	
		삼월이 윤달이었다.l9l)	左氏	左氏	
	예가 아니	l다. 先王이 時를 바로잡을 때 曆의 시작			
	을 始로브	부터 추산하고, 中氣에서 달을 정하고, 끝			
	에 여분을	을 돌렸으니, 순서대로 하니 허물이 없고,	左氏	左氏	
	中氣에서	달을 정하니 백성들이 의혹하지 않고, 끝			
	에 여분을	을 돌리니 일이 어그러지지 않는다.192)			
		실에 螽害가 생겼다.193)	左氏	左氏	
<u>(6)</u>	仲尼가"	내가 듣건대 火星이 잠복한 뒤에 벌레가			
	땅으로 들	들어가는 것이 끝나는데, 지금 火星이 아직	77.7 <b>)</b>	<b>+</b> €.	
	서쪽으로	이동하니 曆官이 잘못 계산한 것이다."라	공자	左氏	
	고 말했다	1.194)			
	曆官에게	그것을 물어본 뒤에야 윤달이라는 것이			
	실제로 層	雪數의 기본이고, 四時가 이것에 기대어 바	궁정의 근거가 되는 이치		
	로잡힌다	는 것을 알았다. (… 중략 …) 일정한 曆			
	法을 두어	너서 일정함이 없는 하늘의 운행을 추구하			
	면 날로	소원하고 어긋날 것이다.195)			
	139	邾文公遷於繹	左氏의 올	바른 긍정	
	邾子가 "	天命은 백성을 기르는 데 있고, 죽음의 이			
	르고 느림	님은 때가 있는 것이다. 백성에게 만약 이	주자	좌씨	
	롭다면 옭	음기는 것이니, 길함이 이만한 게 없다."라	十个	47/1	
0	고 말하고	1 繹으로 천도했다.196)			
8	君子가"	天命을 알았다."라고 말했다.197)	군자	좌씨	
	일이 우연	면히 징험된 것은 내 말의 도움이 되기에			
	부족하고,	, 우연히 징험되지 않은 것도 내 말의 도	그것이 그리	가 되는 이치	
	움이 되기	기에 부족하니, 이치가 있는 뒤에 징험이	궁성의 단계	/ 기시 기시	
	있다.198)				

「표 3.18」 '左氏'의 직접 論事에 대해 긍정한 경우

<sup>189)</sup> 정태현·김병애(2018:334), "正月丙午, 衛侯燬滅邢. 同姓也, 故名. 禮至爲銘曰 余掖殺國子, 莫余敢止?"

<sup>190)</sup> 정태현・김병애(2018:336), "君子之論其可恃, 豈金石比耶? 善託於君子之論, 固不朽, 惡託於君子之論, 亦不朽."

<sup>191)</sup> 정태현 · 김병애(2020:50), "於是閏三月."

<sup>192)</sup> 정태현・김병애(2020:50), "非禮也. 先王之正時也, 履端於始, 舉正於中, 歸餘於終. 履端於始, 序則不愆, 舉正於中, 民則不惑, 歸餘於終, 事則不悖."

②의 경우, 3.2.1에서 문제가 되는 발화의 표면적인 발화자와 실질적인 발화자가 陳侯로 일치하고, 이에 대해 '左氏'가 군자의 입을 통해 비판했으며, 그 근거가 陳侯의 발언이 이치에 위배된 것에 있음을 확인했었다. '左氏'가 陳侯의 발언에 드러나지 않은 이치를 밝혀서 비판하였으므로 그의 논평이 긍정의 대상이 된 것이다.

⑤의 경우, 인용된 『左傳』의 부분을 보면 '左氏'가 위나라의 禮至 형제가속임수를 써서 형나라의 국자를 납치하여 살해한 사건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禮至가 위후의 명으로 동성국을 멸망시켰으므로 경문에 비판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드러내고 또한 이 일을 직접 시행한 禮至가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器物에 새긴 것까지 기록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禮至의 부당한 행동 - 경문 해석을 통한 위후 비판 - 실행자인 禮至로 초점 이동'이 된다. 만약 경문에 대한 해석 없이 禮至가 銘文을 새긴 내용으로 이어졌다면 禮至의 행동이 속임수라는 부당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별도의 비판이 없더라도 암묵적인 동의가 아닌 역사서에 기재를 통한 포폄이라는 간접 論事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경문 해석이라는 직접 논평이 들어간 뒤에 禮至가 명문을 새긴 것이 이어졌으므로 경문에 대한 해석이라는 직접 논평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해당 사건에서 형나라 국자 시해의 표면적인 주체와 실질적인

<sup>193)</sup> 정태현 · 김병애(2020:52), "冬, 十二月, 螽."

<sup>194)</sup> 정태현·김병애(2020:52), "仲尼曰 丘聞之, 火伏而後蟄者畢, 今火猶西流, 司曆過 也."

<sup>195)</sup> 정태현・김병애(2020:50), "及問諸知曆者然後,知閏者實曆數之基本,四時之所待而正者也. (… 중략 …) 以有常之曆而追無常之天日踈日遠日舛日差."

<sup>196)</sup> 정태현·김병애(2020:320), "邾子曰 命在養民, 死之短長, 時也. 民苟利矣, 遷也, 吉莫如之. 遂遷于繹."

<sup>197)</sup> 정태현 · 김병애(2020:320), "君子曰 知命."

<sup>198)</sup> 정태현・김병애(2020:324), "事之偶驗,不足爲吾說之助,其偶不驗,亦不足爲吾語之 疵也,有是理然後有是驗."

주체 모두 禮至이며, '左氏'는 그런 禮至를 비판하였으므로 비판받아야 할 언행에 대한 적절한 비판인 경우가 된다.

여조겸은 본문에서 禮至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그것을 당당하게 명 문에 새겼다는 서술에 주목하여 역사서가 지니는 가치와 비교하며 의견을 전개하고 있다.

위나라 禮至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익을 구하여 그 나라를 얻고도 뻔뻔스러워 부끄러움도 모르고 도리어 그 공을 명문에 새겨서 후세에 밝게 보였으니, 사람들은 모두 禮至의 악행이 쇠와 돌에 기대어 악취가 만세에 남게 되었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는 禮至의 악행이 비록 쇠와 돌에 기대어 전해졌지만 쇠나 돌로 인해서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 중략…) 기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명문도 존재하지 않고, 명문이 존재하지 않으면 악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禮至의 악행은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어 애초에 기물을 따라서 썩지 않았으니, 나는 이로 인해 禮至가 악취를 만세에 남길 수 있었던 방법은 쇠와 돌이 아니라 군자의 의론임을 알겠다. 만약 『左傳』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명문이 없어지고 악명도 없어졌을 것이다.199)

禮至가 악행을 저지른 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스스로 그것을 명문으로 '박제'하여 후세에 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조겸이 보기에 이러한 명문을 통해 전해지는 것에는 해당 명문을 기록한 기물이 파손되면 명문도 파손되는 셈이므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를 지적하고 禮至의 만행이 오랫동안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左氏'가『左傳』에 기록한 덕택임을 밝혔다.

이러한 여조겸의 주장에는 표에서 인용한 대로 역사 인물의 선행과 악행

<sup>199)</sup> 정태현·김병애(2018:339), "衛禮至行險僥倖而取其國, 恬不知恥, 反勒其功於銘, 以章示後世 人皆以禮至之惡. 因金石而遺臭萬世也, 抑不知禮至之惡, 雖因金石而傳, 不因金石而遠. (… 중략 …) 物不存則銘不存, 銘不存則惡不存. 然禮至之惡, 播在人口, 初不隨物而朽, 吾是以知禮至之所以遺臭萬世者, 非金石也, 君子之論也. 使幸而不爲左氏所載, 則銘亡而惡亦亡矣."

의 역사적 포폄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다. 그는 이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풀고 있다.

左氏의 책을 읽은 자는 평범한 이들도 禮至의 망령된 행동을 비웃을 수 있었는데, 전국시대와 진나라 한나라 이래로 장수가 된 자들은 禮至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역사서에 기록된 바가 웅장하고 화려하여 기뻐할 만하고 경악할 만하니, 역사서를 읽는 자들이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내용에 눈이 어지러워서 흔쾌히 사모하지 않는 자가 없다. 같은 일인데도 左氏의 책을 읽으면 左氏를 따라 그를 경시하고 후세의 역사서를 읽으면 사관을 따라 그것을 중시하니, 내 마음의 진정한 경중이어디에 있는가?200)

여조겸이 보기에 후대의 사람들이 禮至의 악행을 알 수 있었던 것은 '左 氏'가 『左傳』에 그것의 부당함을 드러낸 덕분이지 일반적인 독자의 지적 능 력 덕분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일차적으로 '左氏'로 대표되는 역사가에 게, 이차적으로는 역사서를 읽는 독자에게 역사적 사건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⑥의 경우, 인용한 부분을 보면 별도로 등장인물의 언행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해당 편에서 인용하고 있는 『左傳』의 기사는 魯 文公 원년, 6년, 襄公 27년, 哀公 12년 등 네 개로 모두 윤달을 잘못 설정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에서 인용한 것은 첫 번째 기사와 네 번째 기사이다. 노 文公 원년의 기사는 無經有傳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세 기사는 각각 '閏月不告月 猶朝于廟.', '十有二月乙卯朔 日有食之', '冬十有二月 螽'라는 경문이 있는 有經有傳에 해당한다.

魯 文公 원년의 기사의 경우 '이 해에 윤달을 3월로 정했다.'라는 말로 시

<sup>200)</sup> 정태현·김병애(2018:345), "讀左氏之書者,夫人而能笑禮至之妄也. 戰國秦漢以來爲將者,其視禮至相去幾何? 然史之所載, 閎麗雄偉,可喜可愕,讀史者奪於其辭,而眩於其實,未必不快然慕之矣. 同是事也. 讀左氏之書,則隨左氏而輕之,讀後世之史,則隨史官而重之,吾心之眞輕重安在耶."

작하고 있다. 노 哀公 12년 기사의 경우도 '겨울 12월에 蝗害가 발생했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경문을 그대로 쓴 것이다. 표에 인용하지 않은 魯 文公 육 년 기사의 경우도 '閏月不告朔'로, 魯 襄公 27년 기사의 경우도 '十一月乙亥朔 日有食之'로 경문을 그대로 쓴 것이라는 점에서 노 文公 원년의 기사도 경문이 있었다면 '閏三月'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3.2.1에서 살펴봤듯이 여조겸은 『춘추』의 작성자를 공자로 보고 있고, 『춘추』의 경문에 포폄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세 기사의 경문과 나머지 한 기사의 가상의 경문은 윤달을 잘못 설정한 魯나라의 역법관의 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고, 『左傳』의 전문 또한 『춘추』의 서술에 대한 동의 및 魯나라 역법관에 대한 비판이라는 '左氏'의 직접적인 판단이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조겸은 본문에서 윤달을 군더더기로 보는 일반적인 관점을 제시한 후 윤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문제 삼은 '左氏'의 서술을 긍정하고 있다.

저 이른바 윤달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만든 것인가? 윤달을 봄에 넣으면 봄의 군더더기가 되고 (… 중략 …) 윤달이 네 계절에 붙어있는 것이 군더더기가 붙은 것과 같다. (… 중략 …) 魯나라 역법의 착오에 대해 공자의 나무람과 左氏의 논평이 일찍이 윤달을 설치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은적이 없었다. 윤달이 정해지면 역법이 정해지고 역법이 정해지면 四時가 정해지니, 내가 지난날 군더더기로 봤던 것이 바로 曆數의 근본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201)

즉 여조겸이 '左氏'의 직접 논평을 긍정한 것은 남들은 지나치기 쉬운 윤 달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이치를 알고서 『左傳』에 기재 및 논평한 것에

<sup>201)</sup> 정태현·김병애(2020:52), "彼所謂閏者,果何爲者耶. 閏在春則春之贅也,閏在夏則夏之贅也,閏在秋則秋之贅也,閏在冬則冬之贅也.閏之附於四時,若附贅. (··· 중략···) 此魯曆之差仲尼之譏左氏之論未嘗不本於置閏也.閏定則曆定,曆定則時定,孰知吾向日視爲贅物者,乃曆數之大本乎?"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바는 역법에서 윤달이 지니는 중요성이 아니었다.

曆數의 경우에 기대어 다른 경우를 견주면, 내가 평소에 비웃으며 군더더기로 쓸모없다고 여긴 것이 지극한 이치가 존재하는 바가 아닌 적이 없었다. (… 중략 …) 윤달을 군더더기로 여겨서 없앤다면 어긋나는 바가 寒暑의절기뿐이지만, 세 차례의 揖을 군더더기로 여겨서 한 번 줄이고 또 줄이면반드시 읍하지 않는 데 이르고, (… 중략 …) 그렇다면 성인의 교화도 세상사람들은 번잡하고 자잘하여 군더더기라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모두보이지 않는 속에서 천하를 부양하는 쓸모 있는 것이니 어찌 한 閏法에 그칠 뿐이겠는가.202)

여조겸이 보기에 윤달이 역법에 있어서 지니는 중요한 이치는 성인의 교화 하나하나가 지니는 중요한 이치를 알 수 있는 열쇠였다. 그가 본문에서 '左氏'의 직접 논평을 긍정한 것은 결국 '左氏'의 논평이 성인의 교화에 대한 이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⑧의 경우, 인용한 『左傳』 부분은 천도하면 백성에게는 이로우나 邾文公의 수명에는 불리할 것203)이라는 태사의 말에 대한 邾文公의 대답이다. 邾文公은 임금의 辭命은 백성을 기르는 데 있고 한 개인의 수명의 길고 짧음은 운명이므로 백성에게 이롭다면 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左氏'가 군자의 입을 빌려 邾文公이 천명을 알았다는 평가를 단 것이다. 즉 邾文公의 발언에 대한 지지가 군자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左氏'가 邾文公 및 군자의 발언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라고 볼 수 있다.

<sup>202)</sup> 정대현・김병애(2020:54), "因歷數而例其餘, 則吾平居嗤笑以爲贅而無用者, 未必非至理之所在也. (… 중략 …) 以閏爲贅而損之, 則所差者特寒暑之節耳. 至於以揖爲贅者, 損之又損, 必至於不揖. (… 중략 …) 然則聖人之教, 凡世指爲苛細繁委, 贅而無用者, 皆可以隂養天下之有用也. 豈止一閏法而已哉?

<sup>203)</sup> 정태현 · 김병애(2020:320), "史曰 利於民, 而不利於君."

여조겸 또한 이러한 인식 위에서 본문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좋구나 邾 文公에 대한 左氏의 논평이여. (… 중략 …) 瞽史의 말을 배척하는 자들은 이를 기피하여 감히 언급하지 않는 바인데, 지금 左氏는 이를 기피하지 않고서 책에 밝게 드러내고 또 이어서 천명을 알았음을 허여했으니 유독 어째서인가? 대개 左氏가 주장하는 바가 이치에 있지 일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중략 …) 장수하고 요절하고 죽고 사는 것의 正命과 시끄럽게 떠벌리고 요사스럽거나 길상하다는 것의 邪說은 두 길로 나뉘어 아득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으니, 어찌 邾 文公의 수명이 장수하는지 장수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이 말의 징험 여부를 따지겠는가?204)

그는 '左氏'가 점쟁이의 邪說과 하늘의 正命을 잘 구분하여 邾 文公의 일화를 『左傳』에 기재하고 천명을 알았다는 논평까지 한 것을 바탕으로 '左 氏'의 서술을 긍정하고 있다. 점쟁이의 邪說과 하늘의 正命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正命은 이치에 기반하고 邪說은 일에 기반하므로 각각의 징험이 다른 것에 대한 징험과는 관련이 없는데 둘을 혼동하기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郑文公이 (천도한 후) 이미 죽은 뒤에 이를 가리켜 瞽史의 말이 징험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로 거론하기에 부족하거니와 郑文公이 (천도한 후) 죽지 않았음에 이를 가리켜 瞽史의 말이 징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이치를 버리고 일에 나아간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左氏가 郑文公이죽은 뒤에 '천명을 알았다'라는 말을 펼친 바는 실로 일이 비록 우연히 (점 쾌와) 맞아떨어졌으나 이치는 본래 그렇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 중략…) 瞽史의 말의 근원을 치고 막으니 믿을 만하도다 左氏가 論事를 잘하는 것이여!205)

<sup>204)</sup> 정태현·김병애(2020:324), "善夫, 左氏之論! (… 중략 …) 闢其說者之所諱避而不敢稱也. 今左氏不諱不避, 明著之書, 又從而以知命許之, 獨何歟? 蓋左氏所主者, 在理不在事. (… 중략 …) 若壽夭死生之正命, 囂淫妖祥之邪說, 判爲二途, 邈不相涉, 安得以彼命之壽不壽, 爲此說之驗哉.

여조겸이 보기에 瞽史의 말을 기피하는 자들은 瞽史의 말이 징험되면 사람들이 이치를 믿지 않고 사설을 믿을까 걱정하여 기피하는 것인데, 이는 瞽史의 말의 징험과 邾文公의 이치의 징험이 별개의 것임을 알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는 '左氏'의 서술이 邾文公의 천도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백성에 대한 올바른 고려 위에서 이뤄진 것이지 백성과 본인의 수명 사이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위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비판한 일곱 경우에 대해 여조겸이 문제로 삼은 『左傳』속 언행의 표면적 · 실질적 주체 및 근거로 사용한 이치는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번호	편명	표면적 주체	실질적 주체
	3	周鄭交惡	左氏의 잘못	된 비판(내용)
	그러므로	周나라와 鄭나라가 서로 인질을 교환하		
	여 王子 🎚	呱가 鄭나라에 인질이 되고, 鄭子 忽이 周	周,鄭	周, 鄭
	나라에 인	<u> </u>		
	君子가 "(	… 중략 …) 하물며 君子가 두 나라를 신		
	의로 맺어서 예로써 행한다면, 또 어찌 인질을 쓰		군자	좌씨
1	겠으며 누가 이간질할 수 있겠는가?207)			
	周나라는 天子고, 鄭나라는 諸侯다. 左氏는 周 平			
	王과 鄭 莊公의 일을 서술하면서, 처음에 周나라와			
	鄭나라가 서로 인질을 교환했다고 여겼고, 끝에서		મો <b>⊽</b> ໄઠો ⊐⊐	가 되는 이치
	는 周나라와 鄭나라가 서로 미워했다고 여겼으니,		미완의 근거.	가 되는 이시
	周나라와	鄭나라를 함께 호칭하여 尊卑의 구별이		
	없었다.208	3)		

<sup>205)</sup> 정태현・김병애(2020:325), "當文公之既死,指以爲瞽史之驗者,固不足論,當文公之未死,指以爲瞽史之不驗者,亦不免捨理就事也. 左氏所以發知命之言於文公既死之後者,良以事雖偶合,理本不然. (… 중략 …) 伐其本塞其源,信矣. 左氏之善爲論也!"

<sup>206)</sup> 정태현・김병애(2012:53), "故周鄭交質, 王子狐爲質於鄭, 鄭子忽爲質於周."

<sup>207)</sup> 정태현·김병애(2012:53), "君子曰 (···· 중략 ···) 況君子結二國之信, 行之以禮, 又焉 用質, 誰能間之?"

<sup>208)</sup> 정태현 · 김병애(2012:55), "周, 天子也, 鄭, 諸侯也. 左氏敍平王莊公之事, 始以爲周

	번호	편명	표면적 주체	실질적 주체
	63	楚滅弦	左氏의 잘못	된 비판(대상)
	楚나라의	鬪穀於菟가 弦나라를 멸망시키자 弦子가		
	黃나라로	달아났다. 이때 江나라·黄나라·道나		
	라·栢나i	라가 바야흐로 齊나라와 화목하였는데, 모	弦子	弦子
	두 弦나라	l의 姻戚이었다. 弦子가 이것을 믿고서 楚	17 1	12 1
	나라를 수	넘기지 않았고, 또 防備도 설치하지 않았		
(3)	다.209)			
(3)	· ·	망했다.210)	左氏	左氏
	天下의 祉	뭐는 남을 믿고 스스로 경계하지 않는 자		
	가 최고로 받고, 天下의 辱은 남이 믿는 곳이 되		비판의 근거가 되는 이치	
	다가 지켜주지 못한 자가 최고로 받는다. 남을 믿			
	다가 禍를 입은 자는 실로 책망할 만하지만, 믿었			
	던 자가 믿을 만하지 못하여 남을 禍로 밀어 넣었			
	다면, 어찌 더욱 책망할 만하지 않겠는가?211)			
	77	隨叛楚	左氏의 잘못	된 비판(내용)
	隨나라가	漢水 동쪽의 제후들과 함께 楚나라를 배	隨나라	隨나라
	반했다.212		1/2 1 1	120 1 1
	君子가"	隨나라가 토벌당한 것은 힘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	내문이다. 힘을 헤아리고 움직였다면 지나	君子 左氏	
4	침이 적었을 것이다. 승패는 자기를 말미암지 남을		君子      左氏	
	말미암겠	는가?213)		
	君子는 レ	l의 약함을 걱정하고 적의 강함을 걱정하		
	지 않고,	나의 어리석음을 걱정하고 적의 지혜로움	비판의 근거	가 되는 이치
	을 걱정하	·지 않는다.214)		

鄭交質,終以爲周鄭交惡,並稱周鄭,無尊卑之辨."

209) 정태현・김병애(2013:371), "楚鬪穀於菟滅弦, 弦子奔黃. 於是江黃道栢方睦於齊, 皆弦姻也. 弦子恃之而不事楚, 又不設備."

- 210) 정태현 · 김병애(2013:371), "故亡."
- 211) 정태현・김병애(2013:373), "天下之禍, 恃人而不自戒者居其最. 天下之辱, 爲人所恃而不能保者居其最. 恃人而受禍者, 固可責也, 所恃者不足恃, 而納人於禍, 庸非可責之尤者乎."
- 212) 정태현 · 김병애(2018:146), "隨以漢東諸侯叛楚"
- 213) 정태현·김병애(2018:146), "君子曰 隨之見伐, 不量力也. 量力而動, 其過鮮矣. 善敗由己, 而由人乎哉?"
- 214) 정태현・김병애(2018:147), "君子, 憂我之弱, 而不憂敵之強, 憂我之愚, 而不憂敵之

	번호	편명	표면적 주체	실질적 주체
	135	狼瞫死秦師	左氏의 잘	못된 긍정
	彭衙의 る	선쟁에서 진을 치고 나서 자신의 부하를		
	거느리고 秦나라 진영으로 달려가서 싸우다가 죽		狼瞫	左氏
	으니, 晉대	나라 군대가 따라가서 秦나라 군대를 대패	小人口中	<b>左</b> 氏
	시켰다.21:	5)		
	君子가 "	狼瞫은 이때 군자다웠다. (… 중략 …) 분		
	노했으나	난을 일으키지 않고 군대를 따라갔으니,	君子	左氏
7	군자라고	이를 만하다"라고 여겼다.216)		
	사람의 1	나은 마땅히 멈추어야 할 곳을 알아야 하		
	니, 職分여	에 마땅히 싸워야 하면 싸우고, 마땅히 수		
	비해야 5	하면 수비하고, 職分에 마땅히 먼저 해야	มากาก <i>ก</i> าวไ	키 디느 시키
	하면 먼저하고, 뒤에 해야 하면 뒤에 한다. 마음이			가 되는 의사
	일에서 멈추고, 일이 마음에서 멈춰야 하니, 職位			
	를 벗어니	ł선 안 된다. <sup>217)</sup>		
	143	宋華耦辭宴	左氏의 잘	못된 긍정
	(華耦가)	사양하며 "宋나라 군주의 先臣이었던 督		
	이 宋나라	와 殤公에게 죄를 얻어서 이름이 제후의		
	史策에 있	J는데, 제가 그 제사를 받드니, 어찌 감히	華耦	左氏
9	군주(魯	文公)를 욕되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		
	다.218)			
	魯人은 (	<b>華耦를) 敏捷하다고 여겼다.219</b> )	魯나라	左氏
	내면에 토	L존한 것이 바뀌면, 앞에서 관찰하는 것도	비파의 그거	가 되는 이치
	변화한다.	220)	100 07	1-16 1/1

智."

<sup>215)</sup> 정태현・김병애(2020:288), "及彭衙, 既陳, 以其屬馳秦師, 死焉, 晉師從之, 大敗秦

<sup>216)</sup> 정태현 · 김병애(2020:288-289), "君子謂狼瞫於是乎君子. (… 중략 …) 怒不作亂而以 從師, 可謂君子矣."

<sup>217)</sup> 정태현・김병애(2020:295), "人心當知所止, 職當戰則戰, 當守則守, 職當先則先, 當 後則後. 心止於事, 事止於心, 非可出其位也."

<sup>218)</sup> 정태현 · 김병애(2020:343-344), "辭曰 君之先臣督, 得罪於宋殤公, 名在諸侯之策, 臣 承其祀, 其敢辱君?"

<sup>219)</sup> 정태현 · 김병애(2020:344), "魯人以爲敏."

<sup>220)</sup> 정태현 · 김병애(2020:349), "所存易於內, 而所觀變於前也."

<sup>221)</sup> 정태현 · 김병애(2021:61), "晉荀林父以諸侯之師伐宋, 宋及晉平."

	번호	편명	표면적 주체	실질적 주체	
	152	晉不競於楚	左氏의 잘못	된 비판(대상)	
		하林父가 제후의 군대를 거느리고 宋나라 하니, 宋나라가 晉나라와 화친을 맺었	荀林父	荀林父	
	다.221)				
	晉나라가	또 扈에서 會盟하여 장차 魯나라를 위하			
	여 齊나리	나를 토벌하려고 했는데, 다 뇌물을 받고서	晉 靈公	荀林父	
		않고) 돌아왔다.222)			
	鄭나라 穆	國公이 "晉나라는 함께하기에 부족하다."라	鄭 穆公	左氏	
100	· .	에 마침내 楚나라와 맹약했다.223)	XF 194		
10		사치하여 趙宣子가 집정이 되어서 누차 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楚나라와 경쟁	左氏	左氏	
		ŀ 것이다. <sup>224)</sup> ŀ행히도 暴君의 조정에 서게 되면, 이마를			
		머리 아파하면서 군주가 악명이 돌아가			
		l 되는 것을 좌시하고 막지 않는 자는 있	비판의 근거가 되는 이치		
		환란을 믿고서 방자하게 행동하여 군주에			
	게 악명을	을 떠밀어서 차마 군주가 악명이 돌아가는			
		기계 하는 자는 진짜 무슨 마음인가?.225)			
	157   謝穿ol =	晉趙穿弑靈公 [公을 桃園에서 시해하니, 趙盾은 산을 나	노氏의 살	못된 긍정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226)	趙盾	左氏	
		趙盾이 군주를 시해했다."라고 기록하고,	1 .1.	t .t.	
	조정에 토	1. 9. 1. 1. 1. 1. 1. 1. 1. 1. 1. 1. 1. 1. 1.	太史	太史	
	孔子가"	董狐는 옛날의 良史라서 書法을 지켜 숨			
	기지 않았	났고, 趙宣子는 옛날의 良大夫라서 書法을 ☐	孔子	左氏	
11)	위해 악명	령을 받아들였으니, 애석하도다. 국경을 넘	1 <u>r1</u> _	左氏	
	/// / -	l를 면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sup>228)</sup>			
	마음은 그	면중됨과 무리지음이 있으므로 聖人에게			
	是非 판단	난을 위임한다. (… 중략 …) 顏淵과 閔子			
	騫이라고	하여 毫髮의 잘못도 덜어선 안 되고, 盜	비판의 근거?	가 되는 이치	
	跖과 莊路	喬라고 하여 錙銖의 악행을 더해선 안 된			
	다.229)				

「표 3.19」 '左氏'의 직접 論事에 대해 비판한 경우

<sup>222)</sup> 정태현 · 김병애(2021:61), "晉又會諸侯於扈, 將爲魯討齊, 皆取賂而還."

<sup>223)</sup> 정태현 · 김병애(2021:61), "鄭穆公曰 晉不足與也, 遂受盟於楚."

①의 경우, 인용한 『左傳』 부분은 주나라와 정나라의 갈등으로 인해 서로 인질을 교환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左氏'는 군자의 입을 통해서 '두 나라 의 신의를 맺고서 예로써 거행한다면 비록 인질을 교환함이 없더라도 누가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주나라와 정나 라의 행동에 대해서 '左氏'가 비판한 것이기에 인질 교환이라는 행동의 표 면적 주체와 실질적 주체 모두 주나라와 정나라로, 비판의 실질적 주체는 '左氏'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조겸이 보기에 이는 잘못된 비판이었다.

주나라는 천자국이고 정나라는 제후국인데 左氏는 평왕과 莊公의 일을 서술하면서 처음엔 '주나라와 정나라가 인질을 교환했다.'라고 쓰고 끝엔 '주나라와 정나라가 서로 미워했다.'라고 써서 주나라와 정나라를 나란히 칭하여 (분수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지 않고, (… 중략 …) 左氏의 죄가 또한 크다. (그러나) 나는 左氏도 진실로 죄가 있지만, 주나라도 죄가 없을 수 없다고 여긴다.230)

그가 보기에 천자와 제후는 엄연한 분수의 구분이 있는데 '周鄭交質'이라고 서술했다는 점에서 '左氏'의 비판은 문제가 있었다. 물론 주나라가 스스로 정나라와 인질을 교환하여 제후국으로 정나라에게 자처했다는 점에서

<sup>224)</sup> 정태현 · 김병애(2021:61), "晉侯侈, 趙宣子爲政, 驟諫而不入, 故不競於楚."

<sup>225)</sup> 정태현・김병애(2021:61), "君子不幸而立暴君之朝, 蹙頞疾首, 坐視其君爲惡之所歸而不能遏, 則有之矣., 怙亂肆行, 推惡於君, 忍以其君爲歸惡之地者, 是誠何心."

<sup>226)</sup> 정태현 · 김병애(2021:97), "趙穿攻靈公於桃園, 宣子未出山而復."

<sup>227)</sup> 정태현 · 김병애(2021:97), "太史書曰 趙盾弑其君, 以示於朝."

<sup>228)</sup> 정태현・김병애(2021:97), "孔子曰 董狐, 古之良史也, 書法不隠, 趙宣子, 古之良大夫也, 爲法受惡, 惜也. 越竟乃免."

<sup>229)</sup> 정태현・김병애(2021:98), "心有偏黨, 故委是非於聖人. (… 중략 …) 不爲顔閔而損 毫髮之過, 不爲跖蹻而増錙銖之惡."

<sup>230)</sup> 정태현·김병애(2012:55), "周, 天子也, 鄭, 諸侯也. 左氏敍平王莊公之事, 始以爲周鄭交質, 終以爲周鄭交惡, 並稱周鄭, 無尊卑之辨. 不責鄭之叛周, 而責周之欺鄭, 左氏之罪亦大矣. 吾以爲左氏信有罪, 周亦不能無罪焉."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다. 그러나 '左氏'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비판한 것이 아니라 신의를 맺어 예로써 행동하지 않고 인질 교환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점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내용으로 비판하고 있던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여조겸은 '左氏'에 대해 敍事者가 아닌 論事者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에 이치를 드러내지 못한 책임을 더욱 나무라는 것으로보인다.

왕을 무시한 죄는 左氏가 실로 사양할 수 없거니와 주나라도 그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옳다. 비록 그렇지만 左氏가 군자의 말을 기재한 바가 실로 左氏의 붓에서 나왔을지라도 또한 당시의 군자의 의론에 근거하여 추론한 것이다. (… 중략 …) 제후가 왕이 있는 줄 모르는 것은 걱정하기에 부족하지만, 명색이 군자라는 자들에 이르러서도 왕이 있는 줄 몰랐으니, 온 천하에 왕실이 있는 줄 아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이것이 공자가 걱정한 까닭이고, 이것이 『春秋』가 지어진 까닭이고, 이것이 『春秋』가 周 平王에서 시작한 까닭이다.231)

여조겸은 군자와 '左氏'를 당시의 지식인 집단으로 보고 그들에게 상위의 지적 소양을 요구하고 있다. 상위의 지적 소양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이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으로, '左氏'가 해당 사건에서 근본적인 원인인 하늘이 정해준 분수, 즉 천자와 제후의 구분이라는 이치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비판한 것이므로 이에 여조겸이 비판한 것이다.

④의 경우, 인용한 『左傳』 부분은 수나라가 초나라를 배반하자 초나라가 수나라를 토벌하고 화친을 맺고서 돌아갔다<sup>232)</sup>는 내용으로, '左氏'는 군자의

<sup>231)</sup> 정태현·김병애(2012:60-62), "無王之罪, 左氏固不得辭, 周亦分受其責, 可也. 雖然, 左氏所載君子之言, 固出於左氏之筆. 然亦推本當時君子之論也. (… 중략 …) 諸侯不知有王, 未足憂也. 至于名爲君子者, 亦不知有王, 則普天之下, 知有王室者, 其誰乎? 此孔子所以憂也, 此春秋所以作也, 此春秋所以始於平王也."

입을 통해서 '수나라가 토벌당한 것은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수나라의 행동에 대해서 '左氏'가 비판한 것이기에 초나라에 대한 배반이라는 행동의 표면적 주체와 실질적 주체 모두 수나라로, 비판의 실질적 주체는 '左氏'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여조겸이 보기에 잘못된 비판이였다.

左氏의 논리는 "초나라가 비록 강대하고 포악하지만 끝내 감히 이유 없이수나라에 병력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니, (… 중략 …) 수나라를 토벌한 것은 초나라고 초나라를 불러들인 것은 수나라이니 수나라의 패배는 자기로 말미암은 패배이고 남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 중략 …) 漢水 북쪽의 姬姓 제후들을 초나라가 실제로 다 격멸하였으나 저 제후국들이 어찌 모두 먼저 초나라를 침범한 나라였겠는가? (… 중략 …) 그렇다면 수나라가 비록 스스로 지켰다고 하더라도 초나라의 병탄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니, 존망의 권한은 실로 초나라에 있고 수나라에 있지 않았다. 左氏는 성공과 실패는 자기에게 달렸다는 말을 외웠을 뿐이니, 어찌 성패가 자기에게 달린 이치를 알았겠는가?233)

그가 보기에 군자는 자신의 약함을 걱정하고 적의 강함을 걱정하지 않는 법인데 '不量力'이라는 '左氏'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았다. 물론 수나라가 초나라를 배반하여 패배를 앞당긴 것은 맞으나 '左氏'의 말대로 힘을 헤아린 결과가 초나라를 배반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초나라에게 패배했을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비판이 이루어진 것은 '左氏'가 '量力'의 이치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했다.

<sup>232)</sup> 정태현 · 김병애(2018:146), "冬, 楚鬪穀於菟帥師伐隨, 取成而還."

<sup>233)</sup> 정태현·김병애(2018:151), "左氏之論,以謂楚雖強暴,終不敢無故加兵於隨.(… 중 략 …) 伐隨者楚也,召楚者隨也.是隨之敗由己之敗,而不由人也.漢陽諸姬,楚實盡 之,彼豈皆先犯楚者哉?(… 중 략 …) 然則隨雖自守,不能禁楚之吞噬,存亡之權,固 由楚而不由隨也.左氏能誦善敗由己之言而止耳,孰知夫善敗由己之理乎?"

천하의 일은 자기에게 달리지 않은 것이 없다. (… 중략 …) 앞에서 막는 자가 없으니 성인이 되고자 하면 성인이 되고, 뒤에서 만류하는 자가 없으니 광인이 되고자 하면 광인이 된다. 隨侯가 과연 이 이치를 알았다면 천지를 정위시키고 만물을 양육하는 것이 자기에게 달려 있지 않음이 없었을 것이니, 하물며 구구한 초나라를 어찌 두려워했겠는가? 左氏는 자기의 허물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초나라를 두려워하는 것을 힘을 헤어리는 것으로 여겼으니, (이것이) 바로 남의 힘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됨을 알지 못한 것이다. (… 중략 …) 정사를 닦았으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힘을 헤아려 감히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234)

여조겸은 힘을 헤아린다는 것은 자신의 미비한 부분을 살펴서 극진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量力'의 결과가 자신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어져 야 한다는 것이다. '量力'의 이치는 이상적인 상태와 자신의 비교에 있는데, '左氏'는 외적인 힘의 측면에서 남과의 비교에 있다고 여겨서 잘못된 내용 으로 隨侯를 비판한 것이므로 이를 여조겸이 비판한 것이다.

③의 경우, 인용한 『左傳』 부분은 현나라가 인척을 맺고 있는 주변의 나라가 제나라와 화목하여 초나라를 배반하고 제나라를 섬기자 초나라가 현나라를 멸망시킨 내용으로, '左氏'는 현나라가 망한 이유를 제나라를 믿고서 초나라를 섬기지 않으면서 방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서 찾고 있다. 그가 보기에 현나라는 망할 만했던 것이다. 따라서 초나라에 대한 배반이라는 행동의 표면적 주체와 실질적 주체 모두 현나라로, 비판의 실질적 주체는 '左氏'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조겸이 보기에 이는 잘못된 비판이었다.

남을 믿다가 화를 당한 자는 실로 책망할 만하거니와 믿었던 자가 믿기에

<sup>234)</sup> 정태현·김병애(2018:154-155), "天下之事,未有不由己者.(… 중략 …) 前無禦者, 欲聖則聖,後無挽者,欲狂則狂,隨侯果知此理,則位天地. 育萬物,無不由己,況區區之楚,何足畏耶?而左氏不知己之尤,反以畏楚爲量力,抑不知適所以墮人之力也.(… 중략 …) 修而未備也,量力而未敢輕動焉."

부족하여 남을 화에다 밀어 넣었다면 어찌 더욱 책망할 만하지 않겠는가? 제 桓公이 오랑캐를 물리쳐서 중국을 높이니, 현나라와 황나라가 궁벽한 오랑캐 지역에 있다가 중국의 의리를 사모하여 스스로 제나라에 붙어서 제나라를 믿고 초나라를 홀시하다가 연이어 패망하였다. (이런 상황임에도) 左氏는 남을 믿고서 대비하는 것을 잊은 것으로 그들을 책망하니, 두 나라가 대비하기를 잊은 것이 중국을 깊이 믿어서 의지할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고이로 인해 마침내 멸망에 이른 것임을 모른 것이다.235)

그가 보기에 현나라가 남을 믿고 대비를 하지 않아서 화를 당한 것은 잘 못이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믿었던 대상인 제나라가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 것에 있으므로, 사건의 책임을 현나라에게만 부과한 '左氏'의 비판은 대상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해당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은 霸者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제나라에 있으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초나라의 지배에 놓여있던 다른 나라의 귀화를 막은 것에 있다.

齊 桓公이 찬란히 쇠락한 나라를 돕고 폐지된 선왕의 제도를 진작시키자 현나라와 황나라가 또한 분연히 오랑캐에서 스스로 빠져 나와서 제나라를 따랐다. (오랑캐 지역에 있던) 사방의 제후국들이 모두 현나라와 황나라의 화복을 점쳐서 진퇴로 삼고자 했으니, 이 기회는 중국과 오랑캐 사이의 승부의 결정처였다. (… 중략 …) 지금 제 桓公이 두 나라의 멸망을 좌시하고 구원할 수 없었으니 (… 중략 …) 이는 천하의 사람을 모아서 오랑캐로 귀화하게 만든 것이다. (… 중략 …) 중국은 군자와 같고 오랑캐는 소인과 같으니, 소인이 군자가 되려다가 입는 피해가 오랑캐가 중국에 귀화하려다가 입는 피해와 같다.236)

<sup>235)</sup> 정태현·김병애(2013:373), "恃人而受禍者, 固可責也. 所恃者不足恃, 而納人於禍, 庸非可責之尤者乎? 齊威公攘夷狄以尊中國, 弦也黃也僻陋在,夷 慕中國之義, 自附於齊, 恃齊忽楚, 相繼覆亡. 左氏以恃人而忘備責之, 抑不知二國之所以忘備者, 深信中國以爲可恃也. 終至於翦滅者."

<sup>236)</sup> 정태현・김병애(2013:376-380), "齊威獨斐然欲扶衰振廢, 弦黃又奮然自拔於蠻夷而從之. 四方諸侯, 皆將占弦黃之禍福, 以爲進退, 是機也中國蠻夷勝負之決也. … 중 락… 今齊威坐視二國之亡, 而不能救. … 중락… 中國猶君子, 蠻夷猶小人, 小人爲君

여조겸은 믿음을 준 자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믿음을 준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믿지 못할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이치에 근거하여 해당 사건의 비판의 대상이 현나라와 황나라가 아니라 제나라가 되어야 함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오랑 캐와 중국의 문제를 넘어 소인과 군자의 문제로 확장시켰다. 즉 여기에서도 더욱 근본적인 이치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을 '左氏'가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고 여조겸이 이를 바로 잡은 것이다.

⑩의 경우, 인용한 『左傳』 부분은 노 文公 16년 겨울에 진나라의 荀林父가 晉侯의 명으로 송나라를 치러갔다가 돌아온 내용과 노 文公 15년, 17년에 진나라 군대가 제나라를 치러갔다가 각각 제나라와 송나라의 뇌물을 받고 회군한 내용237)으로, '左氏'는 정 목공의 언행을 통해 동맹의 대상으로 진나라가 탈락하고 초나라가 선택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그 원인이 사치하고 간언은 무시한 진후에게 있다고 직접 서술하고 있다.

진나라의 군대가 송나라를 치러간 사건에서는 荀林父가 표면적인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만, 제나라를 치러간 사건에서는 진나라로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제나라를 치러간 사건은 魯 文公 15년과 17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해당 전문을 보면 각각 '齊人賂晉侯 故不克而還', '晉荀林父 衛孔達 陳公孫寧 鄭石楚 伐宋'으로 되어 있어 魯 文公 15년의 서술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17년의 서술에서는 荀林父가 군대를 지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7년의 사건에만 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荀林父가 뇌물을 받아왔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左氏'의 비판은 荀林父가 아닌 晉 영공에게 향하고 있다. 그를 뇌물 수수의 책임자로 지목하여 진나라가 霸者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子之害, 猶蠻夷爲中國之害也."

<sup>237) 『</sup>東萊博議』에 인용된 『左傳』 내용은 표에 인용한 부분이 전부이지만, 여조겸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이해 및 본고에서 다루는 표면적 · 실질적 주체의 구분을 위해 譯註 春秋左氏傳 三(정태현, 전통문화연구회:16-17)의 내용을 참고하여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조겸이 보기에 이는 잘못된 비판이었다.

진 영공이 군주답지 못하니 실로 뭇 악명이 돌아가는 바이다. 사치하여 나라를 쇠락하게 만들고 탐욕을 부려 이웃나라를 잃은 것은 모두 영공이 실제로 저지른 악행이고 소위 남이 돌린 악명이 아니다. 내가 유독 荀林父에 대해 괴이하게 여기는 점은 당시에 賢大夫로 불렸으되, 송나라를 토벌하는 전쟁에서 또한 뇌물을 받고 돌아와서 점차 정나라의 원조를 잃고 초나라의 강대함을 이루어줬다는 것이다. (… 중략 …) 그는 마음속으로 반드시 '영공의 탐욕과 사치는 천하에 소문이 났으니, 내가 비록 뇌물을 받아 죄를 지어도 제후들은 반드시 영공에게 죄를 돌리고 나에게 죄를 돌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238)

그가 보기에 진 영공이 평소에 사치와 탐욕을 부려서 악명을 얻은 것은 본인의 잘못이지만, 그러한 악명에 편승하여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도리어 뇌물 수수라는 악행을 저지르고 진 영공의 탓으로 돌렸으므로, '左氏'의 진 영공에 대한 비판은 대상이 잘못된 것이었다. 해당 사건의 실제책임은 전권을 쥐고서 송나라의 무도함을 토벌하러 갔음에도 대의를 밝히기는커녕 뇌물을 받고 돌아온 荀林父에게 있으며, 이러한 책임 소재 규명이중요한 이유는 荀林父가 진 영공 전후의 군주인 진 襄公과 成公 때는 뇌물수수를 하지 않은 것에 있다.

전에도 하지 않고 뒤에도 하지 않았는데 유독 영공의 조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은 아마도 襄公과 성공이 덕을 잃은 것이 제후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이때에 뇌물을 받으면 악명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고, 영공에 이르

<sup>238)</sup> 정태현·김병애(2021:62), "晉靈公之不君, 固衆惡之所歸也. 侈以敗國, 貪以失隣, 皆靈公之實惡, 而非所謂歸惡也. 吾獨怪荀林父當時號賢大夫, 伐宋之役, 亦取賂而還, 浸失鄭之助, 而成楚之强. (… 중략 …) 其心必謂靈公之貪侈聞於天下, 吾雖受賂而罪,諸侯必以罪靈公而不罪我."

러서는 평소에 탐욕과 사치라는 악명을 지고 있었으니, 荀林父가 악명을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하다. 左氏는 진나라가 제후의 지지를 잃어 초나라와 경쟁하지 못한 이유를 서술하면서도 영공의 사치에 죄를 돌리는 것에지나지 않았고 애초에 신하에 대해 한 마디도 죄를 묻지 않았다. (… 중략…) 자기가 실제로 악행을 저지르고 영공에게 악명을 돌리는 자도 한 명의 영공이다. 더군다나 荀林父는 名敎에 감복되어 군신의 의리를 익히 알면서차마 이런 짓을 하였으니 그 악행이 영공보다 더욱 심하다.239)

여조겸은 남의 화란을 자기의 이익으로 여겨서 방자하게 행동해서 군주에게 자신의 악행을 떠넘겨 군주의 악명으로 돌리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명제에 근거하여 해당 사건의 비판의 대상이 진 영공이 아니라 荀林父가 되어야 함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名敎의 가르침을 아는 군자로서 악행을 저질렀으므로 荀林父의 죄질이 더 심하다고 직접 비판하여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左氏'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이다.

⑦의 경우, 인용한 『左傳』 부분은 殽의 전쟁에서 용맹함으로 先軫의 車右가 되었다가 箕의 전쟁에서 파면당하여 狼瞫이 분노하자 그의 친우가 함께 난을 일으키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용맹이라며 거절한240) 이후의 상황이다. 시간이 흘러 秦나라가 晉나라를 공격하여 彭衙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狼瞫이 자신의 부대로 돌격하여 전사하니, 晉나라 군대가 따라서 공격하여 秦나라 군대를 대패시킬 수 있었다. 狼瞫이 분노했지만 난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晉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므로 '左氏'가 군자의 입을 통해 긍정한 것이다. 따라서 분노를 참고 용맹하게 전사한 행위의 표면적 주체는 狼瞫으로, 이 행위 및 긍정의 실질적인 주체는 '左

<sup>239)</sup> 정태현·김병애(2021:63-64), "不前不後,而獨取賂於靈公之朝者,蓋襄成失徳,不聞於諸侯.於是時受賂,則惡名必歸於已.至於靈公,則素負貪侈之名,宜林父得以嫁其惡也.左氏載晉失諸侯,不競於楚之由,亦不過歸罪靈公之侈,初無一言罪其臣. (… 중략 …) 己實爲惡,而歸靈公以惡名者,是亦一靈公也. 況林父被服名教,習知君臣之義,而忍爲此,其惡殆甚於靈公矣."

<sup>240)</sup> 정태현 · 김병애(2012:288-290)

氏'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조겸이 보기에 이는 잘못된 긍정이었다.

狼瞫의 전사는 左氏가 긍정한 바이다. (… 중략 …) 狼瞫이 선진의 앞에서 죽지 않고 秦나라 군대 앞에서 죽어서 사적인 원수에게 분노를 억제하고 공적인 전쟁에서 본노를 표출했으니 이는 실로 세상이 함께 긍정할 바이다. 그러나 정의의 측면에서 狼瞫은 책망해야 하는 바에 있지 궁정해야 하는 바에 있지 않다. 어째서인가! 狼瞫은 선진이 자신의 용맹을알아주지 못함에 분노하였으니, 그가 秦나라 군대에서 전사한 것은 선진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241)

그가 보기에 狼瞫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晉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 끈 공로로 이어졌으니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받을 만하지만, 그 목적은 여전히 선진에 대한 사적인 복수에 있었으므로 '左氏'가 이를 드러내지 않고 긍정만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이다. 물론 결과마저도 사적인 복수 이외의 공공의 공효가 없는 행위에 비교하면 잘한 행위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여조겸은 오히려 이런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狼瞫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狼瞫은 열사이다. 윗사람에게 대드는 기운을 돌려서 나라를 지키는 용맹으로 삼은 것이 비록 절도에는 맞지 않으나 요컨대 보통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바는 아니다. 보통 사람을 대우할 때는 보통의 방법으로 하거니와 비상한 사람을 대우할 때는 보통의 방법으로는 마땅치 않다. 용서는 보통의 방법이니 보통 사람을 대우하는 방법이다. (… 중략 …) 만약 보통 사람을 대우하는 방법인 용서로 비상한 사람을 대우한다면 용서가 그저 그를 모욕한 것이 된다. 狼瞫의 의열함으로 어찌 번거롭게 연민

<sup>241)</sup> 정태현·김병애(2020:291), "狼瞫之死, 左氏之所譽也. (··· 중략 ···) 瞫不死於先軫, 而死於秦師. 抑其怒於私讎, 發其怒於公戰, 是固世所共譽也. 苟以正義責之, 則瞫在 所毁不在所譽, 何也? 瞫怒先軫不知其勇, 其死於秦者, 所以彰先軫之不知人也."

을 구걸하여 남들의 용서를 바랐겠는가?242)

여조겸은 '狼瞫 - 烈士 - 비상한 사람 - 義烈'로 배열하여 그의 평범하지 않음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범한 사람에게 평범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그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狼瞫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면 위의 도식에 지식인으로서의 君子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일반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마땅히 멈춰야 할 바를 알아야 하니 직분상 마땅히 전쟁해야 하면 전쟁하고 마땅히 지켜야 하면 지키기며, (… 중략 …) 마음은 일에서 멈춰야 하고 일은 마음에서 멈춰야 하니,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 중략 …) 狼瞫이 예전에 車右였을 땐 적과 싸우다가죽는 것이 옳거니와 이미 車右에서 파면당했으니 실로 그치는 것이 옳았다. 지금 도리어 직위가 없는데도 직위가 있는 자의 걱정을 침범하여 경솔하게 진군하여 적진에서 죽었으니 이는 마음이 일에서 그치지 못하여생각이 자신의 직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 중략 …) 군자는 마땅히스스로 자신의 사람됨이 어떠한지를 관찰해야 할 뿐이니, 남의 비방이나 긍정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243)

특정 행위의 정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여조겸이 앞에서 狼瞫의 전사라는 행위의 긍정적인 결과가 사적인 복수라는 목적에

<sup>242)</sup> 정태현·김병애(2020:294), "然瞫烈士也. 回犯上之氣, 而爲狥國之勇, 雖未中節, 要非常人之所能望也. 待常人當以常法, 待非常人不當以常法. 恕, 常法也. 所以待常人也. (… 중략 …) 荀以待常人之恕, 而待非常之人, 則恕之適所以辱之也. 以瞫之義烈 豈僕僕乞憐而求人之恕者耶?"

<sup>243)</sup> 정태현·김병애(2020:295), "人心當知所止, 職當戰則戰,當守則守職. (··· 중략 ···) 心止於事,事止於心,非可出其位也. (··· 중략 ···) 狼瞫前日爲右,死敵可也. 既不爲右,固可以止. 今乃無職而侵在職者之憂,輕進而死於敵,則是心不止於事,而思出其位矣. (··· 중략 ···) 君子當自觀之吾之所以爲吾者如何耳,人之毀譽何有焉."

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힌 후 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의 근거를 그의 비상함에서 찾은 이유가 바로 행위의 주체가 지니는 성질인 '직위'로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는 직위에 맞는 분수를 기준으로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 君子에게 요구된다고 여겼다. 이러한 이치를 알았다면 狼瞫의 행동에 적절한 비판을 하여 해당 사건에서 이치를 드러내는 적절한 論事를 펼쳤을 것인데, '左氏'는 도리어 긍정했으므로 여조겸이 '左氏'의 직접 論事를 비판한 것이다.

⑨의 경우, 인용한 『左傳』 부분은 송나라 華耦가 魯나라에 맹약을 맺으러 왔는데 노 文公이 그를 위해 연회를 열어주려고 하자 이를 사양한 華耦의 언사와 그 언사에 대한 魯나라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華耦 는 노 桓公 2년에 자신의 선조인 督이 송 상공을 시해하였으므로 죄인인 자신이 연회에 참석하여 魯나라 군주를 욕보일 수 없다고 사양했고, 이를 예의가 바르다고 여겨서 魯나라 사람이 민첩하다고 긍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魯人'이라는 표현의 경우 구체적인 사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일을 보고 들은 魯나라 사람의 뜻으로 군자와 의미는 다르지만 '左氏'의 말을 전하는 같은 층위의 명칭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左氏'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으로 보고 직접 論事로 분류하였다. 여조겸 또한 본문에서 '左氏'의 시각에서 본 魯나라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44)

그가 보기에 魯나라 사람의 입을 통한 '左氏'의 긍정은 잘못된 것이었다.

左氏는 세상에서 魯나라의 사관이라고 전하니 魯나라는 부모의 나라이다. 그가 華耦가 빙문하러 왔을 때 이유 없이 자기 조상의 악행을 드러내어 연회를 사양한 사건을 서술하고, 이어서 "魯나라 사람들은 그를 민첩하다고 여겼다."는 말을 붙였으니, 左氏의 생각은 어찌 華耦의 辭令이 魯나라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이니 군자가 귀중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가 아니었겠는가마는, 華耦의 말은 조금이라도 예의를 아는 자라면 모두 그를

<sup>244)</sup> 정태현·김병애(2020:349), "左氏一言而待魯爲小人. (··· 중략 ···) 左氏以左氏之心 觀之, 故見其可鄙."

천하게 여길 줄 알 것이다. (… 중략 …) 魯나라 사람들이 민첩하게 여겼다고 개괄하여 말한 것은 魯나라가 텅 비어 군자가 없음을 이른 것이다.245)

'左氏'는 華耦의 언사를 높게 사서 이를 魯나라 사람들도 긍정했음을 언급하여 魯나라 사람들의 안목도 자랑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서술한 것이었겠으나여조겸이 보기에 華耦의 언사는 예의의 측면에서 잘못을 범한 것이므로 비판해야 마땅했다. '左氏'는 비판받아야 할 언사에 魯나라 사람이 긍정한 것으로서술한 셈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魯나라에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군자가 없다고말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魯人'이라는 기표는 '左氏'의 시각 속에서만 '魯人'이라는 기의로 존재한다.

예전에 공자께서 魯나라를 긍정하여 (… 중략 …) 한마디 말씀으로 魯나라를 군자로 대우하셨고, 左氏는 한마디 말로 魯나라 사람들을 소인으로 대우한 셈이니,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음이 이와 같도다. 魯나라는 하나의 魯나라일 뿐인데, 공자께선 공자의 마음으로 관찰하셔서 긍정할 만한 점을 보셨고, 左氏는 左氏의 마음으로 관찰하여 비루하게 여길 만한점을 본 것이다. (… 중략 …) '열 사람이 사는 취락이나 세 家戶가 보는시장 사람들의 말이라며 평범하고 비루하니 모두 취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한마디로 단언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246)

이는 긍정할 만한 일을 긍정하고 비판할 만한 일을 비판하면 해당 논평을 한 자는 군자가 되고 긍정할 만한 일을 비판하고 비판할 만한 일을 긍정하면

<sup>245)</sup> 정태현·김병애(2020:346), "左氏世傳以爲魯史, 則魯其父母之邦也. 其載華耦來聘, 無故揚其先人之惡以辭宴, 乃繫之曰 魯人以爲敏. 左氏之意, 豈不以耦之辭令, 魯人之所誇, 而非君子之貴乎? 耦之言, 少知禮義者, 皆知賤之. (… 중략 …) 概稱魯人以爲敏, 是謂魯空國無君子."

<sup>246)</sup> 정태현·김병애(2020:343-349), "昔吾夫子亦嘗稱魯矣. (… 중략 …) 一言而待魯爲君子, 左氏一言而待魯爲小人. 人心之不同如是哉. 魯一魯耳, 夫子以夫子之心觀之, 故見其可稱, 左氏以左氏之心觀之, 故見其可鄙. (… 중략 …) 迺若十人之聚, 三家之市, 凡鄙汚下, 皆無足取. 斷之一言, 不亦可乎."

해당 논평을 한 자는 소인이 된다는 말이다. 본 편에서 '左氏'는 비판받아야 할 華耦의 언사에 대해 魯나라 사람의 입을 빌려서 긍정했으므로 魯나라 사람을 소인으로 만들었다. 만약 '左氏'가 魯나라 사람을 군자로 만들고 싶었다면 華耦의 언사를 비판했어야 했다. 결국 여조겸이 문제로 삼은 것은 '魯人'이라는 표현이 아닌 '魯人'이 한 평가였다.

이러한 논리를 앞에서 다뤘던 '左氏'가 군자의 입을 통해 비판할 만한 일을 내용 혹은 대상의 측면에서 잘못 비판한 경우와 긍정한 경우에 적용하면 '左 氏'는 해당 발언을 한 군자를 소인으로 만든 셈이 된다. 또 '左氏'가 군자의 입을 통해 긍정할 만한 일을 긍정하고 비판할 만한 일을 비판한 경우는 해당 발언을 한 군자의 군자다움을 지킨 셈이 된다. 소인으로 만든 경우와 군자다움을 지킨 경우 모두 군자가 한 발언의 실질적인 주체를 '左氏'로 볼 수 있었으므로 결국 '左氏'가 스스로 본인을 군자로 만들기도 하고 소인으로 만들기도 했던셈이다.

①의 경우, 인용한 『左傳』 부분은 진 영공이 맹견을 풀어서 趙盾을 죽이려고 하자 趙盾이 맹견과 싸우며 물러난 이후의 상황이다. 조천이 복숭아후원에서 진 영공을 시해하자 진 영공의 위협으로 인해 도망가던 趙盾이국경을 넘기 전에 이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된다. 이에 태사가 "趙盾이 군주를 시해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조정의 신하들에게 보여주게 된다.

趙盾은 진 영공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으므로 시해하려는 마음이 들수 있다는 의혹은 무리가 아니며, 실제 시해자가 조카인 조천이라는 점, 국경을 넘지 않고 있다가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는 점에서 태사는 실질적인시해자로 趙盾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태사인 동호가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치켜세움과 동시에 趙盾도 동호가 직분을 지킬 수 있도록 군주를 시해하였다는 오명을 무릅썼다고 변호하는 논평을 한다.

⑦에서의 '君子'와 ⑩에서의 '魯人'과 다르게 '孔子'는 실존한 특정 인물을 지칭하므로 해당 기사에서 공자의 발언이 '左氏'의 간접 論事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左傳』에서 인용하지 않은 부분을 마저 살펴보면 태사가 趙盾의 군주 시해 의혹을 조정에서 폭로한 뒤에 趙盾이 부정하자 태사가

正卿의 직위로 도망가되 국경을 넘지 않았다는 점과 돌아와서도 역적인 조천을 토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압박하는 장면247)이 이어진다.

또한 이와 연관하여 趙盾에 대한 공자의 변호의 마지막에 "越竟乃免"이라는 부분의 해석에도 논란이 존재하는데248), 논란이 해당 발언이 실제로 공자가 한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여조겸은 이를 실제 공자의 발언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공자의 이름을 쓴 '左氏'의 발언으로 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左氏는 趙盾이 군주를 시해한 사건을 서술하면서 공자의 말씀을 기탁하여 "筆法을 위해서 악명을 수용했다."라고 하였으나 나는 속으로 (이것이) 공자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중략 …) 이는 趙盾에게 본래 군주를 시해한 악행이 없는데 역사를 쓰는 자가 筆法을 위해서 억지로 악명을 씌운 것이고, 趙盾도 또한 筆法을 위해 억지로 악명을 수용했을 뿐이라는 말이다. 어찌 성인이 붓을 잡은 자가 억지로 그에게 악명을 씌우는 것을 허용할 리가 있겠는가?249)

일반 사람들은 마음에 치우침이 있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성인에게 맡긴다. 치우침이 없으므로 안연이나 민자건과 같은 어진 사람이라고 하여도 죄를 덜어주지 않고, 도척이나 장각과 같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여도 죄를 더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성인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趙盾이 어진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떠나서 공자가 趙盾의 죄를 사면해 줄 리가 없으므로 해당 발언은 공자의 발언이 아니라고 여조겸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최소한 여조겸의 시점에서는 해당 발언이 공자의 이름을 빌려

<sup>247)</sup> 정태현·김병애(2021:97), "宣子曰 不然. 對曰 子爲正卿, 亡不越竟, 反不討賊, 非子 而誰."

<sup>248)</sup> 상세한 내용은 정태현(2018:30-32) 참조.

<sup>249)</sup> 정태현·김병애(2021:100), "左氏載趙盾之弑君, 託為仲尼之言曰 為法受惡, 吾切意 非仲尼之言也. (··· 중략 ···) 是盾本無弑君之惡, 作史者為法而强加之, 盾亦為法而勉 受之耳. 寧有聖人肯許秉筆者輙加之以惡乎?"

쓴 '左氏'의 직접 論事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봤던 비판할 만한 점을 비판한 경우인 ⑥과 비교하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해당 편은 네 개의 『左傳』기사를 인용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도입부의 구조가 비슷함을 규명했었다. 후반부의 구조를 마저 살펴보면 앞의 세 개는 魯나라가 윤달을 잘못 설정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한 '左氏'의 직접 論事로, 뒤의 한 개는 공자의 논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생각해보면 비판할 만한 점을 적절하게 비판했으므로 공자의 논평이실제 공자가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특정 인물의 입을 빌린 간접 論事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네 개의 기사가 유사한 구조 및 내용을 띄며 다수인 세 개의 기사가 '左氏'의 직접 論事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네 개의 기사에 등장하는 논평이 모두 이치에 부합하여 성인의 언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 본문에서 여조겸이 공자와 '左氏'의 논평을 나란히 나열하고 긍정하고 있다는 점250)에서 둘의 실질적인 주체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⑩에서 '魯人'의 실질적인 주체에 대해 분석하면서 『左傳』에 '左氏'가 '君子'라고 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논평이 이치에 어긋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左氏'의 小人적 면모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비록 ⑪의 기사에서 '孔子'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左氏'의 小人적 면모가 발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여조겸은 『左傳』의 敍事, 간접 論事, 직접 論事에 대한 서술에서 '左氏'의 君子다운 모습과 小人같은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左氏'에게 군자다운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선왕의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춘추시대의 역사 기록을 서술하면서 단순히 敍事하는 것이 아닌 이치를 드러내어 論事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이렇게 『左傳』에서 '左氏'가 이치를 잘 드러낸 부분을 찾아서 긍정하고, 이치를 잘 드러냈어야 했던 부분을 찾아서 비판한 것은 3.2.2.에서도 언급했듯

<sup>250)</sup> 정태현 · 김병애(2020:52), "此魯歷之差, 仲尼之譏, 左氏之論, 未嘗不本於置閏也."

이 『左傳』의 모든 부분이 성인의 經典과 같지는 않지만 버금가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어 『春秋左氏傳』이라는 『春秋』와 『左傳』의 결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유지하려는 데 있었다.

## 4. 결론

본고는 『東萊博議』 自序의 첫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 과거시험 준비서라는 저술 목적이 여조겸이 진정으로 의도한 저술 목적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自序의 처음과 끝에서 과거시험 준비서로서 『東萊博議』를 저술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自序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 부분에서는 과거시험 준비서로서의 정체성과 관련이 없는 본인의 사상과 관련하여 저술 동기를 밝히고 있었다. 심지어 과거시험을 媒婆로, 유생을 郵遞夫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조겸은 『東萊博議』를 과거시험 준비서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본인의 사상을 담은 의론서로서의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저술했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였다.

실제로 중국의 선행 연구들을 확인한 결과, 『東萊博議』를 과거시험 준비서로서의 특징보다는 『東萊博議』에 담긴 여조겸의 사상에 주목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東萊博議』의 과거시험 준비서로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여조겸은 『東萊博議』의 과거시험 준비서로서의 특징을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학위 논문에서도 『東萊博議』 내부에서 근거를 찾기보다는 『近思錄』, 『左氏傳說』, 『古文關鍵』과 같은 여조겸의 다른 저서에서 찾고 있었다.

물론 여조겸의 여러 저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東萊博議』의 저술 목적을 찾는 것도 타당한 방법 중 한 가지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찾게 되면개인의 사상은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그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東萊博議』 자체에서 찾는 것이 우선해야할 작업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고는 『東萊博議』 판본의 간행 양상 및체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東萊博議』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과 『左傳』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조겸이 『東萊博議』에서 본인의 사상을 어떻게 전개했는지와 소재로 삼은 『左傳』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2장에서 『東萊博議』 판본의 간행 양상과 판본별 체례를 분석한 결과, 『東萊博議』의 판본은 168편의 全本, 86편의 選本, 이 둘을 합친 合本으로 구분할 수 있고, 송대부터 원대와 명대를 거쳐 청대에 이르면서 全本 계열의 판본은 감소하고 주석도 간략화되었으며, 選本 계열의 판본은 증가하고 주석도 간략화되다가 체례가 개편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全本 계열 판본의 주석은 典故와 字義에 관한 것이었으나 청대의 淸吟閣本에 이르러서는 아예 삭제되었다. 選本 계열 판본의 주석은 문장 기법에 관한 것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간략화되다가 청대에 이르러서는 아예 삭제되고 虚字註釋과 集評이 추가되는 체례의 변화를 보였다. 전자의 변화는 168편 全本 계열 판본에 대한 수요 감소를 보여주고, 후자의 변화는 수요의 증가와 지속적이고 적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역사적으로 『東萊博議』는 과거시험 준비서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용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1.에서 『東萊博議』의 문장 작법을 제재, 서술 방식, 문장관, 合本과 選本의 비교라는 네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여조겸이 『東萊博議』에서 추구한 문제는 論事體이며, 이는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는 敍事體와 달리 드러나지 않은 理致를 규명하는 내용 요건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左傳』에 실린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世俗 사람들의 의견이나 어중간하게 알고 있는 世儒의 의견을 비판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理致가 무엇인지 규명한 뒤에 『左傳』의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적용을 넘어일반적인 층위의 논의로 확장하는 형식으로 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3.2.에서 『東萊博議』속 여조겸의 『左傳』인식을 송대 과거제도에서의 『左傳』수용 양상, 『東萊博議』에서의 『左傳』인식이라는 두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송대의 과거제도에서는 『左傳』은 『春秋』와 결합된 『春秋左氏傳』이라는 형태로, 『公羊傳』과 『穀梁傳』보다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東萊博議』는 經義用 수험서이며 여조겸은 『左傳』에도 『春秋』와 같은 聖人의 經典에 버금가는 理致가 부분부

분 포함되어 있다고 여겼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는 『左傳』을 '左氏'가 敍事하기만 하고 판단하지는 않은 경우, 간접적으로 論事한 경우, 직접 論事한 경우 등의 세 경우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고 본고는 분석하고, 그 근거로 『東萊博議』 168편 중 '左氏'의 판단을 의론한 22편을 모두 분석했다. 여조겸은 敍事의 경우 '左氏'가 그 사건을 기재한 것 자체를 긍정하거나 비판했고, 간접 論事의 경우 특정 인물의 언행을 '左氏'가 직접 비판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으며, 직접 論事의 경우 특정 인물의 언행을 '左氏'가 논평한 것을 긍정하거나 비판했다. 이를 종합하면 그는 '左氏'에 대한 논평을 통해 『左傳』의 모든 부분에 聖人의 理致가 담긴 것은 아니지만 理致가 잘 드러난 부분도 있고, 『左傳』에 대한 비판적 독서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理致를 찾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自序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여조겸이 이러한 인식 위에서 추구했던 『東萊博議』의 저술 목적은 본인의 사상 전파 및 『左傳』의 위상 제고로 보인다. 본인의 사상 전파의 경우 본문의 논의에서 연상하는 것이 문제없으나 『左傳』의 위상 제고의 경우 본문에서 제시한 송대에 傳을 버리고 經을 탐구하는 풍조가 있었다는251) 근거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과거제도는 당시의 학술 흐름과 연관되어 있으나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3장에서 확인하였듯이 송대 과거제도에서의 『左傳』의 수용 양상은 정치적 상황의 영향도 분명 상당히 받았었다. 하지만 학술 흐름은 달랐으니, 『東萊博議』보다 조금 뒤에 간행된 陳德秀의 『文章正宗』을 보면 알 수 있다. 『文章正宗』은 『左傳』만을 대상으로 한 문집이 아니며 성격도 『東萊博議』와는 다르다. 다만 진덕수가 『文章正宗』의 綱目에서 『左傳』, 『國語』, 『公羊傳』, 『穀梁傳』 등의 傳을 『春秋』, 『詩經』, 『書經』 등의 經과 구분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는 점252)은 『春秋』와 『左傳』을

<sup>251) 『</sup>左傳』의 경우 『春秋』와 붙여 공부하는 것의 부적절함부터 '左氏'의 구체적 존재, 『左傳』 내용에 대한 劉歆의 위조 등의 논란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俞樟华·林怡(2005:28-33) 참고.

<sup>252)</sup> 陳德秀(1979) 『文章正宗』,臺灣商務印書館, pp.1-2. 제해성(2017) 「『文章正宗』의 편

분리하던 당시의 학술 흐름의 영향을 받았음을 수 있다.

물론『東萊博議』와『文章正宗』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위에서 말한 내용만으로『文章正宗』에서의『左傳』인식을 구성할 수 없는 것도 맞다. 그러나 본문에서 논의했듯이 여조겸이『東萊博議』自序의 마지막에서 "무릇『春秋』경문의 뜻은 대략이라도 감히 참람하게 의론하지 않았고 (『左傳』의) 지엽적이고 혹 같은 말(에 대해서 의론한 것)은 擧子가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데 보탬을 주고자 함이다."라고 언급한 것에서의『左傳』에 대한 표현이『左傳』에 대한 謙辭였다는 점을 고려하면,『東萊博議』는『文章正宗』에 비해『左傳』의『春秋』와의 연결성을 강조했다는 판단의 근거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찬체제와 진덕수 문체론의 독창성 연구」, 『중국어문학지』제59집, pp.87-106. 綱目에 대한 해석은 부록에 넣었다.

# 【참고문헌】

#### 1. 자료

呂祖謙, 『新刊詳増補註東萊先生左氏博議』,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청구기호 貴1235-61. \_\_\_\_\_\_\_\_, 『東萊博議』, 商務印書館藏板, 學民文化社, 1997. \_\_\_\_\_\_\_, 『東萊博議』, 商世界書局, 1984. \_\_\_\_\_\_, 『左氏博議』,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上海人民出版社. \_\_\_\_\_\_,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呂祖謙 撰, 서울大學校 所藏本, 청구기 호 181.1 L967j. \_\_\_\_\_\_\_, 『左氏傳說』, 金華叢書本, 中華書局, 1985. 陳德秀, 『文章正宗』, 臺灣商務印書館, 1979. 脫奪 等撰, 『宋史 二』, 鼎文書局, 1980.

#### 2. 국내 문헌

金诤、 『중국과거문화사』, 김효민 譯, 동아시아, 2002.

고지마 쓰요시, 『송학의 형성과 전개』, 신현승 譯, 논형, 2004.

王凱符, 『팔고문이란 무엇인가』, 김효민 譯, 글항아리, 2015.

정태현, 『譯註 春秋左氏傳 3』, 傳統文化研究會, 2018.

정태현·김병애, 『譯註 東萊博議 1~5』, 傳統文化研究會, 2012~2021.

黄鍾禧, 『宋元時代 학맥과 학자들』, 최석기 등 譯, 보고사, 2007.

정미선,「『東萊博議』를 활용한 한문과 교재 개발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19.

강길중, 「송대 과거제도의 개혁논의와 문화」, 『역사와경계』 제9집, 2014, pp.257-295.

백진우,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東萊博議』 수용의 의의」, 『한국한문학연구』 제54집, 2014, pp.173-208.

- 양승이, 「呂祖謙의 『東萊博議』「鄭伯克段於焉」을 통해 본 春秋學」, 『인문과학』 제52집, 2013, pp.179-199.
- 이재하,「『東萊博議』와 齊桓公論」, 『중국학』제30집, 2008, pp.233-258.
- 제해성,「『文章正宗』의 편찬체제와 진덕수 문체론의 독창성 연구」, 『중국어문학지』제59집, 2017, pp.87-106.

#### 3. 중국 문헌

- 刘雅静,「吕祖谦史鉴思想研究:以『东莱博议』为中心的探讨」,曲阜师范大学 硕士 学位论文,2014.
- 马晨唯,「『东莱博议』:以科举教材为中心的研究」,安徽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9
- 陈守富,「『东莱博议』的文章技法」,『阜阳师范学院学报』4, 1988, pp.42-49.
- \_\_\_\_\_,「『东莱博议』及其评点本」,『四川大学学报』 4, 1990, pp.53-39.
- 陈璋,「『东莱博议』中的理学思想」, 『朱子文化』1, 2020, pp.37-38.
- 程小青,「从『左氏博议』到『左氏传说』」,『福建工程学院学报』12, 2014, pp.116-120.
- 胡培培,「吕祖谦『左氏博议』的文本研究:以明正德安正堂刻本为中心」,『温州大学学报』11,2019,pp.78-83.
- 李昇,「南宋理学家编选『左传』风尚的形成及其文化成因」,『铜仁学院学报』 5,2015,pp.30-38
- 李卫军,「『左传』评点史述略」, 『兰州学刊』12, 2009, pp.203-205.
- 罗莹,「论吕祖谦『东莱博议』的文学示范意义」,『唐都学刊』27, 2011, pp.92-95.
- 彭洋, 「吕祖谦的社会控制思想研究: 以『东莱左氏博议』为例」, 『西部学刊』 5, 2020, pp.132-134.
- 孙巧云,「吕祖谦『左氏博议』中的君子修身论」,『晋中学院学报 31, 2014, pp.64-68. 王宇,「南宋科场与永嘉学派的崛起」, 『浙江社会科学』 2, 2004, pp.151-156.
- 魏刚·刘璐亚,「明代『左传』古文选本及其价值初探」,『学术探索』 1,2017,pp.126-133.

张卫中,	「吕祖谦『左传』研究论析」,『绍兴师专学报』1, 1992, pp.60-67.
,	「吕祖谦『左传』研究论析(续)」, 『绍兴师专学报』 2, 1992, pp.61-67.
朱宏秋,	「论吕祖谦『左传』学之经传观」,『河南图书馆学刊』29, 2009A, pp.125-128.
,	「浅论吕祖谦『左传』学之理说与心说」,『黄河科技大学学报』 11, 2009B,
	pp.56-58.

朱效梅·郑国民,「宋代科举考试与独尊儒术封建文化的关系」,『社会科学辑刊』4, 2000, pp.95-98.

慈波,「吕祖谦『左氏博议』版本源流述考」,『浙江社会科学』 8, 2016, pp.133-137. 俞樟华·林怡,「宋代『左传』学概述」,『古籍整理研究学刊』 1, 2005, pp.28-33.

#### 4. 데이터베이스(DB) 자료

동양고전종합DB(http://http://db.cyberseodang.or.kr)

Harvard Library(https://curiosity.lib.harvard.edu/chinese-rare-books)

中國基本古籍庫

# 〔부록 1〕『新刊詳増補注東萊先生左氏博議』本의 "主意" 보충

편명	권	시기	"主意" 내용					
「鄭莊公公叔段」			終篇以莊公用心之險 立說謂莊公陷叔段於					
	1	隱公	罪而斃之 猶釣者之誘魚 獵者之誘獸 其用					
「鄭莊公公叔段」	1	1년	心之險 至於擧朝擧國墮其計 天下後世受其					
			欺 可謂險之至矣 只一險字作終篇血脈					
「鄭敗燕」	1	隱公	以誠字爲一篇血脈 謂君子用兵一本於誠 彼					
「用兵」	1	5년	之詐計無自而入					
「陳五父如鄭涖盟歃如忘」			顯者隱之影 明者晦之響 春秋君臣當家庭隱					
\C\_		隱公	晦之時未嘗持敬 故一旦盟會聘享當顯明之					
「盟會聘享失禮」	2	7년	地 雖勉强修飾 終不能揜 所以啓當時旁觀					
			者之機					
「晉穆侯命二子名及晉封 曲沃」			嫡庶長幼之分天實爲之 晉穆侯於名子之除					
Мул	3	桓公	立意輕重 遂致曲沃覆滅宗國之禍 周王又從					
「晉封曲沃 曲沃倂晉」	3	2년	而封之 致使後世庶奪嫡少凌長 皆晉與周自					
			乱其天然之分 以致無窮之禍					
「齊侯見豕」		莊公	謂天下本無可妖之事 世俗特以耳目之所零					
「妖祥」	6	8년	罕接可指爲怪耳					
「齊魯戰長勺」		莊公	曺劌聞莊公察獄以情之說 遽遂許以一戰者					
「齊魯戰長勺」	10년	以人在縲絏之中拜君之賜 故效死以報也						
「季文子出莒僕」 23 文公			季氏竊魯國權自文子出莒僕之事					
「季文子出莒僕」	23	18년	于以MTE凶性日久   山口庆仁于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本을 참조하여 『新刊詳增補註東萊先生左氏博 議』本에 누락된 7편의 "主意" 부분을 보충하였다.

# [부록 2] 『文章正宗』의 綱目 번역253)

#### ◎綱目

정종이라고 이른 것은 후세의 문사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학자들로 하여금 그 원류의 올바름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예로부터 문장을 모아 수록한 책은 많다. 杜預나 摯虞와 같은 여러 문장가들은 종종 파묻혀서 전해지지 않는다. 지금 세상에 통행되는 책은 오직 梁 昭明太子 蕭統의 『文選』과 姚鉉의 『唐文粹』 뿐이다. 지금 그것을 살펴보면 이 두 책에서 수록하고 있는 바가 과연 모두 원류의 올바름을 얻은 것일까? 무릇 선비에게 있어서 배움이란, 이치를 다하고 쓰임을 지극히 하기 위한 것이다. 문장이 비록 배움의 한가지 일이지만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지금 집록하고 있는 것은 義理를 밝히고 세상의 쓰임에 절실한 것을 위주로 하였으며 그문체가 옛 문장을 근본으로 삼고 그 뜻이 경전에 가까운 것이라야 선록했다. 그렇지 않으면 문사가 비록 공교로워도 선록하지 않았다. 그 강목은 사명, 의론, 서사, 시부로 나누었다.

正宗云者,以後世文辭之多變,欲學者識其源流之正也.自昔集錄文章者衆矣.若 杜預摯虞諸家往往堙没弗傳.今行於世者,惟梁昭明『文選』姚鉉『文粹』而已.繇 今眡之,二書所録果皆得源流之正乎? 夫士之於學,所以窮理而致用也.文雖學 之一事,要亦不外乎此,故今所輯以明義理切世用為主,其體本乎古,其指近乎經 者,然後取焉,否則辭雖工亦不録.其目凡四曰辭命曰議論曰叙事曰詩賦.254)

#### ◎辭命

『尚書』의 문장으로 살펴보면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誥로, (… 중략 …), 둘째는 誓로, (… 중략 …), 셋째는 命으로, (… 중략 …), 왕의 말 중에서 중요한 것이 오직 이 세 가지이므로, 성인이 이를 기록하여 교훈을 보인 것이다. (… 중략 …) 문장이 조정과 천하에 선포된 것이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sup>253)</sup> 臺灣商務印書館本(1979:1-2)을 바탕으로 제해성(2017:87-106)에 인용된 綱目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의 해석을 참고하여 수정하였고, 인용되지 않은 부분은 직접 해석하였다.

<sup>254)</sup> 臺灣商務印書館本(1979:1)

없었으므로 지금 이것을 이 책의 처음으로 삼았다. <u>『尚書』의 모든 편은 聖</u>人이 지은 經典이므로 후세의 문장과 함께 수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u>다만 『春秋』內・外傳(『左傳』,『國語』)에 실린 '周天子</u>가 諸侯를 깨우쳐 알리는 문장'과 '別國이 왕래하며 응대하는 문장'은 선록하되, 아래로는 兩漢의 詔, 冊에서 그친다. (… 중략 …) 학자가 王言의 본체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尙書』의 誥, 誓, 命을 원조로 삼고 그것에 이 책에 실린 문장들로 참고한다면, 소위 정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書攷之其可見者有三,一曰誥,(… 중략 …),二曰誓,(… 중략 …),三曰命,(… 중략 …),王言之重,惟此三者,故聖人録之以示訓乎.(… 중략 …),文章之施於朝廷布之天下者,莫此爲重,故今以爲編之首.書之諸篇,聖人筆之爲經,不當與後世文辭同錄,獨取春秋內外傳所載周天子諭告諸侯之辭,列國往來應對之辭,下至兩漢詔冊而止.(… 중략 …),學者欲知王言之體,當以書之誥誓命爲祖,而參之以此編,則所謂正宗者庶乎其可識矣.255)

#### ◎議論

議論의 문장은 처음에는 정해진 체재가 없었다. 대저 '六經'과 『論語』 및 『孟子』를 원조로 삼는다. (… 중략 …) 그러나 성현의 큰 가르침을 후세의 저작이나 문장과 함께 수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春秋』 內・外傳 (『左傳』, 『國語』)에 실린 諫爭, 論說의 문장 및 西漢 이후 諸臣들의 上書, 疏, 封事의 문장을 선록하여 議論의 첫머리에 배치한다. 그들이 찬술한 바는 어떤 것은 의리를 펼쳐 밝히고, 어떤 것은 治道를 분석하고, 어떤 것은 인물을 포폄했다.

按議論之文,初無定體,(… 중 · · · ) 大抵以六經語孟爲祖,然聖賢大訓,不當與後之作者同録,今獨取春秋內外傳所載諫爭論說之辭,先漢以後,諸臣所上書疏封事之屬,以爲議論之首.他所篡述,或發明義理,或旉析治道,或褒貶人物.256)

#### ◎敍事

<u> 敍事는 옛 사관에게서 일어난 것이다. 그 형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왕</u> 조의 처음과 끝을 기록한 것으로 『尙書』의「堯典」,「舜典」과 『春秋』가 해당

<sup>255)</sup> 臺灣商務印書館本(1979:1)

<sup>256)</sup> 臺灣商務印書館本(1979:1-2)

하고 후세 史書인 『史記』의 '本紀'가 유사하며, 한 사건의 처음과 끝을 기록한 것으로 『尚書』의 「禹貢」,「武成」,「金縢」,「顧命」이 해당하고 후세 史書인 『漢書』의 '志記'가 유사하다. (… 중략 …) 『尚書』의 모든 편과 『史記』의 '本紀', '列傳'은 모두 재차 선록하지 않고, 다만 『左傳』, 『史記』, 『漢書』에서 敍事의 우수함이 즐길만한 것과 후세의 記, 序, 傳, 志에서 본보기가 되는 질박하고 근엄한 문장을 선록하여 작문의 형식으로 삼는다. 만약 史筆에 뜻이 있는 자가 마땅히 스스로 춘추대의를 마땅히 깊이 궁구하고 司馬遷 班固의 諸書를 참고해야 한다.

按叙事起於古史官. 其體有二, 有紀一代之始終者, 書之堯典舜典與春秋之經是也. 後世本紀似之, 有紀一事之始終者, 禹貢武成金縢顧命是也. 後世志記之屬似之, (… 중략 …) 今於書之諸篇與史之紀傳, 皆不復録, 獨取左氏史漢叙事之尤可喜者, 與後世記序傳誌之典則簡嚴者, 以爲作文之式. 若夫有志於史筆者, 自當深求春秋大義, 而參之以遷固諸書.257)

<sup>257)</sup> 臺灣商務印書館本(1979:2)

# [부록 3]『東萊博議』合本과 選本의 본문 구성 분석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1	1-1	隱1	鄭莊公共叔段	鄭伯克段於鄢	壁	共叔段	批	<u>負</u> , 責, <b>匿機, 養惡, 心, 險</b> , 興百念, 殺百弟, 罪, 大, 至	詩經,左傳
1	1-1	P忌1	<b>梨莊公共</b> 秋秋	中	言	鄭莊公	批	<u>險, 欺, 朝國天下後世, 先欺</u> 心, 身得志, 心傷無餘, 至拙	<b>耐經,</b> 工 <b></b>
2	1-2	隱1	潁考叔還武姜		理	穎考叔	批	天,人欲,理,心,知,體, 用, <b>廣</b>	史記, 家語
3	1-3	隱3	周鄭交惡	周鄭交惡	理	周,鄭	批	· 分, 並稱, <b>處身</b> , 知, 君子	
3	1-3	で配り	川州人心	中	生	左氏	批	刀, 虹带, <b>魔</b> 刀, 和, 石 1	
4	1-4	隱3	宋穆公立殤公	宋穆公立殤公 前,中	世儒	宋宣公	批	人、愛、奇高、君子、情同、 愛惡異, 反常, 怪, 過中, 偏, 曷嘗厭畏, 果, 先出, 國, 傳, 道, 未足, 必, 傳賢, 視, 見, 未至, 竊效	左傳
5	1-5	隱3	衛州吁		理	石碏	批批	見, 動, 情, 知, 理, 萌, 溺, 愛, 心, 形, 藏, 君子, 治	莊子

[부록 3]『東萊博議』合本과 選本의 본문 구성 분석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6.3		12.1	17 E 0	생략된 부분	' '	-11 0	-11-22	7 4 1	
				臧僖伯諫觀魚	-				通鑑, 左傳,
6	1-6	隱5	臧僖伯諫觀魚	   前	理	臧僖伯	批	禍, 理, 心, 畏, 信, 樂, 知	孟子, 周易,
				ים					莊子
7	1.7	7平-	施// □ / / □ :	用兵	TH	具的 乙烷	+1.1.	兵, 君子, 理, 知, 誠, 詐,	<b>⊬</b> 傭 由≒□
7	<u>1-7</u>	隱5	鄭敗燕	前,中	理	曼伯, 子突	批	盡	左傳, 史記
8	2-1	隱5	隱公問羽數於衆仲	隱公問羽數	理	魯隱公	肯	問,知,安,心,禮,聖人,	禮記,論語
0	2-1	ト思り	[ ] [ ] [ ] [ ] [ ] [ ] [ ] [ ] [ ] [ ]		埋	衆仲	批	盡,興盛	7豆苗4、苗州市市
						魯隱公	중립	。	戰國策, 史記,
9	2-2	隱5	隱公辭宋使		世儒			-	
						宋使	批	常情,正論,戒	左傳集解
				鄭伯侵陳		陳侯	批	常情,知,治,懼,忽,福,	論語, 史記,
10	2-3	隱6	鄭伯侵陳大獲	- , ,,	世俗			-	
				前, 中, 後(少)		左氏	肯	禍, 君子, 本, 末	晉書 등
						周桓王	批	君子, 論事, 明, 理, 見, 迹,	
11	2-4	隱6	鄭伯朝威王		理	周桓公	批		左傳
						左氏	批	知,敍事,實	
12	2.5	隱7	陳五父如鄭涖盟歃如	盟會聘享失禮	世俗	陳五父 등	批	觀人,隱,顯,畏,忽,君子,	
12	<u>2-5</u>	P忌 /	忘	前,中	世間	左氏	肯	意, 理, 欺, 露, 知, 影	
13	2-6	隱8	隱公問族於衆仲		理	衆仲	肯	知, 理, 常, 氏族, 所自	左傳, 漢書
1.4	2.1	75211	11年十二年		111.1/2	<b>名四八</b>	1E	服,直,理,爭,君子,心,	
14	3-1	隱11	滕薛爭長		世俗	魯隱公	肯	口,屈,曲,有其直,知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15	2.2	7平11	5万 <del>大</del> 四 平 市	潁考叔爭車	тШ	瀬考叔	批	理, 氣, 名, 物, 偏, 人, 全,	左傳, 孟子,
15	3-2	隱11	潁考叔爭車	中, 後(少)	理	左氏	批	推,孝,私,公,忠	禮記
16	3-3	隱11	齊魯鄭入許	齊魯鄭入許	理	齊侯, 魯隱	肯	共,患,利,畏,欲,處,功, 常情,心,專,推,盡	三國志,晉書,
				中,後		鄭伯	肯	, 市	
				息侯伐鄭				居, 理, 形, 影, 應, 知, 君	
17	3-4	隱11	息侯伐鄭	中	理	息侯	批	子, 常, 處, 安, 心, 奉, 陵,	論語
				1				知,治	
				羽父弑隱公		羽父	   批	<u>敗,爲義,重禍</u> , <b>輕國,推</b> ,	
								不亮,弑,戒,諱,道義,不	
					世儒			幸, 恃, 索然, 遜, 不亟, 形	左傳
18	3-5	隱11	羽父弑隱公					外, 因, 勉, 不盡, 勇退, 敢	
				中,後		魯隱公	批	至,不警,將,起疑,繼,極,	
								避禍, 自足, 怠, 實, 自恕,	
								假歲, 見責	
				<sup>1</sup>		臧哀伯	批	   篡,忠,治,賊,智,所告,	禮記,漢書,
19	3-6	桓2	臧哀伯諫納郜鼎	臧哀伯諫郜鼎	理	魯隱公	중립		
				中		魯桓公	批	觀,所處,所發,始,成	左傳,史記
			晉穆侯命二子名及晉	晉封曲沃曲沃		晉穆侯, 周		聖人, 知, 人力, 天, 分, 定,	
20	<u>3-7</u>		幷晉	理	百修庆,	批批	尊,賢,守,恃	左傳 등	
			71四八	前,中		ID-L		, x, y, IV	

[부록 3]『東萊博議』合本과 選本의 본문 구성 분석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21	<u>4-1</u>	桓6	楚侵隨		世儒	關伯比     隨侯     季梁     少師	批 批 肯 批	機, 匿, 知, 三至, 信, 望, 畏, 瀆, 人情, 不平, 微, 端, 根	戰國策
22	<u>4-2</u>	桓6	魯爲班後鄭	齊衛鄭戰于郞前	理	鄭忽	批	當,常,過,驕,反,心,惑,盡,躐,/志,氣,主,知	春秋,時經
23	4-3	桓6	鄭太子忽辭昏	鄭忽辭昏後(少)	世儒	鄭忽	肯後批	依, 自立, 窮, 常, 變, 安, 知, 掩, 充, 惑	左傳, 北史, 史記, 書經, 詩經, 論語
24	4-4	桓6	威公問名于申繻		理	申繻	肯	名子, 恐, 遠, 心, 推, 理, 盡, 審, 法, 戒	禮記,通鑑
25	4-5	桓10	王師伐虢	詹父以王師伐 虢 中	世儒	詹父 周桓王	批批	理,分,屈,信(伸),曲,直, 判,虚名,君子,正,省,知, 盡,道,合	國語, 孟子, 禮記
26	4-6	桓10	虞叔伐虞公	虞叔伐虞公 前(少),中,後 (少)	世俗	虞叔	批批	食, 吝, 恐, 名, 心, 嗜貨, 恕, 理, 念, 事, 求, 道, 厭, 失	論語, 通書, 中庸
27	<u>4-7</u>	桓11	楚屈瑕敗蒲騷	楚莫敖屈瑕 前(少)	譬	屈瑕	批	幸,效,推,端,自用,驕,常	晉書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28	<u>5-1</u>	桓11	祭仲立厲公	祭仲殺雍糾楚 殺子南 前	理	祭仲 雍姬 棄疾	批 批 批	君子,理,事,所惡,處死,知,難處,不遇,爲人	孟子,禮記
29	<u>5-2</u>	桓16	盗殺伋壽	盗殺伋壽	世儒	衛宣公 仮,壽	批批	氣, 彙, 無道, 天理, 常性, 賢, 君子, 祥, 異, 合, 知, 承, 資, 充	詩經
30	5-3	桓17	魯及齊師戰于奚		世儒	魯桓公	肯後批	邊境,憂,備,盡,賢	漢書, 左傳
31	5-4	桓18	威公與文姜如齊	桓公與文姜如 齊 前(少)	理	桓公,文姜	批	畏, 形, 欲, 禮, 知, 明微, 急, 君子, 寇, 城, 處, 勞, 安	禮記,詩經
32	5-5	桓18	辛伯諫周公黑肩		理	辛伯	肯	犯, 禍, 君子, 樞, 理, 尊, 王, 畏, 覇, 慢, 危, 棄, 亡, 約	左傳, 隋書, 通鑑, 漢書, 家語 등
33	5-6	莊4	楚武王心蕩	楚武王心蕩	理	楚武王	批	氣, 命, 心, 聖賢, 志, 帥, 蕩, 知, 治, 理, 剛, 天, 養,	孟子, 史記
				中		鄧曼	批	本, 浩然	
34	5-7	莊6	鄧三甥請殺楚文王	鄧三甥請殺楚 子	世俗	鄧三甥	批	天,氣,人,疾,理,咎己,	北史,尚書,
				中, 後(少)		周桀王	批	守,隣,知,釁,心	史記
				魯莊公圍郕				勇, 怯, 反, 近, 小勇, 大勇,	尚書,公羊傳,
35	5-8	莊8	魯莊公圍郕	前(少),中	理	魯莊公	批	敵, 心, 功, 辨, 校, 欲, 能, 義, 量, 力, 始	周易

[부록 3]『東萊博議』合本과 選本의 본문 구성 분석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36	6-1	莊8	齊侯見豕	妖祥	理	子路	肯	怪, 罕, 習, 理, 本, 心, 知, 道, 常, 接, 真, 所以然, 同,	論語, 孟子,
30	<u>0-1</u>	лто	月庆允亦	中,後	生	左氏	批	受 受	史記,周易
37	6-2	莊8	齊公孫無知弑襄公		理	公孫無知	중립	咎, 往, 扶, 傾, 論, 治, 患, 時, 君子, 防, 救, 知, 易,	漢書,三國志,
37	0-2	<b>州工</b> 0	月公1尔無州机袋公		垤	齊襄公	   批	分,情,彰,愛,孝,全	晉書
38	6-3	莊9	齊桓公入齊		世儒	管仲	肯	忘, 讐, 父, 主, 身, 疑, 死, 相, 定, 聖人, 所見, 假, 所 以, 知, 心, 名, 實, 從, 眞, 嫡	漢書
						曹劌	肯	迂, 儒, 武, 聽獄, 事情, 許,	史記,戰國策,
39	<u>6-4</u>	莊10	齊魯戰長勺	齊魯戰長勺	譬	魯莊公, 晉 士蔿	肯	束, 眞, 情, 劫, 散, 肆, 報, 時, 感, 切, 戰, 形勢, 所以,	家語, 周易,
				前,後(少)		柳宗元	批	本, 知, 理, 量	柳宗元,論語
40	6-5	莊11	禹湯罪己桀紂罪人		理	臧文仲	肯後批	近,善,惡,極,所以,歸, 人,己,心,念,學,病,驕, 怠,知,理,本,受,辭,脫	書經,論語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10		宋萬弑閔公	4	公孫述	批	待, 肅, 嫚, 豪傑, 法度, 不	後漢書, 孟子,
41	7-1	莊12	宋萬弑閔公	-	史	宋閔公 漢高帝	批 肯後批	測,鼓舞,拘,縱,窮,心,   知,誠	漢書, 史記, 詩經
42	<u>7-2</u>	莊10	息嬀過蔡		世儒	息嬀, 夏姬 巫臣	批批	色, 禍, 疑, 惑, 譽, 不祥, 知, 賢, 甘, 愛, 義, 險, 忠, 心, 納諫, 資, 養	史記, 詩經, 書經, 孟子
43	7-3	莊14	鄭厲公殺傅瑕原繁	鄭厲公殺傅瑕 原繁	理	楚共王	肯後批 批	國, 亡, 內寇, 惡, 成, 無助, 應, 中立, 罪, 知, 疑, 姦,	史記, 北史, 國語, 晉書,
		,,=	310,421,201,4	前,中		原繋	批	天, 警, 擇, 心	五代史,左傳
44	7-4	莊18	王賜虢公晉侯玉馬	王賜虢公晉侯 玉馬 前,中	聲	周惠王	批	<b>假</b> , 天, 守, <b>名分</b> , 君, <b>寄</b> , 所自立, 知, <b>禮</b> , 心, 厭, 僭, 儒, <b>尺</b> , 迂, 遏, 源, <b>勢</b>	書經, 左傳, 周易
						周惠王 등	批	定名,心,身(親歷), <b>蔽</b> ,怠,	
45	<u>7-5</u>	莊18	       		理	富辰	肯	鑑,縱欲,通,見,理,待,	詩經, 孟子,
<del>1</del> 3	<u>/-J</u>	元10	原莊公逆王后于陳		生	齊桓公	肯	薄,賂,曲,恃,直,情,親,	唐書, 國語
						晉文公	批	孝	

[부록 3]『東萊博議』合本과 選本의 본문 구성 분석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46	7.6	#F10	翔光 丘油	鬻拳兵諫	世儒	鬻拳	批	諫,憂,拒,當,君臣,己,	孟子, 漢書,
46	7-6	莊19	鬻拳兵諫	前	1 世倫	<b></b> 荀卿	批	人,善,從,道,盡,知,職,心,迹,刖,學,樞,陋,力	荀子
47	7-7	莊22	陳敬仲辭卿飮威公酒		业伙	陳敬仲	批	進,止,子孫,無窮,心,辭,	志山 巫聿
4/	7-7	<b>用主</b> ZZ			謝安	批	託,知,盡,滿,滅,慊,厭,極,過,量,稱,處	南史, 晉書	
			E22   懿氏卜妻敬仲	<b>卜筮</b> → 珊	舜, 禹 등	肯	· 先,幾,氣,無間,備,知,		
48	8-1	莊22			理 理	左氏	批	<b>心,發</b> ,煩,占筮,理, <b>疏</b> ,	孟子, 禮記, 周禮, 書經
40	<u>8-1</u>	<b>元工工</b>	跳八下安叭下	中	] 理 [	懿氏 등	批	· 求, 事, 信, 安, <b>自取</b>	
				.1.		穆姜 등	肯	冰, 争, 后, 女, <b>日以</b>	
				曹劌諫觀社		曹劌	肯	   史官,守,書,遺,記,端,	   左傳,
49	8-2	莊23	曹劌諫觀社	自然和水配工	理	管仲	批	禮,籍,筆,分,春秋,因	至内,
				前,中		周定王	批	1豆,相,丰,刀,仓(八,口	201
				晉殺其世子申		驪姫	批	實,譖,開,隙,乘,子弟,	
50	50 8-3	班23			士蔿	批	間,對,習,知,造,心,術, 端,私,分,親,讐,愛,移,	孟子, 莊子	
				中		晉穆公	批	真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魯莊公	批		
			   莊公丹桓宮楹刻其桷					驕,疑,懦,弱,亡,示,知,	
51	<u>8-4</u>	莊23			理	季友	批後肯	基,禍,成,責,立,忠,愧,	左傳
			使宗婦覿用幣					理,身,國,本,所輔,節	
						荀息	批		
				管敬仲言宴				警, 駭, 畏, 疑, 正, 甚, 實,	
52	0.5	BB 1	管敬仲言於齊侯曰宴		ш <i>(</i> =	<b>左</b> 仙	   肯	窮,宴安,酖,毒,過,盡,	孟子, 周易,
52	8-5	閔1	安酖毒不可懷也	前,中,後	世儒	管仲 	月	知, 憂勤, 理, 習, 發, 君子,	大學
								果	
52	0.6	884	⇒≈ /-1-75 江L#日エト	齊仲孫湫觀政	TIII	ひながり	1E	觀, 政, 俗, 知, 救, 惡, 禮,	空海 後港書
53	8-6	閔1	齊仲孫湫觀政	前(少),中	理	仲孫湫	肯	本	家語,後漢書
5.4	0.1	EEA	贞之医太巫		礕	虢公	批	理、怪、知、恃、智、功、機、	
54	<u>9-1</u>	閔2	舟之僑奔晉		普	舟之僑	批	藏,議	
55	0.2	閔2	衛懿公好鶴	衛懿公好鶴	世儒	衛懿公	批	臨,患,所用,所養,處,其	史記,戰國策
33	<u>9-2</u>	対2	倒懿公好悔	-	世価	倒懿公	111.	據	文記, 製図束
56	9-3	閔2	里克諫晉侯使太子伐	晉里克	理	   里克	  肯後批	資,害,處,兩全,勝,柔,	大學
30	<u>9-3</u>	[×]Z	東山皋落氏	前, 中, 中2	生	上元	月饭ル	剛, 中立, 恕	八子
57	9-4	閔2	齊侯戍曹遷邢封衛	齊侯救邢封衛	理	   齊桓公	   批	王,伯,憂,喜,亂,功,名,	孟子, 莊子
51	<del>2-4</del>	12,12	月 (人)次日心(PF) 南	前(少)	生	, , , , ,		養, 萌, 著, 心	шт 1, лт 1
						衛文公	肯		
58	<u>9-5</u>	閔2	衛文公大布之衣		理	左氏	肯	治,法,盡,意,體,守,廢	
						楚平王	批		

[부록 3]『東萊博議』合本과 選本의 본문 구성 분석

비중	નો <del>જ</del> ને	) <del>   </del>	스士 퍼머	選本 편명	n に	ell ∧L	-D)	최 시시	01.0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晉荀息請假道於虞以			虞公 등	批	   諫, 喩, 爲, 待, 改, 當, 利,	
59	<u>9-6</u>	僖2			理	宮之奇	批		
			伐虢 			荀息	批	冒,害,謀	
(0)	0.7	/告2	<b>泰土</b>   勿泥庇	齊寺人貂漏師	山海	<b>宏仙</b>	+114	伯, 約, 分, 樂, 權, 犯, 兆,	管子, 孟子,
60	<u>9-7</u>	僖2	齊寺人貂漏師	中	世儒	管仲	批	急, 功利, 巧, 王	論語,莊子
61	10.1	信?	會陽穀謀伐楚	齊伐楚	理	齊桓公	批	心,安,治罪,正指,增,權,	
61	<u>10-1</u>	僖3	胃 物 叙	中	理	楚成王	批	報, 私, 誣, 僭	
62	10-2	僖3	<b>.</b>	鄭孔孫申侯	世俗	孔叔	肯	徇時, 僞, 忤時, 樸, 詭, 守,	妻4ፙ 由≐コ
02	<u>10-2</u>	1番3	定汉别	前	世俗	申侯	批	治, 亂, 抑, 全	書經, 史記
				林况改艺		弦, 黄	批	一禍,恃,戒,辱,保,責,機,	
63	<u>10-3</u>	僖5	楚滅弦	楚滅弦黃	譬	左氏	批		禮記
				-	齊	批	絶, 君子, 名		
64	10-4	僖7	   楚文王寵申侯	楚文王寵申侯	世儒	虢公	중립	愛, 知, 惡, 善, 蔽, 公, 近,	禮記,前漢書
04	10-4	晋/	定人工龍中佚	中	世而	楚文王 등	批	誤, 故, 能, 堅	1豆癿,刖,失百
				齊桓公辭太子					
	40.5	/t:=	→ 1 /	華	*111	her I.I.	Ti i	道,待,彼此,判,氣,專,	***** Z. Z
65	10-5	僖7	齊威公辭鄭太子華	前(譬), 中, 後	理	管仲 	批	心, 己, 本, 格, 制	論語,孟子
				(少)					
((	10.6	/吉o	₩ 中中中世界		井倉	里克	批	治, 戎, 性, 待, 恕, 侮, 怒,	通鑑, 詩經,
66	10-6	僖8	晉里克帥師敗狄		世儒	梁由靡	肯	辨,驅,懼,盡	漢書
								駭, 名, 遜, 統, 心, 表, 善,	
67	10-7	僖8	宋太子兹父請立子魚		理	宋襄公	批	强,遇,明,理,不息,高,	論語, 書經
								量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68	<u>11-1</u>	僖9	會于葵丘尋盟	葵丘之會	理	齊桓公	批	治,期,志、動,效,先,心,滿,常,王,息	孟子, 論語, 楊子
69	<u>11-2</u>	僖9	晉獻公使荀息傅奚齊		理	葡息         秦穆公         晉惠公         虢射	批 批 批 批	正、始、本、終、理、失、恕、救、報、過	
70	<u>11-3</u>	僖14	沙麓崩		理	ト偃 등	批	氣,運,天,兆,類,應,理, 一,所由,身	
71	<u>11-4</u>	僖18	楚子賜鄭伯金		理	趙姬 등 伯石 등 王述 등	肯 批 肯	· 予, 奪, 辭, 受, 苟, 復, 理, · 當, 反, 識, 名, 實	通鑑,孟子
72	<u>11-5</u>	僖18	邢人狄人伐衛	衛侯遜位激民 前(少),後(少)	理	唐代宗 등 衛靈公 등	肯 批	置,見,動,御,能,機,發,天,心,僞,素,純	莊子, 詩經, 通鑑, 新唐書
73	<u>11-6</u>	僖18	秦取梁新里	梁亡 前,中	理	梁伯	批	觀,治亂,天理,在,發,心,詐,良,所以,慊,繼	詩經, 書經, 莊子
74	<u>12-1</u>	僖19	宋公使邾文公用鄧子	用人祀神	理	宋襄公, 楚 靈王 등	批	間, 仁, 暴, 私, 幽明, 合, 原, 滌, 理, 通	孟子, 爾雅
75	12-2	僖19	衛旱伐邢		世俗	寗莊子	批	託, 疑, 信, 欺, 天, 具, 適, 必, 眞, 知, 理, 事	<ul><li>史記, 漢書,</li><li>後漢書, 禮記,</li><li>孟子</li></ul>
76	12-3	僖19	子魚宋公圍曹	宋人圍曹	壁	子魚	批	情,速,遲,固,厭,公利,本,所用,恃	大學

[부록 3]『東萊博議』合本과 選本의 본문 구성 분석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77	12-4	僖20	隨叛楚	隨伐楚	理	隨侯	批	憂, 我, 弱, 敵, 强, 論, 由,	莊子
''	12-4	音20	随	前(少)	埋	左氏	批	畏, 名, 實, 理	莊 ]
				宋公楚人戰于		黄帝 등	肯	兵,帝王,自許,迂,驗,道,	
78	<u>12-5</u>	僖20	宋襄公及楚人戰于泓	泓	世儒	宋襄公	批		公羊傳, 詩經
				前(少, 譬)		子魚	肯	料,事,疏,德,服,降,變	
				魯饑而不害		魯僖公	批	天,人,外,預,離,覆,理,	
79	12-6	僖21	魯饑而不害		理	臧文仲	批	· 發,觀,精,形	書經
				前(少)		左氏	批	万丈、崔兀、不同、バン	
80	12-7	僖21	 	成風請封須句	理	仲孫湫	批	澤,敎,俗,治,婦,黙周,	詩經,公羊傳,
80	12-7	1番21	成風請封須句	中	理	成風	肯	禮,禍,致,各,通	孟子
0.1	12.0	/生22	<b>幸</b> 巫 严 冲 冲	秦晉遷陸渾	-rm		1E/6/40.	召, 地, 人, 夷, 華, 類, 料,	新五代史,史
81	12-8	僖22	秦晉遷陸渾之戎	-	理	辛有 	肯後批	幾,盡,定位,禮,心	記
02	12.0	/生22	プロル白	子圉逃歸	山原	<b>宇</b> ば	+11.	謀,智,愛,理,眞,苟,盡,	
82	12-9	僖22	子圉逃歸 	前(少)	世儒	嬴氏	批 	夫婦, 兩全, 義	
83	13-1	僖22	生17日左右: 七人 TL.1777	魯卑邾不設備	世俗	魯僖公	批	常,勝,兵,極,力,理,恃,	世で 上値
0.5	13-1	TI音ZZ	邾敗魯於升陘 	前(反,譬)	世間	臧文仲	肯後批	形, 變, 操, 源, 己	莊子, 左傳
	12.0	/±00	鄭文夫人勞楚子入享		111.775	楚成王	批	見,先,形,晚,禮,別,敬,	
84	13-2	僖22	于鄭		世俗	叔詹	批	心,推,分,隱,明	
			<b>*</b>	成得臣郤獻子		范武子	批	滿,慾,極,忿,治,窒,懲,	周易, 左傳,
85	<u>13-3</u>	僖23	尹	V I I	理		tu.	止,資,位,防,誤,悖,靖,	詩經
			T	前(少),中		子文	批	功,仕	可從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86	13-4	僖23	晉懷公殺狐突	晉懷公殺狐突 前(少)	世俗	晉懷公	批	觀, 人, 己, 因, 切, 從, 堪, 嗜, 德, 名, 至, 堅	左傳
87	<u>13-5</u>	僖23	晉重耳奔狄至降服而 囚		世儒	狐偃 등 披,頭湏 晉文公 孔子	肯 肯 肯後批 肯	天, 化, 功, 安, 奪, 驕, 警, 覇, 資, 蔽, 止, 通, 息	孟子,禮記,
88	<u>13-6</u>	僖23	晉文公秦穆公賦詩	賦詩 中	理	晉文公 등	肯	理, 心, 遇, 力, 求, 眩, 真, 鑿, 盡, 經, 形, 全, 天機, 詩, 平	論語, 孟子, 莊子,詩經
89	14-1	僖24	介之推不言祿		世儒	介之推	批	爭功,超,風,誤,言,所發,借,正,泄,私,持,理,兩立,迹,心	論語
90	14-2	僖24	鄭伯使盜殺子臧	鄭子臧好聚鷸冠 前(譬),中	理	鄭文公子臧	중립 批	根, 遇, 物, 必發, 常情, 本, 感, 人, 念, 通, 動	史記,前漢書, 晉書,楊妃外
91	14-3	僖25	衛禮至殺邢國子	衛禮至爲銘 後	世俗	禮至 左氏 史官	批	- 壽, 金石, 託, 朽, 恃, 君子 - 之論, 銘, 載, 恥, 誇	大學, 周禮, 莊子
92	14-4	僖25	晉文請隧 啓南陽 등	周與晉陽樊溫 原攢茅之田 中,後(少)	史	数敬 周襄王 등 晉文公 衛人 孔子	批 批 批 批 計	强, 歸, 形勢, 損, 本, 德, 輔, 勢, 身, 氣, 盡, 王章, 全, 裔, 奪, 內臣, 外臣	左傳

[부록 3]『東萊博議』合本과 選本의 본문 구성 분석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93	14-5	僖26	展喜犒齊師		世俗	柳下惠	肯	緩,急,信,詐,情,誠,兩	史記, 淮南子
,,,		11120	/K II III III		ши	魯	批	全,用,所見	
94	14-6	僖26	   楚滅夔	楚滅夔	理		肯後批	氣,變,言,治,禮,所守,	孟子, 左傳,
74	14-0	百20	足1000	後	生	変	日区加	所出,端,忿,私,悖,遷	漢書, 論語
						孔子	肯	言, 會, 理, 折, 盡, 譎, 德,	
95	<u>15-1</u>	僖26	宋叛楚即晉		譬	晉文公	批	兼, 偏, 覇. 名, 實, 激, 心,	論語
						巫, 醫	批	形, 受	
						韓厥 등	중립		
96	15.0	僖28	   晉文夢與楚子搏		世俗	公孫强 등	중립	形,神,接,夢,想,因,理,	孟子,晉書,
90	<u>15-2</u>	1番48	日人罗兴定「将		世俗	子服惠伯	批	備,心,限	論語
						左氏	批		
						周	批	當,責,可,避,名,僭,實,	
97	15-3	僖28	晉侯作三行		世俗			地,人,軍,限,必,容,兼,	周禮
						晉文公	批	禮,踰	
						道家	批	身,寄,位,儒,居,德,禮,	三國志,後漢
98	15-4	僖30	   周公閱聘魯		理	儒家	批	着, 私, 公, 當, 去, 辭, 在,	書,晉書,左
90	13-4	音30	月公園特質		生	周公閱	肯		
						范鞅	批	外,恕	傳
				臧文仲分曹田		晉文公	批	利,處,貪,私,遲,忸,共,	漢書, 左傳,
99	15-5	僖31	   臧文仲如晉分曹田		理	重館人	批	動,親,義,盡,本心,失,	
99	13-3	一番31		前(少)	上生	臧文仲	批		
				FU(ン)		姜太公	肯	速,明善	中庸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100	15-6	僖31	晉作五軍以御狄		理	晉文公	批	善,盡,改,漸,未,力,不,誠,僞,巧,譎,良,分	禮記
101	16-1	僖33	先軫死狄師	先軫死師 中,後(少)	理	先軫	批	發,悔心,持,狠詐愚吝誇怠,累,厭愧怨咎念,勁,禮,血氣,所犯,所死,悖,狂,	
102	16-2	僖33	臼季擧郤缺		世俗	日季	肯	改, 治, 貞樂 觀, 所遇, 變, 公卿, 位, 求, 賢, 務, 思, 心, 職, 誠, 不 遇	
103	16-3	僖33	晉陽處父侵蔡 楚子上 救之與晉師夾道汦水 而軍		理	楚子上	批	國, 毁, 當, 辨, 身, 容, 處, 納, 校, 及, 勇, 公, 怯, 私, 不足	論語,家語
				相術		叔服	批	· 勢,敵,訟,屈,自卑,相術,	荀子, 莊子,
104	<u>16-4</u>	文1	周叔服公孫敖二子	中	理	荀卿   孔子	批	排,助,預,不足	家語, 論語, 中庸, 孟子
105	<u>16-5</u>	文1	閏三月非禮		理	<ul><li>魯曆官</li><li>孔子</li><li>左氏</li></ul>	批 肯	贅,閏,曆,實,本,理,損, 至,不,聖人之教,樞	周易,後漢書,公羊傳

[부록 3]『東萊博議』合本과 選本의 본문 구성 분석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106	16-6	文1	禁太子商臣弑成王		世俗	楚子商臣	批	言, 察, 驗, 難, 欺, 未, 已, 實, 心, 利害, 分, 正, 事,	書經, 家語, 史記, 新唐書
100	10-0	X1	定众】同臣柳戏工		巴伯	   楚子上 	批	信,疑,理,機,動	大ル、利店首
			晉襄公朝王先且居胥	晉侯朝王伐衛		管叔 등	批批	因,人,過,善,端,發,己,	孟子, 漢書,
107	16-7	文1	自表公朔工元旦店有     臣伐衛	前(史), 中, 後	理	漢高帝 등 晉襄公	批批	本, 名, 實, 心, 敬, 常, 言,	南史,大學
			上"入库"	(少)		說經者	批	意, 主	用义,八字
108	17-1	文2	禘太廟僖公		礕	夏父弗忌	批	斷,禮,人情,由,本,祀,	唐書, 左傳
100	1/-1	<u>X</u> 2	(中人/朝音公		冒	魯文公	批	尊,親,榮,蹄,愛,辱	周百, <b>工</b> 侍
								待, 同, 治, 異, 稱, 平, 禮,	
109	<u>17-2</u>	文4	出姜貴聘而賤逆		世儒	魯文公	批	宜, 責, 詳, 略, 心, 身, 觀,	周易, 左傳
								事, 眞	
						秦穆公	肯	傷,類,同,利害,職,闊,	
110	17-3	文5	楚滅六蓼		譬	共工 등	批	事情,心,時,理,對,合,	左傳
						臧文仲	肯	驗, 憂, 省	
111	17-4	文6	秦穆公以子車氏之三		世儒	・ ・ ・ ・ ・ ・ ・ ・ ・ ・ ・ ・ ・ ・ ・ ・ ・ ・ ・	   批	殉,忘身,勇,輕,厚,嫌,	
			子爲殉		→ III4		***	愛身, 理, 私, 實, 爲	
112	17-5	文6	季文子如晉求曹喪之		理	   季文子	  肯後批	患, 發, 備, 盡, 聘, 喪, 禮,	論語
			禮行					遭,迁,精,對,異,合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N				趙孟	批	恶, 義, 公, 私, 廢立, 心,	
113	<u>17-6</u>	文6	趙孟立公子雍		理	陳乞	批	· 誤,名,實,資,自絶,根, · 救	
						陽處父	批	私、惡、公、受、矯、示、匿、	
114	18-1	文6	陽處父改蒐 賈季殺陽		世俗	趙遁	批	機,存心,當,義,眞,無援,	晉書
114	10-1	又0	處父		四四	衛瓘	批		
						臾騈	肯	<b>讐</b> ,誤	
								怒,解,疑,辯,親,可,待,	
115	18-2	文7	宋昭公將去群公子		世俗	樂豫	肯	公, 私, 處, 嫌, 忿, 言, 身,	
								心, 棄	
								合, 患, 不得不, 所以, 同,	
116	18-3	文7	士會不見先蒐		譬	士會	肯	惡, 長, 正, 忍, 省, 義, 心,	漢書
								利, 公, 量	
				穆伯襄仲		商鞅 등	批	怨, 專, 報, 忘, 擯, 權, 偏,	
117	18-4	文7	   穆伯取己氏	1多旧表1下	世儒	老聃 등	批	奪,釋,全,天,離,私情,	孟子
117	10 1	~'		前(少),中	155 1110	惠伯	肯	一 纯, 化	. mr. 1
				114(2),		舜	肯	* '	
			   酆舒問趙衰趙盾於賈					疑, 觀, 蔽, 求, 心, 目, 似,	   禮記, 孟子,
118	18-5	文7	季		理	賈季	肯	公,後世,古人,迹,量,矯,	後漢書
			4					邦, 主	以次日
			   晉郤缺言於趙宣子歸					急,聽,緩,言,强,自,同	
119	<u>18-6</u>	文7			理	郤缺	肯後批	遊,利害,內外,心,悟,理,	書經
			衛地 					無古今, 止	

[부록 3]『東萊博議』合本과 選本의 본문 구성 분석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120	<u>19-1</u>	文8	宋襄夫人殺昭公之黨	宋蕩意諸 前(少)	理	宋蕩意	肯後批	待, 寬, 論, 盡, 恕, 明, 刻, 借, 人, 攻, 我, 言, 心, 發, 主, 當, 去, 晚, 兆, 官, 族	論語, 書經, 詩經
121	19-2	文8	箕鄭父殺先克		世俗	先克       左氏       陽處父       晉襄公	肯 批 批 批	遇禍, 蔽, 不幸, 時, 由, 知, 義, 守, 職, 避, 命, 出, 未, 擅, 救, 不誅	書經, 荀子, 左傳
122	19-3	文9	范山說楚子圖北方	楚范山請圖北 方 前,中,後(譬)	世俗	晉靈公 范山	批	觀, 地, 勢, 近, 詳, 遠, 略, 情, 理, 蔽, 明, 萌, 兆, 所 及, 巧, 跡, 心	宋史, 後漢書
123	19-4	文10	楚范巫矞似謂成王子 玉子西皆强死		世俗	范巫	批	情, 嗜, 怪, 從, 僞, 私心, 實, 理, 心, 事, 虚, 久, 難, 不足	左傳,大唐西域記
124	<u>19-5</u>	文10	楚文無畏戮宋公僕	楚文無畏戮宋 公僕 前(敷), 中	理	無畏	批	名, 幸, 外, 似, 實, 不然, 竊, 求保, 取辭, 直, 借, 威, 期, 使	左傳,通鑑
125	19-6	文11	叔孫得臣獲長狄僑如	長狄 後(假)	史	長狄	批	形,不足,恃,私,罪,鑪錘,暴,心,賦,制,保	國語, 莊子, 禮記,前漢書, 新唐書,史記, 詩經,孟子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126	20-1	文12	秦伯使西乞術來聘		世儒	西乞術	肯	情, 待, 責, 厚薄, 謗, 譽, 名, 實, 榮, 辱, 禮, 對, 形,	詩經, 左傳
120	20-1	又12	· 亲口医四乙的术病		ഥଲ	聖人	肯	石, 貝,木, 守, 恒, 妇, 心, 影	时程,任日
						士會	肯	觀,理,無間,滯,宗國,謀,	史記, 漢書,
127	<u>20-2</u>	文12	隨會料晉帥		理	公山不狃	批	全,一事,事事,治,長絶,善善遇,盡,直,隱,欺,辭,	左傳, 孟子,
						顏淵, 舜	肯	推	論語
			晉使魏壽餘僞以魏叛			士會	批	忍棄,信義,詐,終身,決,	
128	20-3	文13	以誘士會		世儒	溫嶠	批	命,身,國,免,納,危,累, 歸惡	晉書, 莊子
			魏壽餘履士會之足於			士會	批	喩, 言, 恨, 悟, 遲, 聽, 駭,	詩經, 左傳,
129	20-4	文13	朝		世儒	孔子, 孟子	肯	談, 遽, 心, 工, 切, 移, 道, 遇, 理	通鑑
								並,擇,一,責,知,晚,獎,	
130	20-5	文14	趙盾納捷菑于邾		世俗	趙盾	肯	改, 勇, 執, 專, 避, 就, 名,	史記
				17 / T T + + + 18		÷/1	tu.	實	
				周公王孫蘓訟		商紂王	批	聽訟,由,權,昌亡,道,衰,	社級   抑河車
131	20-6	文14	周公王孫蘓訟于晉	于晉	史	周文王	肯	無恥,陽,實,不足,未盡,	詩經,柳河東
				前(譬)		周匡王 晉	批 批	失	集

[부록 3]『東萊博議』合本과 選本의 본문 구성 분석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晉文公	批	情, 常, 安, 受, 施, 報, 享,	
132	21-1	僖30	晉侯秦伯圍鄭		理	秦穆公	批	矯, 責, 傷, 忘, 全, 繼, 過,	
								反, 釁	
133	21-2	僖32	秦穆出師襲鄭		理	燭之武	批	利,合,離,心,開,釁,輕	左傳, 三國志
155	<u> </u>	晋32	宋/沙山叩农科		生	秦穆公	批後肯	絶, 窒, 分, 專, 懲, 修	工序, 二四心
						臧文仲	肯	   同言,同事,權,事,人,禮,	
134	21-3	僖33	齊國莊子聘魯郊勞贈		理	女叔齊	肯	(人) (人) (人) (人) (人) (人) (人) (人) (人) (人)	論語, 孟子,
154	<u>21-3</u>	1533	賄禮成而加之以敏		/±	魯昭公	批		左傳
						孟僖子	肯	時,攻,異	
				狼瞫死秦師		狼瞫	批	變, 譽, 毁, 抑, 怒, 私, 發,	
135	21-4	文2	狼瞫死秦師	7区中少山朱印	理	賈季	批	公, 義, 責, 名, 忠, 實, 愧,	
				前, 中		左氏	批	嚴,當,止,職	
				楚人滅江		子頹 등	批	懼、利害、外、滅國、處、危、	
136	21-5	文4	楚人滅江秦伯降服	前(譬), 中, 中	理	秦穆公	肯後批		左傳
				2, 後(少)		余修公	月1友1儿	中,悔,還,充	
								心疾, 可, 不可, 貴, 賤, 餘,	
137	21-6	文13	隨會能賤而有恥		譬	士會	肯	廉,不足,苦,高,卑,易,	史記
								能賤,無恥	
				陽處父		孔子	肯	易,喜,厭,盡發,外,中,	
138	22-1	文5	寗嬴從陽處父		礕	陽處父	批		家語, 史記
				前,中,後		寗嬴	肯	無餘,速,不能留,剛,知幾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139	22-2	文13	邾文公遷於繹		理	太史 邾文公 左氏	批 肯	理, 事, 不對, 亟, 捨, 就, 危, 驗, 幸, 知命	北史,後漢書, 唐書
140	22-3	文14	齊公子商人馳施於國		世俗	齊昭公	批	治, 無隙, 相拒, 所由, 物, 動, 心, 乘, 實, 開, 本, 無 惡, 示, 利	書經
141	22-4	文14	楚鬪克公子燮作亂		理	闘克 등 楚莊王	批 批	理, 常, 事, 適, 疑, 君, 公, 不可再, 明, 度, 私	書經
142	<u>22-5</u>	文14	單伯請子叔姬		譬	單伯 公羊傳, 穀 梁傳 左氏	肯 批 肯	未判,疑,後儒,責,淫,爵位,推,心	左傳,公羊傳,穀梁傳
143	22-6	文15	宋華耦辭宴	宋華耦辭宴 前(詩), 中, 後	理	華耦 孔子 左氏	批 肯 批	· 立言,未輕視,無故,揚惡, 觀,所存,心,變,理,接	
144	22-7	文15	公孫敖二子		理	二子 孟獻子 左氏	批批批批	- 移, 權, 天屬, 尊卑, 常分, 愛, 敬, 見, 人爵, 忘	
145	23-1	文15	齊人侵西鄙		理	季文子	批批	言,此,觀,彼,無心,眞, 察,旁,取守,開,閉,分, 心,未安,改過	周禮, 書經, 唐書, 莊子 등
146	23-2	文16	楚大饑庸人帥群蠻叛 楚		理	蔿賈	肯	豊歉、强弱、人、天、權、謀、難回、勢	通鑑 등

[부록 3]『東萊博議』合本과 選本의 본문 구성 분석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147	23-3	文17	鄭子家爲書告趙宣子		辟言	晉 楚	批後肯批	理, 厚, 養, 薄, 求, 畏, 力, 不及, 直, 過任, 抗, 恐, 告 語, 迹, 心	
148	23-4	文18	<b>邴</b> 歌 間 職 弑 齊 懿 公		理	齊懿公	批	常情,外,公族,弑,君,薄,推,己情,小惠,不足恃	三國志,南史
149	23-5	文18	襄仲殺惡及視及叔孫 惠伯立宣公		理	叔孫惠伯	批	亂, 形, 志, 助, 討, 宜, 撫 機, 不發, 殉國, 援, 義, 感, 惡, 徒善	左傳, 論語, 孟子
150	23-6	文18	季文子出莒僕	季文子出莒僕 前(少),中	世儒	季文子	批	道, 衰, 權, 移, 見, 禍, 竊, 由, 借, 名, 閟, 術, 當, 試, 言, 意	三國志,唐書
151	<u>23-7</u>	文18	宋公殺母弟須及昭公 子	宋昭公子武氏 族 前(敷, 譬), 中	世俗	宋昭公	批	是非善惡,辨,子孫,定,君, 天,本心,物,迫,怨,思, 乘,悔,改	書經, 國語, 左傳
152	24-1	宣1	晉不競於楚		世俗	晉靈公 荀林父 左氏	批 批 批	推, 惡, 君, 不君, 賂, 無言 罪臣, 己, 實, 歸, 名, 知, 義, 忍, 分謗	
153	24-2	宜2	鄭人獲狂狡		理	宋襄公 狂狡 孟子	批 批 肯	邪說,辨,不得已,在,時, 行,根,重傷二毛,惑,所不 見,本,正,心	左傳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154	24.2	宣2	鄭伐宋囚華元	宋華元羊斟	理	羊斟	批	情, 厚薄, 疏親, 間, 享, 意, 食, 忿, 負國, 恕, 撫, 明, 誠, 不足	左傳
154	24-3			-		華元	肯後批		
155	24.4	宣2	晉趙盾侵鄭	楚鬪椒	理	趙盾	중립	物,順,逆,觀,不見,凶, 明,汰,退,益疾,理,不當, 所以然,養,納,意善	
155	<u>24-4</u>			-		闘椒	批		
150	24-5	宣2	晉靈公不君			晉靈公	批	亂,常,基,微,成,著,知 幾,暴,已久,未著,靜,待,	14/m m +
156					理	趙遁  批  形,	形, 示弱, 誘, 聲, 晚, 通, 保養敬	詩經,晉書	
	<u>24-6</u>	宣2	晉趙穿弑靈公			趙遁	平,弑君,爲法受惡,實起 正氏 批	心,偏,委,是非,聖人,公	
157					礕	左氏		平,弑君,爲法受惡,實起,不討遣迎,不辭,法所當,託	
						董狐	肯	誤,潛有所待	
158	24-7	宣2	晉成公爲公族		理	周武王 漢高祖 등 晉成公	肯 批 중립	興廢,治亂,法,良弊,除, 未盡,無公族,復,離,不恤	書經, 左傳, 漢書,新唐書
						晉文公	批	」 小血,無 4/仄,1友,触, 小皿	(天日, 利)百百

[부록 3]『東萊博議』合本과 選本의 본문 구성 분석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159	24-8	宜3	楚子問鼎	楚子問鼎 後(譬)	理	王孫滿	批	抗强排大,喜,今,憂,他日, 辯口,幸,開,先文後德,欺, 矜,不能屈,虚辭,不可恃, 怠	詩經, 左傳, 莊子
160	<u>25-1</u>	宣4	鄭公子宋公子歸生弒 靈公		辟言	公子 宋, 歸生, 鄭靈公	批	養心,失正,變千,戒恐,存 誠,戲,懲,微,因召,怒, 染指,心變,懼,謀弑,拒, 脅,與,治情性	
161	25-2	宣4	楚箴尹克黃不棄君命	楚箴尹克黃 前(史),中,後 (少)	理	箴尹克黄 楚子	肯중립	正義,謀利,明道,計功,儒 本,出使漏網,犯死復命,陽 結死陰取生,知有君就義, 宥,憫無後	
162	<u>25-3</u>	宣6	赤狄伐晉圍懷	荀林父伯宗	理	荀林父 伯宗	批批	事非心是, 無, 事是心非, 有, 待衰, 疾民盈貫, 討罪, 敬德固命, 成惡, 懼治, 心不 善, 累	論語, 詩經, 史記,漢書
163	25-4	宣6	鄭公子曼滿欲爲卿		理	孔子 王子伯廖	肯 批	內闇, 外求, 內虛, 樂內, 慕 外, 深, 急, 自藏, 不過取語, 未盡義	周易

번호	권편	시기	合本 편명	選本 편명 생략된 부분	서두	대상	태도	핵심어	인용
164	<u>25-5</u>	宣9	鄭伯敗楚		世俗	伍參	批	片言, 判, 議, 易決, 欲戰, 勝, 令尹, 嬖人, 國政大綱, 繫, 亂, 不務德, 力爭, 忠誠, 徇	
						楚莊王	批		
						孫叔敖	肯		
165	25-6	宣11	晉會狄於攅函		理	晉大夫	批	己馴虜, 不過責, 旣, 又, 虐, 不容, 急悍, 緩馴, 召狄, 能 勤有繼, 屈己不勞	史記, 詩經
103	25-0				<u></u>	郤缺	肯		
166	25-7	宣11	楚子從申叔時諫復封 陳		理	申叔時	肯	言端,輕重,事君,無間,勢 心,隨,改移,縣陳,不亟諫, 求聽,口啓,喻,復封,渴, 知時,有餘,所養堅	
1.5	25-8	宣12	楚子伐蕭		理	   楚子 	肯	物,惠,粗,城,守,下,可 廢隳,名實相資,本末並用,輔,誠意,人和,中	書經, 詩經, 論語, 舊唐書
167						世儒	批		
	25-9	9 宣14	宣14 公孫歸父言魯樂	公孫歸父言魯		公孫歸父	批	因,去國之悲,懷,在國之	禮記. 莊子.
168				中 世	世儒	晏桓子	肯	樂,譽樂,棄常,嗜利,移於 物,忘反,樂在其中,不改其	
						孔子,顔子	肯	樂	

# 【中文摘要】

國立首爾大學 中文系 尹한舎

本文的主要研究目的是通过分析呂祖谦在≪东莱博议≫中的造句方法和对≪左传≫的认识,进而推断出呂祖谦写≪东莱博议≫的目的。

呂祖谦在≪东莱博议≫自序的第一部分中说道,他写这本书的目的是为了帮助儒生们备考。但是他在自序的中段又将科举考试比作了媒婆,把儒生比作了邮差。从这些论述中都不足以判断他写≪东莱博议≫的目的仅仅是为了帮助儒生们备考。因此,本文先是区分了≪东莱博议≫的作者和阅读对象,又区分了≪东莱博议≫的阅读对象从该书中将要获得的效用和已经获得的效用。在这里与前者有关的写作目的是外在的,而与后者有关的写作目的是内在的。本文的研究目的就是推断吕祖谦撰写≪东莱博议≫的内在目的。

为此,本文首先分析了≪东莱博议≫从宋代到清代各版的出版情况和 该书的体例,从外在的角度剖析了≪东莱博议≫的写作目的是为了准备科 举考试,并且笔者发现该书作为科举考试参考书的倾向更加明显。

为了更加具体了解上述情况和吕祖谦撰写《东莱博议》的内在目的之间的区别,笔者从两个方向进行了分析,分别是《东莱博议》的造句方法和对《左传》的认识。首先,为了分析造句方法,将《东莱博议》中的168部文章按照其讨论的主题、态度和关键词整理成表格,并在《郑伯朝桓王》篇中,吕祖谦以其自创的论事体进行了分析。所谓论事体,是指与实际叙述不同的,并揭示并未显现道理的文章。

在此基础上,笔者通过对<郑庄公共叔段>、<宋穆公立殇公>、 <羽父弑隐公>等三篇文章的细致分析,归结出了≪东莱博议≫正文的叙事方式。此外,将168篇和86篇的内容差异分为前半部、中半部和后半部,并将其整理为表格。把其中有代表性的篇章进行具体分析,从中得出了前半部和后半部删减的部分对整体产生了影响的结论。

其次,为了分析《东莱博议》对《左传》的认识,笔者首先了解了宋 代的科举制度。由此确认当时的《左传》不是单独存在的,而是以《春秋 左氏传》结合的形式存在,并且其地位高于《公羊传》或《谷梁传》。但 与科举制度的地位不同的是,在宋代学术思潮中,有舍传求经的倾向,这 也对当时学者质疑《春秋》与《左传》的关系有一定的影响。

吕祖谦在≪东莱博议≫168篇中的22篇里,将能够揭示左氏道理的部分给予积极的评价,而没有揭示道理的部分则给予了否定的评价。本文将这22篇分为了叙事、间接论事和直接论事三个部分,并逐一进行了分析。通过上述分析,可以确定吕祖谦的着重点在于左氏是否揭示了道理。

因此笔者认为吕祖谦在《东莱博议》中以《左传》为主题的目的是因为在宋代科举制度和学术思潮上存在差异。吕祖谦撰写《东莱博议》的内在目的是揭示《左传》的一部分内容中包含的仅次于《春秋》的道理,不仅如此,还告诉了读者要如何阅读除上述道理以外的部分,并强调了《春秋》与《左传》的关联性。这与后来陈德秀的《文章正宗》不同,他将《左传》与《春秋》分开,把《公羊传》和《谷梁传》联系了起来。

本文的研究结果可以给《东莱博议》的造句方法和对《左传》的认识 提供一些基本信息,进而帮助构成吕祖谦的《左传》认识。

學 號:2018-29002

關鍵詞:吕祖谦、≪東莱博议≫、≪春秋左氏传≫、造句方法